





연구보고 10-R13-1

#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 II: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임재훈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NC)

공동연구자 : 최윤정 (Columbia University, NY)

안소연 (Augustas College, IN)

윤소윤 (Purdue University, I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 차

I. 서론	1
1.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	3
1) 조기유학 통계	3
2) 한국 연구자들이 보는 조기유학의 발생원인	7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II. 이론적 배경	15
1. 연구 이론 정리	17
1) 계급 전략으로서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	17
2) 제 3의 문화 아이들 이론	19
3) 소수인종 /민족의 정체성 발달 이론	26
4) 조기유학과 세계시민성	34
2. 조기유학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35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선행연구 정리	36
2) 아시아계 청소년의 문화와 정체성 발달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44
III. 연구방법 및 도구	71
1. 연구대상 및 모집방법	73
2. 연구도구	75
1) 설문조사	75
2) 개별 인터뷰	77
3. 분석방법	79
1) 설문조사 분석	79
2) 개별 인터뷰 자료 분석	79

IV. 설문 조사 연구결과 .....	81
1.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 .....	83
1) 집단내 인식의 변화 .....	83
2)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 .....	84
3)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 간의 상관관계 .....	89
V. 지역별 질적 자료 분석 결과 .....	93
1. 뉴욕/뉴저지 질적 자료 분석 결과 .....	95
1) 자료수집소개 .....	95
2) 연구 참가자 소개 .....	96
3) 분석결과 .....	97
2. 아틀란타(조지아) 질적자료 분석 결과 .....	139
1) 자료수집소개 .....	139
2) 연구참가자 소개 .....	140
3) 분석결과 .....	141
3. 샬럿(동남부 일반 도시) .....	189
1) 자료수집소개 .....	189
2) 연구 참가자 소개 .....	189
3) 분석 결과 .....	191
4. 로렐(인디애나 주 대학 중심 소도시) .....	243
1) 자료수집소개 .....	243
2) 연구 참가자 소개 .....	243
3) 분석 결과 .....	246
VI. 지역간 비교 분석 결과와 주요 논의점 .....	295
1. 지역에 따른 조기유학생의 다양성 .....	298
2. 미국 학업 성적에 대한 자가 평가의 모순점 .....	301
3. 한인사회의 영향 .....	305

4. 조기유학 이후 성격의 변화 .....	308
5. 언어 적응과 다문화적 소양 개발 .....	311
6. 시민성 .....	314
7.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	317
VII. 정책 제언 .....	321
1. 한국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 .....	323
1) 한국 교육의 목적 재정립: 한국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강화 .....	323
2) 한국 사회내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배려와 수용 .....	325
2. 건설적인 조기유학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 .....	326
1)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확장과 강화 .....	326
2) 해외 한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국내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	326
3) 해외 한국 학교의 총체적인 개혁과 국내 학생 파견 학교로서의 활용 .....	328
4) 해외 조기유학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적인 이해와 홍보 촉진 .....	328
VIII. 참고문헌 .....	331
부 록 .....	345

## 표 목차

<표 II-1>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정체성 발달 모델 .....	31
<표 III-1> 연구 참가자 특성 .....	76
<표 III-2> 설문 문항 구성 .....	77
<표 III-3> 인터뷰 지침 구성 .....	78
<표 IV-1>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 기술통계 .....	83
<표 IV-2> 성별에 따른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차이 .....	85
<표 IV-3> 학교형태에 따른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의 차이 .....	86
<표 IV-4> 거주 지역에 따른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의 차이 .....	88
<표 IV-5> 거주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	89
<표 IV-6>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 간의 상관관계 .....	90
<표 V-1>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	98
<표 V-2>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	101
<표 V-3>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	108
<표 V-4>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	115
<표 V-5> 뉴욕/뉴저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	117
<표 V-6> 뉴욕/뉴저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	125
<표 V-7> 향후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	130
<표 V-8>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	132
<표 V-9>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	134
<표 V-10>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	143
<표 V-11>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	147
<표 V-12>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	155
<표 V-13>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	161
<표 V-14>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	163
<표 V-15>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차별 경험 분포 .....	173

<표 V-16> 향후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	177
<표 V-17>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	180
<표 V-18>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	182
<표 V-19>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	187
<표 V-20>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	193
<표 V-21>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	196
<표 V-22>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	211
<표 V-23>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	217
<표 V-24> 샬럿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	219
<표 V-25> 샬럿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	224
<표 V-26> 향우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	231
<표 V-27>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	232
<표 V-28>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	237
<표 V-29>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	249
<표 V-30>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	249
<표 V-31>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	265
<표 V-32>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	269
<표 V-33> 로렐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	271
<표 V-34> 로렐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	277
<표 V-35> 인디애나 주 대학 타운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	284
<표 V-36> 로렐 지역 연구 참여자들의 향후 진학 및 거주 희망지 .....	285
<표 V-37>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	287
<표 V-38> 로렐 지역 연구 참여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	289

## 그림 목차

<그림 I-1> 초중고 학생 출국/유학 학생 현황 .....	3
<그림 I-2> 연도별 조기유학 현황 .....	4
<그림 I-3> 시도별 초·중등학교 조기유학 현황 .....	5
<그림 I-4> 초·중등학교 조기유학 출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	6
<그림 I-5> 출국 학생들의 국가별 현황도 2007년 .....	7
<그림 II-1> 제 3의 문화 아이들의 문화적 위치 .....	20
<그림 II-2>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형 .....	24
<그림 II-3> 개방적 문화 공동체 모형 .....	24
<그림 II-4> 대만출신 청소년들의 조기유학 경험의 과정 .....	55

# I. 서론

1.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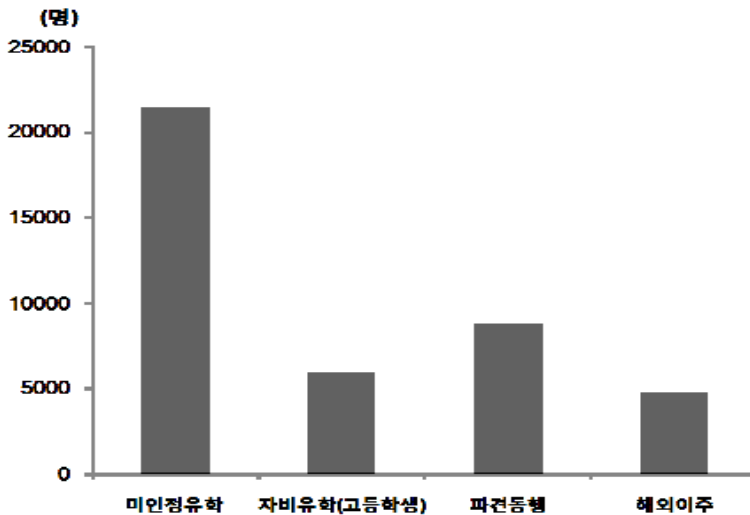


# I. 서론

## 1.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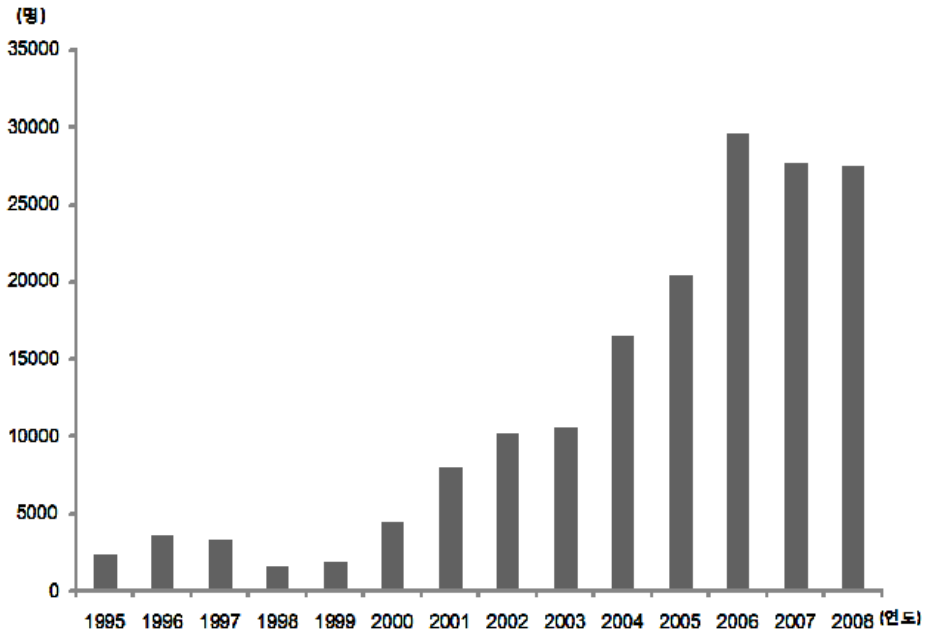
### 1) 조기유학 통계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간 교역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으로 외교 및 일부 국제 교역 분야에만 한정되어 극소수에 머물렀던 해외 장기거주 한국인의 수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국제화의 바람은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분야에도 끼쳤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은 분야중의 하나가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총 4만96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하였는데 이들 중 4천 788명은 해외 이주 사례이고 8천824명은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으로 출국한 경우였다(<그림 I-1>). 그 나머지 2만7천349명은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들의 수로 흔히들 “초중고등 학교 조기유학생” 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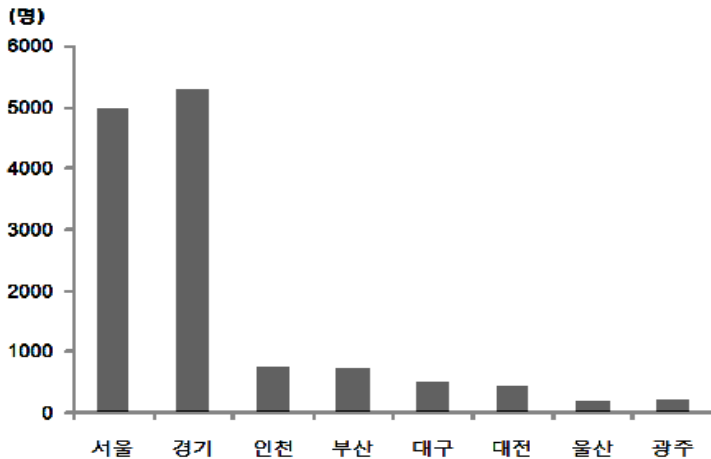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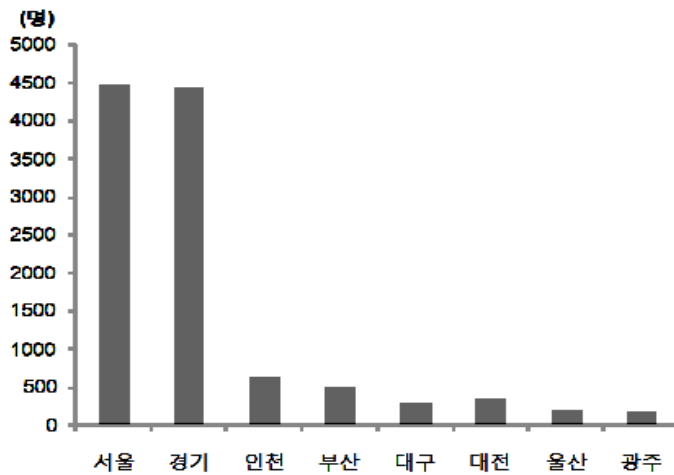
<그림 I-1> 초중고 학생 출국/유학 학생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9)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의 초중등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2259명에 불과하던 해외유학 목적출국 초중고 학생의 수는 1997년 3274명에 이르렀다가 IMF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한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 2002년 10,132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전년 대비 44.6%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도에는 총 29,511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2006년 이후의 통계는 조기유학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의 집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인 27,668과 27,349명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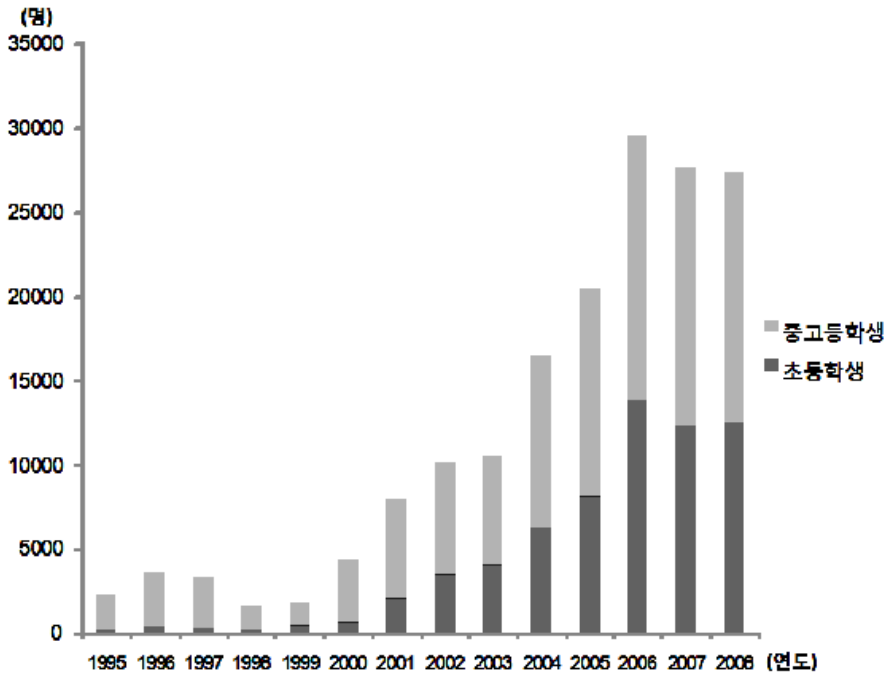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조기유학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9)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이러한 조기유학 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생 가운데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는 2008학년도(2008년 3월~2009년 2월)에 1만 215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학생 만 명당 유학생의 비율도 이들 서울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서울 지역의 중학생의 경우 만 명당 84명의 학생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3> 시도별 초·중등학교 조기유학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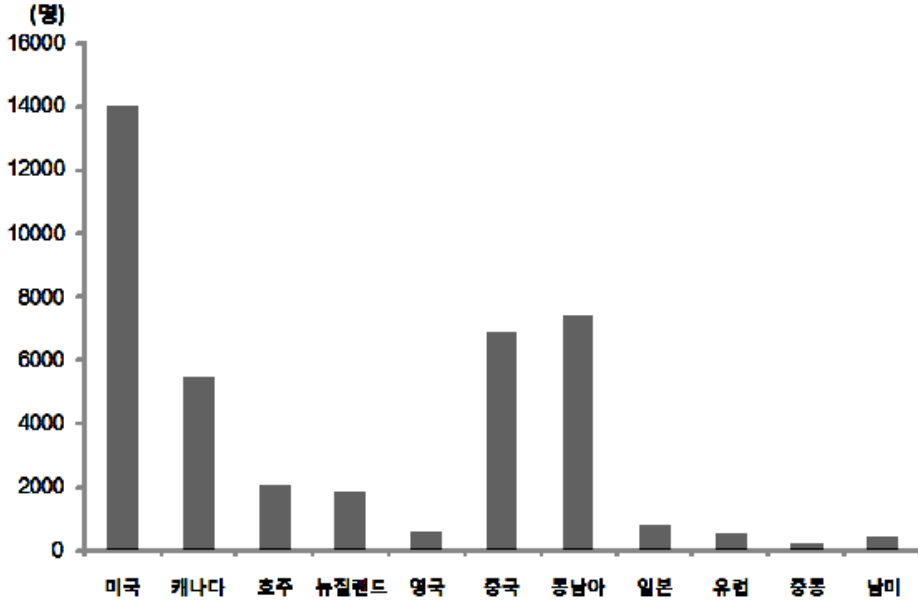
지난 수년 사이에 조기유학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995년 10%에 머물던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의 비율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장 최근인 2008년의 집계는 전체의 45%에 이르렀다(<그림 I-4>).



<그림 I-4> 초중등학교 조기유학 출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들 초·중·고 출국학생들이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는 국가들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권의 나라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최근 조기유학의 행선지로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2007학년도 전체 초중고 출국자 수(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포함)를 출국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 4천 6명이고 동남아가 7천421명, 중국 6천880명, 캐나다 5천453명, 호주 2천30명, 그리고 뉴질랜드 1천83명으

로 한국 학생들이 퍼져 있는 지역들도 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출국 학생들의 국가별 현황도 2007년

## 2) 한국 연구자들이 보는 조기유학의 발생원인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손준중 (2005)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를 떠나 외국으로 가는 행위를 ‘탈한국 현상’이라 부르며 네 가지 사회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한 탈한국 현상을 학습자의 교육권 측면에서 보는 견해, 둘째는 조기유학을 학부모와 학생의 합리적인 선택행위로 보는 관점, 셋째는 탈한국 현상을 한국 공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선택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유학을 계급재생산을 위한 전략으로 설명하는 관점이다.

강만철(2008)은 조기유학의 배경 요인 중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및 비판(17쪽)”을 들었고 사회 전반적인 차원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특히 영어) 교육 열망, 외국 대학을 선호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들었다(17쪽). 조기유학생의 많은 수가 기러기 가족 등의 부부 분거 가족의 형태를 발생시키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초국적인 부부 분거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연구들(오욱환, 2008)과 더불어 오히려 이러한 분거가족 형태를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변화하고 움직이는 적극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임양희·장은정, 2004)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조기유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관점 중의 하나는 조기유학의 주 원인을 교육 환경이 더 우수한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의 열망(한준상 외, 2002)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욕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학습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기유학을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견해는 한국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바탕으로 ‘개인’이 사회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교육을 받으려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한국 사회 안에서 희소성이 있는 외국 학력과 영어 구사력이라는 자본을 형성하려는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 조기유학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교육 비판으로서 조기유학을 보는 견해는 한국 교육의 제도적 폭력이나 부실함을 강조하면서 공교육 도피 수단으로서 조기유학 현상을 설명한다. 그 강조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 세 가지 관점은 모두 조기유학을 개인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장 연구들 역시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표명하는 것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교육체계와 세계화에 따른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해 조기유학이 불가능함을 설명한 조명덕(2000)의 연구와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

해 단기간 혹은 장기간 분거 가족 형태를 결정한 부모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가정 형태를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 혹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임양희와 장은정(2004)의 연구가 그 예이다. 천세영과 박소화(2008) 역시 사회적인 논쟁 속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조기유학 현상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부모의 의지가 반영된 사회 교육적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그 동안 조기유학의 이유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주도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초국적 교육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가 공교육의 수요였던 국민이 이제는 국가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국민교육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천세영과 박소화(2008)는 조기유학이라는 현상 자체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초국적 교육의 관점에서만이 올바르게 조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대부분 조기유학을 상류층 혹은 중산층 계급의 계급 전략으로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조은(2004)의 연구는 기러기 가족이 “영어되는 엄마”와 ‘돈 있는 아빠’의 조합을 기본 구도로 하며 아이들이 우선인 자식 중심의 부부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은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후속 연구(2006)에서 조기유학을 위한 기러기 가족 현상을 세계시장에서 필요한 문화 자본과 고용 기회를 극대화 하고자 한국의 전문직 및 중상위층 계층이 만들어낸 전략적 가족 형태로 보았다. 즉 세계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상층 계층이 상승적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초국적인 가족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또 이 연구에서 조은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가 부부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녀 중심적이고 도구적인 가족주의에 근거하며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동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이영민과 유희연(2008)은 한국의 강남지역과 한국 조기유학생의 다수가

거주하는 동부 일부 지역을 조기유학이 공간화되는 지역(아비투스)으로 설정하고 그 공간 안에서 조기유학생(가정)과 현지 교민 사회, 한국과 미국의 대학 입시 학원, 한국과 미국의 은행, 현지 가디언들이 만들어내는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영민 외는 조기유학이 표면적으로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탈공간화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기유학에 필요한 경제자본을 소유한 특정 계층과 그 계층이 향유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상류층 및 중산층의 계급적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계급성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조기유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조혜영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혜영 등(2007)은 조기유학생들의 유학 결정 과정을 배출요인과 흡입요인, 그리고 초국적 경험이 갖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개입 현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 교육 및 사회적 상황이라는 배출요인과 미국 교육 및 미국사회가 지닌 흡입요인은 이미 주어진 거시적 조건이지만 조기유학을 실제로 결정하는 미시적 과정에서는 부모나 가정이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최양숙의 두 질적 연구(2005, 2006) 역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내 자녀 잘 키우기”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한 부모와 자녀 간의 동일체감이 분거가족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심리적 기제라고 주장하였다. 2008년 발표된 최양숙의 연구는 분거가족 형태를 낳은 이유를 사회적 조건과 가족적 조건 양자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분거가족 형태를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원인은 첫째, 학벌/학력 중심적인 한국 사회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학업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둘째 요인은 세계화라는 사회적 물결 속에서 세계어로 인식되는 영어습득에 대한 열망이다. 동시에 분거가족 형태를 뒷받침하는 가족적인 조건으로는 동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과 가족 내 역학관계 등(한국 사회에서 자아실현의

기회가 배제된 여성들이 가진 자녀 성공에 대한 열망,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우선하는 역수직적 가족관계, 가족 성원 간의 갈등)을 지적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해마다 2만 5천명이 넘는 학령기 아동이 조기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나 교육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 현상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한국 교육의 배출 효과 때문인지 혹은 외국 교육 환경이 지니는 어떤 흡입 효과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학교나 사회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조기유학생이나 그 가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조기유학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 질적 연구로서 한 지역에 거주 수학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이나 그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대한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과연 그 한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었다. 조기유학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기유학생들이나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그동안 질적 방법론이 주로 쓰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규모 질적 연구가 지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조기유학 연구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강구할 필요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 지역이 다른 경우 드러나는 결과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조기유학 공간을 분석한 이영민과 유희연(2008)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움직

이는 경제자본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현상을 설명한 반면, 조혜영 등(2007)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개입이 조기유학 현상의 핵심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기유학 현상의 핵심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더 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형태의 연구가 절실했다. 따라서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의 조기유학 현상을 동시에 접근, 그 결과를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중-대규모의 질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러한 중-대규모 질적 연구는 또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하는 구조를 갖게 되므로 개인 연구자의 비생산적인 선입견이나 근거 없는 해석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그 결과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기유학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조기유학 현상에 대해 기술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석의 심도가 그다지 깊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기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가정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계획, 그리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학업상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의 중요함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이론적 구조에 입각한 분석적인 연구들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즉, 단순히 이들 조기유학생들이 해외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조기유학의 핵심 목적으로 늘 거론되는 다문화적 소양 계발이라는 측면에서나, 이들이 지니게 되는 국가적 정체성과 시민성이 과연 어떠한 형태이며 이 두 시사점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고 조기유학 현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쌓고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과 교육환경이 서로 다른 미국 4개 지역에서 총 59명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학업적, 사회적, 언어적 발달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서로 다른 지역사회환경과 학교환경 속에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계발하게 되는 다문화적 소양과 시민성 유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자본(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정과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자세히 살펴보았다.



## Ⅱ. 이론적 배경

1. 연구 이론 정리
2. 조기유학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 II. 이론적 배경

### 1. 연구 이론 정리

그렇다면 외국 학자들은 조기유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울러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학교/사회 적응과 정체성 발달 등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가? 이 장에서는 기존의 조기유학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 1) 계급 전략으로서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

한국에서 조기유학 열풍이 불기 전인 1980년대 무렵부터 홍콩이나 대만에서 중국계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조기유학을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다른 영어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증가했고, 이는 조기유학 해당 국가의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해외 언론에서는 어린 중국계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오거나, 부모와 함께 오더라도 아이가 정착하자마자 부모 둘 다 혹은 아빠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을 “낙하산 아이들(parachute kids)” 또는 “인공위성 아이들(satellite kids)”이라 불렀고, 그들의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본국과 미국을 오가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가족(astronaut families)”이라 불렀다. 이러한 중국계 조기유학생들과 그들의 교육이민에 대한 현상은 학계의 관심 또한 받았는데, 사회/경제/문화지리학자인 Johanna Waters는 이 현상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대표 학자 중 하나이다.

Waters(2002, 2003, 2005, 2006)는 특히 부르디외의 문화/상징 자본 이론을 통해, 아시아 학생들의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현상을 세계화시대에 아시아 중산층 가족이 선택한 계급재생산 전략으로 설명한다. 부르디외의

이론에 따르면, 대표적 자본의 형태로는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은 흔히 이해되고 있듯이 실물자본과 금전적 자본을 의미하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한 개인이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제공받는 연결망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원이다. 그리고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문화와 지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수단으로서 계급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야기하고 유지하는 자본의 형태이다. 이외에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이 있는데, 신용, 미덕, 명예 등을 들 수 있다(Bourdieu, 1984, 1996).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경제자본만큼이나 계급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자본과 달리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전수하지 않고, 문화적 성향과 태도를 차별화하고 문화적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소유여부는 집단 간 문화적 취향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

Waters는 이 이론을 여러 서구학자들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논의와 연결 짓는다. 특히, Ball(1993, 2003)이나 Brown(1990, 1995)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교육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고, 선택의 폭과 기회는 소비자의 경제력이나 자본에 의해 차별화된다. 즉, 부유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좀 더 나은 양질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가난한 학생과 학부모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Ball 등(1995)의 연구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교육의 질이 달라지며 두 계층은 자녀의 교육과 이를 통한 문화자본 습득에 있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자녀의 문화자본 습득을 통한 계급재생산을 위해 좀 더 나은 학교와 교육환경을 찾아 가족 전체가 이동/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보내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계급의 가정, 특히 수입이 낮은 가정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과는 달리 자신의 자녀를 지역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는 선택을 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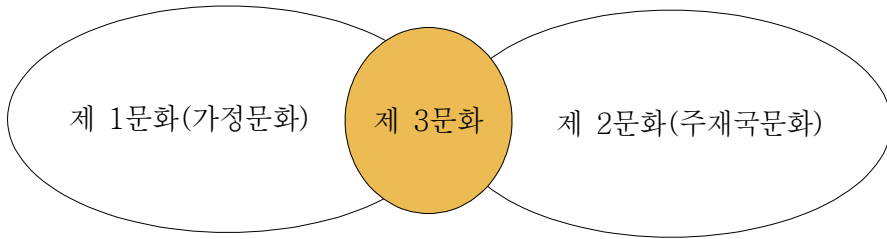
Waters는 아시아 중산층 가정의 자녀교육전략으로서의 교육이민과 조기 유학을 설명하기 위해 위의 두 이론에 더해 아시아 특유의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을 논의한다. 그녀에 따르면, 후기식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영어와 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화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계급재생산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아주 부유한 소수들만 영미 선진국으로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낼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을 선택할 수 있는 가정들이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전은 영어가 진학, 취업, 나아가 사회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이 아니라 거의 필수로까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과거의 소수 부유한 가정들의 전유물이었던 자녀의 서구 선진국으로의 조기유학을 자녀의 교육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Waters는 아시아인들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 현상을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 중산층 가정들의 계급재생산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을 통한 계급재생산은 세계화 시대에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자본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따라서 Waters는 그녀의 이론에서 아시아 중산층의 계급재생산 전략으로서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이 교육 불평등 나아가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2) 제 3의 문화 아이들 이론

### (1) 제 3의 문화 아이들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루쓰 힐 우심(Ruth Hill Useem, 1963)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국의 사회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외국에서 중요 성장 시기를 보낸 학생들(Third culture kids/trans-culture kids: 제 3의

문화 아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따라서 이 독특한 학생/젊은이 집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 왔다(Pollock & Van Reken, 2009). 제 3의 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이라는 명칭은 이 집단의 아이들이 부모/가정의 문화(제 1 문화)나 주재 국가의 문화(제 2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제 3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제 3의 문화 아이들의 문화적 위치

제 3의 문화 아이들(TCK) 구분되는 아이들은 두 가지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실제적,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에서 성장 발달시기(9~16세)를 보낸 것과, 둘째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장 발달 시기를 보낸 것이다. 영미 학자들은 이 들 제 3의 문화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명칭을 부여했는데 “국경을 건너는 자(boarder crosser, Cottrell, 1999)”, “글로벌 유목민(global nomad, Carlson, 1997)”, “신세계엘리트(new international elite, Goodman, 1990)”, “작은 국제 대사(little ambassadors, Smith, 1991)” 등이 그 예이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 3 문화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 및 사회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친 일반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며, 그 결과 같은 국적을 지닌 자국의 일반 청소년들(non-TCK)보다 오히려 본인들의 국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제 3 문화 아이들과(TCKs) 더 깊은

삶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다(Pollock & Van Reken, 2009).

Pollock과 Van Reken(2009)은 TCK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환경 요소로서 자신들과는 신체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성장한다는 점과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환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현재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두 번째 환경 요인은 제 3문화 아이들이 속한 가정들이 영구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또 Pollock과 Van Reken은 모든 TCK 가정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TCK 가정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 조건 중 TCK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다고 보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TCK 가정들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국의 파견 주체나 주재국으로부터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본국 생활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일상생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소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TCK의 경우(예: 선교사, 군인, 기업, 외교)에는 소속된 집단을 은연 중에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어 집단에 근거한 자아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집단의 문화적 규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탈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반항적인 청소년기의 도래가 늦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영미 학자들에 의한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TCK청소년들이 세계와 다문화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를 계발하기 때문에 장차 국제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Goodman, 1990). 그러나 반면 이들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TCK 학생들은 본국의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적응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il, Thompson, & Walker, 2004; Fry, 2007; Pollock & Van Reken, 2009).

최근 교통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구의 이동과 정보의 교환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가 상호간의 경제적·문화적 의존관계가 필수 불가결해지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부상하면서 TCK 집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영국이나 미국 출신 TCK를 중심으로 하던 연구가 이제는 다른 국적 출신의 TCK연구로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며 아주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은 TCK 집단의 동질적인 경험 및 정체성 이외에도 국가 간의 다양성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각 나라의 문화적·교육적 환경, 혹은 언어적 조건들이 이들 TCK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본국 적응이나 성장 발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역시 학계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의 TCK들에게는 해외 주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학업 발달이 본국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질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종종 보고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비영어권 출신의 TCK 들이 본국 귀환 시 학업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Fry, 2007; Pollock & Van Reken, 2009). 해외에 산재한 다양한 국적의 TCK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교수 학습 언어로 쓰고 있으며 학교 교육 과정 역시 영국이나 미국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영어권 국가의 TCK들이 본국 귀환 시에 경험하게 되는 학습의 공백은 우리나라 초·중·고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이 해외에 나가 일정 기간을 수학한 후 돌아온 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출국 이전에 비해 학교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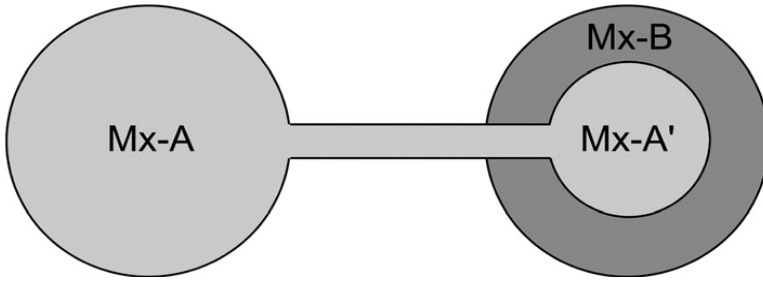
## (2) 제 3 문화 아이들의 문화 공동체 모델

지난 수년간 비영어권 TCK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활기를 띠었던 것은 일본 학생들에 대한 연구이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의 귀국 학생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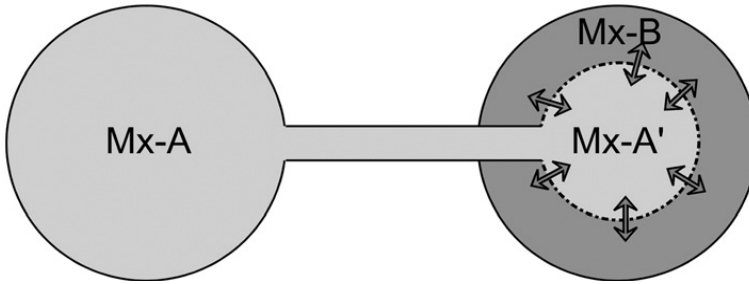
구는 귀국 후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실제로 이들 귀국 학생들이 거주했던 해외의 일본인 공동체와 본국 문화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와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었다(Fry, 2007).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일본 TCK 학생들에 대해 일반인의 시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일본의 정체성을 잃은 “반쪽 일본인”으로 보던 예전의 부정적 시각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이들이 일본 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일본의 귀국 학생(kaigaiishijo 혹은 kikokushijo)을 연구해 온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이부치(1994)는 그동안 영미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제 3 문화 아이들에 대한 문화 교차적인 형태의 모형(<그림 II-1>)을 미국식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해외에 주재하는 일본 가정들의 처해 있는 문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새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II-2>). 이부치는 이 모형을 통해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본국의 문화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주재 국가의 문화와는 다른 “작은 일본 문화(miniature home culture)”를 현지에서 형성, 상대적으로 분리된 문화적 경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ry(2007)는 이부치의 관점을 한 층 더 발전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 폐쇄적 성격을 지녔던 해외의 소일본 문화공동체가 주재국가와의 문화 접촉이 계속 진행되면서 공동체 안팎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 문화적 경계를 점점 더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좀 더 개방된 문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그림 II-3>).



<그림 II-2>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형 (Fry, 2007, p. 143)  
 Mx-A (본국문화), Mx-B(주재국문화), Mx-A' (소형 본국문화 공동체)



<그림 II-3> 개방적 문화 공동체 모형 (Fry, 2007, p. 145)  
 Mx-A (본국문화), Mx-B(주재국문화), Mx-A' (소형 본국문화 공동체)

### (3) 제 3 문화 아이들의 가능성: 다문화인

여러 인종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30여 년간 개인이 지닌 다문화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간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초월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지만 사실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Park(1928)의 “주변인(marginal men)” 개념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Adler(1975)는 다

문화인(multicultural men)이 가지는 자아정체성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Adler는 다문화인의 주요 특성으로 세 가지를 기술하였는데 첫째는 정신적·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 둘째는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성장이 언제나 평이하고 쉬운 것은 아니다. 서구의 교육학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에서 성장 발달 시기를 보내는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에 노출됨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식의 형성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보고하였다(Pearce, 1998). 특히 학교의 문화는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나 소수 문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 문화와는 다른 학교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 쉽다.

Schaetti(1996)는 두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에서 발달 시기를 보냄으로써 문화적 주변인으로 성장한 개인들이 질적으로 매우 다른 두 가지의 행동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고립된 주변인(encapsulated marginality)으로서 성장하는 것인데 이들은 주재국의 문화나 본국 문화에 대해 깊은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문화적으로 단절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유형이다.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환경은 이미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고 따라서 문화적 혹은 언어적 주변인으로서의 성장 경험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Schaetti(1996)는 서로 다른 문화에 노출되어 성장 시기를 거친 학생들이 다른 한 편으로는 건설적인 형태의 주변인(constructive marginality)으로 성장 발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 건설적인 주변인들은 주재국의 문화나 본국 문화 중 일정 측면에 대해 동질감을 계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 3) 소수 인종/민족의 정체성 발달 이론

조기유학을 가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나라와 사회를 떠나 다른 나라와 문화 속에서 청소년시기를 겪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조기유학 청소년의 경우 낯의 나라에서 소수인종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아정체성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소수민족인종의 정체성 발달이론들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 인종, 민족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화와 교육 경험 등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분석적 틀을 제공해왔다. 특히 인종차별과 갈등의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사회의 경우, 인종과 인종차별은 유색 인종 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위문화를 구성해 나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여기서는 먼저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과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구성의 과정에 대한 Omi & Winant(1994)의 인종구성이론(racial formation theory)을 소개한다. 이어서 유색인종 혹은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 형성과 정체성 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미국의 학자들은 인종이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socially constructed category)이라는데 동의한다. 이는 곧 인종이란 생물학적으로 분류된 개념이 아닌 인간이 사회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뜻으로, 인종의 구분은 모호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Omi와 Winant(1994)의 인종구성이론에 의하면 인종구분이란 역사,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한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인종차별은 미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많은 소수 인종/민족 집단의 삶과 경험을

결정짓는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Omi와 Winant(1994)의 이론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과 인종차별, 그리고 소수집단들의 정체성 등의 현상을 논의하는데 주요한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육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분야의 학자들도 이와 같은 인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 민족/인종 집단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펼쳐왔다. 이와 같이 인종화(racialized)된 사회, 역사적 배경 속에서 소수 민족/인종 청소년들은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Palmer(2010)는 이를 크게 사회생태학적 이론(Socio-ecological theories)과 정체성 발달모델 이론(Identity development theories)의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하였다.

소수 민족/인종 학생들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문화인류학자 John Ogbu와 그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동료들이 있다. Ogbu(1992)에 따르면 소수 민족/인종 학생들의 정체성과 교육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색, 언어, 문화의 차이 정도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Ogbu에 따르면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정체성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들이 한 사회 내에서 처한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도 수(數)적으로만 봤을 때 소수민족이라 불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유럽 출신의 백인 이민자들의 다수이므로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억압을 받는 하층민의 소수민족은 아니다. 반면, 노예제도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 오게 된 흑인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민과 제도적 억압, 백인들과의 신분적 차이 등 유태인과는 다른 역사·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흑인들과 유태인들의 문화가 다른 것은 단순히 이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대륙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Ogbu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문화와의 차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를 탐구

해왔다. 특히 이들이 백인 주류사회와 학교문화 속에서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혹은 대항하는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주목해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Fordham & Ogbu(1986)의 “Black students school success: Coping with the burden of Acting White”가 있다. 이들은 ‘흑인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 대하여, 성공이란 무엇이며, 흑인 청소년들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이들에게 어떤 학교경험과 학업성취의 결과를 가져다주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흑인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연구자들은 흑인 학생들에게 학업실패란 이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사회,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일종의 ‘적응방식’이자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사회의 변함없는 인종차별과 유리천정(glass ceiling) 때문에 흑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성공이란 백인들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박탈감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흑인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은 떨어지게 되었고, 간혹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흑인들에게는 ‘너는 백인처럼 행동한다’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너는 백인처럼 행동하는 변절자이다’라는 꼬리표가 두려워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던 학생들도 친구들과 사이에서의 따돌림과 소외가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들의 학업실패란 결국 이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백인 주류문화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집단정체성(oppositional collective or social identity)을 발달시키고 백인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침범할 수 없도록 문화적 방어기제(oppositional cultural frame of reference)를 만들어 자신들 고유의 상징, 의미, 언어 등을 형성한다. Fordham과 Ogbu의 이론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연구에 소개된 사례들이 고등학생 청소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령과 성장 발달의 단계 등이 배제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상담심리학자들은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단

계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정체성 발달모델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이론은 소수 민족/인종 학생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문화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가를 분석한다. 이들 이론은 특히 소수 민족/인종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학습 성취를 보여주고 어떠한 태도와 행동양상을 보이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분석적 기준을 제시해왔다. 학자들은 소수민족 집단의 정체성 발달단계(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Atkinson, Morten, & Sue, 1998), 흑인 인종 정체성 발달모델(Black racial identity development model: Cross, 1971, 1978, 1991), 아시아계 정체성 발달 모델(Asian American identity development model: Kim, 1981) 등 인종/민족 집단별 그룹별로 독특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이들 정체성 발달 모델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Atkinson 등(1998)은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의 정체성 발달을 이론화 하였다. 이들의 소수민족 정체성 발달 모델은 <표 II-1>과 같다. Atkinson 등의 모델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4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가치와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1단계 순응 단계에서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에 일반적으로 내제된 문화적 가치와 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믿는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인종이나 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와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특정 인종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2단계 모순적 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과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가 주류사회에서 차별되거나 소외되는 양상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 깊어진다. 세 번째 단계인 거부와 몰입에서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에 대항하게 된다. 특히 Atkinson 등은 자신의 집단이 백인 주류집단에게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목격하면서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의심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소속집단에 대하여 부끄럽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자부심과 명예로 전환된다. 4번째 성찰의 단계에서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인종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주류집단의 문화와 소수문화간의 조화를 찾으려 노력한다. 마지막 5단계인 통합적 이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하여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문화와 존재가 미국 사회 내에서 갖는 독특한 특징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의 갈등과 반목보다는 조화를 찾으려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태도를 갖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인종집단에 따라 정체성 형성과정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Cross(1991)의 흑인 인종 정체성 발달모델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긍정적인 인종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행동, 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서, 흑인들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초기의 연구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중 하나이다. Cross에 따르면 미국사회와 같이 인종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흑인들은 자신들의 인종 정체성을 크게 5단계에 따라 발달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전대면(preencounter) 단계에서 흑인들은 미국사회 내에 널리 퍼진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백인은 좋고, 흑인은 나쁘다’와 같은 관점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백인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하고 타인의 눈에 자신이 흑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대면(encounter) 단계에서 흑인들은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백인 친구들과 소외를 당하는 등 흑인과 백인의 사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종차별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게 된다. 셋째, 몰입(immersion/emersion) 단계에서는 자신의 모든 삶과 가치가 흑인의 문화와 정체성으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어떠한 백인 혹은 이들의 문화나 관습과 관련된 상징이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흑인과 이들의 문화

<표 II-1>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정체성 발달 모델

발달단계	자신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Self)	자민족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Others of the same Minority)	타민족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Others of Different Minority)	주류집단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Dominant Group)
1단계: 순응 (Conformity)	자아비하 (Self-Depreciating)	집단비하 (Group-Depreciating)	차별 (Discriminatory)	주류집단 선호 (Group-Appreciating)
2단계: 모순 (Dissonance)	자기애와 자아비하 사이의 갈등 (Conflict between self-depreciating and appreciating )	자기민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차별적 시선과 동족의식 사이에서의 갈등 (Conflict between dominated-held views of minority hierarchy and feelings of shared experience )	타민족에 대한 주변의 차별적 시선과 동족의식 사이에서의 갈등 (Conflict between dominant-held views of minority hierarchy and feeling of shared experience)	주류집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사이의 갈등 (Conflict between group appreciating and group depreciating)
3단계: 거부와 몰입 (Resistance and Immersion)	자기애 (Self-appreciating)	자민족에 대한 긍정적 이해 (Group-appreciating)	자민족중심주의와 타소수민족에 대한 연민과 이해 사이에서의 갈등 (Conflict between feelings of empathy for other minority experiences and feelings of culturocenterism)	주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비하 (Group-depreciating)
4단계: 성찰 (Introspection)	자기애에 대한 재고 (Concern with basis of self-appreciation)	자민족에 대한 자연적 소속감과 긍정적 이해에 관한 재고 (Concern with nature of unequivocal appreciation)	타인에 대한 자민족중심적 이해에 대한 고찰 (Concern with ethnocentric basis for judging others)	주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재고 (Concern with basis of group deprecation)
5단계: 통합적 이해와 표현 (Synergetic Articulation and Awareness)	자기애 (Self-appreciating)	자민족에 대한 긍정적 이해 (Group-appreciating)	타소수민족에 대한 긍정적 이해 (Group-appreciating)	주류집단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이해 (Selective appreciation)

를 찬양하고 나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넷째, 내면화(internalization)단계에서, 흑인들은 여전히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구성하지만, 흑인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백인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다른 인종 집단과도 어울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마지막 내면화-이행(internalization-commitment)단계에서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집단적 특성과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나를 흑인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 이해한다. 또한 흑인이라는 인종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인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Cross의 이론이 미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사회에 거주하는 흑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정체성 발달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며 그의 이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자신의 인종과 태생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지는 않으며, 한 흑인 개인의 정체성이 반드시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비판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Kim(1981)의 아시아계 정체성 발달 모델은 아시아계 인종 구성원들이 유아기부터 다른 집단과는 다른 아시아계의 독특한 인종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를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Kim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크게 5단계에 거쳐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첫째, 인종인식(ethnic awareness)단계는 일반적으로 3, 4세 정도에 시작되는데, 이때 아시아계 아동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시아계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인종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중성적인 태도로 형성된다. 둘째, 아시아계 아동들은 대개 학교에 입학하면서 백인동일시(white identification)단계로 들어선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종차별이나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아시아계 인종 정체성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며 백인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셋째, 사회정치적 각성(awakening to social political consciousness)단계란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깨닫고 인종에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때 청소년들은 백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다른 소수인종 집단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넷째, 방향재설정(redirection)단계에서는 아시아 문화와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인종차별과 백인 주류집단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협응(incorporation)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다른 인종집단과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도 이어지며, 백인 주류집단에 저항하는 행동이나 태도 등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인종별 정체성 발달 모델들은 소수인종집단, 그리고 흑인, 백인 등 각 인종 집단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제한점도 따른다. 먼저, 이들 발달 모델들은 인종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인종별 차이점을 논하였을 뿐, 여기에 미치는 사회, 역사, 정치, 경제적 영향들을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을 단계로 구분하고 수치화함으로써 무엇이 더 건전하고 우월한 발달단계이고 무엇이 더 열등한 단계인지 그 우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체성 발달 모델들은 그것 자체로 ‘특정 인종은 다음과 같이 정체성 발달 단계를 따른다’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조건, 정치적 요소, 인종 집단 간의 관계와 갈등 등 다양한 요소와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4) 조기유학과 세계시민성

조기유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조기유학과 민주시민교육 특히 세계시민성 발달과의 관계이다. 조기유학은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접하며, 자신의 나라와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반성적 관점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면서 국수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국내외의 사회 부정의와 세계적 차원의 정치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 느끼고, 배우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참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가능성일 뿐 조기유학이 가져다주는 자동적인 산물은 아니다. 만일 조기유학이 Waters나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주된 목적이 중산층 이상의 계급재생산이라면, 그리고 조기유학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또는 서구 선진국의 대학학위를 받아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업을 잡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공에만 중점을 둔다면 위에서 지적한 가능성들은 단지 가능성에 머물게 될 것이다. Aihwa Ong(2004)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나온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유학의 주된 목적은 국내외의 계급 재생산이며 그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없이 거의 모든 관심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성공에만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학은 세계시민성 향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Ong과 달리 Szelenyi & Rhoades(2007)는 미국에 유학 온 경영대학원 해외유학생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공의 해외 대학원 유학생들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해외 유학이 단지 계급재생산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성 향상에도 기여함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유학과 세계시민성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고등교육분야에서 이루어졌을 뿐, 초중등교육에서의 유학과 세계시민성 향상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기유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유학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급격

히 증가하는 현상이며, 또한 한국 또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미권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분야는 오히려 한국의 학자들로부터 더 이론적·경험적으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 일환으로 조기유학과 세계시민성 발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즉 조기유학생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접하면서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성 발달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세계시민으로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의 세계시민성연구들(예를 들어, Myers, 2006; Parker, 2008; Szelenyi & Rhoades, 2007)에서 발전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유학생들의 세계시민성 발달 양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조명해보고자 한다. 즉, 조기유학을 통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경쟁력에 관심을 가진 개인주의 성향의 시민, 조기유학을 통해 자기나라의 세계경쟁력에 이바지하고 하는 애국적인 혹은 국수주의적인 시민, 조기유학을 통해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나라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조기유학을 통해 세계전체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이 네 가지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발달과정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조기유학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한인 또는 외국인 학자에 의해 진행된 조기유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는 국내 거주 학자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 국내 연구자가 해외 방문/단기 거주 중에 진행한 연구, 한인 학자가 해외 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해외 거주 한인 학자가 해외에서 한 연구, 해외 거주 외국인 학자가 한인 조기유학 현상을 연구한 경우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초점에 맞추어 먼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기유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다음, 조기유학생들의 청소년 문화, 정체성 발달,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아울러 조기유학 대상 지역별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선행연구 정리

### (1) 중상층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

Min Zhou의 1998년 연구는 조기유학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이다. Zhou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중국계 낙하산 아이들(parachute kids)들과 이 학생들의 부모 또 현지 가디언, 학교 카운슬러, 지역 사회복지사 등을 인터뷰하여, 왜 낙하산 아이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러한 국경을 넘는 교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기유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 학생들은 대만의 부유한 중상층 가정출신으로, 인터뷰 당시 이미 조기유학을 마치고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진학을 눈앞에 둔 고등학생들이었다. Zhou는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예를 들면, 대만이나 홍콩의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교육열, 1997년의 홍콩반환, 중국-대만-홍콩의 정치적 불안정, 의무군대복무제도 등 때문에 부유한 어린 중국계 학생들이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오게 됐음을 밝혔다. 즉 가족의 경제자본을 이용해 중상층 이상의 부유한 중국계 가정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통해 계급재생산을 추구함이 드러났다.

Zhou는 학생들이 조기유학의 내재된 위험요소들—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혼자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공부하고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생활을 한데 대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먼저 학생들 자체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서

돈 걱정 없이 미국의 좋은 동네에 살며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대다수가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기유학을 원해서 온 경우였으며,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대학을 가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또한, 미국 학교생활 중 이와 비슷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또래 조기유학생과 어울림으로 인해, 미국의 좀 더 자유스럽고 공부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친척이나 가디언들이 부모님 대신 역할을 하면서 지켜보기 때문에 탈선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주변 여건들로 인해 이들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무사히 진학하고 소위 남들이 보기에 조기유학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Zhou의 연구 이후, 조기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는 Waters (2002, 2003, 2005)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aters는 캐나다에 교육이민 또는 조기유학을 온 홍콩이나 대만 출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질적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녀의 연구에는 지금까지 거의 백 명이상이 넘는 학생과 부모들이 참여하였고, 조기유학과 대학 교육을 캐나다에서 마치고 홍콩이나 대만으로 돌아간 연구 참가자들을 다시 재인터뷰 하기도 했으며, 또한 수년간에 걸쳐 장기분거가족으로 산 조기유학생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일련의 연구들이 증명하는 것은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계급 재생산적인 측면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부유한 중상층이었으며, 그들은 자국 내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피해 보다 쉬운 대학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군다나 국내학위보다 더 비교우위가 있는 서구 선진국 학위를 보장하며, 영어 능력과 서구 문화 자본 습득이 용이한 이유로 인해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선택하였다. 더군다나, 홍콩반환과 중국-대만의 불안정한 동북아 정치적인 상황이 또 다른 방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요한 흡입요인으로 캐나다의 경우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이민 문호가 쉽게 열려있는 점 때문에, 많은 경우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처럼 아이만 조기유학을 보내고

단기적으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전문직 종사자들인 이들에게 이민 간 캐나다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경력과 학력에 맞는 직업을 찾기 힘든 백인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와 어머니만 캐나다에서 살면서 자녀의 영어교육, 서구문화 습득에 힘쓰고, 아버지는 다시 홍콩이나 대만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래 사업이나 전문직종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이 우주비행사(astronaut) 생활을 선택하고 있었다.

Waters에 따르면, 홍콩이나 대만 출신 학생들의 캐나다로의 조기유학 그리고 교육이민 현상은 세계화시대에 부유한 중산층 이상의 아시아인들이 계층유지 또는 계층 상승을 위해 국경을 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어 자녀의 교육과 계층 유지/상승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세계화가 세계 전체에 평등을 신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많은 경우가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나온 경우였으며, 캐나다에서 조기유학을 함으로써 캐나다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와 괜찮은 직장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터뷰 사례를 기반으로, Waters는 조기유학이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의 가진 계층에게 열려있는 계층유지 또는 계층상승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교육 불평등 나아가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은(2004)의 연구 역시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 현상이 중상층의 계급 재생산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 가족은 '영어되는 엄마'와 '돈 있는 아빠'의 조합을 기본 구도로 하며 아이들이 우선인 자식 중심의 부부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은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후속 연구(2006)에서 조기유학을 위한 기러기 가족 현상을 세계시장에서 필요한 문화 자본과 고용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한국의 전문직 및 중상위층 계층이 만들어낸 전략적 가족 형태로 보

았다. 즉 세계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상층 계층이 상승적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초국적인 가족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최양숙(2005, 2006)의 연구 역시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기러기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은 대부분이 전문직종이나 돈 잘 버는 자영업 가정들임을 통해 조기유학의 계급재생산적 측면을 밝혀내었다.

## (2) 사회/문화 자본과 조기유학

가정의 경제적 계급성 뿐 만이 아니라 부모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자본도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안경주(2009)의 논문은 미국 동부 대학도시에서 조기유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기러기가족으로 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의 가족주의, 가부장제, 미국 법적 체류 자격, 한인교회/한인 사회 등이 기러기 엄마들의 삶에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 중의 하나는, 얼핏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기러기 엄마들로 보이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기러기 엄마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자본 소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러 자본의 차이는 그들의 기러기 엄마로서의 삶에 주목할 만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왔다.

안경주(2009)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들 중 학생비자 소지자, 교환 교수/연구원 비자 소지자,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이 세 종류의 기러기 엄마들이 있고 이 세 그룹은 그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법적 자격이 다르며, 이는 그들의 기러기 생활 이전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엄마들은 다른 체류 자격의 기러기 엄마들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인사회의 교류중심인 한인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웠고, 또 자신의 학업과 자녀의 학업을 병행하느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이에 반

해, 교환비자로 미국에 온 전문직 출신의 기러기 엄마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미국에 와서 갑자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내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 엄마들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의 성적이 우수하길 바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에 반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기러기 엄마들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가장 여유롭게 크게 어려움 없이 기러기 엄마생활을 하고, 자녀의 교육에만 중점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의 삶이 학생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문화 자본 특히 비자의 종류 등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조혜영 등(2007)의 연구 역시 조기유학생들이 어떻게 유학을 결정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에 따르면 한국 교육 및 사회적 상황이라는 배출요인과 미국 교육 및 미국사회가 지닌 흡입요인과 같은 거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정이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이 그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조혜영 등(2007)의 연구 역시 부모나 가정이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이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 현상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 또한 미국 대학중심의 소도시에 거주하는 조기유학생 22명과 5명의 현지 보호자들(어머니, 이모,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조기유학이 해외 방문이나 해외 단기 거주 등의 계기를 통해서 혹은 가족 친지의 해외 거주 상황을 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나 가정의 사회/문화 자본이 조기유학과 기러기가족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중하층의 조기유학 현상에 대한 연구

Zhou나 Waters의 연구처럼 기존의 아시아 학생들의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홍콩이나 대만과 같이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좀 더 발전된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중산층 중에서도 기업인이나 전문직 중심과 부유한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조기유학은 단지 부유한 자들만의 자녀교육 전략은 아니다. 예를 들면 Shirlena Huang & Brenda Yeoh(2005)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국가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공부하는 엄마(study mothers)”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가정의 조기유학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공부하는 엄마의 경우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남편을 중국에 두고, 홀로 초·중·고 연령의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한 어머니들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앞서 논의한 Waters의 연구 집단과 다르다. 후자의 연구 집단인 캐나다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홍콩이나 대만 출신 학생들은, 그들 가족 전체가 투자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이주한 다음, 아버지는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원래 사업이나 직업을 유지하고, 자녀와 어머니는 캐나다에 살면서 자녀교육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Huang과 Yeoh의 연구대상자들은 이민이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아시아의 “Global Schoolhouse”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싱가포르에 유학을 간 학생들과 이들의 동반자격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따라가는 임시체류 신분의 어머니이며, 상대적으로 덜 부유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를 보충하거나 가정 경제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단순노동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캐나다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투자이민을 간 홍콩이나 대만 출신 어머니들과는 달리 그리 여유롭지 않으며 남의 나라에서 자녀교육 뒷바라지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이 연구는 조기유학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조기유학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의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보통 아시아 가정의 교육이민/이주

가 자녀의 교육과 미래 행복을 위해서이며, 그 어머니들은 남편과 헤어져 머나먼 남의 나라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일이나 행복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채 희생하는 엄마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님을 지적하였다. 즉, 연구 대상자 중 소수 몇 명의 어머니들은 싱가포르 자녀를 데리고 조기유학을 온 가장 일차적 이유가 자녀교육과 행복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본인의 새로운 인생 기회 탐색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Huang과 Yeoh는 조기유학이 어떤 측면에서는 자녀들이 부모 또는 가족에 의해 이용 또는 심하게 말하자면 착취당하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과 계층유지를 위해 자녀들이 일종의 학생노동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연구는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들의 연구대상인 “공부하는 엄마 (study mothers)”의 경우,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소황제’ 현상, 중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사회변화, 싱가포르의 유학/이민 관련 정책, 양국의 가족 문화/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싱가포르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연구한 김지훈(2010) 역시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한국의 조기유학 가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비교해 조기유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한국과 가까워 좀 더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이점 등이 주목되면서 최근 조기유학지로 인기를 끌고 있음을 지적한다. 연구 참가자들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로 오게 되었음이 드러났는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조기유학의 만족도가 현지의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달랐으며 이는 상당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달렸다는 것이다. 즉, 참가자들 중 부유한 가정은 자녀들을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의 경우 자녀를 싱가포르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통해 바라는 교육, 즉 한국과 달리 좀 덜 각박하고, 덜 입시위주, 시험위주, 경쟁위주의 교육이 제공되는 반면에, 싱가포르의 공립학교는 한국과 유사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한국보다 더 힘든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공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진학이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준비 현상이 일어나고, 수업 역시 암기와 시험 중심 교육이다. 또한 일찍부터 대학 진학반, 실업반 등의 계열이 결정된다. 한국에서 오거나 전학을 오는 학생들은 모두 반 배정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이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기유학생의 경우 실제 자신의 나이나 학년보다 한 학년 심지어 세 학년까지 낮게 배정받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로 조기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영어가 점점 익숙해지면 한국 학생들은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받게 되면서 수업내용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게 되고 수업에 관심을 잃게 되고, 현지 학생들과도 나이 차이가 나서 친해지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될 때 일 년 심지어 삼년이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 결국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던 부모들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생각과 달리 어려우며 이 역시 공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국제학교의 경우 중국어는 제2외국어 과목 중 하나이며 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반면, 공립학교에서 중국어는 제2모국어 과목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업도 어렵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정말 모국어 수준의 중국어 실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한국 조기유학생의 경우 중국어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처럼 한국어에 이어 영어, 중국어까지 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이러한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 굉장한 부담이며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처럼 싱가포르 학교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학생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맥락, 특히 조기유학대상지의 학교제도와 학교문화가 큰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 조기유학을 하더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또한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침을 지적했다.

## 2) 아시아계 청소년의 문화와 정체성 발달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많은 한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영어권 해외 지역에 나가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한 사회의 주류집단이 아니라 소수집단, 특히 인종과 문화적 측면에서 소수자임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많은 수의 조기유학생들이 백인, 서구문화 중심의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사회, 문화, 개인 정체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그간 진행된 아시아계 청소년의 인종, 문화, 개인 정체성 발달과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정체성발달과 학교적응에 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아시아계 청소년 문화와 정체성 발달연구의 주요 쟁점

최근까지도 학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관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많은 학자, 교사, 정책연구가, 교육행정가, 상담전문가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학업성적이 좋고 태도가 바른 ‘모범적인 소수인종(model minority)’ 혹은 ‘공부벌레(nerd)’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수학, 과학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평 없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이를 통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집단으로 보였던 것이다(Lee, 2009).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떠한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모범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간혀 얼마나 많은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학업성취와 사회 적응력이 낮은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Pang, Kiang, & Pak, 200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생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현상을 경험하는가? 만약 경험한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Zhou & Lee, 2004).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이라는 범주는 단순히 보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집단이 뒤섞여 있다.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인이란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2세 자녀와 후손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여러 가지 문화, 언어권의 하위문화가 약 30여개 이상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서도 이민 1세와 2세대, 정치적 망명자와 난민, 입양, 혼혈계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Lee, 2009). 또한 대다수의 아시아계 사람들은 자신을 아시아 출신이라기보다는 특정 출신국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지으려 한다. Zhou(2001)의 연구에 따르면 샌디에고 거주하는 베트남계 청소년 중 전체 53%가 자신을 아시아계가 아닌 베트남계로 인식하고 있다.

Min Zhou와 Jennifer Lee(2004)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국제적 이민/이주의 추세(international migration)와 미국 사회 내에서의 인종화

(American racialization)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구성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이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적응과 교육의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먼저, 국경을 넘어선 이민/이주의 경험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경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오늘날 미국사회를 구성하는 아시아계 인구의 대다수가 이민 1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민과 새로운 사회에의 정착이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삶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 1세대 청소년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치와 관습, 예를 들어 효(孝)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복종과 존경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들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헌신과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타난다. 특히 이들 부모는 보다 나은 자녀교육의 기회와 성공을 위해 중산층 이상의 지위와 전문직을 갖고 있었던 모국을 떠나 영어능력부족, 미국 문화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 인종차별과 소외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와 일류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믿는 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와 가능성을 제한된 의미의 성공으로만 이해하려드는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적과 그 원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뒤에 숨겨진 갈등과 딜레마를 조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종차별과 소외,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반사회적 행동들 역시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주요 현상이다. 아직도 미국사회 내에 널리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미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영원한 이방인(perpetual foreigners)’으로 인식하는 편견 때문에 많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모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들은 쉽게 ‘모범적인 소수민족’ 등의 단편적인 이미지로 규정되어 다양한 재

능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Lee(1996, 2009)의 연구는 특히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인종적 편견이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인종차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Lee는 흑백 인종간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미국사회내의 제한적인 의미의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 교육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종차별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마치 이들은 모두 학업성적이 좋고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비추는 사회적 편견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제도와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도 학업성취와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언론에 비취진다. 이러한 편견과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타인종/민족 집단 학생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이들이 형성하는 반아시아적 정서에 따라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심하게는 학교폭력에까지 시달리게 된다고 그녀는 밝혔다. 이들은 정서적 불안과 걱정 등 심리적 문제도 경험하게 된다. 학자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인종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는 전략으로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정체성을 포기하며, 학업에 몰두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역설적으로,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굴레와 인종차별 및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한 사회적 편견과 일치하도록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Lee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이미지로 규정해버릴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들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경험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계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좋은 모범적인 사람들이다’라는 단선적인 개념은 집단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쉽게 덮어버리고 일반화하여, 특히 낮은 학업성적, 부족한 영어능력,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2) 집단 내 다양성

흔히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기대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에 따라 학계에서도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출신국가, 모국어, 종교, 문화와 같은 배경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학교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왔다. 따라서 한국, 인도, 이라크, 태국 등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종교와 철학적 배경을 가진 국가 출신의 모든 청소년들이 '아시아계'라는 매우 편협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교육 학술 연구와 통계 결과가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출신국가와 언어, 종교, 음식문화, 풍습, 역사를 지닌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와 학교에의 적응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에서 이민을 온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출신국가의 문화와 가치, 가정환경, 그리고 미국사회의 문화와 학교생활 속에서 독특하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Zhou & Lee, 2004). 아시아계 청소년은 자신과 가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출신국가의 문화와 가치, 예를 들어 효(孝)나 유교사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고,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소수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Pang, Kiang, & Pak, 2004; Yeh, 2003).

Lee(1996)는 Academic High School(가명)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모두 비슷해 보이는 청소년들이지만, 이들의 사회적응과 정체성 형성의 특징 등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네 가지 범주는 한국인,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새로운 분류(New Waves)이다. Lee는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주로 아시아인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정체성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이민

1세나 1.5세의 학생들로서 한국인이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는 매우 밀집되고 폐쇄적인 한인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심어준다. 이들은 또한 학업성적을 높이고 영어를 빨리 습득하여 미국 주류사회에 어울림으로서 아시아인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유사백인(honorary White)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으로 규정된 학생들 외에 대다수의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아시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중 아시아인 학생들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인, 혹은 자신의 출신국가의 민족적 정체성을 조금 더 고집하는 성향이 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렸을 때 이민을 온 후 미국사회와 문화에 잘 동화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학생들로서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 뛰어나다. 이들은 미국 사회내의 인종차별과 동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대해 보다 의식하고, 다른 유색인종과의 유대와 화합을 강조한다. 새로운 분류(New Waves)라 불리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부모의 정치적 망명 등을 이유로 이민 온 학생들이다. 이들은 다른 아시아계 청소년 집단들보다 저소득층 출신이 많고, 학교에서 학업성취가 낮으며 소위 아웃사이더가 되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에 대하여 Lee(1996)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출신국가, 미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적응과 자신이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 형성 등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에도 다양한 하위문화와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Ying(2001)의 연구도 아시아계 학생들의 이민 경험과 문화적 적응의 차이를 집단내 다양성에 초점에 맞추어 제시한 좋은 예이다. Ying은 중국계 청소년들을 부모와 함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집단(accompanied minors), 부모와 떨어져 홀로 청소년기에 조기유학을 온 집단(unaccompanied minors),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홀로 이민 온 집단 (unaccompanied adults)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문화적 성향과 적응과정을 심리학적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모국을 떠난 유학을 온 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의 경험하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과 정서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겪는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중국계 학생들은 다른 이민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중국문화를 더욱 선호하고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계 단체나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중국과 관련된 문화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정체성과 모국에 있는 부모, 그리고 중국에서의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연결 지으려 노력한다.

또한 같은 중국계 이민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출생지, 나이, 성별 등에 따라서 중국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중국어 구사능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간체자를 사용하는 중국 본토보다는 고전 중국문자를 사용하는 대만과 홍콩 출신의 학생들이 미국에서도 중국어를 구사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10대 후반에 이민을 온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중국문화권 속에서 자라고 이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미국에 와서도 중국 문화를 유지하게 되고 미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느리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영어구사능력을 빨리 익히게 되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중국계 청소년이라는 집단 내부에서도 이민의 형태와 가족 동반의 여부, 이민 온 시기, 성별, 나이, 출생지 등에 따라서 다른 문화적 동화와 언어사용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문화와 언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미국 문화에의 적응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국 문화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이 중국계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양문화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민족/인종의 이민자 청소년, 특히 홀로 청소년기에 조기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Kuo와 Roysircar(2004)의 연구도 아시아계 청소년 집단내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 사회 적응 및 교육문제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506명의 중국계 청소년들을 캐나다출생 이민 2세, 이민 1세, 그리고 홀로 조기유학을 온 학생의 3 집단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이들의 새로운 사회 적응(acculturation)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Kuo와 Roysircar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캐나다로 어린나이에 이주해 온 청소년들 일수록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영어구사능력이 높아지며, 캐나다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동화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에 이주해 온 연령이 어릴수록,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화수준이 높은 것이고, 그 반대일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세 집단 중에서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온 청소년이 다른 중국계 캐나다 청소년들보다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효과적인 문화적응이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연스러운 성장 단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와 상담전문가들도 이들 아시아계 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문제인식과, 조언, 그리고 교육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3) 아시아계 조기유학생

한편 최근 연구들은 1980년대 대만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난 홀로 이민 와 유학을 경험하는 조기유학생, 이른바 낙하산 아이들(혹은 unaccompanied minor)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낙하산 아이들(혹은 unaccompanied minors)은 보다 나은 교육기회와 경험을 위하여 홀로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8세에서 17세 사이 연령의 학생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아시아권 국가 출신으로서 F-1 학생비자나 B-2와 같은 여행/방문비자를 소지하였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영어권 국가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다. 이들은 외국에서 혼자 또는 법적관리인이나 친척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부모와 가족들은 모국에 가정의 근간을 두면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들을 학업을 보조하고 관리하는 초국가적인 가족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Zhou, 1998). 여기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발달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사회, 경제, 문화, 언어, 교육, 심리적 현상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Zheng과 Berry의 1991년 연구는 아시아계 조기유학생의 사회적응과 발달에 대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이들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계 청소년 조기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중국인 이민 2세나 비중국인 청소년 집단에 비해서 교우관계, 학업, 가정, 의사소통과 언어 등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외로움과 향수와 같은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기유학 학생들은 이민 2세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약 70%의 중국계 조기유학생들이 캐나다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Chung의 1994년 박사학위 논문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Chung에 따르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대만출신 청소년

년들의 경우 심각한 우울증, 편집증, 그리고 불안 증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대만계 2세 청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안, 과민성, 사회적 염려 등의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또는 갈등이 다수의 그리고 만성적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신체화 장애(somatization)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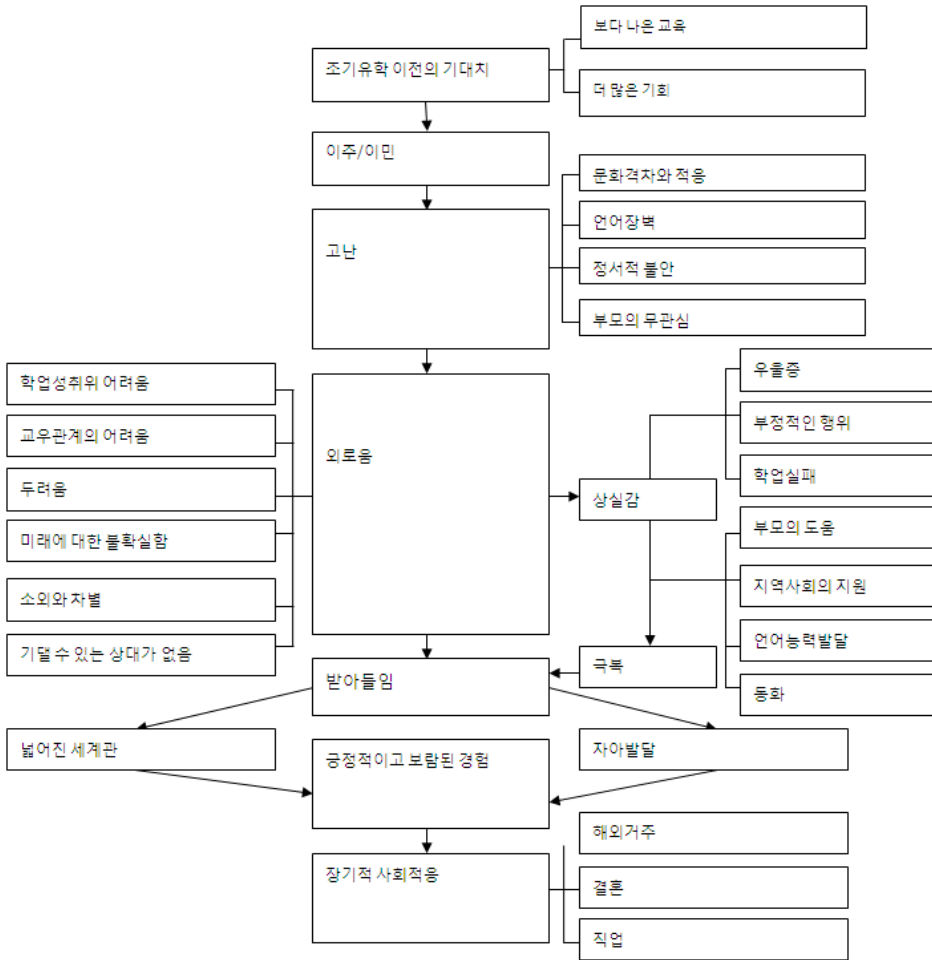
무엇이 조기유학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회, 정서, 교육, 심리적 문제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 Popadiuk(2009)의 연구는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adjustment)과 전환(tran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Popadiuk은 주변으로부터의 격려(receiving encouragement),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과의 만남(appreciating others), 타인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짐(being accepted), 친구사귀기(making friends), 그리고 타인과 즐거운 여가의 시간을 갖는 것(having fun with others)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조기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새로운 문화로의 전환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들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갖고, 교사와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특히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조우할 경우 효과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변의 격려와 도움이 부족하고 친구들과 주변인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 등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Popadiuk은 조기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직면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들은 정상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사와 상담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이들의 경험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더 심각한 심리적 질환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uo와 Roysircar(2006)는 앞서 제시된 2004년 연구의 후속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조기유학을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조기유학생들은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200여명의 학생 중, 전체 51%가 조기유학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조기유학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41%),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74%), 조기유학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없는 경우(34%)도 많았다. 또한 이들은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북미권에서의 학습과 교육방법,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인종 차별 등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술 등을 사전에 습득하지 못하여 정착 조기유학을 온 후 기존에 조기유학에 가졌던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에 힘들어 한다.

물론 조기유학이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들은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이 초기 정착과정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했을 경우 조기유학은 매우 보람되고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서 청소년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Hsieh(2008)의 논문은 조기유학 이전의 심리적 준비와 안정, 체계적인 사전준비, 그리고 부모와 친구의 도움 등이 전제가 될 때 성공적인 조기유학과 새로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ieh는 대만 출신의 조기유학생 10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조기유학 준비부터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II-4>).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초기에 언어장벽과 정서적 문제, 부모의 관심과 지원 부족, 그리고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유학을 떠나기 전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조기유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친구와 부모, 지역사회 도움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사회에도 적응하게 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보

다 넓은 세계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들은 조기유학의 경험은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잘 극복했을 경우 매우 보람 있고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고도 밝혔다.



<그림 II-4> 대만출신 청소년들의 조기유학 경험의 과정

Schilling(2008)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다. Schilling은 소위 기러기가족과 같은 홍콩 출신의 우주비행사 가족의 조기유학 자녀들이 가정

에서 겪는 문제와 갈등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조기유학의 가능성과 자녀들의 삶에 의치는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청소년들은 우주비행사 가족과 같은 특수한 가족 형태 속에서 모국에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불화와 갈등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현상을 경험한다. 전통적인 가족구성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 이 속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나 Schilling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역할기대가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이들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기유학이 청소년들의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호주에 거주하는 홍콩 출신의 기러기가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Pe-Pua 등의 1996년 연구도 이들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Pe-Pua 등(1996)에 따르면 기러기가족과 같이 아버지가 모국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조기유학을 떠나는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고충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모국에 있는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호주에서는 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지루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들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지위도 변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나 조부모, 혹은 가사도우미가 없는 삶을 어머니와 함께 꾸려가야 하므로 처음으로 가사에 참여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 가족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어머니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자녀보다 느린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한 통역을 담당하고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장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이와 같은 역할 변화는 이들의 삶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기러기가족의 자녀들이 일반 홍콩의 청소년들보다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뛰어나며 의젓하고 매사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과 대다수의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만이나 홍콩, 중국출신의 조기유학생들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조기유학생들의 사회적응과정의 문제점이나 Hsieh의 적응모델이 반드시 다른 국가 출신의 조기유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아시아계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아시아계 조기유학생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점과 정체성, 사회적응 과정 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사회적응 및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3) 한국 조기유학생 선행 연구

#### ① 북미지역 한국 조기유학생 연구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조기유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 초기에는 대만출신의 조기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Zhou, 1998). 그러나 이후부터 중국, 홍콩, 한국 등 동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낙하산 아이들 혹은 우주선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조기유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방송이나 혹은 이웃집 사람들을 통해서도 조기유학을 떠나는 청소년들과 자녀교육 때문에 기러기가족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LA나 뉴욕, 뉴저지같이 한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크게 자리 잡은 곳에서 조기유학생이나 기러기가족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사회적응, 정체성 등에 대한 이슈도 앞서 소개된 것처럼 현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한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교육경험이나 사회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 심리적 문제

점들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했다. 한인 청소년들과 조기유학생을 다룬 연구는 있지만, ‘아시아계 청소년’이라는 큰 범주에 속해있기 마련이고, 이들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출신의 청소년이나 조기유학생들과 어떻게 다른 생활을 하고, 가정환경이나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관련 연구의 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나 한인/한국계 학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거나 박사는 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996년에 발표된 안병철(1996)의 연구는 미국 소재 한국 조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남가주에 거주하는 조기유학생 54명의 설문 결과와 29명의 개별 혹은 집단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 유학생의 가정적 배경, 유학 결정 요인, 한국 학교생활과 미국 학교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Sirowy & Inkeles(1985)의 유학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안병철은 이 연구에서 유학생들의 유학 결정의 주 동기가 미국 사회의 흡입효과 혹은 한국 사회의 방출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였는데 설문 결과는 미국 사회의 흡입효과를 보여준 반면 면접 자료는 한국 사회의 배출효과가 더 큰 점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안병철의 연구는 대중 미디어가 흔히 문제 삼는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안병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국교육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본인들의 미국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개인의 학업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학생들의 65%가 외국 친구와의 교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과 사회적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 학업 성취 정도, 그리고 외국 친구와의 사회적 접촉 등은 서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15년 뒤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두휴(2010)의 연구 역시 미국 서부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1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미국

학교 경험과 생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2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다양했으며, 조기유학을 하러 나오게 된지 이년 미만의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기러기 가족으로 살고 있었다. 학생들의 눈에 비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미국교육은 한국의 교육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고 인간적이며 쉬운 편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기유학생화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내용도 어려워지고 수업부담도 있지만 한국의 경쟁위주 시험위주의 학교 문화를 생각하면 학생들은 그래도 미국 학교가 훨씬 더 낫다고 보았다. 미국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착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보다는 조용히 앉아 있고 소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 중의 하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수많은 과외/학원 교육을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점이었다. 즉, 방과 후 학생들은 대부분 서너 개의 과외수업을 받고 있었고, 영어 이외에도 다른 학과목들,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까지 과외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 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학교의 과목에 대한 과외까지 받고 있어서 방과 후 미국 학생들과 놀거나 미국 학교의 과외활동에 참가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까지 가서도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과외문화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다. 과외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거기다 언어와 문화 차이까지 더해져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조기유학생이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인 이세들과 어울리게 되고 미국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기러기엄마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른 기러기엄마들과 같은 어학원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 즉 조기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미국 속에서 한국처럼 살고 있었다.

이기홍(2006)의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조기유학생 12명과 그들의 어머니 8명을 대상을 이루어진 것으로

조기유학생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학업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사회적인 유대와 지원으로부터 단절된 채 새로운 삶과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백인 중심의 사회 구조와 인종주의 속에서 겪는 문화적 제도적 장벽 등이 이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기술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이기홍은 조기유학의 현실이 처음 유학생들이나 그 가정이 기대했던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는 박영숙 외(2002)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뉴욕과 호놀룰루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조기유학생, 미국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귀국 유학생 총 581명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 중 설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조기유학생은 362명, 귀국 유학생은 152명이었다. 21명의 학생들이 소집단 형식으로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고 뉴욕의 경우 4명의 교육위원과 교사 한명이 집단 면접에 참여하였다. 집단면접의 결과에서는 교우 관계가 한국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언어 문제, 학교 적응 시 부모의 지도가 불가능한 점, 문화적 적응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역시 청소년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청소년들이나 귀국한 청소년들에 비해 대인 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미국 일반 학생들은 73%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답한 반면 청소년 조기유학생들의 57.6%, 귀국 학생의(예전의 미국생활을 회고한 만족도) 62.3%만이 만족을 표시하였다. 특히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스럽다”나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한 조기유학생의 비율이 40.5%나 되어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이들이 겪는 심리적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 조기유학생이나 귀국 학생들이 교우 관계나 교사/교수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낮았으며 수업 참여도나, 시험 준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미국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혜순(2008)의 연구 역시 미국 시카고/위스콘신 주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소재한 8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4-9학년) 70명과 국내로 귀국한 청소년 67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하였다. 김혜순은 이 연구에서 해외 유학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학교 적응도를 언어표현 능력, 인간관계(교우, 교사), 학습활동, 학교생활태도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는데 학교생활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해외 유학 청소년의 현지 학교 적응 수준이 귀국 청소년의 한국 학교 적응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언어표현 능력,  $p < .01$ ; 교우관계,  $p < .01$ ; 교사관계,  $p < .01$ ; 학습활동,  $p < .01$ ). 해외 유학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남학생이 언어 표현 능력, 교사관계, 학습 활동 분야에서 여학생보다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인 편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유학 이전에도 이전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 보호자의 회사 업무나 유학이 주 동기가 되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든 적응 영역에서 높게 나왔으나 언어 표현 능력만은 현지인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외유학 청소년의 현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사 관계가 가장 큰 변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활동과 학교생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변수로는 박진규 (2007)의 논문이 밝혀낸 조기유학 지역과 학교에 한인학생들의 많고 적음을 들 수 있다. 박진규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연구 참가자들 역시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또래 한국 아이들이 많지 않은 환경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온 것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을 찾아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연구 참가 부모들은 그 동안의 미국 생활과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켜보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리, 자신의 자녀가 같은 또래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인 보조교사가 있는 학교

에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새로운 미국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고, 교내 또는 방과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참가들의 경험과 생각의 변화를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부모들과 사회 일반에 깔려있는 영어학습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송주영(2010)의 연구는 미국 중서부의 한 소도시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나오게 되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에는 안식년을 기회로 나온 교수 가족 둘과 회사에서 보조를 받아 나온 13 가족이 포함되었다. 대부분 이들 가정은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엄마와 아이는 비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며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으로 살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영어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 공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영어교육에 있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금전적 심리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자녀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 서라면 조기유학 그리고 기러기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영어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자녀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어 실력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 부모들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한국인상 또는 추구해야할 한국인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한국어를 모국어로서 유창히 하면서도 동시에 영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세계화가 국가의 종말, 민족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화와 함께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동반관계 또는 상보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가운(2008)의 연구 또한 미국 중서부의 대학도시에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나와 있는 가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 자녀를 둔 17 가정으로서 자녀의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나온 가정

었다. 이들 가족들이 미국으로 나오게 되는 경로는 다양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회사나 정부의 보조를 받고, 또는 교수의 안식년을 이용해, 또는 자비를 들이거나 박사 후 과정이라는 기회를 통해 나오고 있었다. 이들 부모들은 영어는 세계화 시대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로 갖춰야 할 것으로 보았고, 자녀들의 미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부모는 국경이라도 넘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조기유학을 가고 심지어 기러기가족까지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인 또는 별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연구자는 연구참가자들과의 솔직한 인터뷰와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들 역시 다른 한국의 다른 부모와 다를 바 없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보통의 한국 부모임을 지적한다. 연구자는 또한 세계화 담론이 바로 이들 부모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 자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별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보통의 자녀 교육방법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조기유학을 위해 미국에 나와 살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가정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선택이 이상하거나 예외가 아니라 평범한 것으로 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Ahn(2009)의 연구는 미국 중서부 대학도시에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 학생들의 미국의 교육과 사회에 대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다른 인종 및 한인 이세와의 교우 관계와 정체성 발달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1명의 조기유학생들 중 과반수 이상이 안식년을 나온 교수의 자녀였고, 이들 중 대부분이 부모의 유학 기간 중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본인 혹은 형제자매가 한국에서 그리 공부를 잘하지 못해 나왔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오면 한국에서 웬만한 대학을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취직이 잘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소위 말하는 도피 유학생은 아니었다. 21명 중 세 명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기 위해 나왔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부가 힘들어 나온 학생 중에서 몇몇은 단지 공부가 힘들었던 것 뿐 만 아니라 한국

의 학교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간 경우이거나, 혹은 초등학교 때 이삼년 미국에 공부하러 온 적이 있는 학생들로서, 미국의 교육과 학교 문화 그리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더 익숙한 학생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나온 학생의 경우나 미국학교가 더 잘 맞아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하고, 현지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며, AP수업을 듣고 활발히 학교 활동을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기유학을 나온 학생들의 경우, 영어가 쉽게 늘지 않아 힘들어했으며, 주로 같은 처지의 조기유학생과 어울리며 현지학생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인종 민족 문화 그룹에 대한 생각이 미국 오기 전에 가졌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같은 지역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왜 조기유학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의 조기유학 경험이나 미국/외국 학교와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현재 조기유학의 경험과 미국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와 다문화인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학자들이 연구한 북미지역 한인 조기유학생 연구들도 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중국, 일본 출신의 조기유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한 Yeh(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은 중국이나 일본 출신 학생들보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건강의 증상을 나타낸다. Yeh는 Kim의 1996년의 “Korean families”를 인용하여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Kim(1996)은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적, 가족적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하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Yeh는 왜 한국계 조기유학생들

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eh와 동료들은 2005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에 관한 주제를 연구했다. Yeh 등(2005)의 13명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혹은 자녀교육 때문에 가족과 함께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이민을 온 사례들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사이에 쉽게 간혀 버리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양문화에 적응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은 크게 내재적 갈등과 외재적 갈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내재적 갈등으로 가족관계, 진로선택과 학업,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충돌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이나 중국, 필리핀 출신의 청소년들보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하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과 패턴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녀교육에 대하여 기대치가 높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며, 장래에 의사나 변호사 등 특정 분야의 진로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학교, 또래집단, 교회 등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나 친구들과 만날 때는 영어를 사용하는 등 구사하는 언어도 수시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가치관과 행동, 외모와 옷차림 까지도 달라져야 하므로 한국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정체성의 이동과 양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한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음주와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

기도 한다.

문제는 앞서 Yeh(2003)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대다수의 한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내재적, 외재적 갈등을 경험해도 문제를 스스로 삭히고 해결하려고 할 뿐, 주변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조기유학생들에 비해 정신치료나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로 교회나 또래집단에서 사회적,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 한다.

한편,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아시아계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범적인 소수민족 편견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조용하고 수동적인 공부벌레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만 우수하다고 바라보는 편견으로서,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타인종/민족 집단의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주요 원인이고 따라서 이들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Lee, 1996, 2009; Zhou, 1998). 또한 이들은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사이에서 ‘진정한 한국인의, 혹은 미국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들만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며, 독특한 정체성 발달 과정을 경험한다.

Park(2010)의 연구는 한인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어떻게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Park은 미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고등학생 22명을 1년 이상 연구하였다. 먼저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진정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영어를 잘 구사하는 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를 원어민만큼 구사하지 못하고 아시아 국가 출신인 자신들은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나 이에 따른 인종별 계층(racial hierarchy)을 고려할 때, 자신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위계층이나 주류문화에 소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사

회가 정한 편견에 맞추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나갔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며, 좋은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honorary White) 위치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Lee(2009)나 Zhou 등(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Park도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미국사회와 학교의 인종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부 잘하고 조용한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모범적인 소수민족 이미지는 겉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굴레와 같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 등장하는 한 학생은 조용한 아시아인의 이미지, 유사백인(honorary White)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그 탓에 이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학문적 관심사가 있는지 교사와 친구들은 알 수 없다. 또한 일부 한인 학생들이 모범적인 소수민족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은 진정한 미국인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학업성적이 나쁘거나 모범적인 소수민족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한인 청소년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또래 집단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이민 1세인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 사이의 갈등과 다른 정체성 형성 과정은 Palmera(2007)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almera는 6명의 한인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 혹은 ‘진정한 미국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다르게 결정 짓는다고 밝혔다. 먼저, Palmera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민 1세)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청소년들(2세)은 좀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다른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 1세 청소년들은 2세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 모두 속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배반자(sell-outs)’ 혹은 ‘백인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White wannabes)’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온 청소년들은 미국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foreigner)’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즉, 이들은 서로를 누가 ‘진정한 00인’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서로를 자신들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집단을 나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청소년들은 미국의 주류문화에 다가가고 동화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동이나 외모를 일정부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미국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중간쯤에서 2세 청소년들과는 또 다른 하위문화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 한다고 주장한다.

Ro(2010)의 연구도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이 모범적인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Ro는 4명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을 집, 학교, 한국어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 교사들은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뛰어난 조용하고, 교사의 말을 잘 들으며, 학업성취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쉽게 가정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영어구사능력이 매우 낮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영재반으로 편성하는데, 연구자에 따르면 이는 학생들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결코 이들의 학습능력향상과 영어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영재반에서 하는 수업과 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과 협동하며 잘 어울리는 것이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한인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Ro는 학교와 교사가 한인 청소년 및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 구성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직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조기유학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②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권 연구

북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수의 조기유학생이 거주하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는 조기유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강만철, 2008;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6). 이 지역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이면서도 조기유학의 전형적인 행선지로 여겨지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생활비와 교육비가 저렴하고 거리상으로도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간층 계층 학생들의 조기유학 행선지로 부상하였다(김영희 외 2005).

강만철(2008)의 연구는 호주의 브리즈번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등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정도를 연구하였다. 총 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내 생활과 학교외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정체 관련 적응도를 조사하였는데 분석 결과 정체성 관련 적응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학교내 외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 유학 사전 준비를 한 학생, 공립학교 재학생들, 그리고 서양식 이름을 쓰는 학생들의 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읽기와 듣기 분야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말하기 쓰기 등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김영희 등(2006)의 연구 역시 조기유학 학생들의 현지 적응 및 생활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 조사 연구로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조기유학 초·중·고등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조기유학을 오게 된 동기가 주로 영어 능력과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현지의 유학생회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 등은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학업 이외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대인 관계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희 등은 또한 뉴질랜드 지역의 조기유학생 어머니들 6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조기유학을 온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조기 유학을 오게 된 주

원인에 대해서는 47%가 폭넓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고, 23.5%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약 18%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학벌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현지 학교의 좋은 점으로는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점(19.8%),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학교 환경(16.8%), 그리고 학습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17%) 등을 들었다. 그러나 현지학교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가 깊은 친구관계를 맺기 어렵고(33.6%) 현지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21.3%)도 학교 역시 외국 학생이나 부모들에 대한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23%)을 토로하였다.

한편, 박성열과 배소희(2009)의 연구는 2008년에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싱가포르로 와서 살고 있는 12가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중국어와 영어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주요 이유들-한국과 가까움, 안전함, 한국과 유사한 교육문화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이 쉬움-과 함께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밝혀낸 것은 대부분 가정들이 중국어 학습은 거의 이차적이었으며, 역시 영어교육이 그들의 제일의 관심사였다. 이것은 영어가 세계화 시대에 가지는 막강한 힘뿐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제도적 조건이나 상황이 영어와 중국어 동시 습득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대부분의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가 특목고를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특목고 진학에는 영어만 중요하지, 중국어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중국어가 제 2 모국어중 하나인 과목이라 상대적으로 힘든 수업이고, 따라서 많은 경우 수업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과외에 의존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영어 중국어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은 세계화 시대의 영어의 중국어에 대한 비교우위와 한국과 중국의 학교문화와 제도적 여건에 의해 실현되기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도구

1. 연구 대상 및 모집방법
2. 연구도구
3. 분석방법



### III. 연구방법 및 도구

#### 1. 연구대상 및 모집방법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58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참가자 모집은 지역 특성과 한인 사회 규모나 성격이 서로 다른 네 곳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비교적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대도시인 뉴욕과 아틀란타가 선정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 규모의 도시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샬롯과 인디애나 주에 위치한 대학 중심의 소도시인 로렐(가명)이 추가되었다. 대도시에서는 먼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교회, 학원을 중심으로 미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기준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지역의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 한인교사회의 임원, 현직 고등학교 교사, 학원장 등의 도움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학원과 교회 등을 직접 찾아서 학생들을 만나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문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나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의한 학생 17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본인동의서와 함께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해당 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연구 목적과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11, 12학년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들에게는 직접 연구목적과 방침을 설명하고 본인동의서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18명의 학생이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는 16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간 크기의 도시인 샬롯에서는 처음 단계에서는 학원

과 교회를 기점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후에는 참여한 조기유학생의 친구들이나 보호자들을 연계로 하여 후속 표본 수집을 진행하였다. 대학 중심의 소도시인 로렐에서는 아는 사람들을 통한 눈덩이식 표집방법으로 10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 데이터 수집 방법인 인터뷰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참여 학생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대도시의 인터뷰들은 이들이 다니는 교회와 학원, 그리고 한인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인 타운 인근의 카페 등에서 실시되었다. 반면에 샬롯이나 로렐 지역의 참가자들은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과정에 부모나 현지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연구 참여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 정도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10분 내외, 1차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약 60분(최소 40분)이 소요되었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2차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와 설문조사 당시 빠진 내용을 묻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와 1차 인터뷰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는 \$20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각 지역 간의 차이점이나 한 지역의 독특한 사항들은 각 지역 데이터의 질적 연구 결과를 기술한 제 5장에서 자세히 부연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 참가자는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으로, 전체 58명 중 남학생은 28명, 여학생은 30명이다. 이들은 11세부터 20세까지의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로서, 평균연령은 15.5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뉴욕 11명(19%), 뉴저지 7명(12.1%), 아틀란타(조지아) 16명(27.6%), 샬롯(노스캐롤라이나) 14명(24.1%), 그리고 인디애나 10명(17.2%)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58명 중 50명의 연구 참가자들은 교외지역(suburban)에 거주하고 있고(86.2%),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7명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조기유학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58명

중 서울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이 26명으로 절반정도인 44.8%를 차지했고,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 출신이 15명(25.9%), 부산 7명(12.1%), 인천 6명(10.3%), 기타 지방대도시 4명(6.8%)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의 거주형태는 부모님 중 어머니와 거주하는 학생이 25명으로 전체 43.1%의 비율을 보였고, 법적대리인이 운영하는 관리형 조기유학이나 홈스테이 방식이 16명으로 전체 27.6%로 나타났다.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9명(15.5%), 부모님 두 분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4명(6.9%), 그리고 아버지와 거주하는 학생은 3명으로 5.2%를 차지하였다.

전체 58명 중 미국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34명으로 58.6%를 차지하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4명으로 41.4%를 보여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였다. 학교규모로 살펴보면, 학생수 1,000~2,000명 사이의 규모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체 32.8%인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16명(27.6%)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서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 11명(19%)이고 500~1,000명 규모가 7명인 12.1%로 가장 적었다.

## 2. 연구도구

###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미국의 한인 조기유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실시되었다. 먼저 설문조사는 연구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항 1~6번까지는 개인적 배경, 7~10번은 가정환경과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주형태, 11~13번은 미국 거주기간과 거주지, 14~18번은 현재 재학하는 미국 학교의 특성, 19~23

번은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그리고 24~28번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연구 참가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58	100%
성별	남	28	48.3
	여	30	48.3
지역	뉴욕	11	19.0
	뉴저지	7	12.1
	중서부 (로렐)	10	17.2
	조지아 (아틀란타)	16	27.6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14	24.1
거주지유형	도시	7	12.1
	교외	50	86.2
	농촌	1	1.7
보호자유형	어머니	25	43.1
	아버지	3	5.2
	부모님 모두	4	6.9
	친척	9	15.5
학교유형	법적대리인	17	29.3
	공립	34	58.6
학교규모	사립	24	41.4
	500명 이하	11	19.0
	500-1,000명	7	12.1
	1,000-2,000명	19	32.8
한국출신지역	2,000명 이상	16	27.6
	서울	26	44.8
	수도권	15	25.9
	인천	6	10.3
	대전	1	1.7
	대구	1	1.7
	부산	7	12.1
기타	2	3.4	

특히 20~23번 그리고 25~28번 문항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에 대한 질문으로서 크게 교사와의 관계, 학습내용, 교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라이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1부터 5까지의 보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5에 가까울수록 교사와의 관계, 학습내용, 교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 별 문항수는 다음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 설문 문항 구성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개인적 배경	6	1,2,3,4,5,6
가정환경과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주형태	4	7,8,9,10
미국 거주기간과 거주지	3	11,12,13
미국 학교의 특성	5	14,15,16,17,18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5	19,20,21,22,23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5	24,25,26,27,28

## 2) 개별 인터뷰

각 학생의 개별 인터뷰는 주연구자가 개발한 면접 지침(interview protocol)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이 면접 지침은 조기 유학 학생의 한국과 미국 생활,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물어보는 14개 소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소항목은 3~4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에 14개 소항목과 각 항목에 있는 인터뷰 질문 중 하나를 예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은 개별 인터뷰를 원칙으로 삼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하게 되는 경우는 인터뷰 시간을 길게 잡아 각 학생이 충분히 자기 경험과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표 III-3> 인터뷰 지침 구성

소항목	예시 질문
개인에 대한 소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세개를 들어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	가족(혹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조기유학 결정 과정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누가 먼저 했나요?
한국에서의 사회적 정체성	한국에 있을 때 자신은 어떤 학생(사람)이었나요?
한국의 교우관계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때 OO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초기 미국학교 생활	미국학교에 들어간 첫날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현재 미국학교 생활	지금 미국교육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미국에서의 교우관계	미국에 와서 사귀 친구들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언어, 미디어, 사회적 요인	어떤 상황에서 (집, 학교)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 이유는?
한국과의 문화적/개인적 관계	한국 방문시 무엇을 했나요?
인종차별 경험	인종이나 국적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투영된 사회적 정체성	자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체성의 전환	미국에 온 이후 자신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장래계획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제 2차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음성 파일로 만들어졌고 주 연구자에게서 훈련을 받은 학부생에 의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에서 정식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진 연구이다. 따라서 주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팀의 전원이 주어진 IRB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활동 역시 정해진 기준을 따라 이루어졌다.

### 3. 분석방법

#### 1)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6.0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응답자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짝표본(paired-samples) *t*검증과 학생들의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개별 인터뷰 자료 분석

네 개의 지역에서 수집된 개별 인터뷰 음성 파일들은 주 연구자의 대학으로 보내져서 훈련을 받은 학부 조교학생에 의해 1차 녹취록이 만들어졌다. 이 1차 녹취록은 다시 각 지역에서 인터뷰를 실제 담당했던 면접자들에게 보내져서 그 정확성을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면접자들은 1차 녹취록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음성 파일과 대조하면서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동시에 참여 학생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학교 이름을 비롯해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명으로 대치하였다. 이렇게 각 참여자의 인터뷰 데이터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 역시 엑셀 파일에 따로 기록해 놓았다.

질적 분석 과정은 주 연구자가 초기에 얻어진 각 지역의 인터뷰 녹취록을 점검한 뒤 전반적인 분석의 방향과 틀을 제시했고 skype를 통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7월 말에 잠정 확정 되었다. 그 이후 각 지역의 인터뷰가 완결되고 녹취록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뷰 데이터에서 나오는 새로운

결과들을 반영하여 초기에 사용하던 질적 분석의 틀을 다소 수정하기도 하였다. 2010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연구팀에 소속한 세 연구자 모두 중간 지점인 아틀란타에 모여 문헌 연구를 정리하고 질적 분석틀을 완결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질적 분석표는 12개의 상위 범주와 90개의 하위 범주를 포함하였다. 각 지역의 면접자는 최종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개별 학생의 인터뷰 자료에서 찾아 기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여러 학생들의 사례가 서로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질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Atlasti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최종 점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기 단계 질적 데이터의 분석 방법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그 근간으로 하였고 1차 주제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각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비교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 theory)의 분석 방법인 항시비교(constant comparison)방법을 사용하였다. 항시비교방법은 연구팀이 최종적으로 실시한 지역 간 비교 과정에서도 사용되어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는 네 지역에서 총 58명의 조기유학생들에게서 나온 설문과 심층 면접 데이터에 바탕을 둔 연구로서 질적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기준들을 준수한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데이터의 질이나 연구 데이터의 다양성, 분석 과정의 일관성, 연구 결과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연구 결과의 신뢰성(credibility)이나 전이성(transferability)이 상당히 높은 연구이다.

## IV. 설문 조사 연구결과

1.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



## IV. 설문 조사 연구결과

### 1.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성적, 교사와의 관계, 학습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집단 내 인식의 변화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하여 한국과 미국에서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IV-1>).

<표 IV-1>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 기술통계

구분	한국			미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성적	57	3.19	1.4073	58	4.53	1.096
교사	57	3.65	.876	58	4.03	.837
학습내용	57	3.11	.859	58	3.88	.919
친구	57	4.39	1.013	58	4.14	.888
가족	57	4.49	.889	57	4.00	1.069

<표 IV-1>을 살펴보면 조기유학생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교육경험의 차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적에 관한 문항은 6점 라이커트척도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6에 가깝고 낮을수록 1에 가깝다. 나머지 교사, 학습내용, 친구, 가족은 5점 라이커트척도로서 이들과 관련된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5에 가깝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1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학업성적이 더 나아진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 학교에서보다 미국 학교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보다 미국 학교교육을 통해 배우는 학습내용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들은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친구 및 가족들 간의 관계가 더 원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짜표본 *t*검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성적과 가족관계의 2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성적( $M=3.19$ )보다 미국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M=4.53$ )이 더 높아진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성적의 상관관계가  $-0.275$ 로 나타난 것으로서 한국에서 학업성적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미국에서 스스로 학업성적이 더 올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M=4.00$ )보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M=4.49$ )에 더욱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대부분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부모님 중 한명과 살거나 친척, 법적대리인을 통한 홈스테이를 하는 등 다양한 거주형태를 경험하며 느끼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거주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는 일원변량분석 등을 통해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

이 장에서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성별, 거주지역, 학교형태 등 배경변인에 따라 이들의 한국에서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성별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성적( $M=3.61$ )이 여학생들의 성적( $M=2.79$ )보다 더 높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p=.03$ )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미국과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경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표 IV-2> 성별에 따른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i>t</i>	<i>p</i>
남	28	3.61	1.618	2.246	.030
여	29	2.79	1.048		

### (2) 학교형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경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IV-3>).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의 학교생활의 경험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현재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한국에서의 교사관계, 학습내용, 친구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t*검증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친구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한국에서의 교우관계가 좋았다고 응답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p=.005$ ).

반면, 현재 미국에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적 및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이 더욱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서 차이를 보였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성적도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다고 응답하였고, 미국학교에서의 학교성적의 평균치 역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교에서 교사

와의 관계와 학습내용에 대해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들이 평균 3.76의 만족도를 보인 것에 비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은 평균 4.42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003$ ).

<표 IV-3> 학교형태에 따른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의 차이

학교생활경험		공립			사립			t검증	
국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한국	성적	34	2.88	1.122	23	3.65	1.668	-1.937	.061
	교사	34	3.82	.797	23	3.39	.941	1.868	.067
	학습내용	34	3.18	.904	23	3.00	.798	.758	.452
	친구	34	4.74	.618	23	3.87	1.254	3.068	.005
	가족	34	4.53	.706	23	4.43	1.121	.391	.697
미국	성적	34	4.50	1.080	24	4.58	1.139	-.283	.778
	교사	34	3.76	.819	24	4.42	.717	-3.141	.003
	학습내용	34	3.82	1.029	24	3.96	.751	-.547	.587
	친구	34	4.32	.768	24	3.88	.992	1.941	.057
	가족	34	4.18	.869	23	3.74	1.287	1.425	.163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보다 학업적인(academic) 측면에서 학교생활에의 만족도를 보였다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관계적(relational) 측면에서 미국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M=4.32$ )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M=4.18$ )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친구관계( $M=3.88$ )와 가족관계( $M=3.74$ )보다 높았다.

### (3) 거주지역

본 연구에서는 뉴욕, 뉴저지, 아틀란타(조지아), 샬럿(노스캐롤라이나), 로렐(인디애나주)의 5개 중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을 조사하였다. 각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한국 학교생활의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은 3.50으로 샬럿(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M=3.71$ ) 함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에 관하여도 평균 3.50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뉴욕의 2.82나 로렐(인디애나)의 3.00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반면 뉴저지 지역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교우관계( $M=3.17$ )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전체 58명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 4.3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이다( $p=.021$ ).

아틀란타(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즉, 아틀란타(조지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업성적 평균치( $M=2.90$ )는 타 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고, 전체평균인 3.19에도 훨씬 못 미친다. 반면 이들의 한국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69로 타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샬럿(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학생들이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샬럿(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국에서의 학업성적( $M=4.5$ )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내용,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IV-4>). 특히 학습내

용에 있어서 샬롯(노스캐롤라이나)의 평균 3.29는 뉴욕의 4.27, 뉴저지 4.14, 로렐(인디애나) 4.20, 아틀란타(조지아) 3.81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39$ ).

<표 IV-4> 거주 지역에 따른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의 차이

학교생활경험		뉴욕		뉴저지		로렐 (인디애나)		아틀란타 (조지아)		샬롯 (노스 캐롤라이나)		일원변량분석	
국가	구분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F	p
한국	성적	11	3.09	6	3.50	10	2.90	16	2.88	14	3.71	.871	.488
	교사	11	3.55	6	3.50	10	4.10	16	3.56	14	3.57	.799	.531
	학습 내용	11	2.82	6	3.50	10	3.00	16	3.19	14	3.14	.688	.603
	친구	11	4.55	6	3.17	10	4.60	16	4.69	14	4.29	3.163	.021
	가족	11	4.82	6	4.33	10	3.80	16	4.62	14	4.64	2.325	.069
미국	성적	11	4.55	7	4.14	10	4.20	16	4.31	14	4.50	1.346	.265
	교사	11	4.27	7	4.43	10	3.70	16	4.12	14	3.79	1.405	.245
	학습 내용	11	4.27	7	4.14	10	4.20	16	3.81	14	3.29	2.728	.039
	친구	11	4.36	7	4.14	10	4.30	16	4.19	14	3.79	.814	.522
	가족	11	3.82	7	3.83	10	3.90	16	4.44	14	3.79	.945	.446

#### (4) 거주형태

본 연구 참가자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과 거주하거나, 친척 집에서 머물거나, 법적대리인을 두고 홈스테이를 하는 거주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에 따라서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경험이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거주형태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식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는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모두와 거주하는 학생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 $M=4.5$ )가 가장 높았고, 아버지만 거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3.33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미국에서 아버지만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가족 만족도의 평균치는 5.0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때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아버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IV-5> 거주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거주 형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친척		홈스테이		일원변량분석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i>F</i>	<i>p</i>
한국		4.46		5.00		4.50		4.78		4.29	.681	.608
	24		3		4		9		17			
미국		4.25		3.33		4.50		3.89		3.71	1.202	.321

### 3)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 간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의 각 요소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의 각 요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6>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 간의 상관관계

변인	한국					미국				
	성적	교사	과목	친구	가족	성적	교사	과목	친구	가족
한국 성적	1									
한국 교사	-.422**	1								
한국 과목	-.327*	.335*	1							
한국 친구	-.379**	.417**	.137	1						
한국 가족	-.391**	.179	.071	.499**	1					
미국 성적	-.275*	.153	.114	-.036	.014	1				
미국 교사	-.064	-.089	.147	-.050	.373**	.286*	1			
미국 과목	-.103	.116	.087	.175	.218	.239	.370**	1		
미국 친구	-.148	-.058	.030	.244	.284*	.266*	.277*	.193	1	
미국 가족	-.334*	.301*	.299*	.413**	.332*	.015	.120	.018	.245	1

\* $p < .05$ , \*\* $p < .01$

<표 IV-6>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성적은 다른 요인들과의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에서의 학교성적은 한국 및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경험에 관한 모든 하위요소들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적은 한국에서의 교사관계( $r = -.422$ ,  $p < .01$ ), 학습내용( $r = -.327$ ,  $p < .05$ ), 친구관계( $r = -.379$ ,  $p < .01$ ), 가족관계( $r = -.391$ ,  $p < .01$ )의 모든 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학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경험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타 학교생활에 관한 경험을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과 과목 및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학업적 요소라고 보고, 교사, 친구,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관계적 요소라고 살펴보았을 때, 학업적 요소는 관계적 요소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적이 높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에 관한 관계적 요소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IV-6>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에서의 학습내용 및 과목( $r=.335, p<.05$ ) 및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r=.417, p<.01$ ) 그리고 미국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r=.301, p<.05$ )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에서의 친구관계가 한국과 미국에서의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러한 관계적 요소들 간의 긍정적 영향을 뒷받침 해 준다. 한국에서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r=.499, p<.01$ ), 이는 미국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r=.413, p<.01$ ).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미국에서의 교사, 친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즉,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미국학교에서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r=.373, p<.01$ ), 교우관계가 좋으며( $r=.284, p<.05$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r=.332, p<.05$ )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의 다양한 요소들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미국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r=.301, p<.05$ ), 학습내용( $r=.299, p<.05$ ), 친구관계( $r=.413, p<.01$ ), 가족관계( $r=.332, p<.05$ )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한국에서 교사, 친구, 가족 등과 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던 학생들이 미국에서 와서도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하여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서 제시된 통계적 결과와 교육경험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V. 지역별 질적 자료 분석 결과

1. 뉴욕/뉴저지 질적 자료 분석 결과
2. 아틀란타(조지아) 질적 자료 분석 결과
3. 샬럿(동남부 일반 도시)
4. 로렐(인디애나 주 대학 중심 소도시)



## V. 지역별 질적 자료 분석 결과

### 1. 뉴욕/뉴저지 질적 자료 분석 결과

#### 1) 자료수집소개

뉴욕/뉴저지 지역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17명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뉴욕/뉴저지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교회, 학원을 중심으로 미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기준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뉴욕/뉴저지 인근의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 한인교사회의 임원, 현직 고등학교 교사, 학원장과 교사 등의 도움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 28명 정도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학원과 교회 등을 직접 찾아서 학생들을 만나서 연구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문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나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의한 학생 17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본인동의서와 함께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해당 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연구 목적과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11, 12학년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들에게는 직접 연구목적과 방침을 설명하고 본인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는 이들이 다니는 교회와 학원, 그리고 한인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인 타운 인근의 카페 등에서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의 연구 참여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10분 내외, 1차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약 50분(최소 40분)이 소요되었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청

소년들에게 2차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와 설문조사 당시 빠진 내용을 묻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와 1차 인터뷰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는 \$20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 2) 연구 참가자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은 총 18명으로, 이들 중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 9명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미국 중고등학교의 7~12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로서,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미국에서 친척집이나 관리형 유학기관을 통해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자녀들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5세로, 13세부터 20세 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비자형태는 주로 학생 본인이 유학생으로 등록된 F1 소지자가 전체 18명 중 11명인 6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부모가 유학생 비자 F1를 받으면서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게 된 F2의 경우가 2명, 부모님이 취업비자 H1을 받게 되면서 동반비자를 받게 된 H4 소지자가 3명, 그리고 영주권자 2명의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학생 본인이 유학생 비자인 F1이나 부모님 학생비자의 동반인 자격인 F2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영주권이나 동반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공립학교에 다닌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서울과 인천,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출신이 전체 17명 중 1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 출신도 2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뉴욕/뉴저지의 교외 지역이나 도시와 교외의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 뉴욕에 거주하는 학생은 총 11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퀸즈(Queens)지역이나 학군이 좋고 백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아 한인 이민자들이나 조기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롱아일랜드

(Long Island)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7명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리형 홈스테이 기숙사가 위치한 뉴저지 북부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3명이고, 가족과 함께 단기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온 경우 뉴저지의 중소규모의 한인 커뮤니티에 살고 있다. 이들의 미국 조기유학기간은 최소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거주기간은 4.7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의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본 결과,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 18명 중 11명으로 6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회사원, 대학교수, 치과의사, 예술가, 학생 등의 직업도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전체 18명 중 9명이 전업주부로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사, 성악가,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나머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3) 분석결과

(1) 조기유학의사결정 과정: 누가 주도했고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었는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명 중 11명의 학생들이 어머니가 먼저 조기유학과 거주 형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어머니들이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었다. 어머니들은 미국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이로 인해 때로는 아버지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역할을 맞게 되었다. 특히 뉴욕/뉴저지 지역의 경우, 줄리어드 음대를 비롯한 유명 예술대학들이 위치하여, 어머니들은 자녀가 이들 학교의 예비대학(precollege) 프로그램에 합격한 경우, 기러기 가족의 형태로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국 동부

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인근에 위치하여, 이들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뉴욕/뉴저지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조기유학을 먼저 제안, 결정한 경우는 3명으로, 이 중 2명은 자녀교육 보다는 아버지의 사업이나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오거나 조기유학을 선택한 경우이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적극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단 한 경우에 불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조기유학을 결정한 한 경우는 가정불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한 응답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양육과 교육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친척이나 조부모가 먼저 조기유학을 제안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자 조부모가 먼저 유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부모와 본인이 모두 동의하게 된 사례이다.

반면 학생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기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여 부모가 차후에 동의하게 된 사례는 2명이었다. 한 명은 사춘기에 부모,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학업도 소홀하게 되자 본인이 유학을 제안하고 부모가 동의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명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부모가 차차 알아보고 준비하여 유학을 보낸 사례이다.

<표 V-1>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	사례수(N)	세부 원인 (가장 주가 되는 요인으로 구분)	사례수(N)
어머니	11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6
		예술대학 진학을 위한 이주와 형제자매의 동반유학	5
아버지	3	아버지의 사업과 자아실현	2
		자녀의 학업부진으로 도피와 미국에서의 향상 기대	1
부모 모두	1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합의	1
친척	1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1
학생 본인	3	미국교육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교육기회를 위하여 부모 설득	1
		사춘기의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도피	1

이들 부모와 자녀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의사결정자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데는 공통적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 나아가 미국의 학교교육과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유학을 결정한 뉴욕/뉴저지 지역의 대다수의 부모들은 주입식 암기교육과 대학입시를 위한 심한 경쟁, 그리고 사교육 위주의 한국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교육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이 덜하며, 미국 학교에서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고자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학업 성적을 올리면 이로 인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수한 대학에의 진학과 취업 등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최성훈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부모들의 기대치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아마 그러니까 미국 교육 시스템 같은 게 훨씬 더 한국보다 좀 더 좋으니까. 대학교도 좀, 너무 한국은 좀 이렇게 그, 연세, 고려, 서울. 딱 그게 딱 고정관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더 좋은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대학 다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한국은 솔직히 뭐. 그런데 취업난에서도 대학교 딱 보고.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꼭 IVY도 있지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좋은 대학을 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성훈, 19세)

특히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교육의 계통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미국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보다 나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김하늘 학생의 인터뷰는 이와 같은 부모와 학생 자신의 견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면접자: 왜 엄마는 미국에 오고 싶어 하셨을 까요?

김하늘: 아무래도 언니도 피아노 하고 저도 미술하고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많은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한국은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보수적 같은 게 있어서 항상 똑같이 그러라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뭐 그냥 너 하고 싶은 데로 그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면접자: (한국과 미국의 교육방식의) 각각의 장단점이 뭘까요? 미국 교육의 스타일은?

김하늘: 아마 한국은 똑같이 그리는 거니까, 아마 그림을, 사물을 보면은 거의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막 미국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니까, 자기 스타일이 조금 더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스타일이 조금 더 장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요.

뉴욕/뉴저지의 경우 명문 사립대와 아이비리그, 줄리어드 음대와 같은 예술전문대학이 많이 위치해있어 예술교육을 목표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경우, 1명이 본인의 예술 교육을 위하여, 4명은 본인은 예체능을 전공하거나 조기유학을 뜻하기 않았으나 형제나 자매의 예술교육을 위하여 부모님이 함께 유학을 결정하게 된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조기유학을 사전에 준비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가 사전에 조기유학을 꼼꼼히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오기 전에 부모님이 조기유학 결정에 같이 참여하거나, 유학을 가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8명 중 10명으로 절반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8명 중 4명은 부모님이 사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본인은 유학 직전에 자신이 조기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전해 들었고, 나머지 4명은 그마저도 모르다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부모가 조기유학을 갈 것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미국으로 오게 된 경우이다.

<표 V-2>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준비상태	사례수(N)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조기유학을 장기간 (6개월 이상) 준비한 경우	10
부모는 준비하였으나, 자녀는 모르고 있었거나 준비 기간이 짧은 경우 (6개월 이하)	4
부모와 자녀 모두 갑작스럽게 결정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4

앞서 선행연구에 논의되었던 Kuo와 Roysircar(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조기유학을 떠나면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조기유학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학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경우 새로운 문화권과 학교제도, 학습 방법과 사회적응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조기유학 전에 가졌던 기대치와 현실에서의 어려움과의 괴리에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윤호 학생의 경우, 자신의 영어 이름과 학년이 자신과 상의 없이 결정되었던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영어공부 등 유학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에서...그냥 너 6학년으로 해 그래서 저랑 상의 없이...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와서 제가 영어이름도 모르고 왔거든요. 어머니가 바로 학교에서 지어 주신 거라, 막 서류 작성할 때 제 스펠링도 모르고 그랬는데 처음 학교 갔던 학교가 한국학생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좀 도와주긴 도와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1대 1로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답답했던 거 같아요. (이윤호, 20세)

반면 조기유학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고 부모와 함께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 초기 정착과정에서 영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왜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 (2)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 ① 학업성취도

조기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은 조기유학의 원인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 본인이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기록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제 인터뷰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난 학업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측정한 학업성적의 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뉴욕/뉴저지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의 수가 7명, 중위권이 8명, 하위권이 2명, 무응답이 1명이었다.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이 상위권이었던 학생의 숫자가 많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한국에서 학업성적이 낮고 대학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학생,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조기유학의 목표와 원인이 도피성 유학보다는 보다 많은 교육적 선택과 혜택의 기대나 아이비리그 대학진학이 많았던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다소 많았다. 최성훈 학생의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주입식 교육과 입시제도, 학원과 사교육열풍 등 전반적인 한국의 교육제도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 및 선택의 기회가 많은 미국의 교육을 선택한 사례이다.

너무 암기를 위주로 하는 것 같다고 할까? 사회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랬으니까 외우라는 식이었고, 과학도 이랬으니까...수학도 뭔가 굉장히 딱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따라 갈 수는 있지만, 전혀 그렇게 뭐 배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랄까? 네. 그랬었어요...학원도 그냥 다니라니까 다니지만...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 (최성훈, 18세)

전체 18명 중 10명이 중하위권의 성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주로 한국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학생으로서, 특히 한국의 치열한 내신과 입시경쟁, 그리고 대학입학제도와 이를 위한 학원, 과외,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의 교육제도는 자율성이 높고 경쟁이 덜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살기 좋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뭐 야자(야간자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자 같은 거 하는 것도 힘들 거고, 모의고사도 있고 수능도 한 번 밖에 못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와서 시험은 되게 많아도, 생활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김하늘, 16세)

면접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 생활이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윤호: 그냥 (너희들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난 천국에 산다고 (이윤호, 20세).

## ② 교우관계

대부분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은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친구들과 방과 후에 어울리기 힘든 미국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집 근처의 공원, 카페, 쇼핑몰에서 놀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고, 영화를 보는 등과

같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반면 3명의 학생은 한국에서 친하게 어울리는 또래집단이 없거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치동, 서초동 등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일산 등 교육열이 높고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조기유학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에 살았던 여학생 2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학원을 많이 다니며, 학교와 가정에서 친한 친구와 비교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친구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해외에서 돌아오니 친한 친구들과도 어색해지고, 친했던 친구는 그 사이에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등 친구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저는요 그 때 뉴질랜드 3개월 갔다 와 가지고, 막 학교 갔는데. 3개월 갔다 오니까 좀 애들이랑도 서먹서먹하고 그 때가 5학년 끝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유학가고, 떠나고 그래 가지고 저도 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최한나, 18세)

### ③ 전반적인 학교 경험

앞서 제시한 것처럼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및 추억 등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수정 학생은 예중과 같은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은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고민도 털어놓고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제가 생각이 비슷한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니깐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갈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발레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극도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 얘기할 거리가 비슷하니까, 아 너 레슨이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비슷하잖아요. 콩쿨 같은 것도 그렇고. (김수정, 17세)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 주입식 교육, 지나친 사교육과 학원에의 의존, 체벌, 촌지문화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한국에서 교사들이 칠판에 쓰고, 필기하고, 위우는 교육방식이 몹시 지루하고, 점수와 등수로 인한 지나친 경쟁, 줄세우기식 교육방법,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학교공부와 입시제도에도 염증을 느꼈다고 한다. 다음에 제시된 학생들의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게요.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고요. 제가 얼마 안다녔지만 기억하는 건 한국에서는요, 거의 학원문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알지? 하면서 이거 풀어봐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배워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거를 못 따라 갔어요. 학원에 안 다녔거든요. (이강산, 18세)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를 해봐도 미국은 사생활까지 다 하고 운동할거 다 해도 좋은데 가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뭐 운동, 사생활 그런 거 없이 학교에만 하루 종일 있다가... 네. 딱 막혀 있는 거죠. 감옥 같은 생활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사춘기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때 딱 가뉘두는 건 좀 안 좋다고. (이윤호, 20세)

한국에는요, 되게 막 시키잖아요, 강제로. 제가 다닐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일등만 선생님이 좋아하고, 그런데 미국 학교는 못 하면 더욱 더 도와주려고 하고 막 extra help 오라고 하고. (백정은, 17세)

한국은 ...그냥 애들이 떠들면 떠드는 데로 놔두고. 선생님들 막 화나면 스트레스를 저희들한테 풀고 그래가지고, 싫었어요. (김보람, 13세)

### (3) 미국에서의 학교 경험과 어려운 점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미국 사회에 처음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경우, 전체 18명 중 17명이 영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을 초기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점으로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영어회화와 영어작문 등을 학원에서 공부하고 조기유학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 역시 처음에 친구들과 대화하려니 말이 잘 안 나오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었다고 밝혔다.

언어장벽의 문제는 친구를 사귀거나 수업시간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인다. 유연아 학생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처음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렇게 한국말로는 말 편하게 꺼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처음 본 애들한테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말 걸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막 처음에 친구 사귀기도 되게 어려워서 힘들 때 많았어요. (유연아, 15세)

문화적 차이 역시 학생들이 초기에 학교와 교우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기유학을 가거나 학생 수가 적고 백인 위주의 카톨릭 학교 등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인을 신기하게 여기는 학생들과 학교 분위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고 자라온 문화도 다른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자마자 한 3일 있다가 학교를 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는 또 반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 저랑 선생님이

랑 어떤 여자랑 말을 하는데, 애들이 동양 애를 처음 보니까 막 붙어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실험 막 실험용 쥐 같은... 애들이 막 물어 볼 때 있잖아요. 어느 나라 애냐고. 그럴 때 조금 기니피그 같았어요. 무조건 다 중국 애냐고 물어 보니까. (백정은, 17세)

언어장벽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내용이나 과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초기에 학업성적도 뒤쳐졌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철준 학생은 처음 5~6개월 동안은 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수업시간에 전자사전으로 게임을 했고, 6개월 지난 후부터 조금씩 알아들 수 있었지만 1년이 된 지금도 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후나 방과 후에 1:1로 지도해주거나 별도로 알림장 등을 관리해주고, 한인 유학생들이나 2세 학생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언어장벽의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교육방식이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처음으로 원리를 배우고 개념을 이해해 나가며, 교사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언어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운호 학생의 경우 처음 4년 동안이나 한국인 과외선생님을 따로 두어 숙제를 하거나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언어장벽의 문제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교사와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학교와 방과 후에도 한인 유학생이나 2세 학생들과만 어울리는 학생들 5명은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아직도 소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로 말하는데 자신이 없고 자신이 발음이 좋지 않다며 인터뷰 중 영어로 질의응답하여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질문을 거부하였다. 전체 17명 중 11명이 친구들과과는 영어보다 한국어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고, 방과 후에는 14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쓴다고 답하였다. 즉,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장소와 상황	사용 언어	사례수(N)
학교	한국어	5
	영어	12
	둘 다	1
친구관계	한국어	11
	영어	6
	둘 다	1
방과 후	한국어	14
	영어	3
	둘 다	1

학교에서의 문화적 차이나 친구관계, 언어장벽의 문제 이외에도 조기유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법적대리인과 생기는 마찰과 갈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기는 정서적 어려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외국인 법적대리인이나 친척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들과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연아 학생의 경우,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뉴욕 북부 지역의 흑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좋은 음식을 주지 않아서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 못했고,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을 시험시간에도 할 것을 강요하여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유연아 학생은 2년간의 조기유학생생활이 외롭고 힘들어서 곧 한국으로 돌아가서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척들과의 성격차이, 대화의 부족, 인터넷과 TV시청을 엄격하게 제약하는 사생활의 관여,

공부의 강요, 자동차 라이드(ride)를 잘 해주지 않는 등 조기유학생들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점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기러기 가족의 형태로 부모님 중 한명과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등 가족 내 역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미국으로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와 갈등을 갑자기 경험하게 된 것이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러기 가족 중 미국으로 같이 온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설거지와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도우며 학교생활을 하려니 바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엄마 밥 안 차려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가서 다 해야 될 때. 꼭 엄마 저기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 엄마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그 좀 설거지 하는 게 밀리고 밀릴 때는 진짜 해야 되니까. 빨래도 그렇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밥 못 먹을 때 진짜. 그리고 아플 때, 그냥. 엄마 없을 때. 아빠도 다 이제 늦게 오시고 그러니까. (김소은, 16세)

김소은 학생은 또한 자녀를 3명이나 미국에서 공부시키려니 부모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버지도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미국 음식점에서 웨이터로 일하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 하였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담을 인터뷰를 통하여 이야기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먼저 전체 18명 중 12명의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고, 모르는 것

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1:1로 가르쳐주며, 학생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체벌을 하지 않아서 좋다고 밝혔다. 김승환 학생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영어실력도 향상되고 학업 성적도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뭐 말을 잘 못했었으니까. 근데 3학년 지나고 영어를 잘 하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4학년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에 애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서 계속 conversation을 해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그 덕분에 5학년을 잘 할 수 있었었고 공부가 그때부터 middle school갈 때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얼마나 좋아졌냐면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recommendation을 물어보면 정말 phenomenal하게 적어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만큼 (제가) develop할 수 있게끔. (김승환, 17세)

최성훈 학생은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과 교사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교사와의 가까워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측면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감도 되게 많이 늘었고, 선생님이 도움 같은 거, 따로 학교 남아서도, 일대일로도 자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그러니까 뭐든 걸 털어 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로 바뀔 정도로. 이메일도 가끔 가다 하고...이번 학년은 제가 영어, 영어 선생님이랑 되게 많이 지냈고. 그리고 화학 선생님, 제가 research를 같이 했거든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되게 많이 친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최성훈, 18세)

최성훈 학생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미국 교사들은 틀려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도움과 격려를 주기 때문에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며 배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격 또한 밝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 결과, 교사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생들의 성공적

인 초기 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최성훈 학생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학업성적이 상위권이고 Honor 혹은 AP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일수록 우수한 학생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배움의 폭이 넓으며, 교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도 미국교육의 장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학급과 Honor 혹은 AP는 학습량과 수업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교사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폭이 넓다고 강조하였다. 최한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완전 이렇게 받쳐 주고, support 많이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Honor랑 regular 차이가 되게 엄청 나요. 그런 거... 네, (우수한 학생들이) 더 크게 될 수 있게 잘 끌어 주는 것 같아요. (최한나, 18세)

학생들은 미국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학교에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한국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사교육 및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의 실태와 비교할 때 미국 학교교육을 통해 더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학교교육은 퀴즈와 시험이 자주 있고, 과제와 프로젝트 활동 등이 많아서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기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수업내용을 따라가야 하므로 오히려 공부하는 양과 질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항상 선생님들도 계획을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퀴즈를 주면, 그 다음 주엔 테스트를 주고, 퀴즈를 주고 또 테스트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젝트도 중간 중간 주면서 딱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양이 많아요. 그거 보면 진짜 벅차기도 한데, 지나서 생각 해 보면, 진짜 배운 거 많다, 이런 생각을 하니깐. (김수정, 17세)

홍윤수 학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primary source들을 접하고 이를 통해 해석과 이해를 하는 역사공부를 하니 지루하지도 않고 과거의 사회와 사람들의 삶 등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서와 책, 시험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교육의 장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음, 저희 학교는 너무 이렇게 공부만 그렇게 얘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공부하고 그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밖에 나가서도 하고, 그런 게 더 많으니까 더 재미있고,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고. (함유리, 18세)

김승환 학생의 경우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리더십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모의유엔(Model UN), 아이리쉬 클럽(Irish Club), 별자리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Astronomy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학동아리의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내에서 기도모임을 만들고 내년에 컨퍼런스를 열기 위하여 모임을 기획하고 설립하는 중이다. 이 학생은 방과 후 학습활동과 다양한 경험이 본인의 학습과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 교육의) 공통점은 교육을 많이 시켜요 둘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공부니까... 많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보면 공부를 학교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더 배울 수 있게, experience로 더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 학생들이 잘 engage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밤낮이 다 공부죠. 밥 먹을 때도 공부. 미국은 좀 더 문화적으로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 같아요. (김승환, 17세)

그러나 학생들이 미국 학교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18명 중 7명은 미국 학교는 교사의 자질과 열정에 따라 수업의 질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교사에 따라 학업성취도 및 과목에 대한 성적과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역사 및 사회과 교사들이 교과서만 읽게 하고 유인물에 빈칸을 작성하게 하는 지루하고 무성의한 수업 때문에 사회 과목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요? 어... 그건 때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 이런 것도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냥 항상 뭐 TV에 틀어놓고 이거 보고 노트 적고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라 그걸,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말할 수 있어서. (이강산, 18세)

전체 18명 중 5명은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동을 하다가 수업에 늦는 경우도 있고, 수업별로 학생이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고 응답하였다. 4명은 시험을 너무 자주 보고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서 성적을 지속적으로 상위권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내신을 너무 많이 봐요. 내신... 뭐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 하셔가지고 되게 depress 되에 있을 때 그 때 성적이 되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한결같이, 사람이 한결 같이 잘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한나, 18세)

기타 의견으로는 조퇴와 병가 등 모든 결정을 부모님 동의를 받고 상의해야 하는 등 학생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한다(2명),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등하교 시간이 오래 걸린다(2명), 체벌이 없는 대신에 벌점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부담스럽다(2명), 강한 규제가

없어서 학생들의 태도가 좋지 않고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1명)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앞서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가 기록한 학업성적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과 학생을 소개시켜준 교사, 학원장, 교회 봉사자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학업성적을 상, 중, 하위권으로 구분해보았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전체 18명 중 1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위권은 학교에서 내신성적으로 평균 90점 이상을 받으면서, Honor class나 AP와 같은 수업을 성공적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물론 상위권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김승현 학생과 같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성적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이용규 학생처럼 평균 내신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이는 주로 수학과 같은 이과과목 때문이며 영어 말하기와 작문 실력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학생도 있다.

중위권 학생은 전체 18명 중 5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평균 점수가 80점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P와 같은 수업을 신청했으나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낮은 점수를 받고 일반 수업으로 내려온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들 5명 중 3명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거나 성적이 떨어진 후 미술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이다. 미술 실기와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위해서는 AP 등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학업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없으므로 예술교육과의 병행의 효과가 이들의 학업성취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위권 성적을 기록하는 학생도 2명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학온 지 4년 이상이 되었지만 영어를 잘 못하고 주로 한인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학업과 조기유학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 장래희망이나 전공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표 V-4>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번호	이름	한국 학업성적	미국 학업성적
1	구현빈	상	상
2	김병호	중	중
3	김소은	중	상
4	김수정	상	상
5	김승현	-	상
6	김승환	중	상
7	김철준	하	중
8	김하늘	중	중
9	백정은	상	상
10	유연아	중	상
11	이강산	중	중
12	이용규	상	상
13	이윤희	하	하
14	장호연	중	중
15	최성훈	상	상
16	최한나	상	중
17	함유리	중	상
18	홍윤수	상	상

이들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성적과 미국에서의 성적을 비교해보았다. <표 V-4>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미국에서도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미국에서 오히려 중위권으로 내려온 한 가지 사례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학업성적이 오른 경우는 5명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받던 점수나 등수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학업성취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미국학교에서의 교우관계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의 교우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한인 유학생들이나 2세 학생 등 한인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조기유학생들이 학교와 방과 후에 만나고 친하게 지내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을 1차 집단,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마음을 터놓지는 못하지만 주로 함께 어울리는 집단을 2차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 모두 한인 청소년들과 주로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집단의 경우, 한인들과 가깝게 지내고 방과 후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며 어울리고 마음을 터놓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18명 중 8명이었다. 인종 구분 없이 다인종 학생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롱아일랜드 학군이나 뉴저지에 위치한 작은 카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고 성적도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6명은 친하게 지내는 1차 집단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미국에 와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차와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못해 친구들과 방과 후에 마음껏 어울리거나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원인이었다. 즉,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학교와 방과 후에 다인종/다민족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V-5> 뉴욕/뉴저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학교유형	번호	이름	1차 집단	2차 집단
공립	1	김수정	없음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2	김하늘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3	김보람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조기유학생
	4	김소은	다인종 미국인 급우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5	이용규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6	최한나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조기유학생
사립	7	구현빈	백인 미국인 급우	다인종 미국인 급우
	8	김승환	없음	다인종 미국인 급우
	9	김승현	다인종 미국인 급우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10	김철준	없음	한인 조기유학생
	11	백정은	다인종 미국인 급우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12	유연아	없음	한인 조기유학생
	13	이강산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조기유학생
	14	이윤호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조기유학생
	15	장호연	없음	다인종 미국인 급우
	16	최성훈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7	함유리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8	홍윤수	없음	다인종 미국인 급우

2차 집단의 경우, 전체 18명 중 10명의 학생이 한인들과 주로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지 않더라도 학원이나 주말에 한인 교회나 봉사단체 등에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이들이 주로 한인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명은 다인종 학생들과 어울린다고 응답한 학생들로서,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친하게 진내고 어울리는 또래집단이 다인종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1, 2차 사회적 집단 모두 한인들과 어울린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아직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인종 학생들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학생들은 미국에서 한인 사회와 유학생들의 커뮤니티가 다소 폐쇄적이고 한인들만의 끈끈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말과 문화가 통하는 한국인들과만 교류하다보면 외국인들과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아무래도, 저희 한국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데, 오히려 더 틀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끈끈함 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갇히면은, 오히려 막 외국 애들을 못 만나고, 그냥 한국 애들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김수정, 17세)

전체 18명 중 4명의 학생이 자동차가 없으면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못해 친구들과 방과 후에 마음껏 어울리거나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관심사의 차이 등 문화적 차이가 다인종 친구들을 사귀는데 장애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인 조기유학생들 중에는 한인 친구들과 일부러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5명의 학생들이 다른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한국말만 사용하고 학업을 게을리 하며, 나아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등 탈선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한인 타운에서 놀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며 미국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윤호 학생과 같이 내신 성적을 올리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므로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학생

들도 있었다.

그냥 아무래도 놀다 보면 (한인)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 좀 더 지장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11학년 SAT 막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학생들 많이 만나서 놀러다니고 그러느라고 좀 지장도 받았고요. 나중에 뭐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만나는 친구들을 사귀는 거 외에는 딱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유학 처음 온 학생들한테는 좋은데 막 대학교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만나는 건 좀. (이윤호, 20세)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가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거나 차단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영어실력 향상과 학업에의 집중, 그리고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자: 그렇구나...자기 자신도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홍윤수: 그건 좀 과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면접자: 과하게?

홍윤수: 네.

면접자: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홍윤수: 네.

면접자: 어 그렇구나. 아버지가...공부나 생활...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홍윤수: 그냥 뭐 공부 같은 걱정 하시는데, 뭐 친구 관계는 좀 (더 심하게).

면접자: 그거를 (친구관계를) 중시하시나보다.

홍윤수: 네.

한편,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 조기유학생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들 간의 갈등과 문화적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청소년들은

FOB(Fresh off the boat)라고 불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Twinky (겉은 노랑고 속에는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과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FOB과 Twinky는 옷차림과 걸모습 그리고 언어사용 등 겉에서 봐도 차이가 확연하며, 이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불편함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어울리는 한인이랑 서로 처지가 비슷한 FOB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한나: Gap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희 학교는. 개네 들은 완전 생각하는 게 백인들 아니에요?

면접자: 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껴요?

최한나: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면접자: 예를 들어서?

최한나: (유학생들이) 영어 못 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몰라요 저희는 (웃음) 느끼는데...그런데 보기에는 또 막 그렇게 백인들이랑은 또 섞이지 못해요. 지네끼리 또 있어요.

면접자: 그렇구나. 그럼 그런 점이 학교생활 하면서 좀 힘든 부분으로 다가와요?

최한나: 아니요. 그냥 같이 다니는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더 편하고. 괜히 뭐 친해지고 싶어서 (2세 친구들에게) 막 말 걸고, 놀고 그런 건 (없어요)...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맞아요. 유학생은 유학생들끼리 만나는 게 편하지...일단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딱히 집어내긴 뭐한데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윤호, 20세)

면접자: 친구들 이렇게 보며는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백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들은) 그냥 한국말이 서툴고요, 말해도 가끔씩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접자: 예를 들면?

백정은: 말 할 때 뭐... 한국 그냥 역사 idio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웃음).

면접자: 그런 거 이해하는 거 힘들고, 또?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는?

백정은: 사고 방식이요? 이런 애들은 되게 많이 노는 것 같아요.

면접자: 많이 놀아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놀아요?

백정은: 되게 개방적이고요, 옷 벗는 거 별로 상관 안 하고요. 노는 거 되게 좋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구장, 노래방, PC방 이런데.

종합해보면, 비교적 대규모의 한인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어 있는 뉴욕/뉴저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온 청소년들(FOB)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Twinky)들 사이에 심리적,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로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다른 성장배경과 언어사용, 여가를 즐기는 방식과 사고방식 등으로 인하여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윤호 학생의 경우는 처음에 뉴저지로 이사 왔을 때 유학생과 2세 구분 없이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갈수록 유학생과 2세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학교 분위기를 느꼈고, 그 와중에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집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윤호 학생은 자신들과 더 비슷한 한인 조기유학생 집단을 선택했고, 이후로 2세 학생들과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샬롯과 아틀란타 등 타지역 학생들의 교우관계 유형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샬롯, 아틀란타, 인디애나의 대학타운 등 비교적 중소규모의 도시와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한인 2세 청소년들과도 학교와 교회 등에서 잘 어울리고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지역별 연구결과를 통해 조기유학생들의 교우관계 유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5)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인종차별 혹은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고 들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2명을 제외한 16명이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이나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례로는 친구들이 아시아 사람들의 작은 눈과 피부색 등 외모를 비하하면서 ‘You are so yellow’라고 말한다던가 아시아계를 통칭하여 ‘칭크’나 ‘치노’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걸모습 이외에도 영어발음이 좋지 않다고 놀리거나 따라하는 경우,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비하하는 경우, 학교 복도를 지나가거나 혹은 실수로 부딪히는 경우 아시아인을 비하하며 욕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작년에는 계속 한국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동양 사람은 길에 있는 거 다 주워 먹는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요...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장난친다고 했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구요...남한사람이나 북한사람이나 이럴 때...Korean Identity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분이 많이 나쁘죠...모르는 사람이 했을 땐 그냥 하지마라. 모르고 니가 나한테 말할 처지도 안된다. (김승환, 17세)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친구들이 항상 ‘Are you Chinese?’ 혹은 ‘Are you Japanese?’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이 북한과 김정일을 비하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농담을 하고 너도 북한사람이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할 때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애들이 (수업시간에) 김정일 그 얘기 할 때마다 너 South Korean 이냐고 물어보고. 김정일 가지고 애들이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김정일 이름 부르면서 I love

you 그리고. (장호연, 14세)

지역사회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다. 최한나 학생의 경우, 건널목을 건너다가 운전연수중인 백인 여성의 실수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백인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몹시 항의하며 ‘내가 영어를 못 읽는 줄 아느냐! 분명히 운전자의 책임이고 증인도 있는데 내가 건널목에 뛰어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라고 따져 물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선입견과 편견, 이로 인한 차별적인 언행이 한인 조기유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인종차별의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났듯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모범적 소수민족, 즉 ‘모범적인 소수인종(model minority)’로 보면서 이들을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나며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선입견을 벗어나는 학생들을 아웃사이더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Lee, 2009).

일단 ‘한국인은 수학을 다 잘해야 된다. 넌 Asian이니까 수학 잘 할거야. 이것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나오고...(그런 편견이) 심하고요...전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되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 한국사람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랑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해같은 것도 하고. (이윤호, 20세)

이윤호 학생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이 되며,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계 친구들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이 싫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별로 학생들의 집단이 나뉘는 경우와 소수집단인 한인 학생들이 주류 집단 학생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하였다. 특히 백인 부유층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랜드 지역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의 학교 문화와 부유층의 사교 문화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파티나 학교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과 갈등은 주로 학생 수가 많고 다인종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립학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로 운영되며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께 지내는 카톨릭계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의 사례가 적었다. 카톨릭계 학교에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서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소규모 학교이므로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나 2세 학생들이 타인종이나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학생들은 특히 중국계 학생들에게 더럽다거나 속칭 ‘짱깨’ 라던가 하는 표현을 쓰며 불화를 일으켜 학교에서 싸움이 나거나 패가 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시하거나 기분이 나빠도 가만히 있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었다. 앞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종차별을 경험한 최한나 학생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하였을 뿐, 나머지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분이 나빠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6>은 각 학생들의 인종차별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 및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사립학교 학생들 12명 중 3명이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학교 분위기도 다문화를 인정하고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로 보아 대규모, 다인종의 도시지역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소규모의 교외지역 사립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V-6> 뉴욕/뉴저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학교 유형	번호	이름	인종차별 경험	현재의 상태
공립	1	김수정	음악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연습을 안 한다는 편견이 팽배함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대꾸함
	2	김하늘	흑인 여학생들이 아시아 여학생들을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태도를 보임	눈을 흘기는 정도로 기분 나쁜 표시는 하지만 흑인들이 무서워서 항의하지 못함
	3	김보람	학교 전체적으로 인종 집단간 갈등이 심하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음	오히려 동양인이 타인종을 무시하는 학교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음
	4	김소은	영어를 의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룹 이벤트나 활동에 끼워주지 않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애써 친해지려 노력하지도 않음
	5	이용규	중국인이나고 물어보고 아시아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함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무시함
	6	최환나	교통사고나 났는데 경찰이 가해자인 백인여성을 옹호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함	경찰에게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하여 진술서를 수정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면 따져 묻게 됨
사립	7	구현빈	백인 친구가 더럽다고 저리가라고 함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음
	8	김승환	개를 먹는 문화나 기타 음식에 대한 편견과 놀림. 남한과 북한에 대한 편견과 기분 나쁜 농담 등.	무시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고 충고함. 말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음
	9	김승현	직접 경험하지 못함	유학생들이 10년째이므로 언어와 친구 사귀는데 문제가 없음
	10	김철준	눈이 작다고 놀림을 당함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가만히 웃었음
	11	백정은	직접 경험하지 못함	학교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항상 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싫어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인식시킴
	12	유연아	영어발음을 따라하면서 놀리거나 나이를 어리게 보고 막 대하는 경우	그냥 웃고 말았음
	13	이강산	길거리에서 백인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함	괜히 응대했다가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냥 무시함
	14	이윤호	동양인인데 왜 수학을 못하냐, 영어발음이 왜 그 모양이나 라고 놀림을 받음	그냥 무시함
	15	장호연	남한과 북한에 대한 편견과 김정일 등을 소개로 한 기분 나쁜 농담.	그냥 무시함
	16	최성훈	직접 경험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문화가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에서 생활

17	함유리	동양인은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나와 비교하고 놀림	그냥 무시함
18	홍윤수	길거리에서 백인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함	그냥 무시함

## (6) 조기유학 동안 성격과 정체성의 변화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 그리고 학교생활 및 학습방법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적 변화를 경험한다(Zhou & Lee, 2004). 본 연구에서도 뉴욕/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생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스스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에 함께 참여한 김수정, 김하늘 자매는 부모님이 따로 살면서까지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에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학교 교육과 사회적응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꿈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김철준 학생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미술을 전공하여 예고를 가려던 꿈도 중도에 포기했으나, 미국에서 각종 대회에서 상도 타고 학업성적도 오르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아 예술계로 진로를 모색 중이었다. 미국 학교교육과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습활동을 하고 진로와 적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학교성적도 좋고 모범생이었으나 미국에 온 후 성적이 떨어지고 목표의식을 잃는 등 정반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미국문화에 대한 동화되어 가는 것과 자신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3명의 학생은 미국에서 살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자립적인 성향이 많이 생겼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도 밝아졌다고 밝혔다. 함유리, 구현빈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신

이 지나친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줄어들고 보다 유연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명의 학생들은 언어장벽 및 사회적응 등의 이유로 성격이 조용해지고 소심해졌다고 밝혀서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법적대리인이나 친척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 3명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울해지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학생은 전체 18명 중 4명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개종을 하여 교회에 다니거나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깊어진 것이 자신의 큰 변화중 하나라고 말했다. Pang, Kiang 그리고 Pak(2004)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사회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교회가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외모의 변화와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 등의 걸모습으로 미국 사회에 얼마만큼 동화되었느냐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 수년이상 살았지만 한국인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학생들은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 17명 중 7명이 여전히 김치 등 한국음식을 찾게 되고 한국 TV와 대중문화를 더 선호하는 등 한국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5명의 학생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저는...한국에 그런 자부심이 많아서요. 저는 한 번 한국인은 영원한 한국인 이니까.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한, Korean American 이라고 믿기긴 힘들 것 같아요. (백정은, 17세)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물어본 결과 전체 18명 중 9명이 자신을 한국인(Korean)이라고 응답했고, 7명이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그리고 2명이 무응답을 하였다. 앞서 백정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규정짓는 학생들은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본다면, 자신은 이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르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구분 짓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Korean American 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지 그냥. 이민자일 뿐이지, 그런 건 없어요. (Korean American 혹은 Asian American이런 말은) 그냥 Korean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별도로 부르려고 이렇게 만든 명사지 나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이용규, 17세)

이들 중 일부, 특히 남학생들은 자신은 한국인이 좋으며 사고방식이나 문화, 또는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도 없으며 한국에서 군대도 반드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문화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며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받아들이기에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여기서 거의 살았고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view를 많이 봤고 그 culture에서 자랐으니까 Korean-American이라고 하는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국문화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태어난게 한국이고 자랄 때 어머니가 한국교육을 시켜주셨고, 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김승환, 17세)

김승환 학생의 여동생 김승현은 미국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경우로 미국 문화와 영어가 더 익숙하지만, 오히려 성장해가면서 미디어나 학교수업을 통해 수업을 접하고 특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겨나고 자신을 미국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은 자신들의 실제 여론상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된 김승환, 김승현 남매를 포함하여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인식한 학생들은 모두 한국 국적 소유자들로서 유학생 신분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미국 학교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에서의 성적에 비하여 미국에서 많이 향상됨을 느끼거나, 미국 학교생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장호연 학생과 같이 조기유학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학생도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실제 성향이나 정체성 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남에게 비춰지고 싶은지, 얼마나 미국사회에 동화되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호연 학생은 특히, 한국계 미국인처럼 비춰지기 위하여 머리스타일을 바꾸고, 몸에서 한국인 냄새가 날까봐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 김치나 국과 같은 한국식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따로 사먹거나 서양식 식사만 먹고 있었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들에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 묘사해보도록하고, 이를 통해 조기유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projected self)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뉴욕/뉴저지 학생들의 경우 전체 18명 중 13명이 자신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조기유학생들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말했고, 5명은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며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밝혔다.

조기유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그리고 희망 거주지에 대한 인터뷰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먼저 전체 18명 중 5명의 학생이 향후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하였고, 3명이 한국, 10명이 아직 잘 모르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

고 응답한 학생들은 미국의 교육방식과 대학입시에 적응하는 중이고 미국의 대학이 한국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더 편하고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집단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0명이었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이나 일단 대학은 미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결과, 향후 거주지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학생의 수가 전체 18명 중 절반인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명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면 한국의 대학입시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학도 못가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취업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조기유학생들이 향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과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지역은 차이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향후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국가	희망 대학진학 지역 (N)	희망 거주 지역(N)
미국	9	5
한국	4	3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5	10

## (7) 다문화적 이해도, 시민성 발달, 사회경제문화 자본의 영향

### ① 다문화 적 이해도 분석

앞서 Adler(1975), Schaetti(1996) 등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다문화, 국제화 사회에서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의 문화를 초월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다문화적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이해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어떤 범주에 해당하며 어떠한 다문화적 이해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이론에 따라 다문화적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잘 발달시키고 학생들이 다문화적 이해도가 높다고 본 연구에서는 이해하였다. 인종차별이나 편견, 선입견에 등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없이 미국 사회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Banks, 2007).

<표 V-8>은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문화적 이해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문화적 이해도가 ‘상’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고 학교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민족의 학생들과도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방과 후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사회내의 다문화적 측면과 인종차별에 따른 인종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김승환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국역사가 백인들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서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US History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미국의 opinion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다. 어쩔 땐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끝내고. 제가 외국인으로서 들어보면...그것 (침략의 역사)을 약간 좋은 걸로 말하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경계를 했었어요.

<표 V-8>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다문화적 이해도	특징	사례수 (N)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사회 내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다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li> <li>-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li> <li>- 타집단의 문화와 특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li> </ul>	4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이나 선입견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li> <li>-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 그리고 다민족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li> <li>- 다문화적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타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li> </ul>	9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인식한 적이 거의 없고 미국 사회 내의 인종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주로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여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외모 등으로 타인종/민족 집단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li> </ul>	4

다문화적 이해도가 ‘중’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없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묵인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용규: 인종이 꼭, 백인이 흑인이나 동양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인종끼리 욕하는 거 있어요..제가 지나가도 Asian 뭐 치노, 칭...진짜로 하는 것들은 뭐, 시비가 붙거나, 운동을 하거나, 잘못 되거나 그럴 때 하고. 동양인 보고도 뭐 nigger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도 하고.

면접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이용규: 저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가지고.. 신경 안 써요.

반면 다문화적 이해도가 ‘하’로 나타난 학생들은 주로 한인 이민자와 2세 학생들과 어울리며 타인종 집단과의 교류가 적어 이들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들의 외모와 출신국가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적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의 타인종/민족 집단에 편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솔직히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가장 외모가 출중한거 같아요. (이강산, 18세)

## ② 시민성 분석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는 이들의 시민성, 즉 citizenship의 특성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과 미국 양국가의 사회와 문화, 학교제도를 경험해 본 이들은 어떠한 시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양문화를 접하는 성장과정을 통해 이들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시민(cosmopolitan citizen),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와 범지구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제이해 시민(globally aware citizen),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소속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국수주의적 시민(nationalistic citizen),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 없이 개인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individual neoliberal citizen)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초국가적 시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이해 시민이 3명, 국수주의적 시민의 특징을 보이는 학생 6명이고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이 전체 18명 중 절반인 9명으로 드러났다.

<표 V-9>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시민성 형태	사례수 (N)
초국가적 시민	2
국제이해 시민	1
국수주의적 시민	6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	9

국경과 민족, 문화를 초월하여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이해하고 전지구적 이해와 평화를 위한 태도는 도달하기 어려운 차원의 국가적, 시민적 정체성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근거로 다문화적 이해가 깊으면서도 각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으며, 범지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을 초국가적 시민으로 분류하였다. 뉴욕/뉴저지의 경우 2명의 학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예술중학교를 다니며 피아노를 전공한 김수정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친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직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학교 생활과 교육시스템 등을 비교하며 친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학생은 자신이 음악 전문대학을 진학할 예정이지만, 음악만 아는 사람이 아닌 대학 간 연계 전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학을 전공하고 ‘피아노 치는 의사’가 되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포부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승환 학생의 경우 국제관계나 세계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장래 UN에서 일하며 국제관계와 동아시아학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은 또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대학을 진학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다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이해시민의 경우, 애국심이나 자국 중심적 사고보다는 범지구적 차

원의 문제와 쟁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현빈 학생이 국제이해시민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학생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지만 애국심보다는 범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및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면접자: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구현빈: 의사요. 사람 돕는 거.

면접자: ...의사는 왜 하고 싶으니?

구현빈: 그냥 ..... 왜 의사하냐고 물으면 그냥 돕고 싶어서. 그 생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을.

면접자: 그때 (네가 돕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Korean(에 한정되는) 이런 건 아니니?

구현빈: 네

면접자: 그냥 인간, human 그런 (개념)?

구현빈: 네

국수주의적 시민의 경우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으나 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면접자: 내가 미국에서 한 4년 있었지만 이런 건 참 안 바뀐다 그런 거 있어요?

이강산: ...음 ..... 자존심? 한국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럽다는거?

면접자: 왜 자랑스러워요?

이강산: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시민이 된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면접자: 왜?

이강산: 군대를 갔다 올 거예요 전. 그게 있어요 한국 pride.

면접자: 군대를 왜 가고 싶을까?

이강산: 전 한국 pride가 있어요.

면접자: 뭐 어떤 점에서?

이강산: 한국 사람들의 pride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특별한 게 있지 않나?

개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 10명의 학생들은 자신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사회적 적응하며 사는 과정을 개인의 교육과 진로를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진로와 계획, 거주 국가를 묻는 질문에도 개인이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조건에 대해서만 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로 분류된 학생들이 전체 18명 중 10명인 결과를 살펴볼 때, 이들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인종 친구들과 미국 사회에서 어울리면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발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분석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 법적대리인들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도움이 중요하다. 부모, 친척, 법적대리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교육정보 등은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조기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 한국에서의 거주 지역, 미국에서의 거주지역, 생활비와 용돈, 조기유학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중중, 중하층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 소위 일컫는 상위계층은 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하위계층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기유학에 드는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일반적인 결과일 것이다.

전체 18명의 학생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으로 나타난 사례는 12명, 중중은 4명, 중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중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한국에서 예술중학교를 다니고 음악과 미술 등 예체능 관련 공교육과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학생들과 이들의 형제나 자매들,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해외연수나 고액과외 등의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학생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인식하기에 자신의 가정이 한국에서 부유한 층에 속했고 현재 조기유학을 하는 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의사 등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다.

중중으로 분류된 학생들 4명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가정 경제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때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한국에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담을 갖게 된 사례이다.

중하로 분류된 학생들은 2명으로, 이들의 특징은 모두 아버지와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특별한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으며 어학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F1비자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 친척, 법적대리인,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미국 학교교육 체계와 대학 입시 등에 관한 정보접근성 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된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 18명 중 학생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9명, 보통은 6명, 그리고 낮은 경우는 3명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조기유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찍부터 계획한 후 유학을 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미국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친척과 이웃을 주변인으로 둔 경우로서, 이들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학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 친척과 주변인들이 해당지역에서 가까이 거주하며 학교생활과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학군이 좋기로 이름난 뉴저지의 테너플라이(Tenafly)와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관리형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직 교사였던 법적대리인이 이들의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 SAT 준비, 봉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경제적 자본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어머니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와 학생이 조기유학을 온 경우로, 아버지들이 대부분 파트타임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고 있으며 학교교육이나 대입 등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와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척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역시, 한국의 부모는 친척들이 자녀교육과 학원, 대입 등을 관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친척들이 이들의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학업과 대학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생들은 친척들이 미국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해주거나 한국에서와 비슷한 암기식, 주입식 교육 및 학습방법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제한하여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갔다 오면 책을 큰소리로 내서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고모부와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윤호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 2. 아틀란타 (조지아) 질적자료 분석 결과

### 1) 자료수집소개

아틀란타(조지아) 지역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16명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아틀란타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와 학원을 중심으로 미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아틀란타 인근의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 학원 원장과 학원 강사, 취미 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 받았다. 연구자는 이들 학생과 학부모 또는 현지 가디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학원과 교회 등을 직접 찾아서 학생과 학부모 또는 현지 가디언들을 만나서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문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나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의한 학생 16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본인동의서와 함께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해당 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연구 목적과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11, 12학년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들에게는 직접 연구목적과 방침을 설명하고 본인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는 이들이 다니는 교회와 학원, 학생의 집이나 홈스테이 가정, 또는 한인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인 타운 인근의 서점이나 도서관, 베이커리 등에서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의 연구 참여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10분 내외, 1차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약 50분(최소 40분)이 소요되었다. 두 참가자의 경우 그룹 인터뷰를 위하여 그룹 인터뷰를 먼저 했고 몇일 뒤 이차로 개별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러다보니 이차로 진행 개별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 40분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

었다. 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인터뷰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인터뷰 중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쓸 정도로 개인 신상정보에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였다. 몇몇 학생들의 경우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부모님이 학생을 픽업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진행해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화로 이차인터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학생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청소년들에게 2차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인터뷰와 설문조사 당시 빠진 내용을 묻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와 1차 인터뷰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는 \$20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아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많은 경우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학생들과 현지 가디언 또는 학생의 부모님들의 경우 연구에 참가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터뷰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 2) 연구참가가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조지아 주의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은 총 16명으로, 이들 중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9명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미국 중고등학교의 6~1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로서,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미국에서 친척집이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자녀들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세로, 만12세부터 19세 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비자형태는 주로 학생 본인이 유학생으로 등록된 F1 소지가가 전체 16명 중 6명인 3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부모가 유학생 비자F1를 받으면서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게 된 F2의 경우가 5명, 부모님이 취업비자 H1를 받게 되면서 동반비자를 받게 된 H4 소지자가 1명, 그리고 영주권자 3명, 시민권자 1명의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학생 본인이

유학생 비자인 F1소지자의 경우 모두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학생비자의 동반인 자격인 F2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동반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출신 1과 경기도 지역 소도시에서 온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서울 출신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아틀란타 도심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새로이 개발된 신흥 한인 타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홈스테이 가정이나 기러기 가족들이 하우스나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새로이 들어선 한인 상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학군이 좋고 백인들의 거주비율이 다른 아틀란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서 대부분 참가자들은 귀넷 카운티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미국 조기유학기간은 인터뷰당시 6~8개월 된 2명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거주기간은 3.1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의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이 5명, 개인사업 3명, 공무원 3명, 건축설계사 2명, 교수 1명, 약사 1명으로 다양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전체 16명 중 전업주부가 6명, 작은 개인사업 운영자가 4명, 회사원 2명, 교육계 종사자 2명, 회사원 2명, 그리고 한국에서 전문직 종사자였으나 지금은 F1학생으로 다니면서 자녀의 교육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1명 등 다양하였다.

### 3) 분석결과

(1) 조기유학의사결정 과정: 누가 주도했고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었는가?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명 중 7명의 학생들이 어머니가 먼저 조기유학과 거주의 형태를 제안하고 결정하

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어머니들이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었다. 어머니들은 미국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여 자녀의 조기유학을 적극 추진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조기유학을 제안하고 결정한 경우는 4명이 있었다. 이들 중 세 명의 경우는 부모가 동시에 조기유학이 자녀의 미래에 더 좋을 것이라는 같은 견해를 가짐으로 인헤이를 추진한 경우였다. 그러나 한 명의 경우는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자녀의 조기유학을 합의하여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생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기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여 부모가 차후에 동의하게 된 사례는 3명이 있었다. 한명은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도 시험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큰 좌절감을 경험했으며 그리하여 부모님께 조기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님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기유학을 준비하여 보낸 경우였고, 한명은 미술이 좋아 미술교육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한국의 틀에 박힌 미술교육보다는 미국에서의 미술교육이 훨씬 더 자유롭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을 설득시켜 나온 경우이며, 나머지 한명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면 좀 더 쉽게 대학을 갈수 있고 더 잘 간다는 것을 먼저 조기유학을 나간 자신의 누나를 보면서 알게 되어 자신도 조기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여 나온 경우였다.

한 학생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 조기유학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부모와 학생 본인 모두 동의를 하여 적극 추진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한명은 부모와 학생 본인 모두 조기유학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 합의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이들은 부모가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시절에 자녀들이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살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들 부모와 자녀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의사결정자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데는 공통적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 한국 교육에서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함, 나아가 미국의 학교교육과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유학을 결정한 아틀란타 지역의 대다수의 부모들은 주입식 암기교육과 대학입시를 위한 심한 경쟁, 그리고 비효과적인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교육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이 덜하며, 영어교육이 용이하며, 대학가기 훨씬 더 수월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고자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래 엄소라 학생의 조기유학을 나오게 된 이야기에서 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표 V-10>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	사례수	세부 원인	사례수
어머니	7	보다 나은 교육 특히 영어교육	4
		학업부진으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향상 기대	2
		시댁과의 갈등	1
부모 모두	4	보다 나은 교육과, 영어교육의 이점, 대학 진학의 용이점	3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합의	1
		보다 나은 미술교육환경	1
학생 본인	3	학업부진으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향상 기대	1
		누나의 조기유학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교육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	1
		미국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 조기유학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안하고 학생과 부모는 이에 동의.	2
친척이 의견제시 부모와 학생이 이에 동의	1	미국교육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교육기회를 위해 추진함	1
부모학생 모두 동의	1	한국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대학진학의 용이함	1

음...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막 또 고등학교 올라갈 거고, 저희가 사는 데가 서울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예요... 뭐 죽어라 공부 해 봤자, 힘들게 해 가지고 서울(로 대학가기 힘들고)...음, 그렇게 힘들고 어차피 또 있어 봤자 또 엄마랑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아무리 해 봤자, 뭐 제가 특별히 공부를 아주 잘 하지 않는 한, 서울 가기 또 힘들고. 또 여차 여차 생각 해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면 또 영어도 많이 배울 것 같기도 하고. 더 트일 것 같기도 하고. (엄소라, 18세)

특히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본인이 원하여 부모에게 조기유학을 보내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김종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그런 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면접자: 어떻게 하다 여기 나오게 되었는지, 한 번 얘기 해 볼래?

김종수: 어. 처음에는 어, 중학교 공부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할 때도 열심히 공부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엄마한테 미국 가고 싶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좀 (serious 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엄마가 유학 준비(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중 2 시작하고, 중간고사 보고 바로 왔어요.

면접자: 한국에서 힘든 거를 좀 얘기 해 볼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와서 좀 억울해, 그런 거였어?

김종수: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중 2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기말 고사도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2학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니까. 막 나 스스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김종수, 17세)

초등학교 시절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망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본인이 조기유학을 원해서 부모님께 보내달라고 했다가 보다는 어느 날 어머니가 미국 간다고 하길래 따라 온 경우가 많았고, 본인이 조기유학생임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동우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면접자: 엄마 아빠가 4학년 때 미국가자 그랬을 때 동우는 어땠어?

구동우: 저는 좋았죠.

면접자: 왜?

구동우: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에서 자고 그러는게 좋아서요.

면접자: 친한 친구 막 보고 싶겠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

구동우: 안 들었어요.

면접자: 그냥 마냥 좋았어?

구동우: 네. (구동우, 12세)

면접자: 미국에 오게 된 얘기 한 번 해 볼래?

김보람: 여기요(웃음)? 그냥 공부하러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 (나오기) 한 세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원래 영국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저희 엄마 친구 어떻게 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다고... 또 다른 엄마 친구 분이 Texas 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좀 이따가,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싫었거든요(웃음).

면접자: 왜 싫었어?

김보람: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무 재미있었는데...

면접자: 한국에서 학교생활 너무 재미있었고? 친구들이랑 재미있었고?

김보람: 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가 이렇게 더 잘 되요. 이렇게 제가 미국 공부에 맞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김보람, 14세)

사례 수는 적지만 미술교육 또한 조기유학의 주요한 동기로 조사되었다.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예빈 학생의 경우, 보다 나은 미술교육이 주요한 조기유학의 이유였다.

한국에서 미술을 했었어요, 계속. 미술을 했는데, 조금 더 크게 해 보고 싶어서, 한국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좁은 공간에서 막 서로 엉켜서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미술 시스템이 더 좋고, 제 미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다는, 우리나라 다른 건 다 공부도 좋고 한데, 예체능 쪽은 그렇게 아직 많이 안 알아주잖아요. 할아버지 반대도 조금 있었고 해 가지고, 그냥 미국 와서 미술 공부하고. 예체능 쪽은 유학을 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친할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셨

어요. 미술하는 거를... 예전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미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중 입시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애가 있었는데, 애가 유학을 간대요. 유학을 간다고 해 가지고,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잘 안될 것 같대요. 경쟁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잘 나오고 해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체능 쪽이. 그래 가지고 자기 유학을 갈 것 같대요.... 그거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한) 수능, 여기 한국은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한 쪽으로 막 미술 쪽에 투자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반 (미술) 하고, 반 (공부) 이렇게,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유학 보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당장 당일 날 가 가지고... 나 유학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예빈, 18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기유학을 나오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이와 더불어 조기유학의 사전 준비 정도에 있어서도 사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체 16명 중 부모가 조기유학을 미리 꼼꼼히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오기 전에 부모님의 조기유학 결정에 같이 참여하거나, 유학을 가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6명 중 10명이었다. 나머지 6명 중 2명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고부갈등의 문제로 부모는 사전에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본인은 미국 오기 직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게 될 것임을 전해 들었고, 2명의 경우는 공부를 못해 힘들어 하던 차에 우연히 한번 내뱉은 말에 부모가 갑작스레 추진하게 되어 꼼꼼한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나온 경우였고, 나머지 2명의 경우는 조기유학을 알아보다 상황이 맞지 않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일이 잘 진전되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유학을 온 경우였다.

<표 V-11>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준비상태	사례수 (N)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조기유학을 장기간(6개월 이상) 준비한 경우	5
부모는 준비하였으나, 자녀는 모르고 있었거나 준비기간이 짧은 경우(6개월 이하)	7
부모와 자녀 모두 갑작스럽게 결정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4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김종수 학생의 경우, 자신이 불쑥 내뱉은 말에 부모님이 급작스럽게 준비하여 나오게 되어 나와서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하며 적응이 힘들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했죠...그냥 무심코 뱉은 말 이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지금도 제가 그 때 그렇게 (괜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직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도 못 만나고, 못 놀고, 그러니까 미국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집 (홈스테이 가정) 으로 온 다니니까, 가디언도 알고, 가디언 누나랑 그 가디언 아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미국 오는 거 자체는 별로 싫었죠. (김종수, 15세)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른 학생에 비해 김종수 학생은 미국에서도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나오게 된 것을 많이 후회하다보니 공부에 그리 집중할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이 그림고 한국의 생활이 그리워 쉽게 미국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는 성적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기유학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고 부모와 함께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 초기 정착과정에서 영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왜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 없이 나온 또래들에 비해 초기에 경험

하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 (2)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 ① 학업성취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는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조기유학생들의 성적은 대체적으로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성적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측정한 학업성적의 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아틀란타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의 수가 1명, 중위권이 13명, 하위권이 2명이었다. 하위권 두 명의 경우는 자신들이 조기유학을 나오게 된 것이 도피성 유학의 경우임을 확실히 했다. 앞서 김종수 학생이 얘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들은 한국의 시험중심의 교육 문화와 성적중심 문화에서 힘들어 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아틀란타 조기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 힘들거나, 아주 못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음으로써 한국의 명문대나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써, 그럴 밖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면 최소한 영어는 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로 인해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학생들은 주로 한국의 치열한 내신과 입시경쟁, 그리고 대학입학제도와 이를 위한 학원, 과외, 야간자율 학습 등에 비해 미국교육은 훨씬 더 자유롭고 경쟁이 덜 하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살기 좋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래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에선 공부가 너무 심하잖아요. 공부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다들) 미국에 오는 것 같아요. (이준호, 17세)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피곤해서.. 한국은 그냥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나는 거예요. 학교 숙제를 하면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는 애도 있고. 병원에 입원 하는 애도 있고. 학교 수업 때 숙제 하는 애들도 몇 명 있고. 학교 수업에서. 예습 하니까. 초등학교 거 배우고 있는데, 중학교꺼 다 하고, 영어는 막 엄청 높은 거 배우고, 미국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데 중학교 거, 고등학교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래 가지고. 그거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 내내 숙제하고... (이지연, 14세)

전체 16명 중 1명의 경우는 상위권의 성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좋은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잘하고 반장을 하는 등 긍정적인 학교경험을 하였다. 이 학생은 공무원인 아버지가 해외 발령을 삼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자녀의 영어를 확실히 늘리기 위해 그리고 잘되면 미국에 남아서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나오게 된 경우였다. 이렇게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아주 상위권 학생 또는 아주 하위권은 소수였고, 주로 중간정도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아틀란타 지역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점은 상위권 학생은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하위권 두 명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는 전체 연구참가자의 통계분석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정반대이다. 즉 전체 참가자 집단의 통계에서는 미국에서 사립을 다니는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고 미국에서 공립을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틀란타의 경우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가 명성이 높고 학비가 비싼 유명한 사립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계열의 소규모 저렴한 사립학교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선택했다고 말한 데서 유추해볼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이 가장 한국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와 나오

게 된 계기는 다양하지만 한국에서의 공부가 쉽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즉,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의 학업 실패나 학업적 어려움이 조기유학을 나오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② 교우관계

전체 참가자 통계 분석이 보여주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학업 성적은 가장 낮았지만 한국에서 교우관계는 가장 좋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드러났다. 즉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아틀란타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보람학생은 엄마가 조기유학 제안에 반대를 한 이유가 친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처음에 미국 간다 그랬을 때 전 너무 싫었거든요(웃음).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요, 그치만 친구들이랑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김보람, 14세)

특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또는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했던 학생들은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친구들과 방과 후에 어울리기 힘든 미국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집 근처의 공원, 노래방, 쇼핑몰에서 놀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고, 영화를 보는 등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은찬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학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재밌었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학교는 그냥 동네 중학교라고 남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뭐 축구 하고요, 음악 듣는 거도 좋아하고요, 애들이랑 게임도 하구요. 중간고사 이럴 때만 공부했죠 (웃음). (이은찬, 16세)

단지 1명의 학생은 교우관계가 결국에는 좋아졌지만 초반 학창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의 미국 대학원 유학 시절에 태어나 8살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한국에 직장을 잡아 들어가게 되어 한국에서 2학년부터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친구들도 많아지고 교우관계도 원만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초등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나오기로 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교우관계가 아주 그렇게 활발하고 넓은 것이 아님을 보였다.

이 학생의 경우만 제외하면 아틀란타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교우관계는 원만한 수준을 넘어 가장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였고, 많은 학생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먼저 뽑을 정도로 또래집단이 중요하고, 또 친구들과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김종수 학생의 경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엄마아빠와 함께 친구들을 꼽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나 아빠보다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정도로 친구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지금 유학 나와서 전체적인 경험을 평가할 때 한국보다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좋은 점이 있지만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못 보내는 게 안 좋은 점 중 제일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참가자의 통계분석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비해 한국에서의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틀란타 지역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③ 전반적인 학교경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및 추억 등이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 주입식 교

육, 지나친 사교육과 학원에의 의존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한국의 암기위주의 수업방식, 점수와 등수로 인한 지나친 경쟁, 줄세우기식 교육방법 등에 불만을 드러내었다. 또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학교공부와 입시제도, 권위적인 교사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에 제시된 학생들의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공부 되게 잘 해도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한국 공부 많이 하면 하버드 대학생보다 많이 한다고 하던데. 고등학생들만 죽어나고.. 열심히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국은 무조건 암기 시키고. 물론미국도 암기식인 과목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거랑 connect 을 시켜서 이해를 base를 두고 암기를 시키려는데, 한국은 무조건...외우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 뭐든지 대학을 먼저 보잖아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잘 하면 그걸로 된 건데. 대학을 먼저 보니까. 그리고 또....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등 수 있잖아요. 막 편차도 있고. 일등급 이등급 그런 거 없애고, 한 과목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애는 수학 시키고, 과학. 이렇게 그런 거 좀 심화적으로.....했음 좋겠어요. 전과목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막 공부 보통 하는 애도 다 A 맞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음 좋겠어요... (김수만, 17세)

미국 선생님들은 막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해도 귀찮아하지도 않고, 만약에 선생님이 틀리면 “아 내가 뭘 잘 못 썼다” 하고 okay 하고 되게 재미있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막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나, 칠판에 뭔가 잘 못썼다거나 수학 계산을 잘 못했을 때 학생들이 지적해주면 완전 싫어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별로였어요. (엄효리, 16세)

글쎄요. 한국은 그냥 제 생각은 여기는 기회가 많잖아요. 한국은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발표하고 여기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 공부 안되는 애들 더 시키고 그런 거. (박혜진, 18세)

(학원은) 영어, 수학, 수학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데 막 네 개, 다섯 개 다니고 토요일에도 한 세개 다녔어요. 학교도 안갈 때 막 일찍 일어나서 가야되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는 학원 자체가 없대요. 와 진짜 좋다! (그랬죠.) (황수동, 15세)

### (3) 미국에서의 학교 경험과 어려운 점

언어와 문화 사회구조가 다른 미국사회에서 새롭게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게 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초기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경우, 전체 16명 중 10명이 영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을 초기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점으로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영어회화와 영어작문 등을 학원에서 공부하고 조기유학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 역시 처음에 친구들과 대화하려니 말이 잘 안 나오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었다고 밝혔다.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어 외로웠던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 학생이 1명, 한국의 학교문화와 전혀 다른 미국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학생이 1명,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 크게 준비 없이 나오게 된 학생의 경우 괜히 나왔다는 생각과 친구들이 보고 싶음으로 인해 첫해가 제일 힘들었다고 한 학생이 1명이 있었다. 이들은 언어장벽을 먼저 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 역시 언어장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엿 볼수 있었다. 그 외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한 학생이 1명 그리고 딱히 그렇다고 할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 학생이 2명 있었다. 이 두 명의 경우에는 새로 온 미국 학교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학교 문화에 적응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첫해를 보냈다고 한다. 김주리 학생의 경우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조기유학을 왔다가 라스베가스로 간 다음 아틀란타로 온 경우였는데, 처음 왔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적응을 참 빨리 했어요...근데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는 뭐 한국 사람도 없고 그니까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아틀란타는) 한국사람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은 덜 하죠. (김주리, 17세)

언어장벽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내용이나 과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초기에 학업성적도 뒤쳐졌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업을 듣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읽기와 쓰기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많은 학생들이 영어나 사회처럼 읽기와 토론 에세이 쓰기가 많은 과목을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였고, 언어나 문화에 별 상관이 없는 수학이 제일 쉽고 편하고 따라가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AP수업이 별로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보통계열의 수업들을 들으며 거기서 A나 B정도를 받는다고 했다.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AP수업이 많이 제공되기는 하나 대다수가 일반계열 수업을 들으며 거기서 A나 B를 받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성적을 잘 받기가 쉽다고 했으며 이를 본인 그리고 부모님의 조기유학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면접자: 성적은 어느 정도 받니?

황수동: semester로 받잖아요. First semester때는 적응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A,B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All A예요.

면접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황수동: 좀 칭찬받았어요. (웃음) 뭐 갖고 싶은거 있냐고 (웃음). (황수동, 15세)

한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물어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이동시간에 그리고 방과 후에 거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명중 9명이 친구들과는 한국어로 주로 대화한다고 했고, 12명이 방과

후에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 V-12>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장소와 상황	사용 언어	사례수(N)
학교	한국어	4
	영어	9
	둘다	3
친구관계	한국어	9
	영어	3
	둘다	4
방과후	한국어	12
	영어	2
	둘다	2

홈스테이를 하면서 법적대리인과 생기는 마찰과 갈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기는 정서적 어려움 등은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부분 홈스테이 생활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보았으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하고 자기 집 자기 부모님만큼 편하고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전체 6명의 조기유학생들은 모두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고, 공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은 전체 10명중 7명은 어머니와 함께 기러기 가족으로 살고 있었고, 1명은 이모네 집에 입양되어 있었으며, 다른 2명은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을 비교해본 결과 사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생들보다 미국 내에서의 가족(홈스테이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스테이 법적대리인과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을 제 2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엄소라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면접자: 그럼 주로 누구랑 여기 나와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엄소라: 저희 집 식구들(홈스테이 집 식구들). ... 이게 저희 멤버가요 전 집에서  
도 있어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같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가  
딱 좋아요.

면접자: 그렇게 해서 한 몇 명이니?

엄소라: 다섯 명이요.

면접자: 근데 이렇게 잘 친하게 잘 지내? 마음도 잘 맞고?

엄소라: 네, 항상...맨날 밤마다 수다 떨고... 맨날 웃도 막 빌려 입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주고. (엄소라, 18세)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먼저 전체 16명 중 15명의 학생들이 미국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1:1로 가르쳐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어 좋다고 밝혔다. 이준호 학생과 김정민 학생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미국 친구들도 쉽게 사귄 수 있었다고 말했다.

PE(체육)선생님이 원래 Spanish봐주시는 선생님이신데 PE를 겸하셨는데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피자도 그 선생님이... 애들이랑 친해질 계기도 만들어주고, 또 점심시간에 말도 해주고... “너 한국 애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한국 애들이랑만 놀지는 마라)” ...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못 알아 들었는데 아,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한국애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 애들이랑 말해서 영어를 빨리 배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교장선생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선생님들은 저를 진짜 잘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못 하니깐 최대한 support해주려고 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PE선생님도 그냥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게. 원래 여기 애들이 축구보다는 풋볼, 농구 이런 쪽으로 좋아해요. 그런 것도 주로 하는데 가끔 한국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soccer도

시켜주시고. (김정민, 19세)

선생님들 되게 좋았어요. 관심도, 되게 많이 가져줬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막 저한테 한 선생님을 그냥 그런 전문으로 붙여 주었어요. 학교에서 클래스 어디 있는지 다 설명 해 주고. 항상 옆에서 통역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준호, 17세)

이에 반해 한 명의 경우, 선생님들과 딱히 안 좋은 경험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도와주지 않은 게 좀 섭섭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에 기반을 둔 관계인데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음을 비교하면서 이 학생은 미국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다소 정이 없이 무미건조함을 지적하였다.

김종수: 그러니까 international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선생님은 하는데, 다른 선생님은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면접자: 그래서 이렇게 더 특별히 더 care 해주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김종수: 네.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그 때는 알려 주는 데 막. 그런거는 없는 것 같아요. (김종수, 15세)

이 학생만 제외하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교사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연구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참가자의 통계분석 결과와 같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비해 미국 교사들과의 관계가 약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은 특히 한국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사교육 및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의 실태와 비교할 때 미국 학교교육을 통해 더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학교교육은 퀴즈와 시험이 자주 있고, 과제와 프로젝트 활동 등이 많아서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기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

고 수업내용을 따라가야 함으로 오히려 공부하는 양과 질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엄효리와 이은찬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번에 몰아서, 뭐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랑. 맨날 맨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게 습관화 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나가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도 좋고. 또 막 수업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Presentation도 내가 직접 나가서 해 보고. 막 한국 같은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만약에 회사 들어가서 presentation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한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고. (엄효리, 16세)

한국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때만 딱 공부하는데 나머지 시간엔 좀 헤이해지고. 여기오니까 매일 퀴즈 하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일 준비를 해가야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국 애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억압하고 이런 거 없고. 성적만 잘 맞아야 어디 가고 그런 것도 없고. 수업도 굉장히 편하게 해요. 예습, 복습 하고, 환경도 더 좋고. (이은찬, 16세)

또한 교과서와 책, 시험 뿐 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교육의 장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엄효리 학생은 미국 와서 기억에 남는 재미 있었던 수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 저번에는 아이들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Spanish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Spanish 를 제 2외국어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금 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Spanish도 써 보니까, 얘기가 통하는 것도 있고,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애들 돌봐주고, 애들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Bible 시간에 뭐 인터뷰 하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사실 그 전에는 인터뷰하러 가면, 여기 지인들 한국 사람들한테만 했었거든요...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갔었지. Costco인가 거기 가 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피자 먹으면서 아무한테나 했는데 잘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경비아저씨가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지만, 그것도 기억에 남았어요. (엄효리, 16세)

그러나 학생들이 미국 학교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대부분 미국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자질, 너무 쉬운 점, 교사의 수업분위기 장악능력, 어떤 수업은 교과서만 읽게 하고 work sheet 등을 작성하게 함, 충분한 설명 없이 외우게 하는 식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선생님 자질은) 좀 다른 거 같아요. Social studies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과학 선생님은 좀... lazy하고 그냥 뭐 니들 책 펴서 이거 해라. 미니북 만들어서 나한테 내라. 별로 수업은 그닥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 시키시고. (이은찬, 16세)

어..... 한국이 그래도 이제 뭐랄까, 족집게 스타일이잖아요. ... 한국 선생님들은 설명이 되게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되는데 미국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그러면 처음에는 난 이해를 못했는데, 애들은 그냥 외우라니까 진짜 그냥 외우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외우지를 못 해요...(이예빈, 18세)

한국은요, 이제 막 애들이 장난치면 너 그러지 마라. 막 그러면 화내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애들이 말 잘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선생님은 막 그 뭐지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더 퍽퍽 거리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애들이 선생님한테 좀 버릇없이 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가만히 있어요.. 막 애들 자제 시키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에 비해 한국 선생님들은) 짱이에요(웃음). (김보람, 13세)

한편,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미국 학교에서의 학업성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앞서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설문지에 스스로 기록한 학업성적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적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학업성적을 상, 중, 하위권으로 구분해 보았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전체 16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위권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평균 90점 이상을 받으면서, Honor class나 AP와 같은 수업을 성공적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중위권 학생은 전체 16명 중 13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보통 일반 계열 수업을 들으며 여기서 A나 B 정도의 학점을 받으며, 한두 개 정도 AP와 같은 수업을 신청했으나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경우이다. 물론 중위권 내에서도 차이가 난다. 어떤 중위권 학생들은 AP와 같은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의 경우는 한두 개는 듣는 등 편차가 있다. 하위권 성적을 기록하는 학생도 1명이 있었다. 이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여 나왔는데, 나와서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헤이해져서 홈스테이 친구들과 노는데 열중하였지만,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10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성적과 미국에서의 성적을 비교해보았다.

<표 V-13>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미국에서도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학업성적이 오른 경우는 2명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받던 점수나 등수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학업성취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중간 정도를 하던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 좀 더 여유롭고 시험, 입시 스트레스가 덜한 환경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며 일반 계열에서 가끔 A도 받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상위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 AP나 Honor class 같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일반 계열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일반수준의 수업에서 가끔 A나 B등을 받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 V-13>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번호	이름	한국 학업성적	미국 학업성적
1	김정민	하	중
2	김종수	하	하
3	김수만	중	중
4	백혜수	중	중
5	김주리	중	중
6	박혜진	중	중
7	엄소라	중	중
8	이준호	중	상
9	이은찬	상	상
10	구동우	중	중
11	김보람	중	중
12	이예빈	중	중
13	황수동	중	중
14	엄효리	중	중
15	이지연	중	중
16	김민	중	중

미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연구 참가자 통계분석에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미국에서의 성적이 약간은 높게 나왔는데,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공립에 다니는 학생이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앞서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에서 논의 된 것처럼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의 경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다.

#### (4) 미국학교에서의 교우관계

아틀란타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보여주는 교우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한인 유학생들이나 2세 학생 등 한인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이 학교 일과 중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주말에 만나고 친하게 지내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을 1차 집단, 그렇지 않고 주중에 학교 내에서만 주로 함께 어울리는 집단을 2차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는데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1차 집단은 거의가 다 한인 학생들이었다. 16명 중 14명이 1차 집단으로 한인들과 가깝게 지내고 방과 후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며 어울리고 마음을 터놓는다고 응답하였다.

1차 집단으로 한국 학생이 아니라 인종 구분 없이 다인종 학생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이었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엄마의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미국에 온 학생으로서,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미국 초등학교에서 조기유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인종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어머니가 자신이 한국애들과 어울려서 영어를 못하게 될까를 자신에 대한 제일의 걱정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본인 자신도 한국학생이랑 어울리면 영어를 못하게 된다고 믿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아닌 여러 인종의 친구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면접자: 제일 편하게 지내는 친구는?

구동우: Non-Korean.

면접자: 어떤 면에서 제일 친해?

구동우: 똑똑하고요. 제가 English 잘 못했을 때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

면접자: 한국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있어?

구동우: 아니요. 그냥 한국 애들이랑은 별로 안 친하려고 해요.

면접자: 왜?

구동우: 만약에 한국말 하게 되면 English를 잘 못하게 되니까. (영어를) 잃어버

리고 그러니까 ....

면접자: 엄마가 동우에 대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야?

구동우: 영어 못 할까봐.

면접자: 항상 영어 잘 했던거 같은데?

구동우: 잘했는데 한국 사람 이랑 ... (어울리게 되면 또 못하게 될까봐)

면접자: 한번 하면 안 잃어버릴 것 같은데?

구동우: 1년 동안 한국에 랑 있게 되면...(잃어버릴 것 같아요.)

면접자: 또 다른 걱정은 없으셔?

구동우: 별로. 장학금 타라고 (웃음). (구동우, 12세)

<표 V-14>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학교유형	번호	이름	1차 집단	2차 집단
공립	1	김수만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2	백혜수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3	김주리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4	박혜진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5	이준호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6	이은찬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7	구동우	백인 미국인 급우	다인종 미국인 급우
	8	김보람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9	이지연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0	김민	없음	다인종 미국인 급우
사립	11	김정민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2	김중수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3	엄소라	한인 조기유학생	한인 2세나 조기유학생
	14	이예빈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5	황수동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16	엄효리	한인 조기유학생	다인종 미국인 급우

나머지 1명은 그냥 함께 그룹으로 어울려 노는 2차 집단은 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주 친한 1차 집단이 없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의 특징은 학교에서 같이 점심 먹고 이야기하고 놀 친구들만으로 충분하지 그렇게 아주 가까이 속마음을 터놓고 아무 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의 2차 집단 그룹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차 집단의 경우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인종 학생과 어울린다고 응답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지 않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따로 만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낸다고 말했다. 두 명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도 거의 한국 친구들과만 이야기하고 밥 먹고 어울릴 뿐 거의 다른 인종 학생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또한 주중이나 주말이나 가장 친하게 지내고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만나고 놀 수 있는 또래집단은 같은 조기유학생들이었으며, 다인종과의 또래집단 형성은 학교에서 가끔 얘기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뿐이었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인종 학생들과 친밀한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많은 학생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를 들었다.

일단 저는 중 2까지 (한국에서) 나온 한국 사람이고, 더 맞는 것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더 얘기할 점도 많고, 드라마를 봐어도 한국 드라마. 뭐 그런 거 얘기 하지만.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안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엄호리, 16세)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도, 한국말처럼 영어를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개네들이 만약에 뭐 농담을 했다면 못 알아들을 농담도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개네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백인들이랑 흑인들은 이상해요(웃음). (백혜수, 15세)

한국 애들 하고 많이 어울려 노는 게 정말,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남들이나 어

른들께서는 “야 너는 왜 한국 애들하고만 노냐.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 사람들 하고 놀고 그래야지” 하는데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놀기는 놀되, 편한 건 정말 한국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준호, 17세)

일부 학생들은 미국에서 한인 사회와 유학생들의 커뮤니티가 다소 폐쇄적이고 한인들만의 끈끈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말과 문화가 통하는 한국인들과만 교류하다보면 외국인들과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처음에 와서 외로워서. 자기들 의지할 때가 없어서, 한국 애들 끼리 멍치는데 한번 멍치면 다른 외국 애들이랑 끼기가 힘들어요.... 괜히 미국 애들이랑 한 마디 더 하면, 이 그룹에서도 싸움이 번지고, 우리그룹에서 나갔다,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예빈, 18세)

앞서 지적한 것처럼 몇몇 학생은 다인종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한국 학생들을 멀리하였다. 이들에게는 언어장벽과 문화장벽보다 영어를 배우고 미국 교육에서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언어나 문화 장벽보다 훨씬 더 강해 의식적으로 다인종 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1차 집단으로 한국친구들을 뽑은 경우 대부분은 자신과 같은 조기 유학생들이었으며 한인 이세들과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반목이나 대립 현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전체 참가자 통계 분석에서 드러난 패턴과 일치한다. 즉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한인 2세 청소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지도 그렇다고 대립과 반목관계를 가지지도 않는 중립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자신들이 FOB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ABC(American born child)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2세들은 영어를 하

며 미국식으로 사고해서 걸만 한국인이지 속은 거의 미국사람이랑 다름없다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이들이 친밀한 일차집단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다.

면접자: ABC인 애들은 한국말 쓰는 애들이랑 잘 어울려? 대립이 있니?

김정민: 대립은 없구요 그렇다고 잘 어울리진 않고. 이게 어울리기도 좀... 만약에 한국인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열에 한 네다섯은 대립도 아니고 그냥 어울리지도 않고, 다섯 명은 어울려요. 다들 착해요. (김정민, 17세)

면접자: ABC랑 FOB 사이가 좋은 편이니? 아니면 서로 대립이나 갈등이 있니?

이예빈: 사이?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면접자: 아예 그냥 서로 교류가 없어?

이예빈: 네. 싫어하지도 않아요. 한국인 이니까, 뭘... 그런데 이 그룹이랑 친해지지 않아요.

면접자: 왜 그런 것 같아?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예빈: 영어... 제 생각에 FOB으로 분류 되는 애들이, 이 ABC로 분류되는 애들을, 100% 한국 애들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반 이상은 이미 외국인이다. 한국인으로 안 보니까, 아직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이예빈, 18세)

이렇게 한인 2세와 조기유학생간의 반목이 별로 없는 현상은 다른 곳에서 조기유학을 하다가 아틀란타로 조기 유학지를 옮긴 학생들에게도 놀라운 현상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 3년 정도 조기유학을 한 뒤 아틀란타로 온 김주리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2세 애들이랑 참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기는 전혀 어울리지 못해요 그 두 그룹이 (이민이세와 조기유학생). 막 괜히 물 뿌리고 가고 얼굴에...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잘 융화되서 놀더라구요, 조지아 오니까. 그것도 놀랐어요. 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저같이 온 애들인 경우로 시작하면... 한국에서 온 애들끼리는 전혀 영어를 안 썼는데 여기 오

니까 영어 썼다가 한국말 썼다가 런치테이블도 같이 먹고 이러니까 처음엔 놀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전혀 런치테이블에서는 1.5세들이랑 2세들이랑 딱 갈려서. 제가 또 어렸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놀리는 게 심하고 그러니까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세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FOB 이라고 가고. 아니면 발음 같은 거나. (우리는 이세들한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하면서 어눌하게 하고 못해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말하나? 뭐 항상 그런 이유로 싸웠죠. (김주리, 17세)

이와 같이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한인 이세들과 반목이나 대립현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두 집단은 같이 어울리지는 않았다. 한인교회나 성당의 경우에도 영어로 예배를 보는 반과 한국어로 예배를 보는 청소년부가 따로 있었으며 이들은 교회나 성당의 여러 청소년부 활동이나 캠프활동도 따로 따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지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EM, KM에 있어요. EM(English ministry)은 영어 예배 드리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 KM(Korean ministry)은 한국어 (로 예배 보구요). 유, 초등 부 애들도 그런 부분이 막 따로 있어요(EM, KM 따로). 그래서 저는 KM에 가거든요. 조기유학(생들) 모두 다. 수련회도 따로. 전도사님도 따로, 다른 분이시고.

면접자: 어, 그럼 굳이 (조기유학생과 이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서로 어울릴 그런 기회는 없네?

이지연: 어울리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둘 다 (따로) 예배 드리고. (이지연, 14세)

이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조기유학생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아틀란타 지역의 경우 학교나 교회가 자신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한인이세와의 친밀한 교류관계가 없을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김주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반목이나 갈등현상이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왜 두드러지지 않는지는 좀 더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좀 더 교우관계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전체 연구 참가자의 통계분석과 같은 패턴으로서, 아틀란타 지역의 경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한인 학생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하여 좀 더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을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인종차별 혹은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고 들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 16명 중에서 8명이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경우는 주로 학교의 다른 인종 또래들로부터였고, 주로 많은 사례가 아시아인의 작은 눈, 서툰 영어, 키가 작고 운동을 못한다는 편견, 스쿨버스에 집적거리기,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 등을 지적했다.

제 이름이 있잖아요... Sean인 줄 아는데도. Stupid Korean이라고. 영어클래스 가면 입 다물고 잘 못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또 Korean이라서 대접을 해주면 애들이 Korean들만 왜 그렇게 도와 주냐고. 선생님보고 뭐라고 그러고. Why are you helping only Korean? 이라고. 영어를 못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그렇죠. 배워서 영어를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일부러 한국말도 안 쓰고 영어 쓰려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웃고 sentence가 안되니까. 그런 거 요즘은 없어졌어요. 영어 좀 하니까. 어설플 땐 많이 비웃었어요. 제가 막 잘못 말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황수동, 15세)

흑인남자 중에서 몸 크고 운동 진짜 좋아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애들은 처음에 Asian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김정민, 19세)

별로 누가 저한테 얘기한건 없는데 화장실 같은데 낙서한 거 보면 Asians whatever...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Stupid Asians, I hate Asians 이런 거. (박혜진, 18세)

버스에서 8학년짜리 애가 .. 제가 앞에 앉았는데 뒤에서 와서 제 얼굴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났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뒤로 가서 팸죠... Pay back 꼭 해야 돼요. 그냥 뭐 잘못보고 때린 건 아니고, purpose로 때린 거 같아요. 장난치려고. 우습게 보니까. (구동우, 12세)

몇몇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이준호 학생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은 다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처음엔 본인도 기분 나빴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제 상관 안 하는데, 되게 막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면 그냥 다 Chinese 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는 Chinese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들어도 그냥 뭐, 동양인 이니까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막 해외 어떤 인종 뭐가 있고, 그런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서 막 미국 사람들도, 그 동양인을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기고, 막 피부도 노랑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에 반해 학교 교사나 학교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겪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학교교사와 학교의 구조적 특성이 인종차별을 겪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PE선생님이 원래 Spanish봐주시는 선생님이신데 PE를 겸하셨는데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피자도 그 선생님이... 애들이랑 친해질 계기도 만들어주고, 또 점심시간에 말도 해주고... 너 한국 애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아,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한국 애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 애들이랑 말해서 영어를 빨리 배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지금 교장선생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선생님들은 저를 되게 잘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못 하니까 최대한 support해주려고 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PE선생님도 그냥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게. 원래 여기 애들이 축구보다는 풋볼, 농구 이런 쪽으로 좋아해요. 그런 것도 주로 하는데 가끔 한국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soccer도 시켜주시고. (김정민, 19세)

저희 학교에는 한국 애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인 애들, 흑인 애들 다 따로 따로 만나고 있어요.. (한국 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뭉쳐 다닐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인종차별) 그런 거 없고, 캠프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 거는 없고. (이지연, 14세)

(인종차별 경험 있니?) 맞을 일 있어요 개네가?! 우리가 더 세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둘 다 백인인 사람 나오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 나오라고 하면 한국인이 더 많을걸요... (이은찬, 16세)

김정민 학생의 경우 작은 규모의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외국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잘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지연과 이은찬 학생의 경우 한인 타운 지역의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이들 학교는 한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 주로 다른 인종과 어울릴 필요 없이 한인 학생들과 큰 그룹을 형성하며 다른 인종 학생들과 직접적 접촉이 거의 없이 생활하고 있어 인종차별을 직접 겪은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을 겪은 학생들은 주로 다른 인종의 학교 또래들로부터이며, 많은 경우 학생 수가 많고 다인종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립학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로 운영되며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의 사례가 적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착하다고 말했다. 정에 기반한 한국문화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언어나 문화차이로 친밀한 일차집단 또래는 못될 지 언정 아이들이 착해 또래로부터 인종차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저희 학교가 Christian 막 그런 종교 학교다 보니까. 애들도 착해요 많이. 잘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았고. 어, 그래도 한국 애들과는 다르게 조금, 일단 미국이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딱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싫다 이거고.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이 없다는 거. (엄효리, 16세)

친구들이 잘 해줘요. 미국 애들이 되게 Sweet 하잖아요. 애들이.... 제가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만 학교에서 있을 때 영어를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움츠려져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애들이 적으니까 다 같이 친구인 거예요... 한 반에 해 봤자, 12명? 그러니까 한 명을 빼지는 않아요.... 여기 학교 애들 너무 착한 거예요. 진짜. 사립학교여서 그런지 애들이 되게 순수하고, 되게 막 순진무구하고 이런 거. 아직도 아이 같은. 한 번도 외국 애들이랑 싸움이 난 적도 없고, 미국 애들이 불만을 토한 적도 없고,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착해요 애들이. 너무 재미있고, 되게 배려심이 되게 강해요. (이예빈, 18세)

간접적인 인종차별의 경험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16명 중 10명이 간접적인 인종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로 한국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외모나 영어 발음 등과 관련해 은근히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명은 흑인이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음을 지적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예빈 학생의 경우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착하고 외국 학생인 자기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해서 본인은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 착한 미국학생들도 아시안이 아닌 흑인학생이 자신들 학교에 전학 오게 되자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흑인이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흑인 들어온다고 해서, 막 그 Family가 학교 방문을 왔는데... 애들이... 너무 shock을 먹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 온다고. 이상하죠, 우리 Asian은 저렇게 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자마자 니네 나라 language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고 했는데, 흑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 애

네가 또 애네 들도 살짝 그런 게(인종차별이) 나오는 구나, 단점들이. 나한테 아무 리 잘해도... (이예빈, 18세)

한편,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아틀란타의 조기유학생들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임했다. 앞서 구동우 학생처럼 직접 맞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들 그냥 기분 나쁘지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인종차별을 하는 미국 아이들이나 지역사회의 경우 무지해서, 못되서 그러려니, 또는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 그럴 만도 하지 등으로 반응하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앞서 자신의 학교에 한국학생들이 많아서 자신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 이은찬 학생의 경우 미국에 비해 한국이 더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느꼈다.

한국이 (인종차별이) 더 심하죠... 예를 들어 뉴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저도 흑인들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백인만 좋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애들이 다 그런 거 같애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은. (구동우, 12세)

이처럼 학생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미국 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에 기반해 있으며 보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에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사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 학생들은 작은 규모의 종교계열 사립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착해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겪을 일이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으로 심각한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은근히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느낌이나 깔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조

<표 V-15>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차별 경험 분포

학교유형	번호	이름	인종차별 경험	현재의 상태
공립	1	김수만	은근 무시하는 느낌	같은 조기유학생 친구들이랑 지내며 별 문제 없이 지냄
	2	백혜수	아시안이라 은근 무시하는 느낌	그냥 무시함
	3	김주리	아시안이라 깔봄	무시함
	4	박혜진	화장실에 아시안 무시하는 낙서들	무시함
	5	이준호	자신에게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미국사람들	한국 사람도 다른 인종들 구분 잘 못하니 이제 그러려니 함
	6	이은찬	아시아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느낌	한국학생들이 수적으로 많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지낼 수 있음
	7	구동우	스쿨버스에서 미국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림	당하면 무조건 되갚아야 다시 당하지 않음
	8	김보람	아시아사람이라 은근 무시하는 느낌	무시해버림
	9	이지연	직접 경험하지 않음	미국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착하다고 봄
	10	김민	백인친구들이 생일파티나 사적모임에 자신을 부르지 않음	다른 착한 다인종 학생들과 주로 잘 지냄
사립	11	김정민	처음엔 운동 못 할 거라고 얕잡아봄	운동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다인종 학생들과 어울려 운동도 열심히 함
	12	김중수	stupid Korean이라고 부름	무시함
	13	엄소라	직접 경험하지 않음	작은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4	이예빈	직접 경험하지 않음	작은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5	황수동	처음에 영어 못한다고 놀림. 영어가 늘자 그런 일 없어짐	영어가 늘자 무시당하는 일없고 같이 농담하며 이차집단으로 잘 지냄
	16	엄효리	직접 경험하지 않음	작은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기유학 학생들은 학교에 한국인 학생 수가 많게는 200~300명 정도이므로 타인종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동양인 또는 한국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미국 학생들의 눈빛이나 태도가 그리 반갑지 않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 (6) 조기유학 동안 성격과 정체성의 변화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생활을 짧게는 1년 미만부터 길게는 5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성향 등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로워졌으며, 독립심이 강해지고, 리더십이 발달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시험위주와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속에 성적에 연연해하며 공부만 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미국에 와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부하고 혼자 계획하고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 학생들이 이러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긍정적인 자아의 변화로 보고 있었다. 또 대부분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보다 좀 더 쉽게 성적을 받고 1점 차이로 등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를 받는 수업을 통해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학교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는 점도 볼 수 있었다.

김정민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좀 더 쉽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성적도 오르고,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반대를 꺾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며 독립심이 생기고 어머니에게도 자신이 진정으로 소질 있는 것은 공부 쪽보다는 기술 쪽이며 기술 쪽으로 대학을 가서 진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에빈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미술교육이 창의성보다는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하며 경쟁이 심하여 정말 타고난 천재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든데 반해 미국에서의 미술교육은 정말 좀 더 자유롭고 창의성

을 북돋아주며 자신의 재능을 더 펼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우며 미국의 좋은 미술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독립심도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학교교육과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습활동을 하고 진로와 적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 점도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엔 한국에서와 달리 언어와 문화 등의 장벽으로 인해 활발했던 자신이 더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했던 경험을 얘기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와 언어에 차차 적응하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오히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적극적, 독립적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과 자신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중학교 시절 전교회장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었던 엄효리 학생은 처음 미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자신답지 못해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막.....그래서 처음에 되게 뭔가 성격도 바뀌고, 조금 뭐라고 하지 ... 약간 답답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힘들었는데), 지금 또 (방학마다)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저를 찾고 오니까 (제 자신답게 내 모습을 찾고 오니까) 괜찮고, 또 언니들, 여기 한국 사람들 (조기유학생 친구들, 홈스테이 언니, 친구들) 있으니까 (내성격대로 행동하고 맘껏 펼칠 수 있고). (엄효리, 16세)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의 성격을 맘껏 펼칠 수 없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여유로워 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면접자: (요즘 한국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니? 너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 어떤 점이 바뀌었대?

엄효리: 여유로워졌대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여유로워졌다는 거... (그리고) 뭐가

과감해졌다고나 할까, 뭐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행동이나 감정을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잘 웃는다든지 그런 거. (엄호리, 16세)

한편 학생들의 국가/민족 정체성과 관련해 16명 중 2명은 자신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14명은 자신을 한국인(Korean)이라고 규정했다. 왜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했다: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절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었고 이는 영주권을 뺏더라도, 미국에서 지낸지 5년 이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살다보면 좀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즉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절대 변치 않음을 강조했다.

면접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김정민: 당연하죠.

면접자: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그럴 것 같애?

김정민: 그렇죠. 그래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김정민, 19세)

이와 달리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규정한 학생들의 경우,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8살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산 다음 다시 중학교부터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나온 학생으로, 법적으로 두 가지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두 문화에 비슷하게 노출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 명은 4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나와서 어머니의 영어교육철학에 따라 한국 아이들과는 거의 접촉 없이 영어 습득을 위해 미국 아이들과만 지내다 보니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 문화가 더 익숙해진 경우였다. 이들은 자신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며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받아들이기에 한국

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들에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 묘사해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기유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projected self)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틀란타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전체 16명 중 12명이 자신을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말했고, 1명은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보았으며, 1명은 공부 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백인 미국아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었으며, 1명은 한국에 있는 예전의 한국 친구들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보고 있었다.

조기유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진학 희망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16명 중 11명이 미국, 2명이 한국, 2명이 미국대학으로 진학한 후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대학으로 편입, 1명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향후 취업 계획 그리고 희망 거주지를 물어본 결과 6명이 미국, 7명이 한국, 3명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거나 미국 대학을 가더라도 한국 대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국대학교육에 비해 한국대학의 비교우위를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학연중심 인맥중심의 문화를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인맥을 쌓기 위해 한국을 대학진학지로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표 V-16> 향후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희망 대학지역	희망 대학 진학 지역(N)	희망 거주 지역 (N)
미국	11	6
한국	4	7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	3

저는 일단은 무조건.. 어쨌든 미국의 대학을 가더라도, 일단 직장은 한국에서 잡을 생각이예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그 뭐지. 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국으로 대학을 가면, 그 쪽 대학끼리 (인맥)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갈 때 (취직)도 더 좋다고 해서. (엄소라, 18세)

아무래도 나중에 살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친구가 필요할 때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그래요. 외동이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래요. 그런데 미국에 왔으니까, 그런 게 아무리 그러니까 중1, 중2 때 친구들이 있었어도, 그게 계속 막 연락하는 애들도 있지만 다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는 한국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김중수, 16세)

나중에 한국에서 직장을 잡거나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이 자신의 나라이고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고 소속감이 있음을 지적했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경우 미국이 훨씬 더 여유롭고 기회가 많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음을 지적했다.

면접자: 졸업 하고 나면은 한국 가서 사는 게 목표야?

김수만: 네. 한국이 아무래도 살기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졸업 해 가지고 정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면접자: 미국이? 왜?

김수만: 미국에서 대학 잘 나오면 한국에서 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완전히 성공하는 건 더 좋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 들어가면 먹고 살만하니까.

면접자: 음.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

김수만: 힘들 정도는 아닌데. 막 이렇게 잘 교류하지 못 하잖아요, 미국 애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김수만, 17세)

김수만 학생과 달리 아래 두 학생은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고 싶어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미국에서 살고 싶냐면) 일단 미국에서 일하면 연봉이 세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일 더 많이 시키고 돈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김주리, 18세)

저는 미국에 살려고요. 한국 들어 보니까 너무 막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은 막 복잡하잖아요. 차도 막히고, 그런데 여기는 막 정말 차 막혀도 정말 5분이면 다 가거든요. 그래서 5분 만 기다리면, 차가 안 막히니까. 그냥 좁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유로운 걸 갖고 싶어요. (이준호, 17세)

이 두 학생처럼 미국에 직장을 잡고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초반 시절에 미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머문지 5년 정도 된 학생들로 영어가 많이 편하고 성적도 괜찮은 편이며 미국 문화가 많이 편해진 학생들이었다. 또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은 다 미국을 희망 거주지로 뽑았다. 이에 반해 한국으로 직장을 잡고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주로 비교적 미국에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아직 영어나 미국문화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더 편하고 좋고 재미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미국사회에 좀 더 동화될수록, 시민권/영주권의 유무에 따라, 미국에 나온 지 더 오래 될 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미국사회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 (7) 다문화적 이해도, 시민성 발달, 사회경제문화 자본의 영향

##### ① 다문화적 이해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이해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어떤 범주에 해당하며 어떠한 다문화적 이해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이론에 따라 다문화적 이해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의했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전체 16명 중 12명은 다문화적 이해도가 ‘하’로 분류되었다. 이들 학생들은 주로 조기유학생이나 한인 이민자와 2세 학생들과 어울리며 타인종 집단과의 교류가 적어 이들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 V-17> 아틀란타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다문화적 이해도	특징	사례수 (N)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사회내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다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li> <li>-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li> <li>- 타집단의 문화와 특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li> </ul>	0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이나 선입견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li> <li>-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 그리고 다민족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li> <li>- 다문화적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타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li> </ul>	4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인식한 적이 거의 없고 미국 사회내의 인종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주로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여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외모 등으로 타인종/민족 집단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li> </ul>	12

이들의 외모와 출신국가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적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의 타인종/민족 집단에 편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백혜수: (저는) 중국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랑만 거의 놀아요.

\*\*\*\*

면접자: 그러면 인도는 왜? 같은 아시안이잖아?

백혜수: 냄새나요... 그냥 땀 냄새랑 카레 냄새랑 섞였어요.

면접자: 중국 애들은 냄새 안 나고?

백혜수: 인도 보단 나요.

\*\*\*\*

면접자: 그러면 Asian들은 공부 공부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데 히스패닉이나 흑인 학생들은 왜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백혜수: Asian은 부모가 강요하잖아요.

면접자: 그럼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별로 애들 교육을 (강

요 안하고?)

백혜수: 강요 안 하잖아요?!

면접자: 그럼 그 그룹들은 부모들이 왜 강요를 안 하는 것 같아?

백혜수: 모르죠 저는(웃음) 왜 안 하는지. (백혜수, 15세)

또한 이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아메리칸 드림은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평등하고 불평등이나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로 보고 있었다.

면접자: 미국이란 나라,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김정민: 하는 만큼 얻는다.

면접자: American Dream있어? 가능해?

김정민: 네...여기도 경쟁이 있겠지만 직업의 폭이 넓어서 한국에서는 이 직업은 추대 받고 이 직업은 낮게 취급받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걸 떠나서 자기가 좋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 직업이 이 사람보다 더 별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만 자기가 누굴 볼 때 한국보다 차별하는 게 적고... 자기가 하는 만큼 얻는 거 같아요.

면접자: 미국의 단점은?

김정민: 글썄요. 제가 느끼는 단점은 많지 않아요. 한국생활에 적응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단점이 있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단점은 딱히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김정민, 19세)

다문화적 이해도가 ‘중’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아주 깊은 이해는 부족했고, 문제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를 바꾸거나 더 낫은 사회를 위해 본인의 역할이나 사회전체적인 변화의 필요에 대해서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직접적인 인종차별) 그런 건 못 봤는데. 그냥 일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의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래도, 딱 봐서 salary가 낮다는 그런 직업을 다 흑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거를 봐서는 아, 그래도 흑인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서 자리를 찾기가 힘들구나, 그런 것을 느꼈죠. 사람들이 직접 대고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엄소라, 18세)

## ② 시민성 분석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는 이들의 시민성(citizenship)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사회와 문화, 학교제도를 경험해 본 이들은 어떠한 시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양 문화를 접하는 성장과정을 통해 이들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시민(cosmopolitan citizen),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와 범지구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제이해시민(globally aware citizen),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소속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국수주의적 시민(nationalistic citizen),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 없이 개인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individual neoliberal citizen)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아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초국가적 시민은 0명, 국제이해 시민이 2명, 국수주의적 시민이 4명, 그리고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은 14명으로 드러났다.

<표 V-18>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시민성	사례수(N)
초국가적 시민	0
국제이해 시민	2
국수주의적 시민	4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	14

(참고: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한 학생이 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4 학생이 두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국경과 민족, 문화를 초월하여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이해하고 범지구적 이해와 평화를 위하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 중에서는 없었다. 지구촌,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범지구적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태도와 관용을 보인 학생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조기유학을 나온 이유가 단지 자신과 자기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지평을 넓히는데서 찾았다.

저는 (조기유학이)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한국에서만 하는 정말 그런 한국에서 보는 입장하고 미국 입장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은 경험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같아요. (이준호, 17세)

국수주의적 시민들로 분류된 4명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엄소라: 아, 저 되게 애국적인 것 같아요.

면접자: 이렇게 나와서 월드컵은 챙겨 봤어? 다?

엄소라: 네, 다 챙겨 보고. 막 막 음. 가끔 독도 문제로 일본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게 열 받고, 막 짜증나요, 막 화나고.

면접자: 열 받고, 화나고?

엄소라: 왜 그러지 막 생각도 하고. 어 막, 가끔 애국가 흘러 나오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여기 오니까 더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엄소라, 18세)

황수동: 아니요, 전 한국인이예요. (미국학교에서) Pledge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때 한국말로 (한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해요).

면접자: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 같애?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황수동: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한국인이니까! (황수동, 15세)

16명중 대다수인 14명의 학생이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과정을 개인의 교육과 진로를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미국 시민권 획득여부에 대해 국가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거의 없이 어느 시민권이 더 본인의 사회경제적 이득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향후 진로와 계획, 거주 국가를 묻는 질문에도 개인이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조건에 대해서만 주로 응답하였다.

김주리: (조기유학을 나오게 된 주요 이유는) 한국은 성공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으로 오면 일단 영어라도 되니까. 뭐가 안 돼도 그래도 영어라도 되니까. 과외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했어요.

.....

김주리: 엄마가 제 앞으로 적금 들어 놓은 게 있는데 괜히 시민권 바꿨다가 복잡해 질까봐. 그래서 그때는 안 원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하기 싫은 이유가 대학 졸업 하고 어디서 살지 아직 결정 안했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 살게 되면 또 시민권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귀찮아서.

면접자: 그런 거 말고 아, 난 한국 사람인데 (하는 생각에서 시민권을 신청안하는 건 아니고?)

김주리: 아,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예요.

면접자: 실리적인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걸 따져봤을 때 어떻게 더 편할지?

김주리: 네. (김주리, 17세)

면접자: 장래 계획이 어떻게 돼?

박혜진: 저는 의사 같은거. medical school 가고 싶고 지금 성적으로는 부족해서 공부 중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약사 같은 거.

면접자: 개인적인 생각이야? 아님 엄마가 바라시는거야?

박혜진: 엄마도 좀 바라시는 거 같은데. 미래에 제가...

면접자: 멋있어 보여서?

박혜진 : 여기서 돈도 잘 벌고 힘들지 않고. 의사라는게 약간 높아 보이잖아요.  
(박혜진, 18세)

이와 같이 대다수의 조기유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인종 친구들과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조국에 대해 보다 반성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보다는, 국수주의적,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발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에 조기유학 나온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의 공부가 좀 더 쉽고 대학가기 더 수월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취업이 잘되는 등 개인적인 이유였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미국의 “본토 영어”를 배움으로써 좀 더 취업이 쉬움을 강조했을 뿐 미국에서의 공부와 영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기여하거나 보나 나온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등의 국가 시민적, 세계시민적 성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같은 처지의 한국 학생들이랑 일차집단을 이루며 어울리고 타인종과는 거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인사하는 정도에 머물며 방과 후 활동이나 주말과 방학에 있어서도 주로 한국학생들과 지낼 뿐이며, 학교 수업에 있어서도 영어 따라가기 바쁘거나 성적에 연연하기 급해서 수업 내용이 민주시민/세계시민 함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유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기유학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점들, 예를 들면,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접하며, 자신의 나라와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반성적 관점을 가질 기회,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면서 국수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국내외의 사회 부정의와 세계적 차원의 정치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 조기유학이 가져다주는 자동적인 산물은 아님을 보여준다. 앞서 Waters나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조기유학의 그 주된 목적이 중산층 이상의 계급재생산이라면, 그리고 조기유학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또는 서구 선진국의 대학학위를 받아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업을 잡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공에만 중점을 둔다면 위에서 지적한 가능성들은 단지 가능성에 머물게 됨을 보여준다.

### ③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분석

한편,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 법적대리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과 도움이 중요하다. 부모, 친척, 법적대리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교육정보, 경제적 여유 등은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조기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학생 16명 중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1명, 보통은 11명, 그리고 낮은 경우는 4명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자본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홀어머니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며 자식을 홈스테이 가정에 보내어 비교적 저렴한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거나, 맞벌이 부부 가족으로서 자녀를 홈스테이 가정에 보내 저렴한 사립학교에 보낸 경우,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 집에 홈스테이를 부탁하고 저렴한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영어 학원에 F1으로 등록하여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며 아파트 렌트에 사는 경우였다. 홈스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조기유학생들이 5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공부에 열중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노는데 시간을 뺏기기 쉬웠다.

<표 V-19>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N)	문화적 자본(N)	사회적 자본(N)
상	1	2	4
중	11	6	8
하	4	8	4

이에 반해 대부분의 아틀란타 조기유학생들은 중간정도의 경제적 자본을 지닌 가정 출신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나 하우스 렌트를 해서 기러기 가족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고 몇 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일반 가정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어머니나 좀 더 세심한 개인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졌다. 단지 한 명만 아틀란타 지역에서 중상층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정은 기러기 가족으로서 나이 많은 두 형제자매가 조기유학을 이미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일반 하우스 렌트를 하고 있었다.

경제자본과 함께 문화적 자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부모나 현지 법적 대리인이 미국의 학교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어실력이 높으면 학생을 적절히 잘 지도하고 지원해줄 수 있게 되며 이는 조기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틀란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 전체 16명 중에서 문화적 자본의 많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2명, 보통은 6명, 그리고 낮은 경우는 8명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적 자본이 많은 학생들 중 한명은 부모님이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을 5년 이상 하였고, 본인과 동생들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문화와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풍부한 편이었으며 영어 의사소통능력도 상당한 편이었다. 다른 한명은 가까운 친척이 미국에 이민을 온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조카인 그 학생을 입양하여 조기유학을 뒷받침해주는 경우로서 법적 부모의 미국사회와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어의사소통 실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경우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법적대리인의 영어능력과 미국사회 그리고 미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16명중 4명이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었고 4명이 낮은 편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중간정도였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미국에 있어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친형제 자매가 이미 조기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조기유학지 선정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였다. 사회적 자본이 낮은 4명의 경우 미국에 아는 지인이 없어 한국의 유학원을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홈스테이와 학교를 선정하고 나온 경우였다. 그럴 경우 유학원이나 인터넷에서 제공된 정보와 다르게 현지 학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한인 학생숫자가 예상보다 많아 실망하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8명의 경우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조기유학의 장소를 선정하고 홈스테이를 소개받거나 학교를 소개받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3. 샬롯 (동남부 일반 도시)

#### 1) 자료수집소개

샬롯 지역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14명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소 도시의 특성상 조기유학 학생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직접 조기유학을 주선하는 지역의 유학원들이나 홈스테이 가정들을 연락하여 본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처음 4~5명의 조기유학 학생들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홈스테이 가정들 사이에서 혹은 조기유학생들 간의 이미 이루어진 상호 연결망을 통해 연구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소개 받았다. 다른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샬롯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각 가정을 오후나 주말에 방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인터뷰가 보호자의 비형식적 입회하여 이루어졌으나 보호자가 인터뷰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학생의 인터뷰 이전이나 이후에 보호자가 조기유학을 온 배경이나 현재 학교 상황이나 학생의 상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참여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본인의 동의서만을 받았고 18세 미만인 경우는 학생의 동의서와 함께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은 후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생에 따라 42분에서 1시간 32분 까지 소요되었고 대부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연구 지침에 따라 설문조사와 1차 인터뷰 참여 후, 참가자들에게는 \$20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 2) 연구 참가자 소개

샬롯 지역에서 연구에 참여한 한인 조기유학생은 총 14명으로, 이들 중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6명이다. 이들은 미국 중·고등학교의 6~12학년

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로서, 부모 중 한 명(모두 어머니)과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자녀들이 2명이었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미국에서 친척집에 머무는 경우가 4명, 그리고 부모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혹은 홈스테이 관리형 유학기관을 통해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5명이었다. 부모가 다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어느 한 쪽도 미국 내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민의 사례도 아닌 경우가 세 사례로 이 가정들이 한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기가 자녀들의 조기유학임이 분명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4.2로 11세부터 1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샬롯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비자형태는 주로 학생 본인이 유학생으로 등록된 F1 소지가가 전체 14명 중 6명으로 약 42%였고 부모가 유학생 비자 F1를 받으면서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게 된 F2의 경우가 2명, 부모님이 취업비자 H1이나 방문비자 J1을 받게 되면서 동반비자를 받게 된 H4이나 J4 소지자가 3명, 그리고 영주권자 2명의 경우가 있다. 한 학생은 부모가 미국 유학 당시 출생하였기에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여학생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지닌 학생들, 그리고 부모의 학생비자나 취업 비자의 동반인 자격인 F2나 J2비자를 소지한 경우(8명)는 다 학비가 따로 들지 않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생 본인이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모두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출신이 전체 14명 중 1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 출신이 3명, 중소도시 출신이 1명이었다. 이들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에 이미 오래 전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을 통해 입양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기유학생들 모두가 소위 부촌들이 밀집해 있어서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샬롯 남쪽 지역의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알려진 한 두 개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밀집해 다니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같은 거주 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들은 다양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그 규모가 너무 작고 학교 재정이 약한 경우들로 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곳들로 보여졌다. 살랏 남부 교외 지역은 소위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한인 조기유학생들 가운데에서 이들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립학교들은 그 입학 과정도 선별적인데다가 수업료 자체도 다른 사립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학생 또한 입학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가자들의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본 결과,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 14명 중 9명으로 6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 대학교수, 교사 등의 직업도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전체 14명 중 9명이 전업주부로 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약사, 교사, 혹은 개인 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5명이었다.

### 3) 분석 결과

(1) 조기유학의사결정 과정: 누가 주도했고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는가?

살랏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명 중 5명의 학생들이 어머니가 먼저 조기유학과 거주 형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어머니들이 자녀 단독의 조기유학이나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었다.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중간 정도이거나 중간 이하의 성적을 유지하는 자녀들이 미국에 오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차후 아버지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에 동의하여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V-20>에는 어머니 주도의 조기유학 결정이 학교 학교에서의 학업 부진과 더 좋은 교육의 기대 두 가지 이유가 동등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6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이 두 가지 이유는 동시에 적용되었다. 즉 한국에서 성적이 중간이거나 중간 이하였기 때문에 미국 교육에서 제 2의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발생한 것이었다. 반면 아버지가 조기유학을 먼저 제안, 결정한 경우는 학업 도피적인 이유보다는 미국 교육의 좋은 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4명의 조기유학생들은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친구나 아는 사람의 권고를 받아 오게 된 경우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 전체가 일시적으로 와 지내는 양상을 띠었다. 현재 어머니만 남아 있는 두 경우도 처음 미국을 올 당시는 아버지가 동반한 상태였다가 일 년 후 자녀들이 미국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버지는 한국으로 되돌아간 상태였다. 아버지가 조기유학을 주도한 경우는 한국에서의 학업 부진이 주 이유가 되어 조기 유학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고 대신 미국 교육을 받을 경우 얻게 되는 장점 등이 좀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부모가 동시에 미국행을 결정했다는 경우 역시 처음 미국에 올 당시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함께 왔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자녀만 미국에 남겨거나 혹은 어머니와 자녀만 남는 형태를 취하였다. 부모가 함께 조기유학을 결정한 경우는 학업 도피적인 경우는 없었고 아버지 주도의 조기유학생처럼 미국 학교를 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주 이유로 부각되었다. 다른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샬롯의 조기유학생들의 가운데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미국에 나온 소위 가정 도피형 조기유학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면 학생 본인이 먼저 조기유학을 보내달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부모가 차후에 동의하게 된 사례는 3명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한

국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미국에 와서 제 2의 기회를 얻으려고 본인이 직접 부모를 설득한 경우이거나 주변의 친구나 형제가 이미 조기유학을 나가 있거나 나갔다 오면서 미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모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례였다. 주변 친구나 현재의 영향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한국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였으나 한국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

<표 V -20>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의사 결정자	사례수(N)	세부 원인(가장 주가 되는 요인으로 구분)	사례수(N)
어머니	5	학업부진으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향상 기대	3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2
아버지	4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3
		한국 학교에서 자녀가 겪는 학업 이외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1
부모 모두	2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2
학생 본인	3	주변의 친구들이 가면서 본인도 가보고 싶어서 미국교육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교육기회를 위하여 부모 설득	2
		학업부진으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향상 기대	1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의사결정자는 개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은 미국 교육이 한국의 교육에 비해 수월하고 경쟁이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교육을 받으면 장차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치열한 대학입시나 좋은 중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초중학교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경쟁을 지적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학업상의 제반 어려움들을 토로하였다. 반

대로 미국 교육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이 덜한 반면 영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차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미국에 남든지 간에 우수한 대학으로의 진학과 취업 등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결국 조기유학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국행을 결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즉, “이 한국 학교에서 차라리 중상위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반 정도 밖에 못 할 바에야 차라리 미국 가서, 조금만 하면 금방 상위 막 5%, 1% 들고, 하니깐 그런데 가서 좀 더 한국에서 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으로. 또 좀 쉽게 더,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 라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미국, 엄마 아빠가 얘기 하시는 게, 한국에서는 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깐 그 중에서 뛰기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와서 하는 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수연, 17세)

면접자: 본인이 생각한 거랑 한 번 부모님이 생각했던 미국 학교의 좋은 점? 기대했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강예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는 그 교육 열의 약하잖아요. 하면 하고, 안하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한국보다 쉽게 쉽게 공부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게 좋아서 가라 그러셨는데, 처음에 그것만 좋은지 알았는데, 딴 것도 괜찮은 편인데. 그냥 그랬어요. (강예진, 14세)

윤빈 엄마: 어..... 일단은 애들이 학교에서 한국학교는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올 때는 어려서 왔지만 시간이 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워낙에 힘들게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와서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너무 학업에 시달리지 않고, 사실 점수 따기는 여기가 훨씬 쉬운 거 같아요. 숙제랑 뭐 project나 좀 잘해가면은 금방 A가 나오고,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가 애들이 뭐라 그러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칭찬도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해주고, 그런 면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이윤빈 15세/7학년; 이윤아 14세/6학년)

반면에 해외에 나와서 혹은 미국 학교를 다님으로써 다양한 문화나 시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미국에 나온 경우는 세 학생에 불과하였으며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두 명은 조기유학이 주는 영어 교육의 혜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거나 부모의 입장은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유학을 통해 영어 실력을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고 장차 직업 세계에 나아가 영어로 된 해외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학생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주도나 부모가 함께 조기유학을 주도한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먼저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도 세 경우나 있었는데 세 사례 모두 가까운 주변에 조기유학을 다녀오거나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렇게 조기유학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부터의 권고를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친한 친구의 권고로 조기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정한 세란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세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제 친구가 이미 한 번 유학을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때 갔다가 중학교 때 와 가지고, 지금 같은 반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는데, 애들한테 유학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걔는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꺼냈는데, 걔가 앞 뒤 안 들어보고, 딱 잘라서, 무조건 가라고. 내가 너랑 떨어지고 있는 건 싫은데, 그리고 이게 너한테 지금 온 완전 큰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언제 다시 올 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그래 가지고.

면접자: 그래서, 그 친구가 가라고 하니까 뭔가 있나보다 해 가지고?

이세란: 당연히 처음에는 다 힘들데요. 그냥 힘들어도, 그게 너한테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가라고. (이세란, 15세)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대다수가(열 명의 학생) 본인들의 조기유학이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미국으로 오기 위해 일정 준비를 한 기간은 2~3개월 수준으로 매우 짧았다. 따라서 오직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는 언어상으로나 문화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미국에 왔으며 미국 학교를 시작할 당시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나머지 세 명의 학생은 조기유학에 관심은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갑자기 결정을 해 온 경우로 언어적 문화적 준비가 더 미흡하였다.

<표 V-21>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준비상태	사례수 (N)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조기유학을 장기간 (6개월 이상) 준비한 경우	1
부모는 준비하였으나, 자녀는 모르고 있었거나 준비 기간이 짧은 경우 (6개월 이하)	10
부모와 자녀 모두 갑작스럽게 결정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3

학부모가 자녀를 미국에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를 시키지 않은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들 조기유학생 가정들이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거나 실제적으로 그런 준비를 시킬 만한 경제적 여유나 충분한 문화 자본을 지니지 못하였던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샬롯에 거주하는 조기유학생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미국 교육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미국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 대부분은 조기

유학의 사전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기유학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부모와 함께 사전 준비를 했던 학생 한 명의 경우는 확실히 초기 정착과정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을 덜 겪었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하였다. 사전 준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처음 정착 과정에 동반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현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부모가 자녀의 조기유학을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였거나 초기 적응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는 한국에 부모가(혹은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도 현지 보호자나 남은 배우자에게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들 부모들을(혹은 아버지들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보를 모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고 그 학습 과정을 멀리서도 점검하는 등 자녀의 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 (2)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 ① 학업성취도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성적은 5% 이상의 최상위권 학생은 없었으며 상위권(상위 5~10%)라고 답한 학생이 3명, 중상위권(10~25%)이라고 답한 학생이 1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반면에 중위권(25%~50%)에 속했다고 답한 학생이 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학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도 1명 있었다. 한국에서의 성적을 보고하는 설문 문항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연구자의 견해보다 다소 높게 기입한 경우가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한 스케일 안의 반응으로 간주되어 학생이 기입한 정보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위권에 속한 세 학생들 중 두 사례는 미국에 오게 된 경위에 본인의 조기유학 목적 이외에도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였고(학업 이외의 면에서 실수를 해서 한국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순위 언니의 조기유학을 위해 부모가 단기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족 전체가 온 경우) 마지막 한 사례는 한국 학교에서

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단기간 거주를 전제로 미국에 온 경우였다. 한국에서도 공부도 잘 한 편이었고 운동 신경이 뛰어나 학교 선수로도 활약했던 대인은 순간에 실수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하면서 갑자기 조기유학을 결정한 사례였다.

윤대인: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면접자: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 대인이 학교에서?

윤대인: 네, 저요.

면접자: 음. 얘기 조금 해 줄 수 있어요?

윤대인: 친구가... 싸우는 도중에 친구가 제 목을 졸라가지고, 놀래가지고 딱 주먹을 쳤는데 여기가 완전 나가버렸어요. 한대 맞고. 뭐 그걸로 개네 아줌마가 뭐, 사회악이니 그러면서 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공부하려고 원래 오려고 하긴 했는데, 조금 앞당겨졌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윤대인, 15세)

소수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성적을 한국에서 유지했던 학생들은 제외하면 대부분의 살롱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냥 성적도 조금, 중위권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정도”였다. 이들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주로 한국에서 공부를 본인이나 부모의 기대만큼 못한다는 것과 친구들 간에 경쟁하고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학생들이었다.

면접자: 그럼 한국에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이수연: 한국에서 가장 큰 고민은, 성적.

면접자: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push 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수연: 그냥 애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제 스스로도 그냥 그런 거 많이 받고. (이수연, 17세)

면접자: 그러면은 세란이는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놀기도 하지만?

이세란: 네, 그런데 저보다는 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성적을 내밀고 막 그럴 수는 없는데, 걔네들은 항상 막 평균 나와도 95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세란, 15세)

이러한 중위권 학생들은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의 교육제도는 자율성이 높고 경쟁이 덜하므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살기 좋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조기유학 결정은 제 2회의 기회를 얻으려는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럼 우형이는 부모님이, 엄마가 너 미국에 가 보고 싶냐 이랬을 때 네 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 오면 뭔가 좀 좋은 것이 있겠다든가 뭐 호기심이 있었든가 이랬으니까 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은 no, 내가 어디를 가요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우형: 네, 그냥. 그냥, 한국은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고, 너무 이렇게 밤늦게 까지 공부해야 되고, 학원 다니고 맨 날, 그래서.

면접자: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그 밤늦게 까지 학원에 다니고 이래야 됐어요?

이우형: 네. 막, 중간고사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말고사 할 때면, 막 새벽 2시. 1, 2시까지 학원 있다가. (중략)

면접자: 그러면 그 때 미국에 오면서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고 늦게까지 해야 되고 이러한 것 이외에 미국 교육이 뭐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본적이 있었어요?

이우형: 일단 미국 교육이 계속, 계속 실패해도 기회를 주잖아요. 한국은 한 번 그냥, 이렇게 계속 뒤쳐지면 계속 그냥 포기해야 되고.

면접자: 미국 교육이 좀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우형: 네. (이우형, 18세)

면접자: 그럼 미국 와서 공부를 하면은 그 당시에 승철이 생각이나 가족 생각이 어떤 점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오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승철: 저는 일단 그냥 생각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오면 영어 늘겠구나 하고. 한국에서 그냥 그 때. 한국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면접자: 왜 한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승철: 그 때는 그냥 막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간단한 거였어요.

면접자: 그러면 영어를 배우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텐데 부모님은 그러면 혹시 이제 미국에 가면 어떤 점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 했었어요? 승철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부모님은 생각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승철: 네. 그냥 부모님은 이제 나중에 제, 내가 이제 살아갈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닌가, 대학가는 것도 미국이 더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잖아요. (이승철, 13세)

## ② 교우관계

샬롯 지역의 대부분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한국에서 친구들과 보낸 시간을 가장 즐거운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학교생활 중이나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자투리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았던 것을 매우 그리워하였다. 샬롯의 조기유학생들은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거나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에 더욱 한국의 교우 관계에 대해 좋은 기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소도시의 거주 특성상 보호자가 차량 편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학교 친구들과 학교 공간 이외에서 따로 만나 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한국에 방문 시에는 서로 만나서 오랜만의 회포를 풀기도 하였다.

면접자: 한국 학교생활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 해 보면 어떤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수연: 좋았던 점은, 그 한 반 애들끼리 계속 1년 내내, 수업 같이 들으니까 그 애들이랑 많이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냥 선생님들도 계속 똑같고 이러니까, 더 막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수연, 17세)

면접자: 그 다음에 그러면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랬어요?

이세란: 네. 그런데 갔을 때가 애들이 아직 방학을 안 한 상태인데, 맨 처음에 갔을 때 놀 애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랑 10년 동안 친구인 애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게 되어서 개도.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그 전에 개가 학교를 한 달 정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시기라서, 둘이 제가 거기 새벽 5시에 갔거든요. 새벽 5시 그 온 날부터, 진짜 하루도 안 빼 먹고 개 가는 날까지 계속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맨 날. 똑같은 날 봐도, 막 할 얘기도 많고. (이세란, 15세)

한국에서 교우 관계가 다소 어려웠던 두 사례는 학생이 내성적인 성격의 소지자인 경우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제적 배경을 지닌 부모가 학생의 시간을 개인 교사들을 통하여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방과 후의 교우 관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미국 학교의 친구들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민정윤: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에 막 놀다 보면 왕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친구 사귄 때도 쉽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차별같은 거 하잖아요. 또는 뭐 이게 안 되니까 뭐, 한국에는 거의 다 이렇게 4,5명 그룹으로 모여서 놀아요. 그리고 뭐 안 끼워 주고 그러고 뭐. 또 가끔 가다가 뭐 조금이라도 싸우면 막 이상한 소문 막 퍼뜨리고 그러가지고, 그 때는 저도 한 번 왕따 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면접자: 그랬어요?

민정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그래 가지고 약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애들은 잘 해줘요. 정말 진짜 더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친구랑 선생님이 제가 미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민정윤, 11세)

### ③ 전반적인 학교 경험

두 명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가장 좋았고 즐거웠던 부분으로 교우관계를 이야기하였다. 미국에서의 교우 관계가 좋은 편인 학생들조차도 미국 친구들과의 대화가 피상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한국의 친구들을 그리워하였다.

(한국에 있을 때) 일단 친구들 같은 것들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거기(한국)는 친구들이 약간 좀 더, 여기(미국)는 약간 살짝 닫는, 마음을 닫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한 번 친해지면 완전 깊게 친해지니까, 다 얘기 하고. (이세란, 15세)

면접자: 그러니까 윤빈이가 보기에 한국학교의 좋은 점은 뭐인 거 같아요?

이윤빈: 한국학교의 좋은 점이란 학교급식이 마음에 들었구요, 친구들이 가끔 좋아하는 취미가 똑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이 똑같으니까 말도 털어놓기가 쉬웠어요. (이윤빈, 14세)

이에 반해 한국 학교에서 좋지 않았던 점으로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별로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시험 자체가 어려워서 잘 하기 어려웠던 점, 혹은 친구 간의 경쟁의식과 학원을 많이 가야 했던 점,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다 시킨다는 점, 체벌, 학생들 간의 소위 왕따를 시키는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즉 “한국은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고, 너무 이렇게 밤 늦게 까지 공부해야 되고, 맨 날 학원 다니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주 어려움이었고 게다가 인간관계에서는 교사의 체벌이나 학생들 간

의 폭력, 왕따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왕따 문제는 반수 이상의 학생이 지적한 사항으로서 이제는 학생간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자: 그러면 한국에서 그럼 한국 학교생활을 생각해 볼 때, 좀 안 좋았던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수연: 교육 받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막 강제로 시키고 하는 것들이나, 때리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랑. 애들끼리도 막 왕따,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 (이수연, 17세)

면접자: 한국학교에서 좋았던 점 다 나열해보세요.

이승관: 좋은 점은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여서 좋고, 그리고 우선은 (전) 그 한국학교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쁜 점은 공부가 어려워져서 나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bully가 있어서...

면접자: 나쁜거 같고?

이승관: 네. (중략) 초등학교 때는 많이 없구요, 중학교 때는 이제 애들이랑 잘못 어울릴 때 있어서 그래서 저가 아는 애가 이렇게 bully를 하는 건 봤어요. (중략) 신고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안하는 애들도 있는데 신고를 하면 그 1,2,3학년이 있는데 2,3학년 형들이 1학년들 애들 백이 되주는 그래서 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면 이제 그 뒤 수습을, 그 뭐지? 이르고 나서 그런 형들이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안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승관, 15세)

면접자: 그러면 한국 학교 다닐 적에,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이나 뭐 좋았던 기억이나 나뻐던 기억 같은 게 있어요?

이우형: 음, 미술 선생님. 그냥, 뭐 스케치북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막 뺨을 때리고.

면접자: 초등학교에서요? 중학교에서요?

이우형: 중학교요. 중학교요. (중략)

면접자: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런 사건 이외에도 한국 학교에서 좀 안 좋았던 점

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우형: 음, 줌. 애들을 줌 차별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왕따? 그런 거?

면접자: 애들 간에? 아니면 선생님이?

이우형: 네, 애들 간에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왕따시키는 것도 봤고요.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면접자: 학생이 학생들을 왕따시킬 때는 무슨 이유로 주로 왕따를 시켜요?

이우형: 그냥 생긴 거랑 이름. 이름이랑 생긴 거.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면접자: 중학교 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형이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물들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애들이, 한 3, 4명이 같이 자기랑 같이 놀고 있는 한 그룹의 애들이 어떤 애를 무시하는데 자기만 무시 안 하면 자기가 또 왕따를 당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우형, 18세)

한국 학교를 다닐 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등 서로 반대되는 견해가 공존하였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로 교사의 체벌이나 폭력 사용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 성적이 낮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예진은 그 한 예였다.

강예진: 그 한국 학교에서는 애들이 많아서 그,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 보면,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가 보는 게 원래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고, 학원 가서 물어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이상했는데, 학원에 가서 물어보면, 이상한 문제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낸 문제는. 교육과 기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학원에선 또 학교에다가 물어보라 그래요. 선생님도 확실치 않으니까, 그러면 절대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몇 일이

걸리더라도 해 주겠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딱 잘라 버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막 왜 이런 거 모르니 이러면 몰라요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문제의 답을 해 준다고, 거기서는 선생님이 문제의 답을 해 준다고 해도, 이거니까 이런 거야, 했는데. 여기는 차근차근히 가는 거니까.

면접자: 여기 선생님들이 더 훨씬 친절할 것 같아요? 예진이가 보기에?

강예진: 네. (강예진, 14세)

그러나 흥미롭게도 샬롯의 조기학생들 가운데는 한국의 선생님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진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가 중위권 이상에 속한 학생들로서 한국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긍정적인 면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엄격한 교사 학생 관계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도 했고 또 한국의 선생님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도 많아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미국 선생님보다 오히려 더 친근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중 2까지 다니고 미국에 중 3으로 편입한 대인이는 한국 학교에는 “욕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래도 선생님이 또 엄격하다 보니까(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딱 잡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면접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좋은 점하고 나쁜 점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우선 좋았던 점부터 얘기 해 볼까요.

윤대인: 한국에서요? 음... 우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좋았어요. 네,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특히 수학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오기가 나잖아요. 이 문제 딱 풀겠다 이런 거. 그런 수학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연구 : 그러면, 한국에서 좋았던 점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좋았던 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학교가 더 좋았던 점.

윤대인: 한국 학교가 그래도, 한국 학교는 시간이 수업시간 짧으면서도 40분 등

안을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시간 반을 하더라도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퍽퍽하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면접자: 그래요? 한국 수업이 조금 더 알찬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윤대인: 네. (윤대인, 15세)

면접자: 한국 학교에서의 가장 좋은 점들은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혜영: 어, 제일 좋은 점은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 선생님은 약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선생님이 나중에 더 좋은 선생님처럼 느껴져요.

면접자: 어, 왜 그럴까요?

박혜영: 처음에 제가 3학년 때 엄청 무서워하는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선생님한테 맨날 남자 애들이 많이 장난기가 있으니까 혼났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별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2학기 되어서 선생님이 점점 방학 중에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더니, 나중에 4학년 때 다시 만나러 가니까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면접자: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조금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이런 생각 했어요?

박혜영: 네. (박혜영, 12세)

예진과 한국에서 같은 초중학교를 다녔고 현재 미국에서도 같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란은 미국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에 대한 견해에서 예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좀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세란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되게 한국의 좋은 선생님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얘기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면접자: 한국의 학교를 다녔을 때의 좋은 점은 뭐가 있었어요?

이세란: 미국 선생님이 약간... 미국하면 항상 친절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잘 대

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은 과학 담당이셨는데, 제가 원래 과학을 진짜 싫어했어요. 막, 공식 막 이런 게 더 어려워 갖고 수학보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으면 애들한테 직접 가서, 그 애한테 좀 봐 주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수업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모르는 것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따로 물어봐도, 약간 바쁘신 듯 해도, 그냥 일단은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과학을 또 좋아했는데. 그런데 여기 (미국) 선생님도 어쩔 때는 물어 보려가도 안 계시거나, 약간 바쁘시다 그러면 나중에 오라 그랬는데 막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세란, 15세)

### (3) 미국에서의 학교 경험과 어려운 점

다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샬럿 지역의 학생들 역시 미국 사회에 처음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바처럼 샬럿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그 준비 과정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영어는 아예 진짜 못 했던” 경우들로 다들 초기 적응 과정에서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샬럿 지역의 조기유학 학생들의 약 절반 정도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들은 그 규모가 작아서 ESL 교사가 따로 있는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조기유학생들은 오는 즉시 그냥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는 친절했지만 학교 수업의 내용을 전혀 몰라 당혹스러운 적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 그렇게 (학생들 간에) 그룹이 되어 있으면 참 그런데 끼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이 학교에는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 ESL 선생님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세란/강예진: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ESL 그냥 넘어 갔어요. 그래서 ESL 안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 거라서.

면접자: 그럼 처음 와서 좀 알아들었어요? 한국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이세란: 아니요. 안 해가지고 진짜, 못 알아 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맨 처음에 우연히 어떤 선생님의 딸이 거기서 다니고 있어서, 딱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랑 개 친구들이랑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관찮았는데. 애들이 우리가 평소 한국에서 배우던 영어랑 그 영어 말 속도 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내가 막 천천히 그냥 Listening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면 알아 들겠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총알처럼 빠빠방방 얘기 하고 이래서, 막 이해를 못 하고 그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얘기 해 달라 그러면 애들이 좀, 귀찮아하고 싫어 할 까봐, 괜히 그냥 어물쩍 이렇게 몽그러뜨려서 말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세란, 15세: 강예진, 14세)

조금 더 큰 사립학교에 간 태준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모아 따로 가르치는 반에 일정 시간 가야 했는데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게다가 담당 선생님이 미리 시험 볼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면서 은근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올 해는 그 반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호자: 그게 아니고 SPC(태준이가 가는 특별반)라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못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제 영어 problem 있는 애들이 아니고 generally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이(을 위해) 선생님 하나를 뒤편 가지고. 그게 ESL 선생님이 아니고요.

면접자: Remedial (보충학습)처럼 하는 거로군요? Remedial class로 해서 이렇게,

보호자: kind of...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말하고, 그리고 그 분이 또 international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는(태준) 공부 는 잘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도움 받고, writing 할 때만 이렇게 grammar를 고쳐준다거나 그럴 때 도움 받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수학이 있으면 수학을 묻기도 하고, social studies를 묻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게 ESL 클래스가 아니

고.

면접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클래스보다 학생 수가 적겠네요? 그렇죠?

유태준: 네 진짜 적어요.

면접자: 그 각각 학생한테 조금 더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랑은 좀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유태준: 친하게 지내는 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 가지고 2명인가, 3명 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나가서. 왜냐하면 그게 약간 좋은 클래스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왜 안 좋으냐면, 그게 테스트를 할 때 미리 보기를 줘요. cheating 아니예요... 그러니까 cheating 같은 건데... cheating 은 아닌 것 같은데... (유태준, 12세)

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는 정 반대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학교 내에 있는 ESL반에 들어가 영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이러한 ESL 반의 교육 과정이 주지 과목과 잘 연결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가르치거나 수준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면접자: 미국 학교의 나쁜 점 한 번 얘기 해 볼래요? ESL에 대해서, ESL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어요?

박혜영: 네 ESL에서, 제가 사회를 배워야 하는 시간에 ESL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회 같은 거를 보충을 안 해주고 그냥 뭐,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냅두고, 또 별로 물어 봐도 그거는, 선생님이 더 잘 알거다 라고 생각 하면서, 별로 이야기 해 주지도 않고, 그냥 원래 공부해야 될 거에 다른 것을 배웠어요.

면접자: 그러면 그렇게 ESL Class 갔을 때, 사회 같은 거 배우잖아요 반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사회 시험 같은 거는 어떻게 봐요?

박혜영: 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거기 가서 듣는 게 어땠겠는가, 물어 봤더니. 그래서 한 번은 가 봤어요.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그런 사회 쪽 지시사항 이런 거 제가 봐야 되냐고 물어 봤더니, 너는 그냥 배운 데만 해라. 그래서, 사회 시험은 많이 안 봤는데. (중략) PE는 가고, 다른 special

Art 나 미술 이런 거 다 갔는데, 그 사회만 빠졌어요.

박혜영 어머니: 또 Social Study 시간에 빠지는데, 그런데 애는 실질적으로 ESL 이 영어를 보충하는 시간이지는 하지만 이 영어를 보충하는 게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영어를 보충하는 거잖아요, 학교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가 과학 용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과학 용어를 조금 보충해주는 시간을 가진 다든지, Social Study를 저 쪽은 어렵게 배우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유치원 수준의 Social Study라도, 미국 역사 이야기를 조금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되어 되는데 단지 그냥 게임이나 즐거운 위주의 그냥 그, 단어 놀이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은 ESL 이지만 여기서 온 애들한테,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박혜영, 12세)

샬롯 지역은 한인 학생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한인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에서 조기유학생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설령 공립학교의 경우 ESL 반에 서너 명의 한인 학생이 모여 공부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 학생이 한국에서 막 도착하여 영어로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 국한하여 한국말을 쓰는 편이었고 그 이외의 학교 상황에서는 한국인 간에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샬롯의 조기유학생들은 대도시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처럼 학교에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비슷하였다. 따라서 샬롯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학교에서만큼은 영어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 학생이 절대 소수인 만큼 학교에서 사귀게 되는 친구들이 미국인이나 다른 소수인종의 학생들인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그 친구들과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어울리는 경우 역시 영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방과 후에 미국인 혹은 외국인 친구를 만나 교우관계에서 영어를 써야 하는 경우는 공립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이러한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상황을 벗어나 가정에 돌아온 후에는 모두 가족이나 현지 보호자들과 함께 한국말을 사용하였고 또 인근의 다른 한국인 가정과 교류할 때 역시 한국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이나 주중에 한국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하는 상대에 따라 한국말과 영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언어의 혼용 현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하거나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말을 쓰는 학생들과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 분리되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 V-22>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장소와 상황	사용 언어	사례수 (%)
학교	영어	14
	영어	14
	둘다	0
친구관계	한국어	0
	영어	10
	둘다	4
방과후 (집)	한국어	14
	영어	0
	둘다	0

조기유학생들의 초기 언어 적응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떠오른 것은 미국 교사들의 친절한 태도였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미국 교사의 친절한 지도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작은 사립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미국인 학생이나 ESL반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의 도움과 호의적인 태도도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겪는 초기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초기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의 뒷받침이었다. 특히 부모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자녀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넘어야 하는 언어적 장벽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인터뷰 목적으로 영어와 한국어 중 어느 언어로 말하는 것이 편한지를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참여 학생 전원이 다 한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아직도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익숙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 온지 4~5년 이상이 된 학생들이나 미국 학교에서의 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들조차도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살럿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의 경우 역시 이들이 학교에서 잘하는 과목은 모두 수학과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갓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나 미국에서 오래 동안 있어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수학하는 학생들 모두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 하는 편인 과목으로 꼽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좀 더 언어 능력이 필요한 주지 과목인 영어나 역사 등에서 상위반(honor class)에 들어가 있는 학생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공부 이외에도 따로 가정 교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 가정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영어는 필수적이었다.

교수 학습 언어인 영어의 사용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다른 언어 중심의 주지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어의 영향을 덜 받고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훈련을 받은 수학 과목을 갑자기 좋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수학을 가장 싫어했던 학생들조차 지금은 수학을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면접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제일 싫어했  
어요?

이승철: 뭐 국영수, 막 그런 거에서요?

면접자: 아니 전체 과목 다 가운데서.

이승철: 한국에서는 체육시간이 제일 좋았는데요.

면접자: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럼 뭐였어요?

이승철: 수학?

면접자: 수학이었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는 지금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체육은 제일 좋고? 아직도.

이승철: 지금은 체육 안 해요. 지금은 수학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수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는 영어.

면접자: 한국에서는 수학이 제일 싫었다면서요?

이승철: 네.

면접자: 왜 그렇게 변했어요? 180도로 변했네요?

이승철: 그냥 여기 와서. 어, 여기 와서 수학을 배웠어요.

면접자: 여기 미국 와서 배우는 수학이 더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이승철: 네, 그 때는 잘... 여기 와서는 수학이 더 재미있었어요.

면접자: 왜 그랬을까요? 신기한데.

이승철: 거기서는 아예 못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거예요. (이승철, 18세)

면접자: 이제 미국 꺼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거예요?

민정윤: 수학이요.

면접자: 왜 수학이 제일 좋아요?

민정윤: 쉬웠어요.

면접자: 한국에 있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 었어요?

민정윤: 주요 과목 중에서는요 과학.

면접자: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왜 그게 변했을까요?

민정윤: 왜냐하면, 여기 수학이 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잘 하는 과목이 수학.

면접자: 수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 오니까?

민정윤: 네. 한국에서는 과학이 제일 좋고 수학이 제일 (싫었어요)..... (민정윤, 11세)

면접자: 그럼 여기 와서 좀 싫어하게 된 과목은?

이우형: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한국 보다 더 쉽고. 좀 이해하

기 더 쉬우니까.

면접자: 여기에서 배우는 게 한국보다 이해하는 게 전반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이우형: 네 막 오히려 여기 미국에 와서 막 수학도 더 좋아지게 되고. 전 보다.

면접자: 왜 여기 와서 수학이 더 좋아지게 되었을까요?

이우형: 전에는 공부를 해도 계속 막 점수가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면접자: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우형: 네 여기는 조금만 해도 바로 그냥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면접자: 그래 가지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우형: 네. (이우형, 18세)

살롱 지역의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에 있을 당시 매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냈고 따라서 현재 가정을 떠나서 혹은 가정이 분리되어 사는 상황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는 편이었다. 면접 과정 중에 이야기된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주로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방과 후나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라이드가 안되어 갈 수 없는 상황이나 예전에 자신의 학업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아쉬움 정도였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학교 제도를 잘 아는 현지 교포가 조기유학생을 관리 유학 형식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학생의 문화적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살롱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가정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학생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미국 학교의 좋은 점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 교육과정이 낮아서 공부하기 쉽다는 점이다. 즉 미국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낮거나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바라는 만큼의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양은 훨씬 많은데 공부하기는 싫고 막. 이렇게 성적

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부하는 양이 훨씬 적어요 막 진짜. 평일에도 숙제 다 하고, 공부하고 나도 한 2~3시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성적을 잘 받으니까. 그래도 공부 할 의욕이 생기죠. (이우형, 18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샬럿에서도 조기유학생들은 미국교사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즉 7명의 학생들이 미국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친절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 학교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업 과목이 다양한 점과 수업방식의 다양성(소집단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 역시 미국 학교의 좋은 점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학교가 다문화적 경험을 하게 해 준다는 점을 장점으로 거론한 학생은 겨우 한 명 뿐이었다.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은 미국 학교의 장점을 생각할 때 문화적인 면이나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편안함이나 기대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미국 학교의 제반 상황을 다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아니다. 미국 학교의 좋지 않은 점으로는 주로 공부를 안하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학생들, 꼼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선생님, 그리고 너무 엄격한 학교 규율 등이 주로 이야기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샬럿 지역도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한 학업성적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과 학생의 학부모나 현지 보호자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학업성적을 상, 중, 하 위권으로 구분해보았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전체 14명 중 5명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상위권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평균 90점 이상을 받거나 연말에 실시되는 주정부의 표준화 시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를 받은 학생들, 영재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들, 고등

학생의 경우는 Honor class나 AP와 같은 수업을 성공적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샬롯의 경우는 미국 학교에서도 최상위권 학생은 없었으며 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상위 5~10% 사이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샬롯 학생 중 일정 과목의 학업 성적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의 honor class에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중위권 학생은 전체 14명 중 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평균 점수가 70~80점대를 유지하면서 보통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로 주정부의 표준화 시험에서 합격 선상인 3단계 정도에 있는 경우였다. 학업 수준이 하로 판단된 경우는 미국 학교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확연히 드러난 학생들이다. 즉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주정부가 실시하는 표준화 검사 시험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거나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에 배정을 받는 경우이다. 또 학년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반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라면 이들 성적이 중하인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자신들의 학업 수준을 상당히 상향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작은(저렴한) 사립학교들은 교육의 수월성보다는 개개인 학생들의 행복이나 자신감 개발 등에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학교 재정이 소규모이다 보니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수월하게 짜여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조기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소위 좋은 학군의 대규모 공립학교들은 사실상 초등학교 3~4학년부턴 수준별 교육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 단계의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분리되고 교류 역시 제한되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 공립학교들은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각 학생이 배정된 반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교육 과정을 잘 해낼 경우 좋은 학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낮은 교육과정에 배정된) 일지라도 자신의 반에서 모

두 A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생들 가운데 일반 교육과정 혹은 더 낮은 교육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 급우들과 상대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학업 성적에 대해 잘못된 상향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V-23>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번호	이름	한국 학업성적	미국 학업성적
1	윤대인	상	상(중)
2	윤대훈	중하	하
3	박혜영	상	상
4	유태준	중	중
5	이세란	중	중
6	강예진	하	하
7	이수연	상	상
8	민정윤	중	중
9	이윤빈	중	상
10	이윤아	중	중
11	이승철	하	중
12	이승관	하	중
13	이우형	중	상
14	이우진	하	하

<표 V-23>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미국에서도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미국에서 오히려 중위권으로 내려온 한 가지 사례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학업성적이 오른 경우는 3명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받던 점수나 등수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학업성취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미국학교에서의 교우관계

살롯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의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14명 중 8명이 다른 한인 조기유학생이나 한국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들, 혹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여겼다. 살롯의 조기유학생들이 학교와 방과 후에 만나고 친하게 지내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을 1차 집단, 마음을 완전히 터놓지는 못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집단을 2차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 1차 집단에 한국인 이외의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두 언급되었고 2차 집단에서는 전형적인 미국인 급우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조기유학생들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등의 학급을 다니면서 자신들처럼 미국에 갓 온 다른 외국인 ESL 학생들이나 다른 소수 인종 미국인 학생들, 부모의 이민 역사가 짧은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제 1차 집단이 없거나 다른 한국인 학생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 2차 집단에 가끔 나타나는 미국인 급우들조차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교우 관계에 비교할 때 깊은 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나 나온 이유는 공립학교는 작은 사립학교에 비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그 중에 자신과 처지나 생각이 비슷한 다른 학생들을 찾아 교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과 학교와 각 학생들의 가정이 지역 사회 안에 모여 있다 보니 방과 후 서로 모여 시간을 보내기가 좀 더 편리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립학교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의 분포가 다양하지 않고 학생들 역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학교 이외의 시간을 따로 내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 게다가 이렇게 사립을 다니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은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사립학교 재학생들 중에는 일부는 한국에서도 다소 어려운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도 고려할 만하다.

<표 V-24> 샬럿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학교유형	번호	이름	1차 집단	2차집단
공립	1	윤대인	한국조기유학생 다른 인종/국적의 ESL 학생	미국인 급우
	2	윤대훈	한국 조기유학생	미국인 급우
	3	박혜영	한국의 친구들 미국인 소수 인종 급우	미국인 급우
	4	이수연	방과후 클럽의 미국인 친구	미국인 급우
	5	이윤빈	한국인조기유학생 학교내 소수 인종 급우	미국인 급우
	6	이윤아	학교내 다른 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7	이우형	학교내 소수 인종 급우	미국인 급우
	8	이우진	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사립	9	유태준	한국교회 친구	미국인 급우
	10	이세란	한국의 친구	없음
	11	강예진	없음	없음
	12	민정윤	없음	미국인 급우
	13	이승철	한국교회 친구	한국의 친구
	14	이승관	한국교회 친구	다른 외국계 학생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처음에 영어를 배우는 반인 ESL반에 편성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미국에서의 첫 학교 경험도 이 ESL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ESL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돈독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ESL 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우 관계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접자: 자 제일 친한 친구집단이 누구예요?

윤대인: 저는 ESL 애들하고 특히 많이 친해요. ESL 애들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ESL 애들하고... 지금도... 이제 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다들. 근데 계속 전화하고 방금 도 전화 한 게 ESL 친구하고 전화한 게 놀러 오라고.

면접자: 그러면 ESL 친구들하고 학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만나나 봐요?

윤대인: 원래 안 그랬는데, 방학 되가지고 그냥 놀러 오라 그래요, 제가. (중략) 그냥 다 같이 놀자 그럴 때 시간 있으면 오는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그래요. 이번에 저 ESL summer school 듣거 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만 ESL summer school 들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계속 다녀가지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그냥. (중략)

면접자: 그러면, ESL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그렇고 마음도 더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윤대인: 음, 네. 그냥 애들하고 싸워도 애들이, 저 번에 러시아 애하고 한 번 싸운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풀어주려고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러시아 애가 사과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네가 만약 계속 싸우고 그러면 너하고는 말 안하고 우리는 친구 아니다, 그러니까, (ESL 친구들이) 일부로 그런 거 해줘요. (윤대인, 15세)

이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ESL 반을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 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학생들보다 다른 소수 인종 학생들이나 최근에 이민을 온 가정의 학생들과 가깝게 어울리고 있었다. 이 점 역시 언어 장벽을 넘어선 이후에도 청소년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

에 있는 학생들과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이 자신과 동생 둘 밖에 없는 학교에 다니면서 미국 학교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편이고 언어 장벽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여서 이미 백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인 유형 역시 최근에 서남 아시아에서 이민 온 가정의 자녀를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또 이해하는 친구라고 보았다. 여러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일단 좀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여기는 유형이지만 “백인 애들은 좀 깊지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는 ESL에서 시작하고 다른 소수 인종이나 초기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과의 우정으로 진전해가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립학교 재학생의 경우 ESL과정이 없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 모두가 일반 학급에서 일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보조를 받으며 공부하였다. 이는 곧 학교에 있는 ESL 학생들이 모일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ESL 학생들 간에 교류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 학급의 급우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온 방식이 전혀 달라 같은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새로운 외국인 학생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기유학생이 친구 관계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 급우들이 “여기는 약간 살짝 마음을 닫고 얘기를 잘 안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 것이다.

좀 그랬어요. 처음부터 막 우리 학교는 동양인이 별로 없는 학교이다 보니까, 세계 지도에다 막 그려 놓고, 애들 몇 명 있는지, 동양인은 몇 명있다 그럴 정도로 별로 없었는데.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신기하다, 백인이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흑인들조차도,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별로 안 친해지려고 하고 그랬는데... 한국 학교에서는 전학생이 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피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는 우리랑 다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강예진, 14세)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 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의 장을 벗어난 사교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학교 애들하고는 딱 선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친하기는 친한테 더 막, 더 친해질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거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그 결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많은 수가 가장 가까운 친구 집단으로 주말에 한국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조기유학생들을 들거나 아예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조기유학의 형식(친척이나 지인이 데리고 있는 경우/전문 관리인이 데리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재학생들의 학교 내 교우 관계는 그다지 깊게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살럿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관계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오래 전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과 최근에 온 학생들 간의 갈등 현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설령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조기유학생들조차도 한인 교회에서 만나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과 영어를 쓰면서 교류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반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학교나 교회에 있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래 인용된 승철의 경우 학교의 미국인 친구나 한국 교회에서 만나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 “둘 다 영어를 쓰는”데도 “후자가 더 그냥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승철이는 공부하다가 영어가 특히 제일 어려웠던 과목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잘 이해가 안가고 이럴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승철: 친구한테 물어 봤어요.

면접자: 어느 친구한테 물어 봤어요?

이승철: 그냥 (한국) 교회 그, 이제 친한 친구, 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형이 설명해 주면 되게 도움 많이 되었어요.

면접자: 아, 그러면 승철이는 학교 친구들도 친구가 있지만 여기 교회 친구들이랑 더 친할 수도 있겠네요?

이승철: 네. 더 친해요.

면접자: 교회 친구들은 그러면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있고, 승철이처럼 이렇게 중간에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다 친한 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승철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더 같이 친해요? 어때요?

승철: 제가 친한 거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랑 더 친해요. (이승철, 18세)

#### (5)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살럿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인종차별 경험은 공립과 사립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앞 장의 교우 관계와는 정 반대로 공립학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인종차별 경험을 한 반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립학교 학생들은 초기 적응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외국인 신분 때문에 혹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종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남학생들이, 그리고 학업 성적이 높고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이 많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학생일수록 인종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종 차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 이외의 다른 교우 집단이 상당히 발달한 경우들이었다. 즉, 이렇게 서로 나고 자란 문화 환경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 노출이 많이 된 학생일수록 그 만큼 문화적 사회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인종 차별적인 경험을 갖게 될 확률도 높아짐을 알 수

<표 V-25> 살롱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학교 유형	번호	이름	인종차별 경험	현재의 상태
공립	1	윤대인	다른 학생들이 음식을 계속 던짐; 다른 반 학생들이 앞에서 욕을 함	음식을 던진 학생과는 지금은 친하게 지냄, 다른 학생은 무시함
	2	윤대훈	직접 경험하지 못함	아무 문제 없음
	3	박혜영	직접 경험하지 못함	아무 문제 없음
	4	이수연	급우의 무관심,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못함	무관심은 상호적인 면이 있다고 봄
	5	이윤빈	학교버스에서 거의 날마다 놀림을 당함	무시함
	6	이윤아	학교버스에서 놀림을 당함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가벼운 경고만 받고 아직도 계속 함
	7	이우형	직접 경험하지 못함	아무 문제 없음
	8	이우진	간접 경험, 학생들이 싸울 때 백인 학생이 흑인학생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함	아무 문제 없음
사립	9	유태준	직접 경험하지 못함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0	이세란	직접 경험하지 못함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1	강예진	직접 경험하지 못함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2	민정윤	직접 경험하지 못함	종교계열 사립학교라서 미국학생들이 다 착하고 친절함
	13	이승철	간접 경험: 아는 러시아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	인종차별은 없고 단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함
	14	이승관	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함 차를 타고가면서 “Asian!” 소리지르는 경우	지금은 서로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 농담하는 것을 즐김

있다. 따라서 앞 장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피상적인 교우 관계를 보여주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인종 차별의 경험이 더 적고 오히려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가 더 발전되어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이일 수록 인종 차별의 경험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유학 학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인종 차별적 경험은 아직 언어가 서투른 외국 학생임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동료 학생들이다. 대인이는 처음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반 학생들로 부터 받아야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멕시칸 쪽이나 그런 애들이 약간 좀 무시하면서, 처음에 그리고 P. E. 시간에 또 Elective class에, 그 class를 다르게 들으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앞에서 막 니 엄마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막 F language 쓰고, 엄청 욕을 하니까, 뭐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shut up 그 말 밖에 못하니까,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비웃고. (윤대인, 15세)

물론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학교의 교칙과 교사의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의 감독이 거의 부재한 영역, 특히 미국 공립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학교버스 안이나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윤빈이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인종차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 적 있었어요?

이윤빈: 네. 엄청 많았어요. 학교 스쿨버스에서는 거의 맨날 맨날 들리고요, 학교에서도 맨날 들려요.

면접자: 뭐라고 그래요?

이윤빈: 그냥 뭐 Asian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그냥 인종차별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면접자: 음. 그럼 스쿨버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중학교 올라와서?

이윤빈: 중학교 때부터 스쿨버스를 탔어요. 7학년 때부터 심했던 거 같아요. 인종차별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랬던 거 같아요.

면접자: 어. 뭐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윤빈: 음... 뭐 Asian애들은 얼굴이 못생겼다. 그렇기도 하고 머리는 엄청 좋은데 친구는 많이 없다 이런 거 같아요. (이윤빈, 14세)

이렇게 반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종 차별 경험을 겪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처음에는 너무 분하여 울거나 화를 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런 학생을 아예 무시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참여자 중의 하나인 윤아의 경우 학교 버스에서 계속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하는 학생의 문제를 교사에게 직접 보고했으나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나면서 그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공립학교를 다니는 조기유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영어 능력이 미흡하고 따라서 미국 학교 사회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못 해 주고 있었다.

이와는 정 반대로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종 차별의 경험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세란과 소영의 답변은 사립학교 재학생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정윤의 경우는 외국인이고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감안해 오히려 미국 선생님이 더 잘 대해 준다는 의견을 보였다.

면접자: 그러면 여기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 안에서 그 좀 누가 unfairly treated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이 내가 좀 unfairly treated 되었다 이런 느낌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세란: 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학교에서 그, 흔히들 얘기 하는 discrimination을 당했거나, 뭐 이런 거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세란: 네. 또 Christian school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public 보다는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강예진: 그런 일을 하면 큰 죄로 생각을 하니까, 애들 자체가 Christian 가정이니 까.

면접자: 직접 그렇게 막 mean 하게 대하고 막 이런 애들은 없었던 거예요?

이세란: 네.

강예진: 싫어하면 그냥 말을 안 하는 애들이예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너 혼자 놀 아라 그런 정도고. (이세란, 15세 & 강예진 14세)

면접자: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다른 인종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 보거나, 뭐 이런 적은 있어요? 없어요? 학교 안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정윤: 아예 없어요.

면접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이제 지원이가 영어를 못 한다거나, 뭐 외국에서 왔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민정윤: 오히려 더 잘해줘요. 오히려 더 도와줘요. 제가 애들이랑 말 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 보다 더 쉽게 말해주고, 요즘은 주로 물어 볼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민정윤, 11세)

## (6) 조기유학 동안 성격과 정체성의 변화

앞 장의 선행연구조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아시아계 조기유학생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 학교생활 및 학습방법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발달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Zhou & Lee, 2004). 본 연구에서도 살롯에 주재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미국 생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살롯 지역의 대다수 조기유학생들은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노력한 만큼

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아 공부에 좀 더 재미를 붙이거나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편인 학생들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좀 게을러졌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 학교 제도를 잘 알고 지도를 꼼꼼하게 해 주는 보호자의 밑에 있는 경우 자신의 생화 습관 역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고 학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미국 학교에서 인종 차별 등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과 남을 좀 더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따라서 좀 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학과 공부와 과외,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에 바쁜 일과에 저인 없이 보냈지만 미국에 와서 학업에 좀 더 정신을 쏟아 성격이 전반적으로 차분해졌다고 한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공립학교 생활에서 언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생활에 짜증을 낸다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샬롯 지역의 조기유학생들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6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이 좀 더 내성적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으며 반면에 성격이 예전에 비해 좀 더 활발해 졌다는 학생은 한 명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던 수연의 경우 처음 미국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성격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해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하였다.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여 친구도 많고 성적도 상위권인 유형도 미국에서 자신이 위축됨을 느끼면서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러한 현상은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그렇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이수연: 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막 친해지고 이러는 거랑. 공부하는 것들. 알아듣는 것들, 그런 거.

면접자: 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거... 그럼 친구들이랑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수연: 네.

면접자: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수연: 그, 성격이 영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깐, 좀 소심해져서,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수연, 17세/11학년)

면접자: 그러면 우형이는 미국학교에도 적응을 잘 한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우형: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요. 막 옛날에는 맨 날 가고 싶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면접자: 한국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우형: 일단 가면, 좀 마음이 놓이죠. 여기 있으면 항상 긴장되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 가면 좀 편하고 더. (이우형, 18세)

면접자: 그럼 미국에 와서 윤빈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윤빈: 미국에서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면접자: 한국에서는 뭐 어렸을 때 손도 많이 들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손을 안 들어요. Seminar할 때도 말 거의 한마디만 하고 안 해요.

면접자: 왜 그래요?

이윤빈: 그냥 뭐 pressure가 느껴지는 거 같아서요.

면접자: 어떤 pressure가 느껴져요?

이윤빈: 나 혼자만 동양인이니까 조금 무섭다, 뭐라고 하진 않을까 그냥 성격탓이라 그런지 좀 수줍어 했어요.

면접자: 근데 그 윤빈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윤빈: 네.

면접자: 그런데도 그런 pressure를 느껴요?

이윤빈: 음... 공부적으론 안 느끼는데 약간 친구관계에서? 교실에서 그런 거 같아요.

면접자: 공부는 잘 할 수 있는데 막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안 하고 싶어요?

이윤빈: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 못해가지고요, 거의 안 해요. (이윤빈, 14세)

본 연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조기유학생들은 자신들이 현재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전체 14명의 참여 학생들 중 13명이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답변했고 오직 한 명만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샬롯의 연구 참여자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한 명(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로 곧 시민권을 얻게 되는 학생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세 사람 모두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규정하였고, 본인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본 학생은 실제 법적 지위는 한국인인 경우였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 세 사람도 모두 현재 한국 국적만을 소지하고 학생 비자나 동반 비자로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 점은 선행 연구에서와 나타난 것처럼 이들 조기유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국적은 그들이 법률상 소지한 국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 특히 남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후에 정착할 곳으로 거의 한국을 지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기유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그리고 희망 거주지를 물어본 결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 희망지와 미래의 거주지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샬롯 지역의 학생들 역시 다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처럼 대학을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다 수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지금 한국을 들어가서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대학 졸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 등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마칠 예정인 학생이 9명이었다. 영어 실력만 쌓게 되면 곧 한국에 다시 들어갈 계획을 가진 학생은 두 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상황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 검정 고시 등을 통해 대학을 가거나 미국에 남아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하였다.

대학 졸업 후 살고 싶은 곳을 물었을 때는 전체 14명의 학생 중에 8명이 한국, 4명이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외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 살고 싶다고 한 학생이 한 명, 유럽에서 살고 싶다고 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남학생들은 8명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반면 여학생의 6명의 경우에는 오직 두 명 만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여 서로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V-26> 향우 대학 진학 및 거주 희망지

국가	대학 진학 지역 (N)	희망 거주 지역 (N)
미국	8	4
한국	2	8
유럽		1
한국이나 미국을 오가며 살고 싶다		1
한국이나 미국,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4	

#### (7) 다문화적 이해도, 시민성 발달, 사회경제문화 자본의 영향

##### ① 다문화적 이해도 분석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Adler(1975), Schaetti(1996)의 이론을 적용하여 살롱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한 학생들이 어떠한 다문화적 이해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이론에 따라 다문화적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의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잘 발달시킨 경우에 그 학생들이 다문화적 이해도가 높다고 보았다. 인종차별이나 편견, 선입견에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령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미국 사회를 비판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Banks, 2007).

<표 V-27>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다문화적 이해도	특징	사례수 (%)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사회내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다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li> <li>-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li> <li>- 타집단의 문화와 특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li> </ul>	4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이나 선입견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li> <li>-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 그리고 다민족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li> <li>- 다문화적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타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li> </ul>	4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인식한 적이 거의 없고 미국 사회 내의 인종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주로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여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외모 등으로 타인종/민족 집단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li> </ul>	6

위의 표를 살펴보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문화적 이해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적 이해도가 ‘상’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공립학교 재학생이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학업 성적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타인종/민족의 학생들과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이었다.

이우형: OO (학교이름)에서 그 한국 학생이 그래도 가장 친했고. 몇 명 백인 애들이랑 친했고. 아 그리고 어떤 흑인이랑 친했어요.

면접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한국 친구도 사귀어 보고, 백인 친구도 사귀어

보고. 흑인 친구도 사귀어 보고,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좀 다른 점이나 뭐 공통점이나 이런 거 느껴 본적 있어요?

이우형: 네.

면접자: 어떤 점을 느꼈어요?

이우형: 그냥, 백인 애들은 좀. 좀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하고. 그리고 흑인 애들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흑인 애들.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은 다 괜찮고.

면접자: 이상하다고 하면 어디가 이상해요?

이우형: 막 욕하고 막. 네 이렇게 막 바지 내려 입고. (중략) (학교가) Strict 한데도, 그래도 애들이 그래요 너무 나라 자체가 자유 분방하니까. (중략)

면접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쪽 (새 공립학교)으로 오니까 이 쪽에는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이우형: 어, 많죠. 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이집트 애도 있고. 예콰도르에서도 온 애도 있고. 많아요.

면접자: 이렇게 그 좀, 다른 인종의 친구들이랑 사귀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우형: 일단 좀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만 사귀면 막 한국 사람들끼리만 갇혀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개네들이, 백인들이나 막, 그 막 이집트인이나, 막 흑인들이나 생각하는게 다르잖아요. 노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면접자: 어떻게 노는 방식이 달라요?

이우형: 그건 잘 모르겠는데(웃음) 그냥 좀 달라요 조금. (이우형, 18세)

다문화적 이해가 높은 학생들은 처음 미국 학교 적응 과정에서 직접 인종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이거나 직간접으로 미국 사회내의 다문화적 측면과 언어나 인종에 따른 암묵적인 차별을 이해하고 있었다.

면접자: 수연이는 아주 미국 생활에서 이렇게 좀 cool 하게 지내 왔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있으면서 어, 주변에 사람이나 혹은 수연이 자신이 좀 내가 인종 차별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수연: 그런, 인종 차별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아이들이) 무관심 할 때, 그

냥.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면접자: 나한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좀 그렇게 그, 좀 unfairly treated 되는 거를  
본적이 있어요?

이수연: 미국에서요?

면접자: 응. 보거나 듣거나 뭐,

이수연: 그냥, 영어 잘 못하거나 이러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게 unfairly  
treated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남도 관  
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남도 관심을, 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별로 저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도 관심이 없는?

이수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그러니까 애들, 보통 영어를 못 하니까, 누군가  
먼저 말 걸어 주기를 바라고, 영어 말 하고 싶어도, 어떻게 얘기 할 줄  
모르니까 잘 안하니까, 걔네들도 그냥 아 재... 그냥 같이 무관심하게 되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면접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  
고, 또 이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쪽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영어를 수연이가 잘 할텐데, 지  
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언어 때문에 내가 좀 힘든 점이 있다 이  
런 생각들은 안 해요?

이수연: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이수연, 11학년)

다문화적 이해가 증인 학생들은 인종차별 자체가 나쁘기는 하지만 본인  
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  
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인종 차별을 당하는 본인  
들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이런 학생들은 문화의  
차이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  
결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함을 엿볼 수 있다.

면접자: 승철이는 경험상 그렇게 피부나 뭐 인종 이런 걸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

는 사람을 보거나, 혹은 승철이가 그런 경험을 해 본적이 있어요?

이승철: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냥 특별히 인종차별하는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Asian이고 재는 뭐 흑인이고 백인이니까 좀 꺼려하고, 서로 꺼려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서로 그냥 별로 인사는 하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그런데 저희 학교에 어떤 애 러시아 애가 좀 인종 차별을 받아요.

면접자: 인종 차별을 받아요? 그 애가?

이승철: 네, 러시아 애가 저희 학교에 지금도.

면접자: 왜 받는 것 같아요?

이승철: 좀 애가 좀, 되게 energetic해요, 되게. Hyper라고 하나.

면접자: 그런데 그 애가 인종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 애가 좀 불공평하게, 다른 애들이 좀 그 애를..

이승철: 장난 많이 친고 막 왕따.

면접자: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도 좀 그 애를 꺼려하고 조금 더 strict하게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승철: 애들끼리가 대부분 많은데,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보며는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다는 아니고 한 두명 정도의, 좀 어쩌다 그런 것 같아요.

면접자: 그 애가, 약간 energetic 하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러는?

이승철: 네 되게 말 많고 막. 좀 이상해요. 좀, 일반인 같지는 않아요 그냥.

면접자: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좀 느껴져요?

이승철: 네.

면접자: 그러면 승철이 생각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철: 일단 제 자신이 좀 꺼려하니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꺼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꺼려하는 게 안 좋은 거죠.

면접자: 그 이외에는? 혹시 다른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학교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학급의 급우들로부터 좀 따돌림 당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다른 한국 학생들한테?

이승철: 없었어요.

면접자: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들 경험을 안 하는 모양이죠?

승철:네. (이승철, 18세)

반면 다문화적 이해도가 ‘하’로 나타난 여섯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거나 공립학교에서 학업상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생들이었다. 이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관심이 적었고 자신이 겪는 학습상의 어려움이나 교사나 급우들이 보여주는 친절함만을 주시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다양하지도 않고 깊이도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교우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구하거나 경험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타인종의 학생들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했다.

저는 그냥, 제 나라가 아니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 나라가 아닌데, 특히 일본인이라 그러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인은 그냥, 아 그렇겠지 하는 정도 있는데, 일본인은 왠지 모르게 싫어요 그냥. (강예진, 14세)

학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정학을 받기도 하고 초기에 자신이 직접 인종 차별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조차도 그것의 심각성을 쉽게 잊었고 인종적인 발언을 농담으로도 간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 ② 시민성 분석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는 이들의 시민성의 특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과 미국 양국가의 사회와 문화, 학교제도를 경험해 본 이들은 어떠한 시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양문화를 접하는 성장과정을 통해 이들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시민,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와 범지구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

제이해 시민,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소속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국수주의적 시민,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 없이 개인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샬롯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초국가적 시민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은 2명, 국제이해 시민이 3명, 국수주의적 시민의 특징을 보이는 학생은 없었고 대신 신자유주의 시민이 전체 14명 중 절반 이상인 9명으로 드러났다.

<표 V-28>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시민성 형태	사례수 (N)
초국가적 시민	2
국제이해 시민	3
국수주의적 시민	0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	9

아직 어린 학생들을 이론적 기준이 맞추어 분류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학생의 인터뷰 데이터 전반과 학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다문화적 이해가 깊으면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고 장래에 사회 봉사적인 직업을 추구하면서 국제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경우인 수연과 혜영 두 학생을 이 범주에 넣었다. 수연은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자신의 미국 학교 적응 과정을 스스로 분석해보는 학생이었다. 현재는 학교의 봉사 클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장래에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희망이었다. 또 다른 학생인 혜영이도 어린 나이지만 미국과 한국 학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래 희망 역시 국제의사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이들 두 학생은 아직은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규정했지만 향후에 한국계 미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면접자: 장래희망. 승민이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수연: 저는 의사 하고 싶어요.

면접자: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수연: 그냥 의사 해서 아픈 사람들 돌보고, 도와 주고, 그리고 원래 옛날부터 꿈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면접자: 좋은 생각 하고 있네. 그래서 그 OOO Club에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부모님은 수연이가 뭘 하기를 바라세요?

이수연: 엄마 아빠는 제가 원하는 거 하기를. (이수연, 17세)

면접자: 혜영이가 장래,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박혜영: 저는 의사 되고 싶어요.

면접자: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얘기 할 수 있어요?

박혜영: 저는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나 이런 거를 불쌍히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간호사였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하고 이야기하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고.

면접자: 그래요. 의사는 사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좋아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 현진이는 그 의학, 의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의과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고 싶어요?

박혜영: 저는 미국에서.

면접자: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박혜영: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는 들어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전체에서 50등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미국은 더 좋은 Harvard나 Stanford가 있어서.

면접자: 더 좋은 대학을 가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진이는 그, 나중에 뭐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의과 대학을 나오고 나면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박혜영: 뉴욕이요.

면접자: 뉴욕에서 살고 싶어요? 왜 뉴욕에서 살고 싶어요?

박혜영: 뉴욕에서 제가 일하고 싶은 UN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반기문 총장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국제 의사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주고 그냥 아프리카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도와 주고

싫어요. (박혜영, 11세)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시민 범주에 들은 네 명의 학생들은 미국 학교의 좋은 점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야기 하였다. 이들은 미국 학교의 좋은 점으로 공부 이외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학교버스에서 인종 차별 경험을 하면서 윤빈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해졌다. 고등학생인 우형이 역시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자신의 시각이 넣어진 것이라고 했다.

면접자: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에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여태까지 경험 상,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우형: 일단 보는 시각이 넓어지죠 더. 선입견이 없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우형, 18세)

살롯의 조기유학생들 가운데서는 전형적인 국수주의적 시민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인 학생들이 모여 이러한 국수주의적 정체성을 발달시킬 만큼 그 수가 많지도 못하고 따라서 학교 사회에서 사실상 소수 인종으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상당히 주변적인 위치를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국수주의적 시민성의 근간이 되는 민족적 우월성을 표방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정서를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들에게 한국은 학교의 친구들이 잘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였고 자신들은 더 나은 미국 학교에서 무언가 배우러 온 것이라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적 장벽을 많이 느끼면서 인종 차별적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미국에서 여러 문화를 배운 것은 좋지만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의식, 따라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면접자: 자 그러면은 윤빈이는 여기서 벌써 4년 넘게 살았는데,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하면은 Korean-American이라고 생각해요, Asian-American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American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윤빈: 저는 완벽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자: 왜 그럴까요?

이윤빈: 워낙 입맛도 토종이고 아직은 한국을 버릴 수도 없고,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국노래도 많이 듣고 이리다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면접자: 그럼 노래는 한국노래를 많이 듣는구나?

윤빈: 네. (이윤빈, 14세)

면접자: 자 이 질문, 본인이 지금 Korean이라고 생각해요 Korean American이라고 생각해요? Asian American이라고 생각해요? American이라고 생각해요?

이우형: 음, 그래도 저는 Korean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자: 왜요?

이우형: 그래도 아무리 여기서 4년이나 살았어도.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국에 문화를 더 잘 이해하잖아요 여기 보다 그래도.

면접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Korean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우형: 아니요, 영원히 안 변해요.

면접자: 영원히 안 변할 것 같아요?

이우형: 네. (이우형, 18세)

개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된 9명의 학생들은 자신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사회적 적응하며 사는 과정을 개인의 교육과 진로를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진로와 계획, 거주 국가를

묻는 질문에도 개인이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조건에 대해서만 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로 분류된 학생들이 전체 18명 중 9명인 결과를 살펴볼 때, 이들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인종 친구들과 미국 사회에서 어울리면서도 실제적으로 다문화적 소양을 기르거나 세계 시민으로서 혹은 세계를 이해하는 한국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분석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 법적대리인들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친척, 법적대리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교육정보 등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 한국에서의 거주지역, 미국에서의 거주지역, 생활비와 용돈, 조기유학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중중, 중하층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 소위 일컫는 상위계층의 학생은 1명이었고 중상위 계층은 2명, 중중은 7명, 중하로 판정된 학생들은 4명이었다. 상위 계층이나 중상위 계층의 가정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거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자신의 가정이 한국에서 부유한 층에 속했고 현재 조기유학을 하는 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중중으로 분류된 학생들 5명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가정 경제가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여겼고 부모가 고학력을 전문직이며 맞벌이 가정이 많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들이었다. 중하로 분류된 학생들은 4명은 자신들의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거나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 친척, 법적대리인 등이 지역 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미국 학교교육 체계와 대학입시 등에 관한 정보 접근성 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된다. 살롱에 거주하는 학생 14명 중 학생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3명으로 부모의 학력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자본 측면에서 보통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4명, 그리고 낮은 경우는 6명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조기유학에 대한 정보를 미리부터 수집하고 일찍부터 계획한 후 유학을 온 경우가 많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들 문화자본이 많은 가정들은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 자녀와 함께 부모가 미국에 와서 정착 과정을 함께 하거나 유학원을 통해 알아낸 홈스테이 집을 방문 조사한 후 아이를 보낸 경우였다. 이들 부모들은 남에게 정보를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미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보냈다. 경제적 자본의 정도에 상관없이 문화적 자본이 미미한 가정들은 현지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통해 자녀들의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들이 의지하는 현지 친척이나 지인들은 최소한의 문화자본(언어능력)을 지니고는 있으나 미국 학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조기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즉 한국의 부모들은 친척들이 자녀교육과 학원, 대입 등을 관리해줄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친척들이 이들의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학업과 대학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기유학생들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만 미국에 남는 형태의 기러기 가정들이었다. 이들은 학교와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자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자녀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에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찾을 수 있었다.

## 4. 로렐 (인디애나 주 대학 중심 소도시)

### 1) 자료수집소개

인디애나 주 대학중심 소도시인 로렐(가명) 지역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2010년 8월 여름 방학동안 지역의 공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9명의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캘리포니아 주의 한 대도시에서 1년 동안 공립학교를 다녔다가 이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다니게 된 1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학 타운의 특성상 도시의 규모가 작고 주거 한인들의 대부분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대학과 관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학업이나 연구 중심의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그 가족들이므로 조기유학생들의 숫자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한인 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분을 통해 조기유학생들을 소개받았고 그렇게 소개받은 학생들의 자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연구 규준에 맞는 학생들을 수소문하여 접촉하였다. 인터뷰의 반은 주로 오후 시간에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보호자의 입회 없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5명은 연구자가 각 가정을 오후나 주말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터뷰 도중 보호자의 개입은 드물었지만, 인터뷰 이후에 보호자가 연구자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참여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서만을 받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이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학생에 따라 56분에서 1시간 28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이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 참여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20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 2) 연구 참가자 소개

미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인디애나 주 소재 대학타운인 로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한인 조기유학생은 총 10명으로, 인터뷰 당시 모두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 6~1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이 9명이었고, 그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다 최근에 로렐로 이주하여 사립학교를 다닐 예정인 학생이 1명 포함되었다.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6명이며, 이중 자매인 학생이 2명, 남매인 학생이 3명이다. 연령은 만 12세에서 18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연령은 15.1세이다. 연구 참가자 전체 10명 중 대다수인 8명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나머지 두 명중 1명은 캘리포니아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공립학교를 1년 다닌 후, 현재 이 대학 타운의 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해,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한국인 법적 대리인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6명의 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면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뒷받침하고 있었고 2명의 학생은 미국에서의 어머니의 사업을 통해 주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법적대리인과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한국에서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미국 조기유학 기간은 1년부터 6년까지 다양하고 평균 3.1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3.48과 특히 장기 조기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평균 4.45년), 뉴저지(평균 5년)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이 지역 연구 참가자들의 비자소지형태는 다른 지역의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전체 10명 중 E2 소지자가 4명, F2 소지자가 2명, 시민권 2명, F1과 J2이 각 1명씩을 차지하였다. E2 비자를 받은 4명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투자자 비자인 E1을 받으면서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시민권을 가진 2명은 과거 아버지의 미국 유학 당시 출생하여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남학생들이었다. 어머니가 유학생 비자 F1을 받음으로 인해 남매인 학생 2명은 F2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 재학하였다가 로렐로 이주한 사립학교 학생은 유일하게 F1,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교수로 안식년을 위해 로렐에 온 뒤 호스트 가정에 남게 된 학생 하나는 J2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뉴욕/뉴저지 등 기타

지역에서 학생비자나 부모 학생비자의 동반자형태인 F1과 F2가 다수를 차지하며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로렐 지역은 최근 이주한 학생 하나를 제외한 9명의 조기유학생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9명의 한인 조기유학생들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학생들은 모두 같은 학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대학 타운의 특성상 대학 관계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학군으로 부모들의 평균 학력이 다른 학군에 비해 높고 따라서 교육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인 대학 관계자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학군이었다. 또한 이 학군내의 초·중·고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초·중학교에서 특별히 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외국 학생을 많이 끌어들이는 대학의 영향과 부모들의 학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아시안계 학생들이 17%일 정도로 77%인 백인계 학생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학군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단 한명으로 살럿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소위 좋다는 학교 한두 군데에 몰려 있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 지역 역시 타 지역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타 지역의 많은 연구 참가자들이 한국의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과는 달리 인디애나 주 대학타운 지역에서는 서울, 수원, 시흥, 의왕 등 수도권지역 출신이 6명으로 대다수이며, 부산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이 3명, 기타 지방 대도시 출신이 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이공계 대학 교수이거나 연구원인 경우가 전체 10명 중 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어머니가 대학원생인 경우가 4명으로, 이는 대학 타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아버지 직업이 개인사업자와 공무원이 각 1명씩이 포함되어 있고, 자매 2명의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었다. 어머니의 기타 직업으로는 미용사 2명, 교사 2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전업주부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로렐 지역의 연구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인 8명의 학생들이 미국 조기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이나 기타 영어권 국가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교수인 경우, 안식년을 통해 온 가족이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4명이었다. 이전에 미국에서 6개월 동안의 단기 조기유학 경험을 했던 학생이 1명(박지희), 그리고 1개월 정도 캐나다나 3개월 정도 미국을 방학 동안 방문하며 캠프 활동 등의 체험을 했던 학생이 2명(유진영, 최성영)도 있었다. 아버지의 유학 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 체류했던 학생이 1명(김상수)이었는데,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대부분 보낸 탓에 한국어의 실력이 또래의 학생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인터뷰를 한국어로 진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 3) 분석 결과

(1) 조기유학 의사결정 과정: 누가 주도했고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 되었는가?

인디애나 주 대학 타운의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며, E2비자로 온 두 자매, 김유희와 김민희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위해 먼저 결정하였고, 자녀들은 순순히 어머니의 의사 결정에 따른 사례였고, 아버지의 유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5학년 까지 교육과정을 받았던 김상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6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동안 한국의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고 있었을 당시, 어머니의 결정으로 미국에 다시 오게 되었지만, 김상수 학생도 내심으로 계속 미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박지희 학생의 경우는, 교수인 아버지가 안식년으로 미국 방문을 하게 되어 1년 동안 온 가족이

미국에 거주 하는 동안, 아버지가 미국에서 박지희 학생의 학습태도와 동기 부여의 변화를 발견하였지만, 1년이란 시간이 영어를 향상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박지희 학생에게 미국 체류를 먼저 권하였다. 하지만, 박지희 학생도 내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면접자: (중략) 그 올 해 그 1학기 중간에 그럼 미국으로 가자고 먼저 말 꺼낸 사람은 누구였어?

김상수: 엄마요.

면접자: 그 것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 그러니까 상수가 먼저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엄마가 보시더니? 엄마가 어떻게 상수한테 설명을 하셨니? 그 결정을?

김상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웃음).

면접자: 그 엄마가 미국에 다시 가자 하셨을 때, 상수의 기분은 어땠어?

김상수: 어, 나가서 뛰어 놀고 싶었어요.

면접자: 나가서? 미국에서 (웃음)?

김상수: 너무 행복했어요 (웃음). (김상수, 15세)

면접자: (중략) 그러니까 주희랑 윤희를 여기 두고 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지희는 그 때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줄 수 있겠니?

박주희: 일 년 동안 있는 것 갖고는 아직,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늘 것 같기도 하고, 일 년 있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면접자: 지희가 먼저 아빠한테 더 남고 싶다고 얘기를 드린 거야? 아니면 아빠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야?

박주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아빠가 물어 봤어요.

면접자: 아, 아빠가 먼저 물어보신 거구나?

박주희: 네, 그런데 속으로는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주희, 14세)

형제 자매 중에서 유일한 시민권자인 박진수 학생의 경우 교수인 아버지

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1년을 거주하게 된 후 본인 스스로가 부모에게 미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어머니가 다른 두 자녀(박성수, 박지영)와 함께 로렐에 남게 되었다. 진수의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다른 두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재학시키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학생비자를 얻었다. 유진영 학생의 경우도 인디애나 주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미국을 방문, 3개월 가량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언니가 먼저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게 되면서 부모 양측의 동의 하에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도미한 경우였다. 현재 언니는 로렐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른 시민권자인 김현수 학생의 경우 교수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갖은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중학교에 다니던 누나만 미국에 남아 조기유학생활을 하였다. 차후에 한국에 부모와 함께 돌아갔었던 김현수 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에게 먼저 조기유학을 보내달라고 의사를 표명하였고 부모 역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김현수의 누나 역시 현재 로렐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박진수: 뭐 일단은 저희 가족이 여기 미국에 온 이유가, 일단 1년 동안 지냄으로써 영어실력을 갖다가 확 키우고 많은 경험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 계속 있자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support, 믿고 support 해 주신 거에 대해 제가 아주 감사하게 여기는 게... (중략)

면접자: 그리고 엄마가 지금 대학원생이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

박진수: 이유?

면접자: 네.

박진수: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기 위해서는... 일단, 저, 저야 (시민권자이고 현재) 성인이여서 당연히 괜찮지만 동생들은 여기 있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때문에 어머니께서 학생비자를 받아야지만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네요.

박진수: 네. (박진수, 18세)

<표 V-29> 조기유학의 주요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	사례수	세부 원인	사례수
어머니	3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위해	2
		자녀의 한국 학교교육에의 부적응	1
아버지	1	영어의 향상	1
부모 모두	3	형제 자매의 동반 유학과 함께,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주고, 미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위해	3
학생 본인	3	영어의 향상과 미국교육에 대한 동경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때문	3

로렐 지역 참여자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학생 본인의 요청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부모에 의해 조기유학이 결정되었지만 나이가 더 많은 형제나 자매의 유학 때문에 동반하게 되었거나, 어머니의 단독적인 결정을 제외한 경우 학생 본인이 결정하였거나 내심 원하고 있었던 경우가 반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미 학생들이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반응이 없었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미국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V-30> 조기유학에 대한 준비

준비상태	사례수
부모와 자녀가 함께 6개월 이상 조기유학 (혹은 미국 학교에서 수학하게 될 것)에 대한 준비한 경우	7
부모는 준비하였으나, 자녀는 모르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경우	3
부모와 자녀 모두 갑작스럽게 결정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0

조기유학의 사전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로렐 지역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는 조기유학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어 온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된 자매인(김유희, 김민희) 학생 2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영어 사설 학원을 다니서 영어를 배워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과정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겪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완화해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수인 아버지의 안식년을 위한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박진수, 박지영, 박성수 남매도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고 하나 첫 학기에는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었음을 토로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영어나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 준비가 충분히 안된 상태로 미국에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교수인 아버지의 안식년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에서 1년 동안의 학교 경험이 있었던 학생(김현수)과 아버지의 유학시절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보냈지만 한국에서의 교육에 적응을 못해 다시 미국에서의 교육을 선택한 1명의 학생(김상수),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각각 짧게나마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생활의 경험이 있었던 2명의 학생(최성영, 유진영)은 언어와 문화의 변화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최성영 학생은 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영어 듣기 시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미국을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막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 하고 싶었어요. 그냥 막, 그냥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외국인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뭔가 한계를 느껴서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좋은 추억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약간 너무 지치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다가, 가고 싶어도 이제 겁이 나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엄마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한국에 계속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막상은 막 돈도 비싸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좀 큰 요인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엄마,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깐 이제 엄마가 교환 학생 어떻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고2면 되게 늦은 거거든요. 원래 보통 중 3때 가는 애들 많고, 고 1 때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고2

때도 늦었는데도, 그냥 교환학생 준비하고. 그러니까 고 1 때 준비해서, 고2 때 간 거죠. (최성영, 18세)

## (2)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 ① 학업성취도

로렐 지역의 연구 참여 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성적이 최상위권(상위 5%)이라고 답한 학생은 1명, 상위권(상위 5%~10%)이라고 답한 학생은 4명, 중상위권(상위 10%~25%)이라고 답한 학생이 2명, 중위권(상위 25%~50%)이라고 답한 학생이 2명, 그리고 최하위권(하위 25%)이라고 답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은 교수인 아버지가 안식년을 위해 미국 방문 시 2년을 거주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중학교 과정을 1년 반을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온 박지영 학생의 경우였다. 한국에 돌아갔을 당시 처음에는 성적이 하위권이었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되돌아 간 사례였다. 그러나 그렇게 최상위권이어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그렇게 한국에서 이제 아빠랑 같이 살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잖아?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얘기 해 줄 수 있겠니?

박지영: 이제 막, 이제 오빠도 이렇게 대학 이렇게 보낼 준비하는데, 또 이제 오빠 다음에는 저 잼아요. 그런데 어,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한국 갔을 때 막 적응도 하고 막 그러는데, 딱 처음 갔는데 전교 200등을 한 거예요.

면접자: (중략) 전교에 몇 명이었는데?

박지영: 한 300명 쯤? 그런데 막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차차 이렇게 계속 올려서 여기 미국오기 전에 겨울 때 전교 13등까지 올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대학가는 힘든 (거였어요). 막 엄마 아빠는 이렇게 SKY 대학 그런 쪽 생각하는 데, 그런 데는 전교 1등도 (좋은 대학을) 막 가기가 좀 힘들고. 그런 것 보다는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보다는... 이제 한국도 고등학교 가면 엄청 힘든데 미국에서는 성적 관리하기도 그나마 좀 더 쉽고, 또 더 막, 한국에서 SKY 대학 보다 여기서 더 좋은 대학들

이 많으니까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박지영, 15세)

반면, 한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답한 학생은 아버지의 미국 유학기간동안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후, 한국에서 6학년 2학기부터 지낸 후,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중간에 자퇴서를 내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경우로, 미국에서는 학업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온 사례였다.

“Straight As”와 “presidential 상”을 받으면서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간 후 상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김상수: 그 7학년 때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저가요, 그 (미국에서) 딱 5학년, 6학년에 제가 이제 딱 A도 받고 그러니까요 신나고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딱 한국 가서 이제 막 40점, 30점 막 그렇게 받으니까요. 되게 짜증났어요.

면접자: 화가 많이 났구나 그지?

김상수: 네.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상담한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요. 다시 미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김상수, 15세)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학업 성적이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은 대부분 평범한 학생으로 한국에서의 학업이 힘들어했다. 게다가 교수이거나 연구원등의 고등학력을 가진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 대안으로 미국 학교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찾아온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명문대학교만큼 좋거나 오히려 더 나은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조기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다.

박진수: 그냥 중학교 때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요, 미국에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하게 되었어요.

면접자: 그러면 진수학생이 아까 조금 얘기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온 가족이 아빠 때문에 visiting으로 1년을 계획하고 왔다가 결국 진수학생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남고 싶다고 얘길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얘기 해 줄 수 있어요?

박진수: 제가 처음에 왔을 땐 아, 여기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1학기가 지나고 한 1학기가 지나니까 좀 아, 이거 괜찮아 지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2학기 때 All A를 받고 이렇게 좀 Academic area에서도 좀 잘하게 되니까 그게 아, 여기서 지내게 되면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진수, 18세)

## ② 교우관계

로렐의 참여자 10명 모두 한국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긍정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로렐이 지닌 소규모 대학타운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많지 않으므로 조기유학 학생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제공하는 교통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조기유학 학생들은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자유, 스스럼없고 가까웠던 한국에서의 친구 관계, 그리고 미국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또래간의 놀이 문화를 한 편 그리워하고 아쉬워하였다. 참여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전화, 싸이월드, 메신저,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연결망을 통해 한국에서의 예전 친구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답변한 학생이 7명으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본인 마음으로는 연락하고 싶지만 고등학생인 친구들에게 공부가 방해가 될까 싶어 연락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학생들도 둘 있었고, 이제껏 연락하고 지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므로 앞으로 연락을 자제해야 한다는 학생 역시 둘이었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제한적인 경우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국에서의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서로를 위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에 중점을 더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증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의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였던 2명의 학생 중 한 명은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고 만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 명은 공부에 중점을 두기 위해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 기술된 세 학생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 학교생활 중에 “막 방방 뛰면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골목 대장 같이”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놀았던 진영이는 아직도 싸이 월드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 역시 친구 관계가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한국에서 그 때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도 연락되는 친구들 있니?

유진영: 지금도 연락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다 5학년 때 이렇게 잘 놀고 다니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되서 힘들죠 개네들이. 연락하기가 이제. 조금 힘든데, 아직은 되요.

면접자: 어떻게 연락하니?

유진영: 네, 싸이월드(웃음). (유진영, 16세)

면접자: 혹시 한국에 있는 친구랑도 연락하니?

김유희: 네. 했어요.

면접자: 어, 주기적으로 하니 아니면?

김유희: 그냥 하고 싶을 때.

면접자: 하고 싶을 때 해?

김유희: 근데 연락은 컴퓨터로 다 해요.

면접자: 응. 컴퓨터 어떤 걸 통해서?

김유희: 싸이월드요.

면접자: 아, 싸이 하는구나.

김유희: 네. 근대요 이번에는요. 약간 9학년이 되다 보니까 싸이를 끊고요, 그리고 그냥 안 하려고.

면접자: 그럼 한국친구들과의 연락도 그러면은 조금 소원해 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

김유희: 그래도 그것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한 거 같으니까. (김유희, 14세)

면접자: (중략) 그러면 친구들하고도, 그러면 계속 지금도 연락하나요?

최성영: 네.

면접자: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최성영: 아 지금 미국에서요?

면접자: 응.

최성영: 지금 여기서 애들 고3이니까, 연락하면 안 되죠.

면접자: 연락 하면 안 돼(웃음)?

최성영: 네, 진짜 안 돼요. 정말 개네 들은... 제가 갔잖아요, 여름 방학 때. 개네 들은 진짜 얼굴이 막 진짜 허영고 막, 진짜 맨날 밤 1시까지 해도 모자 라는데, 그걸 저랑 만나주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맙죠. 연락할 수는 없어요. 지금. (최성영, 18세)

### ③ 전반적인 학교 경험

인디애나 주 대학 타운의 연구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한국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졌던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반면, 선생님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즉, 미국에서의 선생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친근한 관계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한국의 선생님들이 있었던 반면, 과반수 이상의 6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체벌로 인해 부정적인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의 성의 없는 가르침으로 실망을 느낀 학생도 있었다.

면접자: 선생님과 관계 면에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박진수: 선생님이 보면은 한국이 더 가깝죠 이렇게.

면접자: 어, 그래요?

박진수: 많이 때리고 많이 뭐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도 귀여워하고 뭐, 가까운 편인데, 미국에서는 뭐 Academic 한 곳에만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친해지기가 좀 힘든 편이죠.(박진수 18세),

면접자: 그렇고. 그럼 공부 수준은? 성적 수준은 기억나니?

유진영: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어요. 뭐, 많이 맞았죠 뭐(웃음).

면접자: 어 맞았어? 맞은 적도 있었어?

유진영: 한자 때문에 많이 맞았죠 제가 못 해서 한자를. 외우는 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5개 이렇게 시험 보면, 아 10개 시험 보면, 5개 이상은 틀리면 맞거든요.

면접자: 초등학교 때?

유진영: 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면접자: 담임선생님이?

유진영: 네.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어, 딱 5개만 외웠죠 (웃음). 그 전날 밤에. 바로 전날 밤에. 근데 또 5개만 맞으면, 5개만 외우면 맞으면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도 안 외워서 한두 개씩 더 틀리는데 그러면 나가서 맞아요. 앞에.

면접자: 그럼 그거 굉장히 싫었을 수 있겠다?

유진영: 싫지는 않았어요. 제가 못 해서 맞는구나 (중략) 사랑으로 때린다고는 하는데. 사랑의 매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울고 막 그래요 애들이. (중략)

면접자: 진영이가, 이(렇)게 갑자기 학기 중간에 오게 되어서 속상한 점 같은 거 있었어? 생각나는 거? 이렇게 친구들,...

유진영: 친구들이 헤어지는 게 어려, 어려웠었고. 5학년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젊으신 여자 분. 되게 잘해, 잘해 해주셨는데. (유진영, 16세)

면접자: 그러면 한국학교에서의 그때 생각을 떠올렸을 때, 한국교육의 장점은 뭐 인거 같니?

김유희: 장점 없는데?

면접자: 한국교육의 장점이 없어?

김유희: 네. 없어요.

면접자: 왜 그렇게? 그럼 다른 단점이 있다면 한국교육의?

김유희: 단점이요? 단점이 있다면 아, 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다 학원을 다니니까 대충 가르쳐주세요. 대충 가르치셔서 그냥 거의 5학년 때 선생님이요. 거의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수업하자마자 그냥 풀으라고 했어요.

면접자: 뭐 문제 같은 걸 그냥?

김유희: 네. 책에 나오는거 다 풀으라고.

면접자: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김유희: 네. (김유희, 14세)

특히, 아버지의 유학시절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가 한국에서 6학년부터 학교 교육을 시작했던 한 학생(김상수)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교육환경과 체계를 지닌 한국학교에 적응하고 한국학생들의 목표 의식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 한국 학교 적응 당시에는 이해심 많은 선생님과 친절한 친구들을 만나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한국의 선생님이 미국의 선생님과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체벌이나 심한 말로 혼내거나 조롱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상수의 경우 “Yankee”라고 부르면서 “유치하게 되게 차별 많이”하던 선생님에게 “저도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김상수: 한국 교육에서는요, stress를 안 받으면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면접자: 아, 학생들이 stress를 안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김상수: 그리고 한국 교육에는요 목표라는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는요, 뭘 해도요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그게 한국 교육이에요.

면접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김상수: 어, 뭐 말로든지 뭐 글.

면접자: 비난을 받을, 그 꾸중을 받을? 음, 칭찬보다는? 그런 뜻이니?

김상수: 네.

면접자: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김상수: 어... 목표는 100이에요. 한국에는요. 100점 아니면 loser라고 그렇게 생각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진짜 중학교에서요. 그 100점 다 받는 애들이 한국에는 뭐 한 명이라도 있겠지만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김상수, 15세)

많은 학생들이 미국의 교육에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교육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 교육은 학생들에게 억지라도 시키고 하계끔 만들게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는 학생도 있었던 반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느슨한 미국의 교육에 비해 한국 교육이 많이 배우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면접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 교육에 있어서 나쁜 점이 있다면? 단점 같은 거?  
박성수: 나쁜 점은 한국 선생님처럼 그렇게 빨리 안 배우고... 그냥 교육하는 방법이 안 좋아요.

면접자: 교육하는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아?

박성수: 한국에 비해서. 네 안 좋아요. 세계에 비해서 안 좋아, 안 좋죠.

면접자: 어?

박성수: 세계에 비해서 안 좋죠.

면접자: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그 한국 교육에 있어서 좋았던 점은, 기억나니?

박성수: 한국 교육에서 좋은 점은 많이 훨씬 더 배우죠.

면접자: 아 배우는 양들이 많아?

박성수: 네. (박성수, 13세)

면접자: (중략) 그러면 한국교육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박진수: 글썽요. 한국학생들이 배우는건 그래도 좀 더 많다고 봐야죠.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월등하게 미국 시스템이나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현저히 떨어지는 거 같아요. (박진수, 18세)

최성영: 좋은 점은요, 이렇게 공부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억지로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면접자: 억지로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최성영: 억지로라도 하니까.

면접자: 아 학생들을 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나쁜 점은?

최성영: 나쁜 점은요, 너무 주입식이예요. 너무 너무, 음..... 막 머리 속에 넣으려

고 해요.

면접자: 억지로 막? 그런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좋았어요? 아니면 맨 날.

최성영: 그냥 괜찮았어요.

면접자: 학원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것도 할만은 했었어요?

최성영: 미국보다도 더 좋은 것,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다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가는 건 별로 없거든요. 다 그냥 끌어주지. (최성영, 18세)

그러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국 교육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교육의 상대적인 우수점들을 여러 가지 인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자신들 역시 한국 학교에서 경험한 과도한 학습열과 치열한 경쟁에 의해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학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면접자: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김민희: 그건 안 해봤어요.

면접자: 그건 안 들어 아니면 안했다는 거야??

김민희: 하기 싫어요. 생각하기가.

면접자: 그 이유는?

김민희: 한국은 별로, 무서워요. (중략) 공부를 너무 잘해야 되니까. (김민희, 12세)

### (3)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과 어려운 점

다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처럼 로렐 지역 참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다. 이미 어릴 때 교수인 아버지의 안식년을 통한 미국 방문시 1년의 체류 경험이 있었던 학생 1명과 아버지의 유학시절로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학생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8명의 학생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비록,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기 전에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그렇게 한국의 학원에서 다녔던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는 대학 타운의 특성상 안식년등을 통해 방문하는 교수들, 2년 과정의 MBA 학위과정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자녀 등으로 ESL 학생 수가 많았고 따라서 그런 단기 거주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ESL 수업이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교 특성상 선생님들과 미국 학생들 대다수가 1~2년 뒤에 떠나는 외국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친절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선생님들이 조기유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었다고 생각할 만큼은 아니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숙제의 경우 제출 날짜를 며칠 더 연장 해 주거나 언어적 문제로 인해 수업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는 학습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해 오도록 편의를 봐 주었고 같은 반에 영어를 잘 하는 한국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정도였다.

면접자: 응.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처음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선생님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어...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나요?

박진수: 물론 거기에서는 건방지고 Asia에서 왔구나 (하고) 좀 무시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 학교 자체가 아시아권 애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새로 영어 못하는 애들이 자주 오는 편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이해를 좀 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와주고 하는 애들이 좀 있었고.

면접자: 백인 친구들? 아니면...

박진수: 뭐 백인도 있었고 뭐 아시아권 중에서도 뭐 중국애들 뭐 그런 애들이... 대만에서 온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도와주는 편. 선배들도 이렇게 제가 클럽에, 딱 가자 마자, join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좀 도와주는 편이죠.

면접자: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박진수: 별로.

면접자: 선생님들은 별로예요?

박진수: 영어에 대해서는 별로 도와 주는게 없는 거 같은데. (박진수, 12학년/18세)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를 다녔던 최성영 학생의 경우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상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서 초기 적응 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못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그 성영이가 혼자 한국인이었고, 그 동양인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이해하고, 또 도와주려고 많이 했나요?

최성영: 음, 아니요.

면접자: 아니에요?

최성영: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더, 그러니까 관심은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 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이니까. 외국인 하도 많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아 외국인인가 보다. 그냥. (최성영, 18세)

로렐 지역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모들, 특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교 적응과 언어 적응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부분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수업에서 몰랐던 점과 숙제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조기유학 학생들도 가정교사의 도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교 적응이 빨랐다고 여기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그 때, 처음에 (영어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극복이 된 거 같니?

김유희: 우선 처음에는요. 저희 숙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가요 숙제 도와주는 튜터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보니까 방법을 터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튜터 없이도 할 수 있고. (김유희, 14세)

박주희: Tutor는 당연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해 주셨어요. (중략) 일단 학교에서 궁금한 점. 그러니까 궁금한 점 선생님한테 물어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끔씩 영어는 알아듣는 다 해도, 교과서나 이런 거는 힘들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이 같이 해 줄 수도 있고. 네. (박주희, 14세)

미국에서의 거주 시간이 1년이나 2년 경과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도 언어로 인한 학업상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면이 있었다. 특히, 4명의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제일 싫어하는 과목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가 프로젝트를 다른 학생과 공동으로 할 경우 프로젝트 팀 구성원 모두가 발표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했었고 게다가 토론이 요구될 경우에는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김유희: 과학은 별로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고요. 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게 약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토론하는... 이렇게 싸우는 거?

면접자: 응. debate하는거?

김유희: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끼어들기가 힘들더라고요.

면접자: 미국애들끼리 말하는데 끼어들기가?

김유희: 네.

면접자: 음...그래서 그게 속상했구나.

김유희: 속상한건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면접자: 아, 그 시간이 빨리 갔음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김유희, 14세)

면접자: 그러면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였을까요?

최성영: 언어요. 계속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면접자: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바로 그래도 알아듣기는 했었고, 또 성적도 잘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어는?

최성영: 억울해요 저는.

면접자: 음, 어떤 점에서?

최성영: 그냥 한국말로 했으면 되게 쉬운 건데, 영어로 하니까 괜히 어렵고. 별로 또 토론 같은 거 하거든요. 저 한국말로 하면 막 다 이길 수 있는데, 영어로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면접자: 음, 바로 내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최성영: 네.

면접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최성영: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깐. 아직 아직, 여기서 있으면 애기죠. 애기들 말 잘 못하잖아요. (최성영, 18세)

대학 타운이라는 로렐 지역의 특성상 거주 한인들의 대부분은 대학을 다니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며 따라서 학령기 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거주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살럿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기유학생 가정을 비롯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인 가정들은 로렐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공립학교가 있는 학군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 특정 학군 지역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시작하여 미국 체류기간이 상당히 긴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은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편하게 여기게 되어 학교에서나 방과 후 집 근처에서 한국 학생들끼리 만날 시에도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물론 이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미국에 갓 도착한 한국 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경우에는 한국어를 잠시 쓰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반면에, 한국에서 초등학교의 대부분을 보내고 미국으로 온 학생들이나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한지 2~3년 쯤에 들어선 학생들은 교회나 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머니나 한국인 가디언을 두었기 때문에 집에서의 어른들과의 대화는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즉, 상대방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수록 영어가 점점 편해지면서 의사소통의 주언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 별로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네요 그죠?

박진수: 네. 제가 이제는 영어가 더 편하죠.

면접자: 영어가 편해요 이제?

박진수: 네.

면접자: 생각할 때 한국말로 생각해요, 아니면 영어로?

박진수: 반반 섞어서. 한국어를 쓴 적이 많이 오래 되가지고, 그 한국어를 잘 못하고 이제는 쓰는 것도 잘 못하는 편이고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데. (박진수, 18세)

면접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 입장에서는 한국말하고, 영어 중에서 어느 게 더 편해?

박성수: 영어요.

면접자: 영어로?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 할 때도, 생각이 이제는 영어로 먼저 되는 거니?

박성수: 네(웃음). 습관인 것 같아요. (박성수, 13세)

언어 다음으로 미국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친구 사귀기로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인 6명이 언급하였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던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장벽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대학 타운의 특성상, 직업상 이동하는 가정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써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다니는 학생집단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오게 된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이미 형성된 놀이 그룹에 끼어 들기가 어려웠다. 조기유학생들이 겪은 교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이들의 교우관계를 분석하면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다른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로렐 지역의 조기 유학생들은 거주 환경(본인의 가정이나 현지 거주 가정)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 환경의 불안정성을 토로한 유일한 사례인 최성영 학생은 로렐이 아닌 다른 대도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대도시에서 공립학교를 1년을 다녔던 최성영 학생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거주했던 홈스테이 가정에서 힘든 생활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경우는 홈스테이 가정의 가디언 중 한사람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일부 흑인에 대해 편견

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 두 번째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주하면서 성영이는 별 탈 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표 V-31> 학교, 친구관계, 방과 후의 주요 사용 언어

장소와 상황	사용 언어	사례수
학교	한국어	0
	영어	10
	둘다	0
친구관계	한국어	0
	영어	4
	둘다	6
방과후(집)	한국어	5
	영어	0
	둘다	5

초기 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렐 지역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이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경험들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성,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본인의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는 것, 수업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생님들, 공부 외에 스포츠나 클럽 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교과 내용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배운다는 점 등을 꼽았다. 미국 교육의 좋은 점을 지희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모든 애들한테 다 기회를 주는 거...(예를 들면) 음, 오케스트라는 한국은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잘 하건, 못 하건, 다 그냥 들어오니깐. ... 못하는 애들이 좀 걸리적 거리긴 하는데, 아, presentation을 많이 하니깐 애들이 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 오니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일단은 때리는 게 없고. 그리고, 음, 학생들이랑 미국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말다툼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면접자 질문 중간에 생략) (박주희, 14세)

면접자: 그러면 미국교육이 어떤 점에서 좋은 거 같아요?

박진수: 선택의 자유 그게 억수로 좋다고 봐야죠. 듣기 싫어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듣고, 듣고 싶은건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술이나 체육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암기성 과목이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학생의 자질을 갖다가 improve할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체육을 하면은 뭐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워야 되고, 미술하면은 무슨, 무슨 파의 뭐가 무슨 작가가 뭘 만들었고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미술, 미국서는 미술하면은 뭐 진짜로 drawing하고 도자기 만들고 painting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에 비해....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면접자: 한국에서는 미술이든 체육이든 여전히.

박진수: 뭘 외워야 돼요.

면접자: 공부해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그런 성분이 큰데.

박진수: 그래 가지고 그럼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아니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외워봤자 다 까먹을건데 왜 하는거지 이렇게. (박진수, 18세)

반면에, 미국 학교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든지 학생 스스로가 나서서 참여해야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으며 미국의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관심이 적어 보인다는 점, 세계 역사와 같은 과목에서는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결여된 점 등을 들었다.

면접자: 만약에 미국 교육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나쁜 점? 아 이건 좀 정말 한국이 나..

박진수: 보면서 느낀 점이 그 미국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 관심이 적다,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중략) 뭐 counseling에서 만날 때도 학생들이 결정해야지 뭐 부모님이 결정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가 좀 대표적이고.

면접자: Counselor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가요?

박진수: 네. Counselor랑. 그래서 제가 좀 consult를 좀 많이 했었죠. 제가 동생 schedule에 대해서 advise를 할려고 하더라고 동생이 원하는 거냐 이래 물어보고. 좀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킬려고 하는 반면에 여기는 뭐 못하면 니 잘못이고 잘하면 잘한 거고. 도와달라면 도와줄게 이런거. 안 도와달라면 도움 안 받는 거고. 자기가 아주 개개인이 initiative가 있어야 되요.

박진수: 뭐 여기서는 그래도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반면에 몇몇 과목은 required라 해가지고 역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시스템은 뭐, 미국, 일단 미국이다 보니까 World history나 그런 걸 배울 때도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배우는 편인 거 같은데요.

면접자: 그럴 때 약간 속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박진수: 네. 속상하죠. 뭐 한국은 뭐 한 페이지도 안돼요.

면접자: 아 정말?

박진수: 한 페이지도 안되고 반 페이지? 근데 일본은 한 세 페이지 되고, 중국 세 페이지.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머고? 게다가 한국도 뭐 1960년대 사진을 탁 갖다놓고 노동한다거나 이런 거나. 장난치나? (박진수, 18세)

로렐 지역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은 초기에는 자신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성적이 하위권에서 출발하지만, 1년에서 2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전반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한국에 비해 적은 양의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았다. 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제일 좋아하며 자신 있는 과목으로 꼽은 반면 역사나 사회를 제일 자신 없고 싫어하는 과

목으로 여겼다. 한 가지 모순된 점은 연구 참여 학생 중 8명이 다니는 공립학교들은 모두 인디애나 주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시험의 통과율이 90%가 넘는 소위 명문 공립학교들이었는데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다른 미국 학생들이 공부를 그다지 안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2학년이면서 아직 어느 AP 수업을 듣지 않는 성영이의 경우 자신의 학급에서 일등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미국 성적을 상위 5%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러면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 설문지에도 있다.

최성영: 한국?

면접자: 한국, 어 미국 두 개 다 얘기해도 되요.

최성영: 상위권 상위였는데요, 어. 막 잘 하지는 않았어요.

면접자: 한국에서?

최성영: 네, 한국에서.

면접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최성영: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잘 하더라고요.

면접자: 많이 잘 한다고(웃음)?

최성영: 아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반에서 일등하고.

면접자: 아 정말요?

최성영: 네. 애들 공부 안 하니까. (최성영, 18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던 로렐 학군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은 관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별도로 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단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honors와 AP 수업들이 개설되어 능력별 반 편성을 하고 있었다.

<표 V-32> 한국과 미국의 학업성적 비교

번호	이름	한국 학업성적	미국 학업성적
1	김상수	하	최상
2	김유희	상	중상
3	김민희	상	중상
4	김현수	상	최상
5	박성수	중상	최상
6	박지영	최상	상
7	박진수	중상	최상
8	박지희	중	중상
9	유진영	중	상
10	최성영	상	본인은 최상으로 인식/중상 정도로 보아야 적절

연구 참여자 중 고등학교 과정 후반에 있는 학생은 위에 인용된 성영이와 다른 남학생 1명이었으며 그 남학생의 경우에는 AP과목들을 여러 개 수강 하였으나 그 과목들 일부에서 B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AP수업을 듣는 학생의 비율은 약 40% 이상인 점, 그리고 AP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표준화 검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두 학생의 학교 성적 자체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아래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 분야가 매우 강하고 그 이외의 분야(영어, 문학, 사회과 등)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교육과정이 두드러지게 발달한 학교 환경에서 한인 조기유학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 과목을 중시하게 되면서 그 과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학교 성적 전반을 상향

평가하고 자신의 성적이 미국에 온 후 더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 부모들의 직업 역시 이공계 교수직이나 연구직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참여 학생의 대부분이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분야에 장래 종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배경 요인이다. 즉, 로렐 지역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그 교과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학교성적 전반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4) 미국학교에서의 교우관계

대학촌이라는 로렐 지역의 특성상 한인사회가 작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한인 중·고등학생들이 한 공립학교에 집중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는 소수이나마 다른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학교와 방과후에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며 어울리는 1차 집단과 마음을 터놓지는 못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2차 집단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서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위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집단으로 다른 한인 학생들과 더 가깝게 지낸다고 응답한 조기유학생들이 전체의 반인 5명이었던 반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나 혹은 미국인 백인 학생들이 1차 집단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나머지 반을 차지하였다. 1차 집단이 한인학생인 경우들은 주로 한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과 교류를 통해 다른 한인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미국에 조기유학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다. 이들은 아직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렵고 혹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2차 집단으로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동양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언어 소통의 불편함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서 이들의 자세 또한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한인 친구를

1차 집단으로 그리고 중국인 친구를 2차 집단으로 기술한 유희는 유럽계 외국인이나 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좀 서먹하고 힘들다고 보았다.

<표 V-33> 로렐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교우 집단 분포

학교유형	번호	이름	1차 집단	2차집단
	1	김상수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동양계 급우
	2	김민희	한국 조기유학생	동양계 급우 미국인 급우
	3	김유희	한국 조기유학생	미국인 급우
	4	김현수	한국 교회친구(조기유학생) 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5	박성수	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공립	6	박지영	미국인 급우 동양계 급우	미국인 급우 동양계 급우
	7	박진수	미국인 급우	미국인 급우
	8	박지희	미국인 급우 동양계 급우	미국인 급우
	9	유진영	한국교회 친구(조기유학생)	미국인 급우
	10	최성영*	유럽계 교환학생, 동양계 급우 홈스테이 가정 자녀인 같은 학년의 급우	미국인 급우

\*캘리포니아의 한 대도시의 공립학교를 다녔을 때의 교우관계를 나타냄

김유희: 어. 우선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애가 먼저 말 걸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또 8학년 때 새로 사귀 친구는요. 과학시간에 같은 반이었는데 맨날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친구가 됐어요.

면접자: 일부러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겠다고 이렇게 먼저 다가선 적도 있니?

김유희: 아니요.

면접자: 그런건 없고?

김유희: 한국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다가가요. (중략) 우선 한국애들은 요, 되게 쉬워요 사귀기가. 쉽고 우선 외국에 있으니까 서로 공감하는게 많고. 또 미국애들은요, 어떤걸 해야지 좋아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략) 우선은 미국인들 앞에서는요 무슨 얘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면접자: 아직 막막하구나.) 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마땅히 없어요. (김유희, 14세)

한편, 1차와 2차 집단 모두 외국인 학생이거나 미국 백인 학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학년 내에 한인 학생이 워낙 소수여서 다른 한인 학생을 만날 기회가 자주 없으므로 결국 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 부모와 학생 본인도 백인 학생들을 사귀기를 선호하는 경우였다. 셋째는 기존에 미리 와 있던 한인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식이 있거나 새로 온 학생으로서 더 잘 해야겠다는 공부에 대한 경쟁의식 역시 작용한 경우였다. 반대로 이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는 한국학생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서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하므로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운동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어울리기 보다는 컴퓨터 게임을 몰입하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2차 집단에서 외국인 학생이나 미국 백인 학생을 기술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다른 중소도시인 살롱 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드러냈다.

면접자: 그럼 미국에 와서 사귀 친구들 좀 얘기 해줄래? 어떤 친구들 사귀었니?

박지영: 운(동), 그, 지난번에 테니스랑 이제 댄스 팀 운동하면서 사귀 친구들도 막 운동하면서 친해지고. 또 막 sportsmanship 이런 것도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클럽활동 그런데서 좀 알게 되거나 아니면 막 친구를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사귀게 되고.

면접자: 혹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다른 인종들,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 그런 애들 있니?

박지영: 음. (중략) 음, 아 Thailand에서 온 애 한 명 있는데, 그런데 애는 원래 부터 Thailand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해요. 막 중국 에 인도, 막 아니면 혼혈. 그런 애들도 있고. 그냥 백인 애들. 그런 애들. (박지영, 15세)

박진수: 뭐 친구들 하면은 좀..... 글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두 부류가 있었는데. Elite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애들하고. 막 이렇게 아주 개방적인 애들하고 제가 많이 사귀는 편이고. 그래 가지고 미국 애들이 라도 전부 다 새로운 걸 try out 하기를 억수로 좋아하고 그런 애들을 많이 사귀는 편인데. 말하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 반갑다 이렇게 하는 애들하고 많이 사귀는 편. (중략)

면접자: 그럼 다른 인종이나 국적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박진수: 친구들 중에서요? 네. 많죠. 저는 한국인들하고 그렇게 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William HS에 있는 (한국) 애들 자체가 한국인들하고 사귀기를 좀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면접자: 아, 잠깐만. 거기에 다니는 한국학생이 한국인들 사귀기를 꺼려한다?

박진수: 네. 다른 한국인들끼리.

면접자: 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박진수: 글썄요. 부모님들이 일단 미국 왔으니까 미국 애들을 많이 사귀어라 이러니까 이런 영향도 있는거 같고요. 또 몇몇 애들은 그 여자애들은 괜찮은데 남자애들은 좀 깔보고 뭐 새로 왔다 하면 깔보고 그렇죠. 텃새가 있죠. 특히 서울에서 안 왔다 하면은 촌에서 왔다 이러면서 그렇죠. (중략) (한국 친구들이) 처음에야 뭐 도움이 되는 편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좀 일단 자라나면은. (박진수, 18세)

김상수: 저는 이상한 게요. 한국 애들이랑 미국에서 친해지기가 싫어요. (중략)

면접자: 어, 그 이유가 뭘까? 한국 애들이 싫은 이유가?

김상수: 어, 게임만 하고요.

면접자: 아, 컴퓨터 게임? 오락 같은거?

김상수: 그런 것도 싫고, 그냥 좀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김상수, 15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초기의 적응 기간에는 이미 조기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ESL학생들이나 동양계 학생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립 학교를 다녔던 최성영 학생도 적응 초기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유럽계 학생과 영어가 서툴었던 중국계 학생과 교우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학 기간이 길수록 언어 소통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면 교우 관계에서 1차 집단의 학생들이 한국학생 외의 백인이거나 외국인 학생들로 바뀌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교우관계가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다른 인종의 학생들로 확장 혹은 전이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 학생들 역시 미국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귀는 문제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10명의 참여 학생 모두가 학교나 학교 밖에서의 교우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교우 관계의 깊이는 한국에서 이들이 지냈던 교우관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상적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던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장벽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대학타운의 특성상 직업상 이동하는 가정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써 본 연구에 참여한 한인조기유학생들의 다니는 공립학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다니는 미국인 학생들의 집단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오게 된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이미 형성된 놀이 그룹에 끼어들기가 어려웠다.

면접자: 그럼 그 당시 그 어려웠던 점이 영어말고도 다른 것도 있었나요?

박진수: 뭐 친구 없고 좀 외롭죠. 거기 미국 애들은 전부 다 kindergarten 때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애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잘 지낸 거, 많이 같이 놀러 댕기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냥 거의 꼽사리. (박진수, 18세)

면접자: 그럼 다른 인종의 애들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사귄 때 좀 힘든 점도 있어?

유진영: 힘든 점이요?

면접자: 문화적인 것 때문이라든가.

유진영: 저는 문화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좀 언어 같은 것도, 또.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인종 애들은 그런 액센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못 사귀게 되고 사귀고 싶어도... 그런데 미국 애들 사귀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자: 백인 애들?

유진영: 네, 백인 애들. 백인 애들이 이제 조금 더 그 뭐지, 인기 있는 쪽이었던데요. 대개 막 운동하고 그런 애들이었던데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랑 알게 된 게 되게 오래 걸렸었죠.

면접자: 아 알게 되기까지가?

유진영: 걔네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좀.

면접자: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쪽 같이 커 온 애들끼리 결국 계속 같이 가더라.

유진영: 네, 계속 커 가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못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왕따 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잘 해주기는 해요 되게. 그런데 더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건 없어요. (유진영, 16세)

또 한 가지 로렐 지역이 대학 타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상당수 거주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도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즉 같은 백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유럽 지역에서 왔으며 동양권이나 남미 등에서 온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이런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문화적인 다양성에 노출되면서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을 사귄 때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 그런 친구들 사귀는 때 나랑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나 틀린 점이 있어? 사귀는데 있어서?

박지영: 음, 막 애들끼리 안 맞다 그런 건 느낀 적 없는데 서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조심하고.

면접자: 어, 조심하는 편이구나. 어떤 점 조심하는데? 한국 문화를 얘기 할 때는?

박지영: 한국의 문화요?

면접자: 응, 만약에.

박지영: 그냥. 아무래도 (한국이) 소수 민족이다 보니깐, 막 너무 막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면접자: 아, 맞아.) 너무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둘 다 장단점 이렇게 말해줘요. (박지영, 15세)

#### (5)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렐 지역은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본 연구 참여 학생의 대부분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동양계 학생들의 수가 백인 다음으로 많았으며 동시에 동양계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지 않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 조기유학생들 역시 노골적인 인종차별 현상을 경험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학생들 중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한국인이기 때문에(혹은 한국 특정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나 급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경험을 한 학생의 수는 모두 7명이었는데 그 중 두 경우만이 직접적인 언어적 혹은 제도적 폭력이 가해진 양상을 보였으며 나머지 다섯 학생의 경우는 좀 덜 직접적이고 우회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인종차별 경험현상은 살롱 공립학교 학생들의 것과 유사한 양상이면서도 다소 우회적인 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34> 로렐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인종 차별 경험 분포

학교 유형	번호	이름	인종차별 경험	현재의 상태
	1	김상수	직접경험: 한국식 점심 도시락을 아이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버렸음.	학교 활동으로 김밥을 싸갔을 때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음.
	2	김민희	직접경험: 초기 영어를 못하니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걸 차별이라 느꼈음 간접경험: 엄마를 통해 다른 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음	학교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음. 마음이 통하는 한국학생들과 더 친하게 지냄
	3	김유희	직접 경험: 아시아나 한국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지적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싫었음	학교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음. 마음이 통하는 한국학생들과 더 친하게 지냄
	4	김현수	직접 경험: Spanish 선생님이 Hispanic 학생들만 좋아했던 것 같음	친구들과 함께 해당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함
공립	5	박성수	직접 경험은 없었음	누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믿을 수 있음
	6	박지영	직접 경험: 잘나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우월감이 있는 것 같음	정색을 하고 쳐다보면 다른 학생들도 조심함
	7	박진수	직접경험: 초기 영어를 못해 불공평한 대우 (근신처분)를 받은 적이 있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열심히 함.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학생과 친함
	8	박주희	직접 경험: 선생님들이 아시안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활발해지고 성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함
	9	유진영	간접 경험: 엄마를 통해 LA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들은 적 있음	아무 문제 없음
	10	최성영	직접 경험은 없었음	아시안은 공부를 잘한다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 7개 중 5개의 사례가 교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살롯의 인종 차별 경험이 대부분 학교 밖(학교 버스)에서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데 반하여 로렐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안의 교사들에게서 미묘하고도 우회적인 인종 차별 경험을 하는 사

례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 타운의 특성상 노골적으로 언어적, 외모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차별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부모들 역시 진보적인 대학 문화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자녀들이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도록 교육을 시켰거나 최소한 노골적인 인종 차별로 간주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 학생들의 정체성 성립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집단적 혹은 문화적 우월감 등이 확연히 표출되어 한인 학생들이 인종차별의 확실한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은 드물었다.

그러나 반대로 로렐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소원한 편이었고 따라서 교사들로부터 따뜻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반이나 되었다. 이러한 미국 교사들의 무관심과 몰이해, 그리고 서먹한 관계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더구나 교사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한인 학생들은 이러한 미국 교사들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박진수: 옛날에 뭐 흑인 애들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흑인 애가 백팩(backpack)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제가 맞았거든요. 맞아가지고 제가 대항한다고 도로 집어던졌는데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저만 detention 맞고 선생님한테 영어를 못해가지고, explain을 못해 가지고 저만 detention 받고 개는 안 받고. 다른 흑인애는 안 받으니까 억수로 열 받죠.

면접자: 그걸 주변에서 친구들이, 봤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설명을 해줬다던가?

박진수: 아니. 설명을 해줬는데 선생님은 제가 본거, 자기가 본 거는 제가 던지는 걸 봤다고 증거가 안 된다면서 저만 벌주고. 그 후로 그 선생 억수로 싫어했죠 제가 뭐.

면접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항의하거나?

박진수: 그 당시에는 뭐 제가 detention 해가지고 억수로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거 뿐이래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넘어  
갔죠 저야 뭐. (박진수, 18세)

김민희: 선생님은.... 4학년 때 선생님은 너무 그... 영어 못하니까 너무 난.. 숙제  
가 없어서. 차별을..

면접자: 숙제를 도리어 안내주시고.

김민희: 네.

면접자: 거기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김민희: 네.

면접자: 민희는 그게 차별이라고 느꼈구나, 맞니?

김민희: 네. (김민희, 12세)

아, 일단은 선생님들은 자기 반에, 그런 동양 사람이 있으면, 그 동양 사람이 발  
표를 아예 안 하거나 되게 조용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영어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저의 집에 사는 언니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말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저 사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그 언니 어렸을 때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영어  
못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네. (박주희, 14세)

김현수: 음. 제 Spanish 선생님이 인종 차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면접자: 정말?

김현수: 네. 그러니까 자기 인종들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Mexican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만 좋아하고, 백인 뭐 동양 애들 다 싫어한 것 같아요.

면접자: 정말?

김현수: 아니 그런데 제 친구들. 백인 친구들도 다 그러거든요.

면접자: 어, 걔네 들이 인종 차별 당했다고?

김현수: 걔네 들 다 알아요. 인종 차별하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 막 욕하면서. 그  
냥 그런 재미도 있고. 네. (김현수, 16세)

실제적으로 이들 참여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 학교는 교육 통계상으

로도 동양계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소수인종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오직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들만을 보호해야 할 소수 인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환경 속에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종차별과 같은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면접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걸 당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어? 성수가 그 동양인이고, Asian이고 그래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든가.

박성수: 아니요.

면접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박성수: 네.

면접자: 혹시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있어? 친구가 이제 차별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차별 당했다던가?

박성수: 음, 여기는 그렇게 자주 없는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면접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면은?

박성수: 네. 별로 안 나는데,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Believe 할 수 있다고.

면접자: 아 일어 났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고?

박성수: 네. (박성수, 13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기유학 학생들은 이러한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의 경험, 혹은 부정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싸주신 전통적인 한국 점심도시락을 반 급우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버렸다는 김상수 학생도 나중에 반 행사를 위해 김밥을 준비해 갔을 때는 인기가 많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일들을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학생이 먼저 던진 가방을 되던지다가 자신만 근신을 당한 진수의 경우도 그 근신 내용이 그냥 혼자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 뿐” “별거 아니” 라는 태도를 보였다. 직접 기억할 만한 인종 차별 경험을 갖지 않은 학생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 역시 미

국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한국인이나 아시아 계 학생에 대해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 일정한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여러가지 선입견이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점은 다른 지역에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조기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던 모두가 친절한 학교, 특히 교사가 매우 친절 한 학교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상반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닐지라도 한인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해 인종 차별적인 느낌을 유발시키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조기유학생도 어떻게 맞대응할 수가 없었지만 다른 학생으로부터 유사한 경험에는 간혹 맞대응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인종 차별을 겪은 적은 없다고 한 지영이는 소위 “잘나가는” 미국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하려 들면 정색을 하고 쳐다보는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그런데 막,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는데 미국 애들도 약간씩 이렇게... 막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애들도 막 중 고등학교 올라오고 또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은근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면접자: 아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제?

박지영: 착한 애들은 그런 거 없는데 좀 막, 자기가 막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애들.

면접자: 아, 그런, 약간 좀 우울감 같은 거겠네? 개네들이?

박지영: 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럼 그런 느낌 들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 그냥 내버려 둬?

박지영: 아니에요.

면접자: 그러면?

박지영: 그냥 눈빛으로 정색하면, 막 쫓던데 (웃음). (중략) 위 아래로 막 훑어 보다가 이렇게 막 정색하면서 이렇게 눈 돌리니까 막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던데요. (박지영, 15세)

## (6) 조기유학 동안 성격과 정체성의 변화

미국에서의 조기유학 생활동안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성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학교에 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발표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발표력과 대인 관계가 적극적이고 좋아졌다고 한 참여자(박지희)도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많이 떠들고 활동적이었지만 미국에 와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좀 더 소심해지고 말이 적어지는 등 과묵한 성격으로 변했다는 학생(김민희, 김유희)도 있었다. 이들은 또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친구 사귀는 것에 그다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도 보여주었다.

면접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학교에서는 유희는 어떤 학생인거 같애?

김유희: 조용한 학생.

면접자: 정말? 지금 이렇게 활발한데?

김유희: 한국어로 하니까.

면접자: 아, 한국어로 하니까. 그럼 영어로 이제 생활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조용한 학생으로 보여질 거 같애?

김유희: 네. 조용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문화가 다르니까. 어떤 말을 하면 그게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선 아닌데. 그런 게 또 조심해야 되고.

면접자: 조심스러워?

김유희: 네. (김유희, 14세)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랑 더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 동생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고, 반면에 캘리포니아로 교환학생으로 왔던 최성영 학생은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한국보다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부여하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으면서 시야가 넓어

졌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게 되었다는 박진수 학생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면접자: 미국에 온 이후로 유희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거 같애?

김유희: 어. 우선은 못된 성격이 없어졌어요. 많이 못된 성격이 줄어들고....

면접자: 못된 성격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는데?

김유희: 그냥 사람들에게 가족한테 말을 안 걸고. 그리고 물어보면 짜증내고.

면접자: 아, 짜증을 많이 냈었구나. 그런 못된 성격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애?

김유희: 네. (중략) 아, 한국에서요. 제가 저희 동생을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다고 자기는. 그리고 말도 안 걸어 주고 되게 못되게 굴었다고 짜증만 내고. 그런데 미국 와서는 맨날 나한테 붙고, 동생한테 붙고 막 그런다고, 귀찮다고 그래서 지금은 더 (친해요). (김유희, 14세)

면접자: 혹시 가족들이나 오래된 한국 친구들이 성영이를 보고서, 이제 미국생활을 경험한 성영이를 보고서 너 달라졌다고...

최성영: 다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면접자: 어떤 면이 다 달라졌대?

최성영: 되게 성숙해졌대요. (최성영, 18세)

면접자: 자 그럼 미국에 온 이후에 진수학생이 달라진 점이 생겼다면 어떤 점일까요? 한국에선 이랬는데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박진수: 한국에서는 뭐 개방적이지 않고 좀 편협된 생각을 했었다고 봐야죠 비교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길 좀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아, 이건, 저것도 있네 하면서 좀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박진수, 18세)

전체 10명의 참여 학생 중 8명의 조기유학생들이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선택하였다.

<표 V-35> 인디애나 주 대학 타운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국가	사례수 (N)
한국인	8
한국계 미국인	2
미결정	0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의한 김유희 학생은 다른 사람은 한국말을 쓸 줄 알아도 영어만 쓰지만 본인은 한국말을 고집하는 한국인이라고 하였으며 한국 교회에 다니며 여전히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는 유진영 학생도 본인을 한국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중 국적을 가진 김현수 학생의 경우 역시 본인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미국에 살지만 올림픽 등을 한다면 한국을 응원할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2명의 참여자는 이제는 사고방식도 한국식과 맞지 않으며, 미국에 더 가깝고, 미국에서의 삶이 본인의 성격과 생각 등에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본인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둘 중 한 사람은 이중 국적자였지만 다른 하나는 한국국적만을 지닌 학생으로 한국학교에서 부적응한 후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온 경우였다.

면접자: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은 어디에 속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 미국인 중에서?

박진수: 각 나라에 지냈던 년 수로 따지자면 뭐 한국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글썽요. 그, 성격상으로 보면 미국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봐야죠. 좀 더 positive한 걸 많이 심어줬고, 그래서 뭐 저야 뭐 반반이라고 보죠. 애초에 미국국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낼 때는 난 한국인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응? 많이 고민 많이 했죠. 그것도.

면접자: 고민 많이 했어요?

박진수: 좀. 그러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Korean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Korean-American이라고 부르죠.

면접자: 본인 스스로 Korean-America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진수: 때때로는 그냥 American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귀찮을 때. 설명하기 귀찮거나 그러면. 미국 국적 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박진수, 18세)

면접자: 그러면 상수는 그러면 본인을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아니면 어떻게 본인을 정의 할 수 있을까? 국적은 한국 사람이잖아, 그지?

김상수: 네.

면접자: 그런데 본인은 어디에 가까워?

김상수: 어..... 저는 어, 맨날 엄마 아빠도 맨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게, 좀 말하기 쑥스러운 편이고요. 뭐 미국인이라고 하고는 싶지만, 뭐 엄마 아빠도 한국인이고, 미국 그냥 와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깐 몸이랑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마음이랑 그런 거는 미국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15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그리고 희망 거주지를 물어본 결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 희망지와 미래의 거주지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의 대부분인 9명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장기 조기유학을 하고 있었으며, 영어의 향상을 목표로 2년 계획으로 체류 중인 박지희 학생만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표 V -36> 로렐 지역 연구 참여자들의 향후 진학 및 거주 희망지

	향후 대학 진학 희망지(N)	향후 거주 희망지(N)
미국	9	5
한국	1	3
한국이나 미국 아직 미결정	0	2

한편으로는 인디애나 주 대학타운에서의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인 8명이 비록 정체성으로는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거주지에 대해서는 미국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5명으로 참여학생수의 반을 차지하였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두 학생, 김현수와 박진수 학생 모두 미국에서의 거주를 희망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한국에서 교육의 적응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김상수 학생도 미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의 대학진학이 목표인 최성영 학생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거주할지 아직은 모른다는 답변을 주었고, 언니랑 같이 동반 유학을 온 유진영 학생도 미래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다.

#### (7) 다문화적 이해도, 시민성 발달, 사회경제문화 자본의 영향

##### ① 다문화적 이해도 분석

로렐 지역은 대학 타운으로서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자들의 수가 많아서 지역 사회 전체가 상당히 다문화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도 외국인 학생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재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나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거의 일상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요건 때문에 로렐 지역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중’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학교에서나 그 외의 환경에서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이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시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는 등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로렐 지역의 참여자들은 또 노골적이지 않은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반경을 넘어서서 일어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인종차별 현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여 영

어만 한다면 인종에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한 학생과,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문화적 이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표 V-37>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

다문화적 이해도	특징	사례수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사회내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다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li> <li>-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li> <li>- 타집단의 문화와 특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li> </ul>	5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이나 선입견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li> <li>-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 그리고 다민족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li> <li>- 다문화적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타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li> </ul>	3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인식한 적이 거의 없고 미국 사회내의 인종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주로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여 미국사회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li> <li>- 외모 등으로 타인종/민족 집단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li> </ul>	2

로렐의 조기유학생들은 학교 환경 상 여러 인종의 친구를 가진 경우가 많아 다른 문화나 인종의 친구를 사귀었을 때의 좋은 점을 쉽게 지적하였다. 이들은 다른 문화적 인종적 환경에서 온 학생들을 통해 “그 쪽의 culture”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은 또한 상대방과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느낄 때는 그런 차이를 생각하며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이랑 미국이랑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조심하고” 특히 “joke할 때도 좀 조심하는 편”이었다.

면접자: 그럼 그런 다른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박지영: 음.....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막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애께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면접자: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애?

박지영: 네.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면접자: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 교육에 있어서 좋은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

김상수: 어, 다문화라고 그러나요? 다른 나라 cultures. 네. 그게 한국에서 좀 그리웠어요.

면접자: 아,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 줄 수 있겠니?

김상수: 음, 한국 학교 들어가면요, 외국인 보면은 신기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인 보면요 그냥 그렇구나 이리잖아요. 그런 게 좀 좋고요. 또 막 미국인의 문화랑, 한국인의 문화, 중국인의 문화, 이렇게 다 합쳐서 그래 사니까 좀. 어..... 그냥 뭔가 말 할 수 없는 느낌이야... (웃음). (김상수, 15세)

## ② 시민성 분석

로렐 지역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류애에 근거한 정체성을 지녔거나 인류애에 바탕을 둔 미래를 생각하는 초국가적 시민성을 개발한 학생은 없었으며 대신 세계를 이해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 경우가 2명, 그리고 나머지 8명 모두는 개인적 신자유시민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로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다문화적 환경 조건이나 학생들의 높은 다문화이해도, 그리고 준수한 학업 성적에 비해서 세계 시민성의 발전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가정들 내에서 제공되는 문화적·사회적 자본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곧 로렐 지역의 학생들이 가치 중심적인 정체성을 계발하고 그에 의거해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끌지는 않았다.

다른 소도시 샬롯과 마찬가지로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을 다른 인종의 학생들과 교류가 빈번한데다가 소수 인종으로서 학교 내 권력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수주의적 시민성을 가진 학생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8> 로렐 지역 연구 참여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시민성 성향

시민성 형태	사례수
초국가적 시민	0
국제이해 시민	2
국수주의적 시민	0
개인적 신자유주의 시민	8

국제이해 시민으로 분석된 두 학생들은 모두 초기 미국 학교 적응 과정에서 미국 교사나 동료 학생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목격한 학생들이었다. 성수는 초기 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다른 미국 친구에게 신체적인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는 소수 인종의 학생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현수 역시 자신의 초기 학교 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으며 게다가 특정 학생집단을 선호하는 교사를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두 학생은 현재는 미국 학교에서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잘 적응하여 무리 없이 지내고는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공고해진 사례이다. 동시에 이 두 학생은 미국 혹은 외국 학생과의 교류가 매우 많아 다문화적 이해도 역시 높은 상태로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을 고루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 학교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인종 차별의 경험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묶이면서 현수는 이중 국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장래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면접자: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이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현수가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수는 본인이 어떤 국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떤 인증? 뭐라 그러지? 한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아니면.

김현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죠.

면접자: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 음. 그렇구나.

김현수: 주로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뭘 때 미국 국기 달고 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저는요 만약에 간다면, 한국 국기를 달 거예요. (김현수, 16세)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국가 정체성이나 시민성을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혹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참여 학생들 가운데 가장 학업 성적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진수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면접자: 그러면 본인은 어디에 속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 미국인 중에서?

박진수: 각 나라에 지냈던 년 수로 따지자면 뭐 한국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글썽해요. 그 성격상으로 보면 미국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봐야죠. 좀 더 positive한 걸 많이 심어줬고, 그래서 뭐 저야 뭐 반반이라고 보죠. 애초에 미국국적이 있어도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낼 때는 난 한국인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응? 많이 고민 많이 했죠 그것도.

면접자: 고민 많이 했어요?

박진수: 좀. 그래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Korean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Korean-American이라고 부르죠.

면접자: 본인 스스로 Korean-America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진수: 때때로는 그냥 American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귀찮을 때. 설명하기 귀찮거나 그러면. 미국 국적 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면접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박진수: 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군대 갔다 와야 되지 한국국적 포기한다고... 포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귀찮죠 역수로. 지금입장에서는.

면접자: 고민도 되겠다 그렇죠?

박진수: 네. 뭐 저야 뭐 국방의 의무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야 뭐 한국 안 들어가면 할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막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 중학교에서나 그런 거에서 교육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군대가기 싫죠.

면접자: 게다가 두려운...

박진수: 게다가 좀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은 저희 career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 편이고 그래 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년 동안 그게 많이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지기 때문에. 좀 그 시간내기가 힘들죠. (박진수, 18세)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이 지닌 국가 정체성 역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국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 국적을 지닌 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이 강한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한국 국적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단기 거주 비자나 혹은 학생 비자로 있는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올 때는 “그 한국에 있었던 기억을 (중략) 그 까먹는 게 저는 낫겠다고 생각”하는 상수는 자신이 “몸이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마음 이랑 그런 거는 미국인”이 되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상수는 본인을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아니면 어떻게 본인을 정의 할 수 있을까? 국적은 한국 사람이잖아, 그지?

김상수: 네.

면접자: 그런데 본인은 어디에 가까워?

김상수: 어..... 저는 어 맨날 엄마 아빠도 맨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게 좀 말하기 썩스러운 편이고요. 뭐 미국인이라고 하고는 싶지만 뭐 엄마 아빠도 한국인이고 미국 그냥 와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랑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마음이랑 그런 거는 미국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15세)

### ③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로렐 지역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경제 자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부모들의 직업이 교수직 혹은 연구직 종사자이거나 교사, 간호사와 같은 중간 수준의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 중중으로 간주되었다. 조기유학생들의 가정적 배경이 좀 더 다양한 편인 대도시에 비하면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한국의 교육받은 중산층이라는 가정적 배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조기유학생 가정들의 주 수입원이 한국에서 봉급생활자인 아버지이고 어머니들이 미국 대학에서 학생비자를 얻음으로써 자녀들을 학비가 따로 들지 않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전략도 이러한 가정 경제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이 중상이나 중하로 분류된 경우가 소수 있지만 이들 가정 역시 나머지 가정들과의 간극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적 자본 면에서는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에 있는 중상층 가정 출신 조기유학 학생들에 비해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 가정들은 사회 문화적 자본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 학위를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위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대학 사회와 연결된 고리를 통해 미국 학교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인 면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렐 지역의 학생들은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적극적이고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와 성당 그리고 기타 각종 모임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상당히 개입을 하는 편이었다. 특히 초기 적응기에는 모두가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수업 내용과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과목별이나 분야별로 전문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자녀의 공부에 뒷받침을 하고 있었

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여름 방학 동안 한국으로 들어가 입시에 필요한 혹은 미국 학교에서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해 오는 등 자녀들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뒷바라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로렐 지역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으며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미래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강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는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던 샬롯 지역의 기러기 어머니들에게서는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대학 타운 중심의 선행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 가정들 사이에서도 문화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부모들 자신의 해외 경험 역시 풍부한 편이고 따라서 자신들 내에 언어적·문화적 자본을 이미 상당히 쌓아 놓은 경우들이었다. 즉, 미국에서 학위를 한 아버지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살았기에 이미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어머니, 이미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나 자매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다시 조기유학이라는 형태로 10세 이후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다지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부모가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학생의 학업이나 생활을 전혀 감독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시 미국이 처음이고 게다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민희나 유희의 경우, 그리고 교환 학생으로 나와서 호스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 결국 친척집에 기거하게 된 성영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미국 학교생활에서 다른 조기유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의 다문화적 이해도나 언어 적응도 역시 낮은 것으로 보였다.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유희의 답변은 이들이 겪은 순탄하지 않았던 미국 학교에서의 적응과정을 반증해주고 있었다.

면접자: 혹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김유희: 오지 말라고.

면접자: 오지 말라고? 왜?

김유희: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재미없고, 근데 공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그냥 힘들거라고 약간. 한국 그 자리가 가장 좋다고.

면접자: 어, 그렇게 얘기 해 주고 싶어?

김유희: 네. (김유희, 14세)

로렐 지역의 대부분의 조기유학 가정들은 한국 사회와 미국의 대학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형태의 사회자본과 부모의 해외 유학이나 거주 경험에서 발생한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조기유학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 자본의 수혜를 입기는 했지만 이들 조기유학생 가정들이 로렐이라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온 후에 형성하는 사회자본은 주로 한국 교회나 지역의 한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보였다. 즉, 이들은 한인 공동체 안에 존재하거나 한국 사회 안에서 쌓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그 반대로 로렐이라는 지역 사회나 학교로 직접 연결되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이들 조기유학생 가정들은 현재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사회와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갖거나 상호 공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기유학생 가정이 학교 사회나 지역 사회로부터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소 단절되어 지내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교사와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 진로지도의 행태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로렐 지역의 학생들이 다문화적 이해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나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향후 진로를 모색하지 못했던 한계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이다.

## VI. 지역간 비교 분석 결과와 주요 논의점

1. 지역에 따른 조기유학생의 다양성
2. 미국 학업 성적에 대한 자가 평가의 모순점
3. 한인사회의 영향
4. 조기유학 이후 성격의 변화
5. 언어 적응과 다문화적 소양 개발
6. 시민성
7.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 V. 결과 및 논의 점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른 미국 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조기유학 결정과정,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학교생활, 언어적 문화적 발달과 적응 과정, 그리고 현재 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사고와 시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 학교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점 혹은 동질성이 이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과 시민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네 지역은 서로 매우 다른 사회적 교육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뉴욕 지역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가장 다인종 다문화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심지역으로 한인 사회의 규모도 크며 한인 사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또한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학교에 재학하는 한인 학생의 비율도 적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미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과 어린 나이에 미국에 들어온 소위 1.5세 한인 학생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조기유학생들 간에 구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아틀란타 지역 역시 뉴욕과 유사한 대도시 지역으로 학교 환경에서 한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아직 한인 사회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역 사회에서의 한인사회의 위치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한인 학생 집단들 간의 구분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였다. 샬롯과 로렐 두 지역은 앞서 기술한 두 대도시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교육적 환경을 보여준다. 대도시와는 달리 이 두 도시의 한인 사회가 매우 작아서 학교 환경에서 한국계 미국인이든 한인 조기유학생이든 간에 한인 학생 자체가 절대 소수인 경우였다. 따라서 인종적 문화적 경계선은 주로 한인 학생들 밖에 놓여져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자연적으로 연계되는 현상까지 보였다. 결국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은 조기유학을 온 한인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성장 발달의 터전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네 지역의 양적 질적 데이터와 지역 보고서 내용을 근간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일곱 가지 관점에서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첫째, 각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의 특징과 결정 과정상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았고, 둘째는 학생들이 지닌 자신의 학업 성적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한인 사회의 성격이 조기유학생들의 적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조기유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성격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언어적응과 다문화적 소양 개발이라는 측면을 분석하였고, 여섯 번째로는 이들의 시민성 형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분석함으로써 이 세 가지 형태의 자본이 조기유학이라는 현상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미국 학교 적응과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1. 지역에 따른 조기유학생의 다양성

미국 내 사회적·교육적 조건이 서로 다른 네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을 5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에서의 학습 상황과 조기유학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 집단이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의 조기유학생 집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에서의 학업 수준이나 조기유학의 결정 동기 등에서 많은 편차 혹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으로 유명한 예술 교육기관과 명문 사립학교들이 있어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은 한국으로부터 성적이 높은 편이고 상당히 사전 준비가 된 상위 중

상층 조기유학생을 유인하기도 하는 반면 한인 사회가 크고 한인 경제가 존재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고 준비가 안 된 조기유학생들 역시 모여 있었다. 따라서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나 미국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 가정의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미국 학교나 사회 생활의 만족도 등에서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었다. 반면, 아틀란타는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하인 학생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의 성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아틀란타의 조기유학생들 중 많은 수가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사립학교 재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발급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하면서도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작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뉴욕/뉴저지 지역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조기유학을 추동한 근본적인 이유였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뉴욕/뉴저지와 아틀란타 두 대도시의 조기유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이외의 문제(특히 가정 문제)로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학업 혹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주가 되어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현상은, 소도시인 샬롯이나 대학촌인 로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한인 사회의 규모가 큰 지역으로 자녀의 조기유학의 행선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도시인 샬롯의 조기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은 없는 반면 중상에서 하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미국에 와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학업 성적을 보이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샬롯 조기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중위권 정도의 학업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이 영어 능력 습득을 통하여 향후 진학이나 취업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성적이 낮아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열망에서 조기유학을 결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 가정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 조기유학 과정에서도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상위 중산층도 드물었고 반면에 조기유학생들이 느낄 만큼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층 이하인 경우도 없었다. 조기유학 준비 과정 역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어서 비록 부모가 오랫동안 조기유학을 계획하고는 있었다 해도 실제로 학생이 조기유학을 준비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인 학생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학교 환경 속에서 언어 적응 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도시인 로렐의 경우 조기유학생들의 한국 학교 성적 분포 면에서는 샬롯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로렐 지역 역시 샬롯처럼 한국에서의 성적이 최상위권에 든 학생들은 극소수였으며 따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찾아서 조기유학을 결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샬롯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 모두 역시 학생의 학업이 주 이유가 되어 조기유학을 결정한 경우였고 가정 문제 등의 다른 이유가 개입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소도시로 조기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조기유학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인 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로렐 지역의 독특한 점은 이 지역이 대학 도시로서 조기유학생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이미 과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높은 학력의 소유자로 로렐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과 과거 또는 현재 한 시점에는 대학원생이나 방문교수, 혹은 연구원의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점은 이 가정들이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이미 조기유학의 행선지가 이전의 연고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조기유학생들의 가정에 이미 거주 지역이나 학교 환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어머니, 가까운 친척)이 조기유학 초기

에서부터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샬롯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로렐 지역의 학부모들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 사회나 학교 문화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고 거주 지역의 선정이나 자녀들의 학교 적응 과정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대학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혜영 등(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국 이미 초국적 경험을 지닌 부모들이 자신들의 과거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자녀의 조기유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구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 대학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과 그들의 가정들이 다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과는 다소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hn, 2009).

## 2. 미국 학업 성적에 대한 자가 평가의 모순점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한 가지 모순된 현상은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성적과 미국에서의 학업 성적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생들이 미국에 온 후 자신들의 성적이 매우 올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면접 결과 역시 학생들이 그러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잘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미국 학교 내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능력별 반 편성 제도와 그러한 반편성에 대한 정보를 하급반에 배정된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과 공유하지 않는 미국의 독특한 학교 문화 때문이었다. 이미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주지과목의 경우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급에 배정되어 공부하는 것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수업들이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지 파악하지 않는 한 자신의 학업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미국 학교 제도에서 많은 소수 인종 학

학생들은 중간 이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에 배정되면서 정해진 반 안에서 급우들과의 상대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교육 연구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Lim, 2008). 미국 학교에 들어온 한국 조기유학생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처음에는 대개 중간이나 그 이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들에 배정된다. 미국의 학점 제도는 자신들이 배정된 반에서 숙제들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대부분 좋은 학점(A)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인 조기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급에서 받는 학점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학업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상위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조기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미국의 교육과정의 전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업 성취도를 과대평가하였다. 다양한 수준의 능력별 반 편성을 하고 있는 소위 좋은 학군의 대형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조기유학생들은 일단 낮은 반에 편성된 경우 더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상위 반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나 현지 보호자가 미국의 학교 환경과 교육 과정의 능력별 반 편성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언제 어느 수업을 듣는 것이 상위 교육 과정에 배정된 학생들이 걷는 정상진로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 전체가 학생의 미국 성적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최근 미국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 학력 검사로 인해 소위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들 중 상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지 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어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조기유학 학생들이 그런 수업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고 있었다. 상위 교육 과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은 연말에 주정부가 요구하는 해당 과목의 표준화 시험을 보아야 하고 그 결과가 각 학교 단위로 공식 집계되어 학교나 학교장, 교사의 평가 자료로 쓰이고 있다. 공립학교로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들은 대개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소위 명문 중·고등학교들이어서 이렇게 상위 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주정부가 요구하는 시험을 통

과하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따라서 높은 합격률을 중심으로 학교의 명성을 쌓은 이들 학교들은 처음부터 상위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게 되면서 학년말에 실시되는 주정부의 표준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을 상위 수업반에 등록 시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험 구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실제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단계보다 좀 더 낮은 반에 편성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들은 같은 반의 급우들보다 교과 지식적인 측면이나 학습 의욕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할 수 있다. 즉, 중간이나 중간 이하의 교육과정반에 편성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자기 반에서는 가장 잘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많고 이는 실제적으로 이들 조기유학생들이 미국의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학업 성취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도 일이년의 언어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상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주지 과목 반들에 배정되면서 미국 학교에서의 자신들의 성적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미국에 와서 수학 처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수학 이외의 과목에서는 미국의 우수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미국 학업성적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과정의 수업을 받아왔고 또 영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끼치는 수학의 경우만 학생들이 상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반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고 그 이외의 주요 과목인 영어, 사회, 과학 등에서는 상위 교육과정으로 올라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우 드물었다. 특히 언어 능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영어, 문학, 역사, 세계사 등의 과목에서는 미국 학생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반대로 한국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도 고급 교육과정의 존재를 빠르게 간파하고 그 상위 교육과정반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미국 성적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들은 한 두 과목에서(특히 수학 등 언어가 덜 필요한 과목) 상위 교육과정 반에 들어가 봄으로써, 학교가 어떤 상위 단계의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하는 미국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언제 듣는지 등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영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미국 성적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미국 학교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영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네 개 지역의 조기유학생들 간의 한 가지 공통점은 미국에 온 후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학업 성적이 중하였던 경우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싫어했던 학생들의 경우에 더 확연히 드러난다. 조기유학생들 중 미국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중간 이하의 반에 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학을 가장 싫어하고 못했던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학급 환경 안에서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부각되어 갑자기 수학을 좋아하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중간 이하의 학업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수학 교육과정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영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상위 교육과정으로 올라가는 과목 역시 수학이었다. 한인 조기유학생들 중 미국에서의 학업 성적이 향상되면서 가장 먼저 상급 교육 과정(honor class)으로 진입하는 과목 역시 수학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얻었으며 또한 자신의 학교 내에 존재하는 상위 교육과정 수업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다양한 과목을 좋아했던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는 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학 한 과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수학을 가장 좋아했던 소수 학생들은 미국에서의 수학 과목이 너무 쉽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 3. 한인사회의 영향

Kuo와 Roysicar(2004), Ying(2001), Palmera(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이민경험, 지역 환경, 학교분위기와 환경 등에 따라서 이들의 학교생활 및 경험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이들 요소들이 조기 유학생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다르게 작용하여 집단 간 경험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인 조기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전반적인 경험은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의 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한인 사회의 규모와 학교의 한인 학생수의 요인이 조기유학생들의 교육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인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학교의 이민자 및 소수민족의 비율도 높은 뉴욕과 아틀란타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한(invisible but pervasive)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인디애나의 로렐 지역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과 같은 지역은 한인사회의 규모가 작고 이민자와 다인종 집단의 인구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고 직접적인(visible and blatant)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뉴욕이나 아틀란타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한인 사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어있다. 또한 한인 2세나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며, 일선 학교에도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의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의 인구비중이 높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인종차별을 학교 내외에서 경험하기는 하지만, 주로 친구들이나 낯선 이들에게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교사나 학교 제도적 차원에서의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경우, 공립학교 전체의 이민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이들

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다문화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고 교육청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언어적 지원 및 다언어 교육과정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출신의 학생들의 사회 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어려움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교사들도 이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나 학교 제도적 차원에서의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이민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은 여전히 팽배하여 친구들에게 외모와 영어, 특히 발음과 억양 등을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학교 밖에서 낯선 이웃에게 차별적인 언행을 듣거나 경험하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틀란타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고 오히려 이들이 뭉쳐서 비교적 큰 한인 집단을 형성하여 타인종 집단이 함부로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학교 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틀란타 지역의 한인 학생들은 소수집단이면서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집단적 응집력을 형성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뉴욕과 아틀란타 지역의 학생들은 친구들에 의해서 인종 차별적인 언행을 당했을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든가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한인 사회가 존재하는 이들 지역에서는 한국 출신의 조기유학생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들 사이의 갈등 양상도 나타났다. Palmera(2007)와 Ying(2001)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 집단은 서로의 성장배경, 문화적 배경, 사용언어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각자 다른 집단인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하위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한인 2세들의 갈등관계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의 뒷받침한다. 이들은 한인 조기유학생들 속칭 FOB이라고 부르고 한인 2세들을 Twinky라고 부르며, FOB들은 영어도 못하고, 미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도 못하는 ‘이민자’들이라고 칭하고 Twinky들은 동양적 외모와 가정배경을 지녔으면

서도 자신이 미국인인양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 와중에 주류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맴도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조기유학생들과 2세들이 함께 어울리지는 않지만 크게 반목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욕/뉴저지에서 이들의 대립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차이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별로 조기유학생들의 경험이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한인 사회의 규모가 작고 인종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미국 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외국인 이민자나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와 학교 제도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어려움과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적고 지역 자체의 인종 구성도 백인 주류사회가 중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특히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인구구성 차원에서부터 자신이 소수자임을 느끼고, 친구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해서도 차별적인 발언을 듣거나 대우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이 한국인이 소수자로 인식되는 지역의 경우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한인 2세 학생들이 구분 없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를 협력자 내지는 같은 처지에 놓은 사람들로 인식하여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정착과정에서 한인 2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학교와 교회 등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인 Kuo와 Roysicar(2004)와 Ying(2001)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 조기유학생 및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Palmera(2007)의 연구는 소수의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가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인종차별 및 인종집단 내 갈등을 일반적으로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큰 표본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이들이 2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인종, 성별, 지역 등 각 개별 요소가 이들의 인종차별 및 집단 내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기유학생들의 경험을 복잡하고도 다각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 4. 조기유학 이후 성격의 변화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팽배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양계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좋고, 태도가 바르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소수인종 학생들이었다(Lee, 2009; Pang, Kiang, & Pak, 2004; Zhou & Lee, 2004). 물론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과 부모들은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성공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와 대학진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타 소수민족 집단에 비해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진학률, 경제적/사업적 성과를 보여온 부분도 있다(Woo, 1999).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좋은 학업성적을 내는 이면에 정서적 불안, 우울증,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동반하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같은 정체성의 혼돈도 수반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2009). 본 연구에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성격과 정서적인 변화 및 갈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성격 및 정서적 변화는 이들의 학업적 성취, 언어능력,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한국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미국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고, 학교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

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웠음을 표현하였는데, 미국에서 보다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수준별 학습편성, 다양한 교과외활동의 기회로 인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발표와 프로젝트 등 학습 참여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클럽을 조직하고 다른 학생들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많아서 이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기회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며 학교와 사회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Kuo와 Roysicar(2004)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길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교육방식에 높은 적응력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거주기간이 짧은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 및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길고 부모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온 후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성격이 조용해지거나 소극적으로 변한 학생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고 점수와 석차에 대한 부담이 적은 미국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성격이 차분해졌으나, 반대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상실,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눈치를 보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 학생도 있었다. 이는 Chung(1994)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기유학생들이 우울증, 편집증, 불안증세와 같은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다수 경험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과 심리적/정서적 변화와 그 원인이 조기유학생들의 거주지역, 거주형태, 학교 분위기 및 인종구성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인들이 대다수이고 영어를 못하면 생활하기 어려

은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도 따라가기가 벅차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며 언어적 장벽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언어적 문제도 존재하지만 홈스테이 가족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성격변화와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특히 친척집에서 거주하면서 이들에게서 정서적인 위안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갈등과 불만이 생기지만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지내게 되고, 따라서 혼자 지내거나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움츠러듦을 느끼지만, 한국 학생들이 많은 공립학교에 다니거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다른 한인 조기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찾고, 마음에 맞는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자신의 성격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틀란타의 도시 지역 학교들은 한인학생의 비율이 높고, 인근 홈스테이 가정에도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여 조기유학생들의 언어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존재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성적이 중하위권이고 수업시간에 조용하며 학업에 관심이 적고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있었던 아이들은 미국에 와서 교외지역의 소규모 종교계 사립학교와 같은 보호적인 환경에 있을 때 좀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 ‘체벌을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미국의 교육제도를 가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학습내용도 한국과 비교하여 훨씬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에게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낮은 학업성적을 보였던 학생들 가운데 중소도시의 공립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교외지역 사립학교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의 관심과 보호를 덜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나쁘게 변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향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학업성적별, 지역별, 거주형태별, 학교 특성 및 인구구성에 따른 조기유학생들의 성격 변화의 차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비교, 교차 분석하여 제시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독특한 현상이다. 기존의 한인 조기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특정 지역, 특히 대부분 미 중서부지역의 대학 타운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해왔으므로 이들의 교육경험 및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국 최소 5개 주(州)에 거주하는 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각 요인별 특성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조기유학생 및 아시아계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별 차이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Yeh(2003)와 Kim(1996)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이나 일본 조기유학생들에 비해서도 심각한 심리적 장애와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나타났으므로, 이들 각 지역에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특히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5. 언어 적응과 다문화적 소양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언어적응과 다문화적 이해도가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도시 조기학생들의 경우 한인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수적으로 상당수 있다 보니 생활 환경이 한인 사회나 한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로 인해 영어 능력 향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영어사용이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 도시의 경우는 한인 사회 규모가 작고 학교 내에서도 한인 학생의 숫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방과 후 가정에서 또는 주말에 한인 종교 단체에서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조기유학생들의 영어 사용이 빈번하고 실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환경의 차이는 학생들의 타인종 학생들과의 교우관계 양상에서도 잘 드러났다. 한인사회 규모가 크고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조기유학생들이 주로 한인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타인종의 학생들과 사귄 기회가 별로 없었다. 반면 중소 도시의 경우는 학교에 한인 학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타인종 학생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교우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았다.

조기유학 학생들의 언어사용과 타인종과의 교우관계는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 능력과 소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종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은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가 크게 발달되어 있고 학교에 같은 처지의 한인 학생이 상당수 있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조기유학생들이 주로 한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차집단의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타인종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적어졌고 이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타인종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반해 타인종과 일차집단의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차집단이라도 어느 정도 교류하고 지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다문화적 이해도와 소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능력과 소양은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자기 주변의 문화적·사회

적 상황을 빠르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학생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접하면서 미국의 인종관계/인종 문제 및 기타 사회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좀 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에서부터 성적이 낮았고 자신의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의 사회와 문화, 교육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폭넓고 깊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비교할 때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힘들지 않고 즐거웠던 것) 혹은 자신에게 힘들었던 점에만 집착하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의 양국의 사회, 문화, 교육제도를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이는 학생들의 다문화적 소양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제반 여건 역시 다문화적 소양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단지 사립과 공립학교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인종구성, 인종관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공립학교의 인종구성과 인종관계 또는 다문화적 특성 등이 상당히 달랐으며, 이는 사립학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즉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는 각각 학교의 인종구성, 인종간의 관계, 교육과정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와 소양 형성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학교의 특성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학교 내 한인 학생의 절대적 규모, 전체 학생 대비 한인학생의 비율, 전체 학생의 인종적 구성, 전체 학생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학교의 소수인종 또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배려와 정책, 전체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와 소양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와 소양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dler(1975)에 따르면 다문화인은 정신적 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사

고를 소유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인 양성은 점점 사회가 다양해지고 여러 인종간의 교류와 접촉이 많아지는 지구촌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와 소양은 그리 높지 않았다. 조기유학이 단지 학업과 입시대비 이외에 다문화인으로서의 소양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학교의 제도적, 문화적,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시민성

조기유학은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접하며, 자신의 나라와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반성적 관점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면서 국수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탈피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사회 부정의와 세계적 차원의 정치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 느끼고 배우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참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이는 조기유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일 뿐 자동적인 산물은 아니다(Ong, 2004; Szelenyi & Rhoades, 2007; Waters, 2006). 만일 조기유학이 Waters나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주된 목적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계급재생산이라면, 그리고 조기유학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또는 서구 선진국의 대학학위를 받아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업을 잡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공에만 중점을 둔다면 위에서 지적한 가능성들은 단지 가능성에 머물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드러난 조기유학의 세계시민성 발달에 대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전체 참가자 중에서 세계시민적 소양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은 4명으로 극소수였다.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문제와 범지구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제이해 시민 역시 전체 연구 참가자 중에서 8명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조기유학생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공과 안녕에 주로 관심을 가진 개인주의 신자유주의적 시민의 성향을 보였다. 조기유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적 소속감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체 참가자중 10명 정도는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사회이해 시민이나 초국가적 시민 형성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기유학이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부산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조기유학생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사회, 문화, 인종적 여건 등으로 인해 타인종의 학생들과 친밀한 교류가 없었고 이는 다문화적 소양 개발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같은 처지의 한인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교육제도 등 뿐만 아니라 범지구촌적인 문제와 과제에 대해 접하고 고민해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타인종과의 교류부족 뿐만 아니라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학교에서 정치, 사회, 역사 관련 수업에서 겪는 학업적 어려움 또한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세계시민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조기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영어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으며, 영어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지식과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미국 역사나 세계역사, 정치, 공민 등의 과목을 어려워하였다. 이들 미국과 세계 관련 사회과 교과목들은 세계시민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기유학생들의 고차적인 영어능력과 미국/세계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부족은 이들 교과목 수업시간에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주제와 논점을 학습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성과 관련해 지역적 차이도 주목을 끌었다. 대도시의 경우, 한인 사회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교 내 한인 학생의 숫자가 꽤 큰 경우에는 조기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자부심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수주의적 시민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는 한인 사회의 규모가 미미하고 학교 내에서의 한국 학생들의 숫자 또한 굉장히 작은 편이어서 한인 조기 유학생들이 학교의 주변인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고 이는 국수주의적 시민성을 보이는 학생이 거의 없는 양상으로 연결되었다. 즉, 학교 환경상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다른 인종과 문화에 접촉하게 되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바로 이러한 국수주의적 시민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련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학업성적 또한 세계시민성 발달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서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적 차원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문제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사회 문제와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달리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넓은 시각에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범지구촌적인 문제와 논쟁점들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개 시민의 역할 등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 성적과 세계시민성 발달 과정은 서로 자동적으로 연결된 관계라기보다는 학업 성적의 향상이 시민성발전의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시민성이 발달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었지만 반대로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 모두가 다 시민성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학업 성적이 좋더라도 도구적인 생각이 팽배하고(예,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잡아야 한다) 공동체와의 연결 고리가 미미한 학생들은 다문화적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시민성 발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7.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은 조기유학 현상에서 경제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이라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자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 58명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상위권 중산층에서부터 중간층 이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이 들 가정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일 년에 최소한 1억 정도의 경비가 드는 경우에서부터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조기유학 결정 과정에서 부모나 가정이 소유한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자본이 직간접으로 개입하면서 조기유학의 행선지나 형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는 확일 적이지 않았으며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조기유학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 학교 적응 과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문화자본의 역할이 가장 크고 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유학생을 동반한 부모나 현지 보호자가 미국 학교제도와 문화를 잘 알고 학생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었을 때 학생들이 좀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미국 학교생활에 적응하였고 따라서 학업적인 면에서나 학생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결과는 가져올 수 있었다. 문화자본이 많은 학부모들은 대부분 과거에 해외나 미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을 지닌 이들로 자녀들을 한국에서부터 철저히 준비시키거나 초기 정착과정에 가정 전체가 동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역으로 부모들 스스로가 이미 미국 사회나 교육 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호 감독 역할이 적어도 초기 과정에는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부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미 해외 경험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간주되는 사례들이었

다. 문화 자본이 많은 부모의 경우에는 미국 공립학교가 운영하는 능력별 반편성 제도 안에서 자녀의 학급 배정 상황이나 학업성적 관리,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립학교를 선정할 때 역시 교육 과정의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등의 치밀한 면을 보였다.

물론 문화자본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조기유학 가정들은 그 경제적인 자본 역시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문화자본을 소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은 같은 수준의 경제적 자본을 지녔지만 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가정에서 온 학생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국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뉴욕/뉴저지 지역의 조기유학생들과 대학 도시인 로렐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의 가정 가운데 문화 자본이 풍부한 편이며 이는 부모의 학력과 종사하는 직업(교수직이나 연구직)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이렇게 가정의 문화자본이 많으면서 경제 자본 역시 풍부한 경우에는 한인 사회나 친척 등의 사회 자본의 영향을 오히려 거부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이 동시에 풍부한 가정의 경우 자신들이 자녀의 지도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며 따라서 한인 사회나 친척을 통한 도움이나 협력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대도시 지역(특히 뉴욕/뉴저지)은 한국에서의 경제 자본이 많으나 미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이 부족한 가정들이 약한 사회 자본의 고리(학원들의 알선)를 통하여 현지 전문인을 고용할 경우 이들 현지 전문인(교사 경력을 가진 이)이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는 문화자본을 학생들에게 대신 보충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런 전문 경영인들은 과거 미국 학교 교사였던 한국계 미국인들로 상당히 높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기유학생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결과 이렇게 소위 “맞춤형 혹은 관리형 조기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친척이나 지인의 보호 아래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학교 성적이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관리형 조기유학”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문화자본이 있는 가정이나 현지 보호자의 감독 아래 있는 조기 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국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친척, 지인의 경우 등의 강한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여 조기 유학을 온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가정의 경제자본의 상하 정도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현지 적응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미국 현지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간주하였지만 이들 현지 보호자가 조기유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할 만한 문화 자본이나 시간적 여유를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친척이나 지인들이 언어적으로나 학업 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조기유학생들을 실제로 잘 지도할 수가 없었으며 조기유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끔 뒷받침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대한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야기되면서 조기유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조기유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학교제도를 잘 알고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유학생들 역시 문화적 적응이 좀 더 빨랐고 학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러 집단 중 조기유학생이 적응 상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집단 중의 하나는 기러기 가족 중 부모의 문화적·사회적 자본이 매우 약하고 특히 기본적인 언어적 능력마저 부족하여 학교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한국에서의 경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어머니의 명목상 학생 비자로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아버지가 미국에서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한국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미국 학교에서 제 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부모의 문화자본이 미미하거나 사회자본이나 경제 자본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문화자본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의 경제 자본이 상당히 있었던 가정들조차도 미국 사회와 학교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 즉, 문화적 자본은 조기유학생들이 미국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본 형태로 이의 부재는 결국 부모가(혹은 현지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도나 조언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조기유학 현상 안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자본이 획일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연구에서 지적되지 않은 중요한 결과이다. 즉 이영민과 유희연(2008)의 연구 결과는 미국 내 통용되는 문화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강남과 미국 주요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조기유학 산업이라는 사회적으로 약한 연결 고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도시의 조기유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이 만들 낸 경제자본 중심의 독특한 유형의 3자본 결합 형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다시 경제적 자본을 더 가짐으로써 문화적 자본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가정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들 간의 분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대도시에서 이루어진 조혜영 등(2007)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사회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대학촌이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강한 문화자본과 약한 사회자본이 연결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도시의 경제 자본 중심으로 구성된 관리형 조기유학 현상이나 사회자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조기유학 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중 로렐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자본의 역할은 조혜영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본 연구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그 영향을 현지의 상황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해외에 이미 나와 수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이들 조기유학 가정들이 보유한 문화적·사회적 자본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밝혔다. 즉, 한국 학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친인척, 그리고 미국의 대학촌을 연결하는 국제적 형태의 사회 자본이 미국 현지 공간에서 축적 이용되고 있는 문화자본(현지 보호자인 어머니의 언어 능력, 미국 사회나 학교에 대한 선행 지식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 VII. 정책 제안

1. 한국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안
2. 건설적인 조기유학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



## VII. 정책 제안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개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세 가지와 조기유학이라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네 가지를 구분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 1. 한국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안

#### 1) 한국 교육의 목적 재정립: 한국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강화

본 연구 결과 중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조기유학생들이나 그들의 가정이 교육 본연의 목적에 대해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한국 교육이 전체주의적인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제한해 온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교육관이 성장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개인들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개인주의적 교육관의 팽배는 결국 교육, 특히 공교육의 기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더구나 한국의 중산층 가정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시키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장차 국제 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적 역량과 세계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 등을 기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도 가치 지향적인 교육 목적이 국내 교육에서 부재한 실정은 곧 조기유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그 가정들 역시 장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교육 목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거의 없고 단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 시민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과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영달에 주로 치우치며, 한국사회를 좀 더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는 데 대한 관심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갖기 어려운 조기유학생들 사이에서 사회 과목을 비롯한 공민과목에 대한 무관심, 다문화 환경에 있으면서도 다문화적 이해가 결여되는 현상, 그리고 다문화적 이해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단계로의 시민성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 이유로 파악된다. 따라서 학업이나 기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들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의 목표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스스로의 인격적, 사회적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사회와 가정이 교육을 편협하게 개인과 가족만의 행복만을 위한 인간 활동으로 규정하고 개인이 지닌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평은 좁아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학교 체제와는 달리 사회 엘리트 교육을 공교육에서 담당하는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 지향적인 교육 목적의 정립은 일반 시민 교육의 차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의 지도성 계발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다문화 교육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 역시 점점 다원화 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외국을 나가서 다른 인종, 국가, 민족,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날로 다원화 다양화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청소년들 역시 다문화적 소양을 계발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학교들이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조기유학생들이 보여주는 다문화적 이해도는 그다지 깊지 않았다. 이들은 다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타인종 타문

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조기유학생들이 자신 있게 다른 인종과 문화의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조기유학을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민주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과 태도를 배웠더라면, 조기유학을 통해 단지 영어교육이나 대학진학 등의 목적보다 더 크고 장기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유용한 한국/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2)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배려와 수용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교육적 요구가 상당 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 사회 내에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형화된 학교 체제나 교육 과정으로는 이렇게 다양화된 학생들의 혹은 가정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교육관, 적성, 직업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육 경로의 다양화는 교육 영역만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직업 사회의 위계성을 완화하고 사회 복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성실히 할 경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 2. 건설적인 조기유학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

### 1)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확장 강화

날로 세계화되는 시대에 해외에서의 거주와 학습 경험은 다문화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기존에 있는 비영리 단체 중심의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 별로 이러한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공교육의 한 부분으로 삼아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경험을 쌓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의 열망을 제도 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확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계획과 관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국제적 인재 양성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개별학교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의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해외 교육구나 해당 학교와 사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환 학생들의 수학 기간이나 학습 범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함으로써 해외에서 학생들이 겪는 학업 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국내의 학교에서는 해외 학생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운영 재학생들의 국제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2) 해외 한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국내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조기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한국 교육과정의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인터넷이나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생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단기간에 걸쳐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해외 거주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위나 직장으로 과거에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던 학생들이 한국 교육과정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가 한국에 돌아간 후 적응을 못해 다시 미국으로 조기유학생이 되어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본의 아닌 조기유학 사례, 혹은 조기유학 장기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핵심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부모나 학생의 관심이 있으면 한국의 교육과정 핵심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최근의 온라인 교육의 발달로 말미암아 매우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재외 한국인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과정은 조기유학생을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 학생들이 흔히 겪고 있는 적응 초기의 학습 공백 기간을 줄여주거나 아예 제거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기유학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언어의 문제로 인해 처음 1~2년간은 정상적으로 미국 주지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과학이나 사회 등의 과목은 어휘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미국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내용이 수준 상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그 것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지식교육과정을 보충할 대안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생들의 주지과목 학습이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이들의 교수학습 언어로서 재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터넷이나 다른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대안적 형태의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한국 핵심교육과정의 해외 보급은 공민 교육의 주가 되는 국어와 사회 과목에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 두 과목은 해외 조기유학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쌓고 한국과의 공동체적 연

계성을 갖게 함으로써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 3) 해외 한국 학교의 총체적인 개혁과 국내 학생 파견 학교로서의 활용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지면서 현재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상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현재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한국 학교의 교육 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을 한국국제학교로 전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세계에 퍼진 한국 국제 학교들이 해외 학교 경험을 열망하는 한국 거주 학생들에게 첫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 학교망을 통해서 장래 우리나라가 필요한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적 안목, 올바른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교육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렇게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들을 재구성, 적극 활용하는 것은 또 오직 영어 중심의 세계화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이고 다양한 언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능력을 지닌 한국인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물론 국제학교로서의 위상과 내용을 갖추기 위해 해외 한국 학교의 교육 과정은 기존의 한국 핵심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서 앞장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성을 복돋우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해외 조기유학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적인 이해와 홍보 촉진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해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동시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 가정이나 개인 학생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미국의 학교나 교육제도

는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고 그 문화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에 서구문화나 학교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부모나 보호자가 조기유학중인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한국 사회에 비하여 미국 사회는 이미 사회 계층이 상당히 고정화된 편이고 따라서 교육 영역 역시 계층재생산적인 편이 더욱 공고한 편이다. 이는 곧 이미 미국 사회와 학교 문화를 잘 아는 집단만이 기존의 학교 제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한인 조기유학생 연구들이 한결같이 소위 한국에서 규정하는 조기유학의 성공사례들의 대부분은 이미 부모들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렇지 않은 중간층 조기유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자체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상류층의 조기유학은 실제적으로 직업 교육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띠는 반면 중산층, 혹은 중간층의 조기유학은 전문직으로의 안착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직업적 목표를 갖고 시작한 무리한 조기유학은 개인과 가정에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대도시나 소도시를 막론하고 조기유학생들의 언어 습득 과정과 교과목 학습 과정이 모두 순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언어 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으로 보여지는 공립학교 재학 중인 소도시의 조기학생들은(샬럿, 로렐) 학교에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을 자주 경험하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도심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강한 소속집단이 형성되면서 인종차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대신 언어적 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명하였지만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학습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국 사회와 학교 현실 속에서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들에 대해 학부형들을 상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해

와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기유학을 자기 발전의 유용한 기회로 만들어 낸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조기유학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위험 분석을 끝낸 후 결정을 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조기유학 경험을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 VIII. 참고문헌



## VIII. 참고문헌

- 강만철(2008).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 호주 브리즈번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1), 15-27.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 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양희, 장은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 김혜순(2009). 해외 귀국 청소년과 해외 유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21, 78-108.
- 박영숙, 박광배, 최상진, Antony Marsella, 김주한(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1(2), 97-139.
- 손준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안병철(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4, 423-468.
- 오욱환(2008).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조기유학의 복합적 기능과 역기능**. 서울: 교육과학사.
- 이기홍(2006). 미국으로의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 열망. **사회과학연구**, 44, 105-122.
- 이영민, 유희연(2008). 조기유학을 통해 본 교육이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상징자본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2), 75-89.
- 임재훈(2005). 한국 교육개발원 (2005). **조기 유학: 국민 의식과 실태**. 2005 26차 KEDI 교육 정책 포럼.
- 정재욱, 주은선(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 연구-질적 분석을 통한 귀국 중학생들의 경험 파악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 치료**, 15(2), 329-351.
- 조명덕(2000). **조기 유학 붐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상과 인식**, 겨울호, 135-152.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2.
- 조혜영, 최원기, 이경상, Nancy Abelma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 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미국 소도시 유학생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15-143.
- 천세영, 박소화(2008). 초국적교육; Post-nationality의 관점에서 본 조기 유학. **인문학연구**, 74, 329-351.
- 최양숙(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 아빠**. 한국학술정보.
- 최양숙(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최진숙(2007). 초등단계에 영어 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청소년학 연구**, 14(4), 115~143,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교육개발원(2005). **조기 유학: 국민 의식과 실태**. 2005 26차 KEDI 교육 정책 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6). **2005 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통계자료 SM 2009-09). 서울: 교육개발원.
-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Adler, P. S.(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 of culture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 13-23.
- Ahn, K.(2009). *South Korean transnational mothers: Familism, cultural criticism and education project*. Ph. 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An, S.(2009). *U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deas and perspectives on US education, US society, and US hist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Atkinson, D., Morten, G., & Sue, D. W.(1979).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Dubuque, IO: Brown and Benchmark.
- Atkinson, D. R. Morten, G. & Sue, D.W.(Eds.)(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 cultural perspective(5th ed.)*. Boston, MA: McGraw Hill Company.
- Ball, S.(1993). Education markets, choice and social class: the market as a class strategy in the UK and the US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4, 3-19.
- Ball, S.(2003). *Class strategies and the education market: The middle classes and social advantage*. London: Routledge Falmer.
- Ball, S., Bowe, R., & Gerwitz, S.(1995). Circuits of schooling: A sociological exploration of parental choice of school in social-class contexts. *Sociological Review*, 43, 52-78.
-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96). *The state nobility: Elite schools in the field of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own, P.(1990). The 'Third wave' : Education and the ideology of parentocr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1, 65- 85.

- Brown, P.(1995). Cultur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Some observations on recent trends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he labour marke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9, 29-51.
- Carlson, D.(1997). *Being a global nomad: The pros and cons*. Available at: <http://worldweave.com/procon.htm>(accessed November 15, 2009).
- Charmas, K.(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
- Chung, C. L. E.(1994). *An investigati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accompanied Taiwanese minors/parachute ki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 Chung, K.(2008). *Korean English fever in the US: Temporary migrant parents' evolving beliefs about normal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natural language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
- Cottrell, A. B.(1999). *Personal manifestations of childhood border crossings: Identity and personal traits of adult TCKs*. Paper presented at Phi Beta Delta 1999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 Cross, W. E.(1971). The Negro to Black conversion experience: Towards a psychology of Black liberation. *Black World*, 20, 13-27.
- Cross, W. E.(1978). The Thomas and Cross models of psychological nigrescen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5, 13-31
- Cross, J. E.(1991). *Shades of black: Diversity in African American ident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Ezzy, D.(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Fail, H., Thompson, J., & Walker, G.(2004). Belonging, identify, and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3(3), 319–338.
- Fordham, S., & Ogbu, J. U.(1986). Black students' school success: Coping with the "burden of acting White." *The Urban Review*, 18(3), 176–206.
- Fry, R.(2007). Perspective shifts and a theoretical model relating to kaigaishijo and kikokushijo, or third culture kids in a Japanese contex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 131–150.
- Goodman, R.(1990). *Japan's International Youth: The emergence of a new class of schoolchildre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sieh, P.(2008). *Taiwanese parachute kids: A retrospective qualitative exploration of adult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unaccompanied min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
- Huang, S. & Yeoh, B.(2005).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China's study mother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5 (4), 379–400.
- Kim, B.-L. C.(1996). Korean families. In M. McGoldrick, J. Giordano, & J. K. Pearce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2nd ed.) (pp. 281-294).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J.(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kirogi) children in Singapore, in Bruce Fuller and Emily Hannum (ed.) *Globalization, Changing*

- Demographics, and Educational Challenges in East Asia*, 271–311.
- Kim, J.(1981). *The process of Asian–American identity development: A study of Japanese American women's perceptions of their struggle to achieve positive identit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Kuo, B. C. H., & Roysircar, G.(200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for Chinese adolescents in Canada: Age of arrival, length of stay, social class, and English reading abilit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 143-154.
- Kuo, B. C. H., & Roysircar, G.(2006). An exploratory study of cross-cultural adaptation of adolescent Taiwanese unaccompanied sojourn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2), 159-183.
- Lee, D.(2010). A study of the life and culture of young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5(2), 78–85.
- Lee, S.(1996). *Unraveling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ee, S.(2009). *Unraveling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Listening to Asian American youth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im, J. H.(2008). The road not taken: Two African–American girls' experiences with school mathematics. *Race and Ethnicity in Education*, 11(3), 303–317.
- Logan, J., Alba, R. & Zhang, Z.(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itchell, K.(2003). Educating the national citizen in neoliberal times: from the multicultural self to the strategic cosmopolita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 (4), 387-403.
- Myers, J.(2006). Rethinking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the U.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4(3), 370-394.
- Ogbu, J. U.(1992).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21(8), 5-14.
- Omi, M. & Winant, H.(199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outledge.
- Ong, A. (2004). Higher learning: Educational availability and flexible citizenship in a global space. In J. A. Banks (Ed.)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pp. 49-70).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 Palmer, J. D.(2007). Who is the authentic Korean American? Korean-born Kore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negotiations of ascribed and achieved identitie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6(4), 277-298.
- Pang, V., Kiang, P., & Pak, Y.(2004). Asian Pacific American students: Changing a biased educational system. In J. A. Banks, J. and C.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pp. 542-566).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k, G. C.(2010). Becoming a “model minority” :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enactment of American identity for Korean immigrant students. *Urban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springerlink.com/>

content/583u21p626m74w25/

- Park, J.(2007). *Korean parents in 'English fever' and their 'early study-abroa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ental beliefs and practices concerning first language peers*.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
- Park, R. E.(1928).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881-93
- Park, S., & Bae, S.(2009). Language ideologies in educational migration: Korean jogi yuhak families in Singapore. *Linguistics and Education*, 20(4), 366-377.
- Parker, W. C.(2008). International education: What' s in a name? *Phi Delta Kappan*, 90(3), 196-202.
- Pearce, R.(1998) Developing cultural identity, in M. Hayden and J. Thompson (eds) *International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pp. 44-62). London: Kogan Page.
- Pe-Pua, R., Mitchell, C., Iredale, C., & Castles, C.(1996) *Astronaut families and parachute children: The cycle of migration between Hong Kong and Australia*. Centre for Multi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Wollongong.
- Pollock, D. C. & Van Reken, P. E.(2009).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Bost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 Popadiuk, N. E.(2009). Unaccompanied Asian secondary students studying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1(4), 229-243.
- Pope, R. & Reynolds, A.(1997). Student affairs core competencies: Integrating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 266-277.
- Portes, A. & Rumbaut, R.(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 Zhou, M.(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30, 74–96.
- Ro, J. M.(2010). Identities of young Korean English Language learners at school: Imposed or achieved? *The Reading Matrix*, 10(1), 1–14.
- Schaetti, B.(1996). Phoenix rising: A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C. Smith(ed.) *Strangers at Home: Essays on the effects of living overseas and coming 'home' to a strange land* (pp. 177–88). New York: Aletheia
- Schilling, J.(2008). *Living in the astronaut family: Adult children's experiences in the Chinese transnational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
- Smith, C. D.(1991). *The absentee American: Repatriates' perspectives on America and its place in the contemporary world*. Putnam Valley: Aletheia Publications.
- Song, J.(2010).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in transnational space: Globalization, migration, and bilingualism among Korean familie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 (1), 23–42.
- Sirowy, L. & Inkeles, A.(1985).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s: The U.S. role in global perspective. In E. G. Barber.(ed.). *Foreign Student Flows: Their Significance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Szelenyi, K. & Rhoads, R.(2007). Citizenship in a global context: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the

- United Stat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1 (1), 25-47.
- Tatum, B. D.(2003). *Why are all black kids sitting together in the cafeteria?: And other conversation about race*. Basic Books: New York.
- Tyler, K. M., Uqdah, A. L., Dillihunt, M. L., Beatty-Hazelbaker, R., Conner, T. Gadson, N., et al.(2008). Cultural discontinuity: Toward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a major hypothesis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37(5), 280-297.
- Useem, J.(1963). The community of man: a study in the third culture. *Centennial Review*, 7, 481-98.
- Waters, J.(2002). Flexible families? ‘Astronaut’ households and the experiences of lone mothers in Vancouver, British Columbia,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3(2), 117 - 134.
- Waters, J.(2003). Flexible citizens? Transnationalism and citizenship amongst economic immigrants in Vancouver. *The Canadian Geographer/ Le Geographe Canadien*, 47 (3), 219 - 234.
- Waters, J.(2005). Transnational family strategies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aspora. *Global Networks*, 5(4), 359 - 378.
- Waters, J.(2006). Geographies of cultural capital: Educ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y strategies between Hong Kong and Canad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 179 - 192.
- Yeh, C. J.(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s,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 Yeh, C. J., Ma, P., Madan-Bahel, A., Hunter, C. D., Jung, S., Kim,

- A. B., Akitaya, K., & Sasaki, K.(2005). The cultural negotiations of Korean immigrant you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3(2), 172–182.
- Yeoh, B., Huang, S., & Lam, T.(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5(4), 307–315.
- Ying, Y.(2001). Migration and cultural orienta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psychoanalytic theory in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3(4), 409–430.
- Zheng, X., & Berry, J. W.(1991).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nese sojourn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 451–470.
- Zhou, M.(1998). "Parachute kids" in Southern California: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Chinese children in transnational families. *Educational Policy*, 12, 682–704.
- Zhou, M.(2001). Straddling different worlds: The acculturation of Vietnamese refugee children. In R. G. Rumbaut & A. Portes (Eds.),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pp. 187–227).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Zhou, M. & Lee, J.(2004). Introduction: The making of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among Asian American youth. In J. Lee & M. Zhou.(Eds.). *Asian American youth: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New York: Routhledge.



## 부 록

1. 한인 조기 유학생 연구 설문지
2. 면담조사자 명단
3. 한인 조기유학생 연구 인터뷰 질문 목록
4.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한인 조기유학 학생의 미국 사회적응과 성장발달에 대한 연구
5. 학생동의서: 한인 조기유학 학생의 미국 사회적응과 성장발달에 대한 연구
6. Final Code List: Korean Early Study Abroad Students Research(최종 질적 분석 코드 목록)



## 1. 한인 조기 유학생 연구 설문지

\*\* 학생 본인에 대하여:

1. 이름 :(한국어)\_\_\_\_\_ (영어)\_\_\_\_\_
2. 성별 \_\_\_\_\_
3. 나이 \_\_\_\_\_
4. 현재 학년 (Spring, 2010)\_\_\_\_\_
5. 학교이름\_\_\_\_\_
6. 한국에서 마친 최종 학년과 학기\_\_\_\_\_
7. 미국에서 시작한 학년 \_\_\_\_\_ (년도)\_\_\_\_\_

\*\* 한국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하여:

8. 아버지의 직업\_\_\_\_\_
9. 어머니의 직업\_\_\_\_\_
10. 한국에서 살았던 지역/도시\_\_\_\_\_
11. 현재 미국에서 함께 사는 보호자는? (circle one)

부모님 두 분	어머니	아버지
손위 형제나 자매(18살 이상)		가까운 친척(3촌 이내)
먼 친척(4촌이상)		법정후견인/가디언
호스트가정(Host family)		아무도 없음

12.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학생들 (해당되는 것에 다 공표하세요)

나의 형제나 자매 뿐임	나의 사촌이나 친척 아이들
다른 한국 유학생들	가디언 자녀들

\*\* 미국에 오게 된 경로

13. 미국 입국 시기 \_\_\_\_\_(월/년도) \_\_\_\_\_(도시)  
14. 미국 내 최초 거주 도시 \_\_\_\_\_(도시이름) in \_\_\_\_\_(주)  
15. 미국 내 두 번째 거주 도시 \_\_\_\_\_(도시이름) in \_\_\_\_\_(주)

\*\* 현재 다니는 미국 학교에 대하여

16. 학교 종류 (circle one)

공립학교                      공립 차터학교                      사립학교

17. 학교 지역(Circle one)

도심지역(city/urban)      교외지역(Suburban)      농촌지역(rural)

18. 학교 규모 (Circle one)

2,000 이상      1,000~2,000      500~1,000      500 미만

19. 학생의 인종 분포 (대강의 비율을 쓰세요)

백인 \_\_\_\_\_ 흑인 \_\_\_\_\_ 히스패닉(Hispanic) \_\_\_\_\_ 동양계 \_\_\_\_\_

20. 현재 미국 학교 내 한국 학생의 비율 \_\_\_\_\_%

\*\* 과거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

21. 한국 학교에서 나의 성적은?

최상 5%    상위5~10%    상위10~25%    25~50%    50~75%    하위 25%

22. 한국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보낸 시간이 즐겁고 좋았어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23. 한국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들이 좋았어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24.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낸 시간이 즐겁고 좋았어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25.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이 즐거웠어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 현재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

26. 현재 미국 학교에서 나의 성적은?

최상 5%    상위5~10%    상위10~25%    25~50%    50~75%    하위 25%

27. 현재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좋아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28. 현재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좋아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29. 현재 미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좋아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30. 현재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호스트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요

1----- 2----- 3----- 4----- 5

정말 동의해요      모르겠어요/그저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 2. 면담조사자 명단

별첨 자료 F: 뉴욕 뉴저지 연구 참가자

번호	이름 (가명)	나이	성별	학년	학교형태	비자	거주기간	거주형태	미국 거주지	한국 거주지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사회경제적지위	조기유학 주요원인
1	구현빈	15	남	8	사립	F1	4년	홈스테이 (관리형)	뉴저지	서울	건축설계사	교사	중중	보다 나은 교육
2	김보람	13	남	7	공립	H4	3년	기러기가족	뉴욕	인천	사업	교사	중상	예술교육 동반
3	김소은	16	여	9	공립	영주권	7년	기러기가족	뉴욕	수도권	회사원	약사	중하	가정문제 (사업)
4	김수정	17	여	11	공립	H4	4년	기러기가족	뉴욕	인천	사업	교사	중상	예술교육
5	김승현	14	여	8	사립	F1	8년	기러기가족	뉴저지	부산	사업	주부	중상	예술교육 동반
6	김승환	17	남	10	사립	F1	8년	기러기가족	뉴저지	부산	사업	주부	중상	예술교육 동반
7	김철준	15	남	8	사립	F1	1년	홈스테이 (관리형)	뉴저지	수도권	대학교수	주부	중상	학업적 도피
8	김하늘	16	여	11	공립	H4	3년	기러기가족	뉴욕	인천	사업	교사	중상	예술교육동반
9	백정은	17	여	11	사립	영주권	5년	기러기가족	뉴욕	서울	사업	성악가	중상	가정문제 (부모이혼)
10	유연아	15	여	10	사립	F1	2년	홈스테이 (관리형)	뉴욕	서울	치과의사	주부	중상	학업적 도피
11	이강산	18	남	11	사립	F1	4년	기러기가족	뉴욕	서울	영화제작자	주부	중중	가정문제 (사업)
12	이용규	17	남	11	공립	F1	3년	기러기가족	뉴욕	인천	음악가	교사	중중	가정문제 (부모이혼)

13	이윤호	19	남	12	사립	F1	7년	홈스테이 (친척)	뉴저지	수도권	사업	주부	중상	가정문제 (가정불화)
14	장호연	14	여	8	사립	F1	1년	홈스테이 (관리형)	뉴저지	서울	사업	사회복지사	중중	학업적 도피
15	최성훈	18	남	11	사립	F2	4년	기러기가족	뉴욕	수도권	사업	주부	중상	보다 나은 교육
16	최한나	18	여	11	공립	F2	6년	기러기가족	뉴저지	서울	사업	주부	중상	보다 나은 교육
17	함유리	18	여	11	사립	F1	10년	홈스테이 (친척)	뉴욕	수도권	사업	주부	중상	보다 나은 교육
18	홍윤수	18	남	10	사립	F1	4년	기러기가족	뉴욕	서울	학생	미용사	중하	보다 나은 교육

별첨 자료: 아틀란타 (조지아) 연구 참가자

번호	이름 (가명)	나이	성별	학년	학교형태	비자	거주기간	거주형태	미국 거주지	한국 거주지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조기유학 주요원인
1	김정민	19	남	11	사립	F1	3	홈스테이	아틀란타	수도권	모름	보험설계사	중하	학업적 도피
2	김중수	16	남	9	사립	F1	2	홈스테이	아틀란타	서울	회사원	회사원	중중	학업적 도피
3	김수만	17	남	11	공립	영주권	2	홈스테이 (입양가족)	아틀란타	서울	건축설계사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4	백혜수	15	여	10	공립	F2	2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약사	주부	중중	학업적 도피, 형제자매 대학진학
5	김주리	18	여	11	공립	영주권	5	홈스테이 (입양가족)	아틀란타	서울	사업	사업	중중	보다 나은 교육
6	박혜진	18	여	11	공립	시민권	4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회사원	사업	중중	보다 나은 교육

7	엄소라	18	여	10	사립	F1	3	홈스테이	아틀란타	수도권	학교행정실장	교사	중하	보다 나은 교육
8	이준호	17	남	11	공립	영주권	5	홈스테이	아틀란타	서울	회사원	사업	중중	보다 나은 교육
9	이은찬	16	남	8	공립	H4	1년 미만	주재원가족	아틀란타	서울	공무원	주부	중중	영어
10	구동우	12	남	6	공립	F2	3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회사원	주부	중하	영어
11	김보람	13	여	7	공립	F2	3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회사원	피아노교사	중중	영어
12	이예빈	18	여	11	사립	F1	5	홈스테이	아틀란타	서울	건축설계사	사업	중중	미술교육
13	황수동	15	남	9	사립	F1	3	홈스테이 (친척)	아틀란타	부산	사업	주부	중하	가정문제 (부모이혼)
14	엄효리	16	여	10	사립	F1	3	홈스테이	아틀란타	수도권	학교행정실장	교사	중하	보다 나은 교육
15	이지연	14	여	6	공립	F2	1년 미만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사업	주부	중중	영어, 학업적 도피, 보다 나은 교육
16	김민	15	여	8	공립	F2	5	기러기가족	아틀란타	서울	교수	대학원생	중중	가정문제 (고부갈등, 부부갈등)

별첨 자료: 샬롯 (노스 캐롤라이나) 연구 참가자

번호	이름 (가명)	나이	성별	학년	학교형태	비자	거주기간	거주형태	미국 거주지	한국 거주지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사회경제적지위	조기유학 주요원인
1	이세란	15	여	8	사립	F1	1	친척	샬롯	서울	사업	주부	중하	친구영향/미국교육에 대한 동경
2	강예진	14	여	9	사립	F1	1	친척	샬롯	서울	회사원	주부	중하	학업적 도피
3	윤대인	15	남	9	공립	F2	1.5	어머니	샬롯	서울	회사원	주부	중중	비학업적 도피
4	윤대훈	11	남	6	공립	F2	1.5	어머니	샬롯	서울	회사원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5	박혜영	12	여	6	사립	J2	1	부모님	샬롯	대전	교수	교사	중중	보다 나은 교육
6	유태준	12	남	7	사립	F1	1	법적가디언	샬롯	지방 소도시	교사	교사	중중	보다 나은 교육
7	이수연	17	여	12	공립	시민권	3	법적가디언	샬롯	부산	교수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8	민정윤	11	여	6	사립	F1	1	법적가디언	샬롯	대구	의사	약사	중상	친구영향/미국교육에 대한 동경
9	이윤빈	14	남	8	공립	H4	3.5	부모님	샬롯	수도권	회사원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10	이윤아	13	여	7	공립	H4	3.5	부모님	샬롯	수도권	회사원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11	이승철	18	남	12	사립	F1	6	법적가디언	샬롯	서울	회사원	주부	상중	학업적 도피
12	이승관	15	남	9	사립	F1	2	법적가디언	샬롯	서울	회사원	주부	중상	학업적 도피
13	이우형	18	남	11	공립	영주권	3.5	친척	샬롯	수도권	회사원	회사원	중하	보다 나은 교육
14	이우진	14	남	8	공립	영주권	3.5	친척	샬롯	수도권	회사원	회사원	중하	학업적 도피

별첨 자료: 로렐 (인디애나) 연구 참가자

번호	이름 (가명)	나이	성별	학년	학교형태	비자	거주 기간 (년)	거주 형태	미국 거주지	한국 거주지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조기유학 주요원인
1	김상수	15	남	8	공립	E2	6	어머니	로렐	수도권	이공계 연구원	간호사	중중	한국에서의 부적응, 보다 나은 교육
2	김민희	12	여	6	공립	E2	2.5	어머니	로렐	수도권	무직	미용사	중중	보다 나은 교육
3	김유희	14	여	8	공립	E2	2.5	어머니	로렐	수도권	무직	미용사	중중	보다 나은 교육
4	김현수	16	남	9	공립	시민권	3	어머니	로렐	수도권	교수	주부	중중	보다 나은 교육
5	박성수	13	남	7	공립	F2	4	어머니	로렐	부산	교수	학생 (대학원)	중상	보다 나은 교육
6	박지영	15	여	9	공립	F2	2.5	어머니	로렐	부산	교수	학생 (대학원)	중상	보다 나은 교육
7	박진수	18	남	12	공립	시민권	4	어머니	로렐	부산	교수	학생 (대학원)	중상	보다 나은 교육
8	박지희	14	여	8	공립	J2	1	법적대리인	로렐	지방 도시	교수	교사	중중	영어
9	유진영	16	여	9	공립	E2	5	어머니	로렐	서울	개인 사업	학생 (대학원)	중중	보다 나은 교육
10	최성영	18	여	11	공립	F1	1	친척 (현재) 법적대리인 (과거)	로렐 (현재) 캘리포니아 (과거)	수도권	공무원	교사	중하	영어/ 보다 나은 교육

### 3. 한인 조기유학생 연구 인터뷰 질문 목록

#### 1. 기본 질문: 개인에 대한 소개

- 자신을 간단히 소개해 보세요.
-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세 개를 들어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셋을 든다면 누구일까요?
-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 가장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활동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 2. 가정에 대한 질문

- 가족(혹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 \*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부모님의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추가한다.
- 부모님께서 보통 돈을 얼마나 보내주시나요?
- 매월 어느 정도 쓰나요? 어디에 쓰나요?
- 가족 구성원 중 누가 가장 가깝나요?
-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추가한다.
- \*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오래 통화 또는 채팅을 하나요?
- 한국에서 가족들의 주중과 주말은 보통 어떤가요?
- \*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생활패턴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추가한다.
-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만일 있다면 무엇일까요?
- 왜 그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대차이 혹은 문화 차이 때문인가요?)

3. 미국으로의 출국과 최근 미국생활:

- 자신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누가 먼저 했나요?
- 미국에 가자는 (혹은 보내자는) 의견에 대해 다른 가족들과 자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 당시 미국교육의 이점에 대한 가족들과 자신의 의견은 어떠했나요?
-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부모님 또는 법적보호자)

4. 한국에서의 사회적 정체성

- 한국에 있을 때 자신은 어떤 학생(사람)이었나요?
- \* 다른 시각에서 본인의 성적수준과 적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한다. (교사, 부모님, 친구들의 시각)  
예: 선생님이 본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혹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OO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 OO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5. 한국에서의 교우관계

-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 대해 말해보세요.
- 그 때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었나요?
- 본인은 어떤 친구였다고 생각하나요?

6. 초기 미국학교에서의 생활

- 미국학교에 들어간 첫날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함)
- 그 땐 영어는 얼마큼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 당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였나요?

-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 때 어떻게 OO를 대해주었나요?

#### 7. 최근 미국학교에서의 생활

- 지금 가장 좋아하는/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지금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 지금 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나요?
- 지금, 미국교육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 미국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무어라고 생각해요?
- 미국학교와 한국학교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 8. 미국에서의 교우관계

- 미국에 와서 사귀 친구들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 친구들과 어디에서 노나요? 놀 땐 주로 무엇을 하나요?
- 다른 인종이나 국적이 다른 친구들도 있나요?
- 만약 있다면,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그 친구들과는 어디에서 노 나요?
- OO는 다른 인종인 혹은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 나요? 그 이유는?
- 만약 아니라면, 다른 인종인 친구들을 사귄 때 힘든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이 힘든가요?
- 어떤 인종의 친구들이 가장 친해지기 쉽고, 어떤 인종의 친구들이 가장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 다른 인종의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해요?
- 한국 친구들을 친해지면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9. 언어, 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요인

-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 이유는?

- 한국 미디어(TV, 드라마, 영화, 잡지 등)를 보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나요?
- 한국 미디어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 미국미디어를 보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나요?
- 미국미디어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10. 한국과의 문화적/개인적 관계

- 한국에 얼마나 자주 가나요?
- 한국에 언제 갔었나요? 가서 무엇을 했나요?
- 본인이 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국생활과 관련해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 해주나요?
-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국생활과 관련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건가요?
-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미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반대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1. 미국의 사회적/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종차별

-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지요?
- 인종이 나 국적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 OO가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 당시 OO가 그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적, 이민신분, 인종, 학력 등)

- 그 일(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그 일로 인해 생각한 점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지요?
- 그 당시 느낀 점은?
- 그래서 무엇을 했나요? (그러한 대우에 어떤 반응을 했나요?)

## 12. 투영된 사회적 정체성

- 자기와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 자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 어떤 점에서 자기와 그 사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 가장 사귀기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 사귀기 힘들었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자기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 어떤 점에서 본인과 그 사람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 13.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전환

- 미국에 온 이후 자신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가족들 또는 오래된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나요?
- OO가 미국에 온 후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가족들 또는 오래된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점이 예전과 똑같다고 말하나요?
-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동양계 미국인, 또는 미국인? 왜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 14. 장래계획

-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 부모님이 바라는 자신의 미래모습 또는 직업은 무엇이지요?

- 미국에 올 계획인 다른 한국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미국에 자녀를 보낼 계획인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터뷰에 참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4.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한인 조기유학 학생의 미국 사회적응과 성장 발달에 대한 연구



Department of Educational Leadership  
9201 University City Blvd.,  
Charlotte, NC 28223-0001  
(704) 687-8730 , [www.uncc.edu](http://www.uncc.edu)

##### 연구 제목과 목적

조기유학 한인학생의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에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이 연구는 현재 미국의 다른 문화적 사회 환경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한인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

이 연구는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 주립 대학에 조교수로 재직하는 임재훈 교수와 어거스타 대학의 안소현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정예지 두 학생 역시 연구 조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여 내용의 설명

귀하의 자녀(혹은 피보호자) 에게 짧은 설문지하나가 주어지고 연구팀원 중의 한 사람이 자녀를 두 번 만나 개인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설문지는 2장이며 첫 번째 인터뷰를 하기 바로 전이나 직후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자녀의 나이, 학년, 언제 미국에 왔는지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고 예전의 한국 학교와 지금의 미국 학교에서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문지 문항 중 자녀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면접자가 한국어나 영어 중 자녀가 더 편한 언어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하는 데는 약 10 분 정도 걸립니다.

자녀의 첫 인터뷰는 한 시간 정도, 두 번째 인터뷰는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인터뷰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택이나 가까운 공공 도서관) 두 인터뷰의 질문들은 그 동안 학생이 겪은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거나 장차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 인터뷰 모두 디지털 녹음기에 담겨져 나중에 녹취록을 만들게 됩니다. 요청하시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이 녹취록을 이메일로 받아 직접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가 끝났을 때 20 달러의 상품권이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될 90명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연구 참여 기간

자녀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약 10분 걸립니다. 첫 인터뷰는 1시간, 두 번째 인터뷰는 20-30분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가 쓰는 시간은 총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 연구 참여 시에 기대되는 위험과 혜택

본 연구는 현재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장차 국제 교육을 담당한 세계의 여러 교육학자들, 학교 행정가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져 점점 더 국제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늘어나는 외국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와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볼 기회를 가짐으로서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이나 학업 성취 방안들을  
생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상을 당할 경우에 대한 설명

만약 귀댁의 자녀가 이 연구 도중 부상을 당하면 저희 연구 팀은 자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이 그 의료  
비용을 지불하거나 귀댁이 쓰신 의료비를 보상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자발적 참여자로서의 설명

귀댁의 자녀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  
여 여부는 온전히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귀하나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중간에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  
만 둔다고 해서 아무도 귀하의 자녀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연구 참여시의 비밀 보장 설명

저희 연구팀은 귀하와 귀하 자녀의 실명이나 이 연구에 참여 사실을 절  
대 외부로 알리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 자녀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연구팀은 다음의 일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인터  
뷰의 녹취록을 만들 때 모든 실명을 제거하고 가명을 대치할 것입니다. 중  
이 설문지는 가명으로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는 즉시 말소됩니다. 귀하와  
귀하 자녀의 동의서들은 주 연구자(임재훈 교수)의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부착된 서류함에 연구 기간 동안 보관될 것입니다. 인터뷰 음성파일들은  
비밀 코드를 이용하는 컴퓨터에 연구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다가 연구 종  
료일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으로 제출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올 보  
고서는 90명 학생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담는 것으로 개인의 신  
상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은 연구 자료  
들을 내부 감사 목적을 위해 3년간 기밀 보관하며 이를 절대 외부에 유출

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연구 자료는 완전 말소됩니다. 따라서 연구 종료일 이후 연구팀이 보유하는 것은 가명이 들어간 인터뷰 녹취록과 이미 코드로 만들어진 설문지 결과뿐입니다.

#### 공정한 대우와 존중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은 귀하가 이 연구 과정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연구 도중 귀하가 받은 대우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저희 대학의 Research Compliance Office에 전화를 하여 문의 하십시오(704-687-3309). 만약 연구 자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임재훈 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704-687-8864 or jhlim@uncc.edu).

#### 참여자의 동의

나는 이 동의서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연구 자체나 내 자녀의 참여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도 주어졌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나는 18세 이상이며 내 자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에는 주 연구자가 그 서명한 동의서의 사본을 내게 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사항: 나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나의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전화번호나 이메일 연락처를 기입하세요. \_\_\_\_\_

\_\_\_\_\_  
자녀의 이름(분명하게 써 주십시오)

\_\_\_\_\_  
보호자 이름(분명하게 써 주십시오)

\_\_\_\_\_  
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주연구자 서명

\_\_\_\_\_  
날짜

5. 학생동의서: 한인 조기유학 학생의 미국 사회적응과 성장발달에 대한 연구



Department of Educational Leadership  
9201 University City Blvd.,  
Charlotte, NC 28223-0001  
(704) 687-8730 , [www.uncc.edu](http://www.uncc.edu)

미성년자 동의서

나는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재훈 박사라고 해요. 나는 안소연 박사, 최윤정, 정예지 학생들과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의 조기 유학 학생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맨 먼저 짧은 설문지를 하나 해 달라고 부탁받을 거예요. 이 설문지는 학생의 나이와 미국에 온 시기 등을 묻고 또 예전의 한국 학교와 지금의 미국 학교에서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예요. 이 설문지를 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엔 나나 혹은 우리 연구 팀원 중 한사람이 학생을 두 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거예요. 두 인터뷰 모두 다 그 동안 학생이 겪은 미국 학교생활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 또 앞으로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하

는 것이예요. 따라서 이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자유로운 질문들이예요.

이 연구에 참여하기 전이나 참여하는 중간에 학생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연구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의사예요. 참여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그만두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학생을 미워하거나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연구팀은 학생의 도움에 힘입어 현재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연구는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연구 결과들을 공유할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이나 미국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인터뷰가 끝날 때 학생은 20불짜리 작은 선물 카드를 받을 거예요.

우리 연구팀이 연구를 끝나치고 나면 연구 보고서를 쓸 거예요. 그러나 학생의 진짜 이름은 보고서에 사용되지 않아요. 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에 서명을 하세요.

---

연구참여자의 이름/서명

---

날짜

---

연구자의 이름/서명

---

날짜

6. Final Code List: Korean Early Study Abroad Students Research  
(최종 질적 분석 코드 목록)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미국 학교생활에 대한 인터뷰 질문 목록

Domain	Middle Category	Code name
Basic demographics	Age/grade School Level	SL-Elementary
		SL-Middle
		SL-High
	Years of residency	YR-Less than 1
		YR-1-3
		YR-3-5
		YR-More than 5
	Socio Economic Status	SES-Upper middle
		SES-Middle middle
		SES-Low middle
Decision to come to US	Decision Maker to come to US	DM-Student
		DM-Mother
		DM-Father
		DM-Grand parent
		DM-Relative
	Main reason to come to US	MRCU-Academic escape
		MRCU-Non-academic escape
		MRCU-Family escape
		MRCU-English
	Planning	MRCU-Arts/music Education
		PL-preplanned
Educational experience in Korea	Academic Achievement level in Korea	KAL-High
		KAL-Middle
		KAL-Low
	Peer relationship in Korea	KPR-Positive
		KPR-Negative
	Overall school experience in Korea	KOSE-Positive
		KOSE-Negative
American School experience	American school major challenge	ASMC-Language
		ASMC-Friendship
		ASMC-Cultural difference

		ASMC-Academic work
	America-Other challenges	AOC-Family separation
		AOC-Financial hardship
		AOC-Homestay problem
	Overall American school experience	AOSE-Positive
		AOSE-Negative
	Achievement level in American school	AAL-High
		AAL-Middle
		AAL-Low
Social relationships	Social clique 1	SC1-Korean
		SC1-Interracial
		SC1-None
	Social clique 2	SC2-Korean
		SC2-Interracial
		SC2-None
	Challenges in making non-Korean friends	CMNKF-Cultural difference
		CMNKF-No contact point
		CMNKF-
		CMNKF-
	Challenges in making Korean friends	CMKF-Mom' s opposition
		CMKF-Self-distancing
CMKF-pop vs. twinkies		
CMKF-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eers
		DE-School personnel
		DE-School structure
		DE-Community/local
Evaluation of two school systems	Korean School Evaluation	KSE-Positive
		KSE-Negative
	American School Evaluation	ASE-Positive
		ASE-Negative
	Exposure to Korean media (TV, Music)	EKM-high
		EKM-Low
	Close friends still in Korea	CFK-High

		CFK-Low
Identity & Future plan	Projected self	PS- KK-Korean friend in Korea
		PS-ESAS- Another ESAS in US or another country
		PS-ESL student (mostly ESL kids)
		PS-KA-Korean-American friend
		PS-MA- Other minority American friends/non ESL
		PS- Caucasian American friend/non ESL
	Identity label	ID-Korean
		ID-Korean American
		ID-Asian American
		ID-American
	Place to live in future	PLF-Korea
		PLF-America
		PLF-Somewhere else
		PLF-do not know
	Citizenship type	CT-Individual neoliberal
		CT-Nationalistic neoliberal
		CT-Globally aware citizen
		CT-Cosmopolitan citizen
Evaluation	Goal adjustment	GA-academic to non academic
		GA-Simple changes
GA-Non academic to academic		
Family Stability	FS-Stable	
	FS-Unstable	
	Cultural & social capital	CSC-high
		CSC-Middle
		CSC-Low
	Student' 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onstructive marginality & isolated	MCU-High

	marginality (multicultural competency))	MCU-Middle
		MCU-Low

\* 이 보고서에 사용된 학생이름이나 학교 명 등은 익명성보장을 위해 모두 가명이 사용되었다.



##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홍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홍식
- 10-R03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조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같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상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유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운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김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욱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분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형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타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지울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 II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93-9(93330)

ISBN 978-89-7816-891-5(세트)

